

미래 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I

- ▶ 책임연구원 :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태기(호남대학교·교수)
- ▶ 연구보조원 : 이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별 국가들의 노력 이외에 해외에 진출해 있는 동포 네트워크들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반도 통일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확대 등을 위해서 재외동포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세대교체로 인해서 한민족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고 있어서 향후 재외동포들이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요 재외동포 차세대라 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한민족의식 등을 진단하고, 미래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올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수행되어야 할 중장기적인 연구과제로 1차 년도에는 미래 인재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전체적인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2차 년도에는 주요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개발, 그리고 3차 년도에는 소외 지역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가별로 다양한 재외동포 전문가와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제안되어 재외동포청소년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가 완성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전문가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연구를 맡아 수행하신 연구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5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글로벌 시대의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인재 개발 전략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재외동포 청소년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고, 나아가서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한민족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내외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분석, 전문가 의견 분석, 재외동포 청소년 요구 분석, 정책지원 방안 마련 등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였으며, 외국 사례조사, 델파이조사, 청소년 설문조사 등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하였다. 외국 사례조사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이스라엘 등 5개국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사례를 (사)재외한인학회에 의뢰하여 조사분석하였으며, 델파이 조사는 미래 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의 의미와 정책 방향 설정, 주요 정책과제 등을 재외동포 관련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설문조사는 재외동포재단에서 공모하여 국내로 입국한 재외동포청소년 약 700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한민족정체성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을 위한 비전, 대상, 목표, 정책과제, 정책추진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비전을 거주국 사회에의 적응을 넘어서서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공동체에 기여하는 청소년 육성으로 설정하였다. 정책과제는 공통의 정책과제를 법제도 개선 방안, 정책추진체계 마련,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지원 확대, 프로그램 개발·운영 확대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41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밖에 재미동포청소년, 재중동포청소년, 재일동포청소년, 고려인 동포청소년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특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재외동포, 재외동포청소년, 글로벌, 미래 인재, 한민족, 한민족공동체, 재미동포, 재중동포, 재일동포, 고려인동포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글로벌 시대의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인재 개발 전략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 청소년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고, 나아가서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한민족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 미래 인재 및 재외동포 청소년의 개념 파악, 재외동포 청소년 및 관련 기관 현황 파악, 국내외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분석, 재외동포 청소년 조사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 청소년 조사도구 개발 및 시범조사, 미래 인재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음.

3. 연구방법

- 전문가 및 워크숍 실시, 외국 사례조사, 델파이조사, 청소년 설문조사 등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하였음. 외국 사례조사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이스라엘 등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외국 사례를 조사분석하였으며, 델파이조사는 미래 인재로서의 재외동포 청소년 개발에 대한 의미와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 주요 정책과제 등에 대하여 재외동포 관련 학자 및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 실시하였음. 청소년설문조사는 재외동포재단에서 공모하여 국내로 입국한 전 세계 재외동포 청소년(중고대학생) 약 700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한민족 정체성, 네트워크 참여 실태 등을 조사하였음.

4. 주요 결과

1) 외국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사례

(1) 미국

- 미국 정부는 재외동포 청소년의 (의무) 교육과 관련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립학교 및 폴브라이트 프로그램 지원의 주무부처가 국무부임.
- 민간단체 및 비영리 단체들이 미국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FAWCO, AARO, ACA 등의 단체들은 재외동포들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겪는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지만 다수의 단체들이 장기간 협력하여 세금, 참정권, 시민권 취득 등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공동체, 사회, 이웃의 역할을 하고 있음. 미국 정부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이 미국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중국

- 중국의 화교화인 청소년 정책이 주는 시사점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말할 수 있음. 첫 번째는 국무원 교무관공실이라는 정책 추진기구의 존재와 한화 1조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재정의 뒷받침이고, 두 번째는 중국내 37개 ‘화문교육기지’의 지정과 해외 210개 ‘화문교육시범학교’ 지정을 통해 화교화인 교육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가동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교화인 청소년 사업 추진 단체로 중국해외교류협회와 중국화문교육기금회를 설립하여 정책 기구인 국무원 교무관공실과 함께 화교화인 교육문화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한 점이라 할 수 있음.
- 화교화인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될 부분은 화문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전개되고 있는 중국과 해외를 잇는 다양한 중화문화 프로그램의 운영임. 또한 1990년대 이후 중국의 해외 우수인재 유입정책에서 화교화인 차세대 인재의 모국귀환이 추진되었고,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천인계획’ 등을 통해 해외 유학 거주자와 화교화인 차세대가 성공적으로 중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음.

(3) 일본

- 일본정부의 청소년정책은 2001년 1월 이후 새로 편성된 관계성청이 청소년에 관한 각 분야의 정책을 분담하고 내각부가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기획 및 입안, 종합 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일본정부의 일제인 및 재외방인 청소년 정책은 일본인 후손에 해당되는 일제인 지원정책보다는 일본국적자에 해당되는 재외방인 지원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 특히 일본정부는 재외방인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1978년 4월부터 동경학예대학에 해외자녀교육과 전국공동이용시설로서 ‘해외자녀교육센터’를 설치하여 2002년부터 ‘국제교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정부의 일본국내 청소년 및 재외방인 청소년 정책은 일본국내의 글로벌화와 해외거주 재외방인 청소년의 일본화(내부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음.

(4) 독일

-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중심에는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 본인 혹은 자녀 된 자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지원 정책, 즉 ‘사회통합강좌’가 자리하고 있음.
- ‘사회통합강좌’를 구성하는 ‘어학강좌’ 및 ‘오리엔테이션강좌’의 운용을 ‘괴테문화원’과 같은 민간기구가 책임지게 되는 사실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어떤 재외동포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이건 정책 내지 사업의 입안과 집행 전 과정을 전적으로 정부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움.

(5) 이스라엘

- 재외동포 관련 정부정책은 유대인의 국내이주를 돕기 위한 이민자 수용부와 해외 디아스포라를 관리하기 위한 디아스포라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재외동포 관련 민간기관으로는 세계시온주의기구(World Zionist Organization, WZO) 유대기구(Jewish Agency for Israel, JAFI), 네페쉬 베네페쉬(Nefesh B' Nefesh) 등이 있음.

-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매년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통하여 청소년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청소년의 대표적인 이스라엘 체험 프로그램은 타글릿(Taglith, Birthright) 프로그램, 니쉬(niche) 프로그램, 야브네 올라미(Yavneh Olami), 키부츠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공동체와 직업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이스라엘 테크 챌린지(Israel Tech Challenge), 글로벌 체인지 에이전트(Global Change Agents), 마콘 젊은 지도자 훈련(Machon Youth Leadership Training) 등이 있음. 또한 재외동포 유대인들의 히브리어와 대학입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나알레(Na'ale), 마사 이스라엘 프로그램(Masa), 메키나(Mechina)와 타카(Taka), 키부츠 울판, 울판 키네렛(Ulpan Kinneret), 울판 에찌온 네트워크(Ulpan Etzion Network) 등이 있으며, 상담 및 군복무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헤벤 센터(Hechven Center), 커넥트 이스라엘(Connect Israel), 가린 짜바르(Garin Tzabar) 등이 운영되고 있음.

2) 델파이조사 결과

- 재외동포청소년 공통적인 현재 이슈는 차세대 민족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 등이었음. 국가별로는 재미동포청소년의 최대의 현재 이슈는 주류사회 진출이었고, 재중동포청소년은 민족정체성 유지, 재일동포청소년은 혐한류 등 재일외국인 배외주의 극복, 그리고 고려인동포청소년은 한국 유학 및 연수 기회로 나타났음.
- 재외동포청소년의 미래 이슈는 공통적으로 한민족교육의 확대, 한민족 정체성 강화, 모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주류사회 진출 등임. 국가별로는 재미동포청소년의 경우에 모국과 거주국에서의 조화로운 역할과 가치관 정립이 최대 이슈이고, 중국과 일본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한민족 정체성 유지가, 그리고 고려인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과의 교류기회 확대가 가장 큰 미래 이슈가 될 것으로 나타났음.
- 재외동포청소년의 미래의 인재상은 세계시민의식과 글로벌 경쟁력, 갈등해결과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책임의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인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음. 하지만 거주국에서 적응하면서 겪는 문화적 소외감과 정체성 문제, 한민족교육 인프라의 부족,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비전 부재 등이 재외동포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성장하게 하는데 장애요인이었음.

- 재외동포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비전과 장기적인 정책의 부족, 정책 수행의 컨트롤타워의 부족, 국가별 차별적인 정책의 부재 등이었음.
- 향후 재외동포청소년을 미래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소년 육성에 대한 비전과 중장기 정책의 수립, 동포사회 국가별 특성에 적합한 정책의 수립, 정부정책 시행을 위한 컨트롤타워와 국내·외 지원 조직 및 시설의 구축, 관련 법·제도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2) 설문조사 결과

- 분석 대상은 총 575명의 재외동포청소년 중 재중청소년이 36.2%, 러시아 및 CIS지역 동포청소년이 26.3%, 북미 동포청소년이 14.8%, 기타지역 동포청소년이 9.2%, 남미지역 동포청소년이 7.1%, 유럽지역 동포청소년이 5.6%였음.
-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가정생활은 한국음식 만들기(4.12), 뉴스시청 및 노래 청취(3.58), 한국어사용(3.2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거주국에서의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2점으로 비교적 만족도가 높았음. 지역별로는 북미(4.38), 유럽(4.19), 기타 지역(4.08), 중국(3.88), 남미(3.46), 러시아 및 CIS(3.36)의 순으로 나타났음.
-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직업으로는 사업가(9.0%), 의사(8.9%), 디자이너(8.0%), 교사(7.0%), 연구원(5.1%), 법조인(4.9%)과 회사원(4.9%), 엔지니어(4.5%), 외교관(4.2%) 등으로 나타났음.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30.1%),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21.7%) 등으로 사회 발전과 이웃에 대한 봉사보다는 개인의 발전과 가정을 보다 중시하였음.
- 한민족 정체성과 관련해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은 한민족의 후손임과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동포사회의 배경에 대한 이해와 한민족 사건이나 문제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남미지역 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인식 이외의 모든 정체성 영역에서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재중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한민족의 후손임과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류와 부모의 교육 등이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에 대한 관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교류 경험은 친구 등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 있었음. 지역별로는 거주국에서의 교류경험은 상대적으로 유럽지역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서 북미지역 청소년들의 교류 경험은 가장 적게 이루어지고 있었음.
- 재외동포청소년들은 동포사회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특히, 동포사회의 단합에 대한 역할(3.60), 남북통일에의 기여(3.51), 동포사회 발전에의 기여(3.40)의 순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서의 교육, 문화, 취업활동과 관련한 참여 욕구는 대부분 한국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높았는데, 특히, 한국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참여(4.15)와 다양한 한국문화 경험(4.06)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활동, 한국과 관련한 부모의 기대, 교류경험, 교류욕구, 대학생 더미변수가 한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은 33.3%의 설명력을 보였음.
 -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 공동체 발전의 기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교류경험, 교류욕구, 한민족 정체성이 한국사회발전 기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은 40.7%의 설명력을 보였음.

5. 정책제언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을 위한 비전, 대상, 목표, 정책과제, 정책추진 절차 등을 마련하였음.
-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비전은 거주국 사회에의 적응을 넘어서서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공동체에 기여하는 청소년 육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정책대상을 한민족에 대한 관심과 정체성이 높고, 재능있는 9~24세의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청소년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설정하였음.
-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목표는 공통의 목표와 국가별 목표로 나누었는데, 공통의 목표는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한민족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류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민족교육에 대한 지원과 모국과의 네트워크 형성, 상급학교 진학 및 글로벌 시민의식 역량 개발 지원, 그리고 차세대단체 육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였음. 국가별 목표는 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주류사회의 진출과 정체성 확립,

모국과의 유대 강화, 중국의 경우에는 한민족정체성의 유지와 위기 청소년 지원, 그리고 주류사회 진출 지원, 일본의 경우에는 민족정체성 함양, 반한 감정 및 민족학교 차별에 대한 대응, 주류사회 진출 지원, 그리고 독립국가연합(CIS)의 경우에는 한국과의 연계 및 교류 기회 확대, 한민족정체성 유지, 주류사회 진출 지원 등으로 설정하였음.

-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방향은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구축, 거주 국가별 상황과 요구에 기초한 정책의 수립,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의 수행, 정부지원의 다변화 및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설정하였음.
- 정책과제는 공통의 정책과제를 법·제도 개선 방안, 정책추진체계 마련,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지원 확대, 프로그램 개발·운영 확대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41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밖에 재미동포청소년, 재중동포청소년, 재일동포청소년, 고려인 동포청소년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특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또한 각 정책과제별로 정책추진기간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서 정책 수행의 기간을 제시하였음. 법·제도의 개선과 추진체계의 설치 등이 주로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었으며,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이 단기과제로 분류되었음. 이밖에 각 정책과제별로 관련 있는 정부부처를 제시하여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추진의 주체를 명시하고자 하였음.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5
3. 연구내용	6
4. 연구방법	9
5. 연구의 제한	11
제2장 이론적 배경	13
1. 미래 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의 의미	15
2. 재외동포청소년의 현황 및 연구 동향	24
3.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변화	35
4.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 개발 전략과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정책	80
5. 주요 국가 재외동포청소년의 실태	84
제3장 외국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비교	89
1. 미국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91
2. 중국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99
3. 일본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108
4. 독일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116
5. 이스라엘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127
제4장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방향에 관한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139
1. 조사개요	141
2. 조사결과	143
3. 소결	177

제5장 재외동포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분석	179
1. 조사 개요	181
2. 주요 조사결과	185
3. 소결	212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215
1. 요약	217
2. 정책제언	224
참고문헌	253
부 록	275
1.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지(1차)	278
2.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지(2차)	285
3. 미래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 개발을 위한 설문지	304
4. 미래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 개발을 위한 설문지(영어)	312
5. 미래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 개발을 위한 설문지(중국어)	322
6. 미래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 개발을 위한 설문지(일본어)	330
7. 미래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 개발을 위한 설문지(러시아어)	337

표 목차

〈표 II-1〉 시대별 인재의 특징	17
〈표 II-2〉 미래사회의 특성과 미래인재의 조건	19
〈표 II-3〉 한국사회의 15대 메가트렌드	20
〈표 II-4〉 미래 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	23
〈표 II-5〉 거주자격별 재외동포 현황	24
〈표 II-6〉 연도별 재외동포 현황	25
〈표 II-7〉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26
〈표 II-8〉 재외동포 교육기관 청소년(유·초·중·고) 재학생 현황 (한글학교, 한국학교)	27
〈표 II-9〉 재외동포 교육기관 재학생 현황(한글학교)	28
〈표 II-10〉 재외동포 교육기관 재학생 현황(한국학교)	28
〈표 II-11〉 재외동포 연구동향 분석	29
〈표 II-12〉 재외동포 연구 세부 내용	31
〈표 II-13〉 재외동포 청소년 조사연구 동향	33
〈표 II-14〉 장면 정부의 재외동포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39
〈표 II-15〉 박정희 정부 초기 재외동포 청소년 등 교육지원 사업	42
〈표 II-16〉 재일거류민단 강화 대책회의(1969.8.) 민단의 요구 사항과 정부의 대응	45
〈표 II-17〉 교육법 개정(1976.12.)에 따른 관련 규정	49
〈표 II-18〉 연도별 재외국민현황	55
〈표 II-19〉 지역별 교민·체류자 현황	55
〈표 II-20〉 재외한국학교(전일제) 현황	58
〈표 II-21〉 재외한국토요학교 현황	58
〈표 II-22〉 해외동포현황	62
〈표 II-23〉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65
〈표 II-24〉 재외동포교육기관현황(2005년)	69

〈표 II-25〉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2008. 4. 기준)	72
〈표 II-26〉 국립 국제 교육원 주요 업무	73
〈표 II-27〉 연도별 재외한국학교 국고지원 예산 추이	75
〈표 II-28〉 한글학교 정부(외교통상부)지원 현황	76
〈표 II-29〉 한국교원수 정부(외교통상부)지원 현황	76
〈표 II-30〉 재외동포 청소년 관련 주요 부처별 관장 업무(2015년 현재)	77
〈표 II-31〉 재외한글학교현황(2014)	78
〈표 II-32〉 재외동포청소년 교류사업(2014)	79
〈표 II-33〉 교육부 2015년 교육과정 내용	81
〈표 III-1〉 이스라엘 체험 및 리더십 프로그램	132
〈표 III-2〉 사회활동 및 상담 프로그램	132
〈표 III-3〉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133
〈표 III-4〉 이스라엘 체험 프로그램	134
〈표 IV-1〉 조사대상자 관련분야 및 참여자수	142
〈표 IV-2〉 미주 동포사회의 현재 이슈	143
〈표 IV-3〉 중국 동포사회의 현재 이슈	144
〈표 IV-4〉 일본 동포사회의 현재 이슈	145
〈표 IV-5〉 독립국가연합 동포사회의 현재 이슈	146
〈표 IV-6〉 동포사회 공통의 현재 이슈	147
〈표 IV-7〉 미주 동포사회의 미래 이슈	148
〈표 IV-8〉 중국 동포사회의 미래 이슈	149
〈표 IV-9〉 일본 동포사회의 미래 이슈	150
〈표 IV-10〉 독립국가연합 동포사회의 미래 이슈	151
〈표 IV-11〉 동포사회 공통의 미래 이슈	152
〈표 IV-12〉 재미동포 청소년의 현재 이슈	153

〈표 IV-13〉 재중동포 청소년의 현재 이슈	154
〈표 IV-14〉 재일동포 청소년의 현재 이슈	155
〈표 IV-15〉 고려인동포 청소년의 현재 이슈	156
〈표 IV-16〉 재외동포 청소년 공통의 현재 이슈	157
〈표 IV-17〉 재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이슈	158
〈표 IV-18〉 재중동포 청소년의 미래 이슈	158
〈표 IV-19〉 재일동포 청소년의 미래 이슈	159
〈표 IV-20〉 고려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이슈	160
〈표 IV-21〉 재외동포 청소년 공통의 미래 이슈	161
〈표 IV-22〉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인재상	162
〈표 IV-23〉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인재로서 필요한 능력	163
〈표 IV-24〉 재외동포 청소년이 미래 인재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	164
〈표 IV-25〉 인재개발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	165
〈표 IV-26〉 관심 국가의 선정 이유	166
〈표 IV-27〉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인재로 개발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문제점 ...	167
〈표 IV-28〉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향후 정책 방안 ...	168
〈표 IV-29〉 미래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법·제도적 측면의 정책 과제 ·	169
〈표 IV-30〉 미래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시설적인 측면의 정책 과제 ...	170
〈표 IV-31〉 미래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인력적인 측면의 정책 과제	171
〈표 IV-32〉 미래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 측면의 정책 과제 ...	172
〈표 IV-33〉 동포사회의 법·제도적 측면의 지원과제	173
〈표 IV-34〉 동포사회의 시설적인 측면의 지원과제	174
〈표 IV-35〉 동포사회의 인력적인 측면의 지원과제	175
〈표 IV-36〉 동포사회의 프로그램 개발 측면에서의 지원과제	176
〈표 IV-37〉 동포사회의 기타 지원과제	176

〈표 V-1〉 설문조사 항목	183
〈표 V-2〉 측정도구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184
〈표 V-3〉 응답 대상자의 특성	186
〈표 V-4〉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가정생활(지역별)	188
〈표 V-5〉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가정생활(교급별)	189
〈표 V-6〉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가정생활(세대별)	189
〈표 V-7〉 거주국에서의 생활 만족도(지역별)	190
〈표 V-8〉 거주국 생활 만족도(이민세대별)	190
〈표 V-9〉 한국어 능력(지역별)	191
〈표 V-10〉 한국어 능력(교급별)	192
〈표 V-11〉 한국어 능력(이민세대별)	192
〈표 V-12〉 장래 희망 직업	193
〈표 V-13〉 장래 희망 직업(국가별)	194
〈표 V-14〉 장래 희망 직업(학교급별)	194
〈표 V-1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195
〈표 V-16〉 장래 희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	196
〈표 V-17〉 한민족 정체성(지역별)	197
〈표 V-18〉 한민족 정체성(교급별)	198
〈표 V-19〉 한민족 정체성(이민세대별)	199
〈표 V-20〉 한민족에 관심을 갖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	200
〈표 V-21〉 한민족 청소년 간 교류 경험	201
〈표 V-22〉 한민족 청소년 간 교류경험 (이민세대별)	202
〈표 V-23〉 재외동포 청소년에 기대하는 역할	203
〈표 V-24〉 재외동포 청소년에 기대하는 역할 - 남북통일에 기여 할 수 있다 ..	204
〈표 V-25〉 재외동포 청소년의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와 관련된 요인	205

〈표 V-26〉 동포사회나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206
〈표 V-27〉 동포사회나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성별) ...	206
〈표 V-28〉 한국에서 교육, 문화, 취업활동 참여 욕구	207
〈표 V-29〉 한국에서 교육, 문화, 취업활동 참여 욕구 (이민세대별, 성별 차이) ..	208
〈표 V-30〉 한국에서의 교육이나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	209
〈표 V-31〉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10
〈표 V-32〉 재외동포청소년의 한국사회 발전 기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11
〈표 VI-1〉 재외동포청소년 정책과제	229

그림목차

【그림 Ⅰ-1】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의 연차별 추진계획	6
【그림 Ⅰ-2】 연구 과정 흐름도	11
【그림 Ⅱ-1】 기술혁명과 사회진화 패러다임의 변화	18
【그림 Ⅱ-2】 재외동포 연구동향 분석 (1965-2015)	30
【그림 Ⅱ-3】 재외국민교육 행정체계도(1977년 이후)	51
【그림 Ⅱ-4】 재외국민교육의 목표(전두환 정부)	53
【그림 Ⅱ-5】 교육목표(김영삼 정부 초기까지)	63
【그림 Ⅱ-6】 재외동포교육정책의 기본 방향(김대중 정부)	67
【그림 Ⅱ-7】 교육목표(노무현 정부)	71
【그림 Ⅱ-8】 재외한국학교 선진화 방안(이명박 정부)	74
【그림 Ⅱ-9】 연도별 재외한인학교 국고지원 예산추이	75
【그림 Ⅱ-10】 연도별 한글학교 국고지원 예산추이	76
【그림 Ⅱ-11】 재외한국학교 선진화 방안(이명박 정부)	81
【그림 Ⅱ-12】 교과 교육과정 주요 개정 내용	82
【그림 Ⅵ-1】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목표	227
【그림 Ⅵ-2】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방향	228
【그림 Ⅵ-3】 재외동포청소년 추진 절차	251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5. 연구의 제한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해외 인적 자원의 활용을 통한 네트워크의 형성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화교와 유대인들은 세계 각 지역에 각각 약 3,000만명, 2,00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인적 자원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경제적 네트워크로 전환시키고,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김정숙, 임채완, 김경근, 서범중, 2008: 39~40).

한민족의 경우에도 최근 화교 네트워크와 유대인 네트워크에 자극을 받아서 한민족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동포사회 지도자 및 차세대 리더의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 기업인과 국내 중소기업인 또는 재외동포 기업인 간의 연계, 한민족경제인통합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재외동포재단, 2013b, 2014). 특히, 최근 재외동포 사회는 1세대에서 1.5 및 2세대로의 세대교체로 인한 차세대의 주류사회 진출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차세대는 1세대에 비해서 한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어 재외동포 청소년의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향후 한민족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적 목표는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안정적인 정착’과 ‘모국과의 유대 강화’(p. 7)로 김영삼 정부 이후로 비교적 연속성을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효과적으로 추진·지원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정점으로 외교통상부와 각 관계부처, 재외동포재단에서 모국과 동포 간 네트워크 구축사업, 재외동포사회 조사·연구사업, 재외동포교류사업, 재외교육기관 지원 등 다양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윤인진, 2013).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재외동포재단에서 대학 학사과

정 및 석·박사과정을 희망하는 우수 재외동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 초청장학사업과 전 세계 해외동포청소년에게 동포사회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사업(재외동포재단, 2013b: 25~27),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한민족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지원사업¹⁾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1996년부터 격년으로 세계한민족 청소년축전을 개최해 왔으나 2005년 이후에는 세계한민족축전으로 변경되어 개최되고 있다(월드코리아뉴스, 2012. 9. 3일자).

한편, 재외동포정책의 대상인 재외동포는 2013년 현재 7,012,492명으로 파악되고 있다(재외동포재단, 2013a: 14). 그러나 재외동포 수는 한인회 등 한인단체가 파악한 명부와 주재국의 입출국 기록을 토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복기재로 인해서 과도하게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합뉴스, 2012. 8. 14일자; 윤인진, 2013: 13). 더욱이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추정치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에서 해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시설과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거주 국가별, 지역별로 수요 파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정부의 정책적인 관심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정책이 현장 요구에 기반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필요에 따라 정부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미래 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방향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와의 FTA 체결 등으로 전문직 차세대의 대한민국에서의 역할 기대가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차세대 재외동포는 기존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해서 거주국의 여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공외교 차원에서의 역할, 한인 경제력 규모의 성장에 따른 경제적 측면에서의 가교 역할, 거주국에서의 한국문화의 수용자, 전파자로서의 역할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이진영, 박우, 2013: 23~24). 대한민국은 재외동포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보다 발전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별히 재외동포 차세대는 “모국과 거주국을 매개하는 주요 행위자이자 우리 국력의 외연을 형성하는 소중한 자산”(p.12)으로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창의적 우수 재외동포인재의 국내 유입과 재외동포 청소년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임영상, 윤인진, 이진영, 박우, 한준태, 예동근, 이병조,

1) 교육부(2015). 교육부 조직 소개.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에서 2015년 2월 10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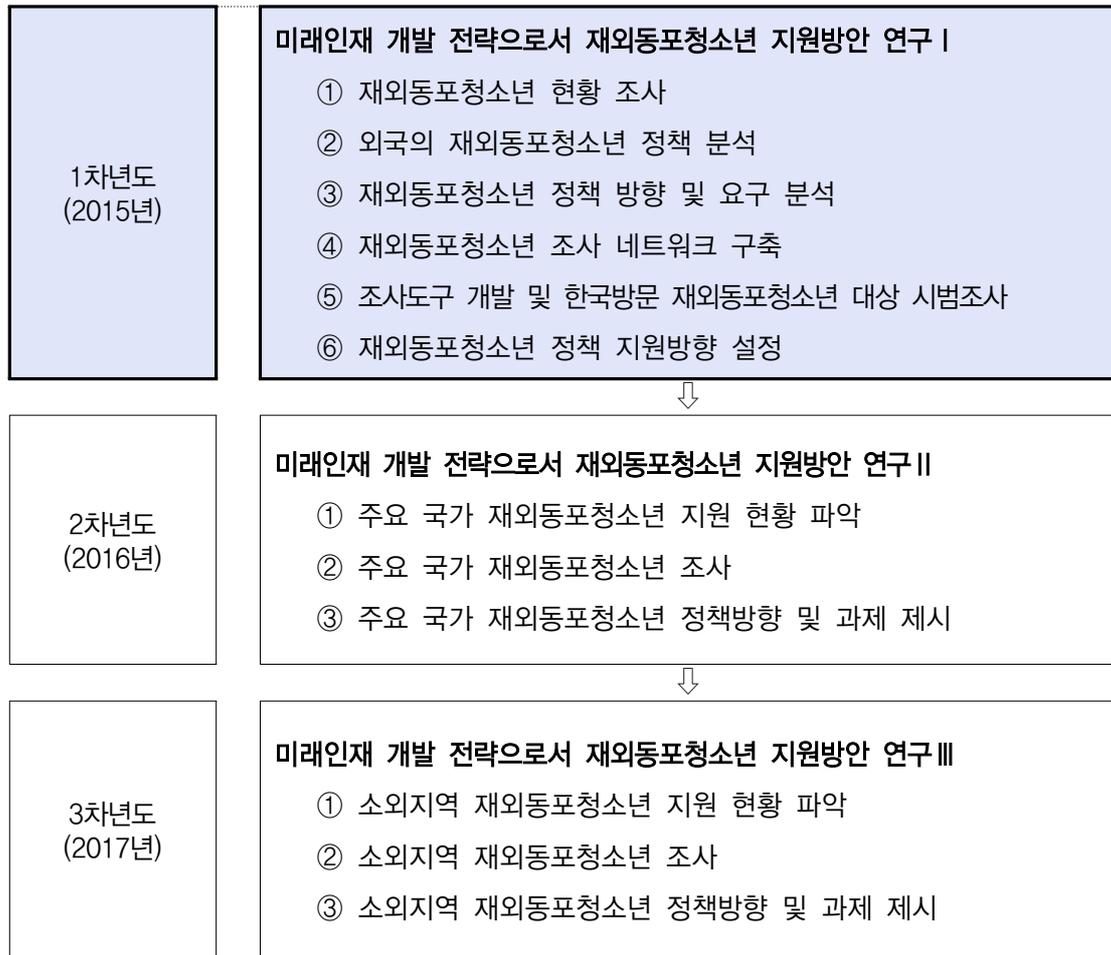
2012). 재외동포가 대한민국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한민족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 동포사회의 주역이 될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향후 재외동포 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기초적 통계와 현황 파악, 그리고 정책적 요구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글로벌 시대의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인재 개발 전략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 청소년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고, 나아가서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영역에서 한민족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는 3차년에 걸쳐 연구가 수행될 계획이며,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방향 설정을 토대로 하여, 주요 국가와 소외지역 국가의 재외동포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1차 년도에는 재외동포 청소년정책 분석과 전문가 의견 분석 등을 통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할 것이며, 2차 년도에는 주요 국가 재외동포 청소년의 실태 파악을 토대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차 년도에는 소외지역 국가의 재외동포 청소년의 실태 파악과 정책방안 제시에 목적을 두었다.

2. 연구추진체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할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년도인 2015년의 경우에는 재외동포 청소년 현황과 국내·외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분석을 통해서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2, 3차년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재외동포 청소년 조사도구의 개발과 각국 단체와의 조사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다음으로 2차년도인 2016년에는 주요 국가의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국가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부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3차년도인 2017년에는 소외지역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소외지역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부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그림 I -1】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의 연차별 추진계획

3. 연구내용

1차년도의 연구내용은 미래 인재 및 재외동포청소년의 개념 파악, 재외동 청소년 및 관련 기관 현황 파악, 외국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분석, 재외동포 청소년조사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 청소년 조사도구 개발 및 시범조사, 미래 인재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지원 방안 마련 등으로 구성되었다.

1) 미래 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의 개념과 관련 정책 현황 파악

미래 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사회적 정의 등을 토대로 재외동포 청소년의 개념을 파악하였다. 또한 그동안 미래 인재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논의를 종합하여 미래 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또한 재외동포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개발하기 위한 정책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소년의 현황, 대한민국에서의 미래인재 개발 전략과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정책의 변화과정, 그리고 주요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의 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외국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분석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 등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 청소년정책과 주요 프로그램을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 재외동포 청소년정책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재외동포정책을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다고 알려진 국가들이다. 특히, 중국은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을 국내·외의 조직간 연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이며,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세계의 축소판 국가로서 다양한 사례와 파급 효과 등이 기대되는 국가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특색이 있으면서도 정책적 유사성이 크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국가라 보여지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 전후에 재외동포정책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통일 한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 설정에 시사점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유대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국가로서 일찍이 유대인 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례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²⁾

3)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방향 및 정책요구 분석

미래인재 개발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요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세계 각국에 분포되어 있는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2) 본 연구의 용역과제로 수행된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정책 비교 연구」(이진영 외, 2015)에서 기술된 연구 내용을 재인용 하였음.

재외동포청소년상, 재외동포 청소년의 실태와 문제점,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그리고 미래 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 개발을 위한 정책적 요구를 분석하였다.

4) 재외동포청소년 조사 네트워크 구축

2, 3차 년도에 조사 예정인 재외동포 청소년 조사를 위하여 세계 주요 국가의 한인단체 및 재외동포 청소년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재외동포재단의 협조를 얻어 한국 방문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재외 한글학교협의회 및 한글학교와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재외한인학회와의 공동 연구 등을 통하여 각국의 재외동포 정책 현황 등을 파악하였으며, 향후 각국의 재외동포 연구조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5) 재외동포청소년 조사도구 개발 및 시범조사

미래인재 및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토대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조사도구를 개발하고, 국내에 입국하는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범·조사하여 조사도구를 수정·보완하고자 하였다. 한국어 및 한민족에 대한 인식 등 재외동포청소년의 생활실태를 토대로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욕구와 미래 인재로서 기대되는 역할 등을 파악함으로써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6) 미래 인재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설정

전문가 의견조사, 재외동포청소년조사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사회 속에서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미래 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 개발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정책방향,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책과제의 우선순위와 주요한 정책과제, 그리고 정책을 수행할 정부 관련 부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재외동포청소년의 정의와 관련해서 「재외 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재단법, 「외교부훈령,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재외동포 및 청소년 관련 법령을 참고하였다. 재외동포청소년 및 관련 기관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재외동포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연구동향 파악을 위하여 학술정보연구서비스(RISS)에 수록되어 있는 사회과학분야 논문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재외동포청소년과 관련한 조사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비교를 위하여 각국의 정부기구 및 단체 사이트 검색과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2) 전문가자문 및 워크숍 실시

재외동포청소년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사도구의 개발과 재외동포청소년 조사,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제안 검토 등을 위해 재외동포 및 청소년 관련 학계, 현장전문가, 정부부처공무원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3차례 자문을 실시하였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및 CIS 등 지역별 재외동포청소년 실태와 정책과제 제안 등을 위해 각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하였다. 또한 미래 인재 개발 전략으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학계와 정부부처 및 재외동포 관련 기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3) 델파이조사

미래 인재로서의 재외동포 청소년 개발에 대한 의미와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 주요 정책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5년 4월 13일에서 2015년 5월 1일 사이에 재외동포 관련 학자 및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차 조사에서는 26명, 2차 조사에서는 25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되었다. 1차 조사에서는 개방형 질문으로 재외동포

사회와 재외동포청소년과 관련된 지역별 현재 이슈, 지역별 미래 이슈, 재외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상과 미래인재로서 필요한 능력, 정부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 방향, 미래인재 개발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과제, 미래인재 개발을 위한 동포사회가 제공해야 할 지원 등을 질문하였으며,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각 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동의 정도와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4) 사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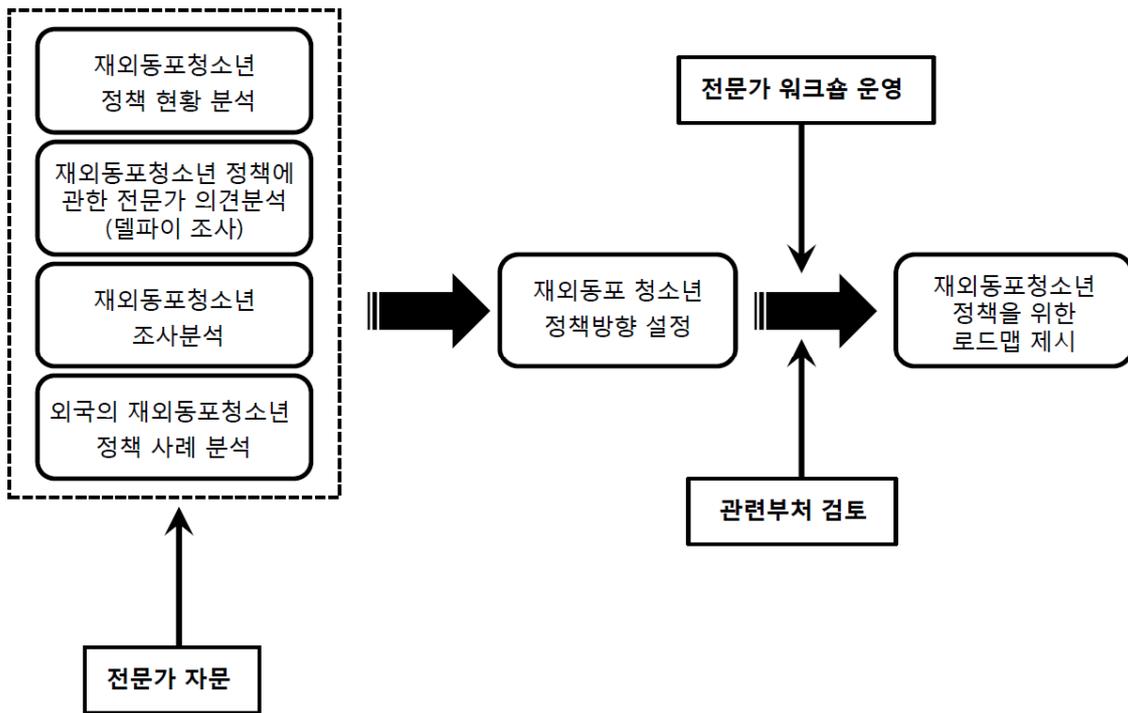
전문 학회(해외한인학회)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이스라엘 등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외국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 각 지역의 재외한인 청소년에 대한 정책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별권으로 보고서가 발간되지만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주요 결과를 요약에서 본 보고서에 포함하였다. 외국 사례 분석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선행연구가 사실상 부재한 가운데 시도하는 연구로서 문헌연구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해당 국가의 재외동포정책, 청소년정책 및 인재유입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재외동포 청소년정책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 낼 문헌 및 정책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전문 연구자들의 분석뿐 아니라, 정부의 각종 홈페이지 및 법령 제도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시설 및 인력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을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기구의 재외동포 청소년지원에 대한 프로그램도 분석하였다.³⁾

5) 청소년 설문조사 실시

재외동포청소년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2015년 7월 14일에서 2015년 8월 4일 사이에 재외동포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사업을 통해서 국내로 입국한 전 세계 재외동포 청소년(중·고·대학생) 85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회수·분석된 설문지는 575개였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생활실태와 한민족에 대한 인식, 재외동포청소년의 동포사회와 한국 사회에서의 역할 기대 등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영어, 중국어,

3) 본 연구의 용역과제로 수행된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정책 비교 연구」(이진영 외, 2015)에서 기술된 연구방법 내용을 재 인용하였음.

일본어,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해당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수정·보완하여 2, 3차년도 조사도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림 1-2】 연구 과정 흐름도

5. 연구의 제한

본 연구에서 델파이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정책 제안을 실시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가지고 있다. 첫째, 델파이조사 대상에 있어서 학계, 현장전문가, 관련 부처 공무원 등의 유형과 지역별 전문가 등을 포함하려 했으나, 전 세계 지역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기에는 전문가 풀 등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대상은 재외동포재단에서 공개 모집한 재외동포청소년⁴⁾으로 모국과의 연계성 등에서 선택적인 성향을

4) 전 세계 공관을 통해서 공문이 나간 후 재단 홈페이지, 전 세계 재외공관 홈페이지 및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공지되어 모집됨.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2007년에 본 원에서 실시하였던 재외동포청소년 조사 결과와 유사성을 보여 일부 결과를 정책 제안 시에 활용하였다.

제 Ⅱ 장

이론적 배경

1. 미래 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의 의미
2. 재외동포청소년의 현황 및 연구 동향
3.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변화
4.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 개발 전략과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정책
5. 주요 국가 재외동포청소년의 실태

제 II 장 이론적 배경⁵⁾

1. 미래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의 의미

1) 재외동포청소년의 정의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등의 용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 현황보고 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등록법」 등에서 그 정의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재외국민에 관해서 「재외국민등록법」⁶⁾에서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을 대상으로 하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⁷⁾에서는 재외국민을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의하고 있다(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재외동포에 관해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⁸⁾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외국국적동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또한 「재외동포 현황보고 규정」¹⁰⁾에 의하면,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5) 이 장의 1, 2, 5절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그리고 3, 4절은 김태기 교수(호남대)가 집필하였음.

6) 이 법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7)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8) 이 법률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9)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0) 이 훈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그 영사 관할구역 내의 재외동포 및 단체조직의 현황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

외국에 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외국국적동포)을 말한다(외교부훈령 제39호)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재단법」¹¹⁾에서도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재외동포재단법 제2조)으로 정의하여 특별히 한민족의 혈통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재외동포는 일정기간 이상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적여부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재외동포로 정의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중·고등학생 또는 중·고·대학생 연령대를 일컫고 있는데, 법률에서는 그 취지에 따라서 청소년 연령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활동, 인권과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에서는 청소년을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대에서부터 대학생 연령대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9세~24세로 하고 있으며(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와 청소년 보호·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민법에서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만 19세 미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민법 제4조; 청소년보호법 제2조).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에서의 보호를 목적으로 연소자를 18세 미만인자로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재외동포 청소년의 연령 규정은 그 목적에서 보호나 규제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각종 활동과 교육 복지적 지원을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과 같이 포괄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재외동포 청소년을 일정기간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정의하기로 한다.

2) 미래 인재의 개념

(1) 시대별 인재의 개념

인재는 사전적으로 “학식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이희승, 1994: 3092).

고할 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외교부 훈령 제1조).

11) 이 법은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재외동포재단법 제 1조).

그러나 인재는 그 시대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래 사회에서도 과거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등과는 다른 인재의 모습이 기대된다.

먼저 시대별 인재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농경사회에서의 인재는 근면 성실하고 강인한 체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는 척박한 자연 조건을 극복하고 생활에 필요한 생산물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였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산업사회에서는 “정해진 시스템 하에서 매뉴얼 대로 정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인재로 정의한다. 산업화 시대는 기계화와 대규모 생산, 그리고 분업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완성된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사회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지식을 획득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요구된다. 시대별 인재의 특징은 다음 표와 같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10. 15: 2).

시대	인재의 특징	예시
농경사회	근면 성실하고 강인한 체력 소유	머리나이(首總角) : 가장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린 장정에게 일반 인부의 두 배 품삯을 쳐줌.
산업사회	정해진 시스템 하에서 매뉴얼 대로 정확하게 반복	포드맨(Fordman) : 자동차회사 포드(Ford) 노동자들은 일관된 작업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로 당시로는 파격적인 임금을 받음.
정보사회	빠르게 지식을 획득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발휘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 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의사, 변호사 등이 대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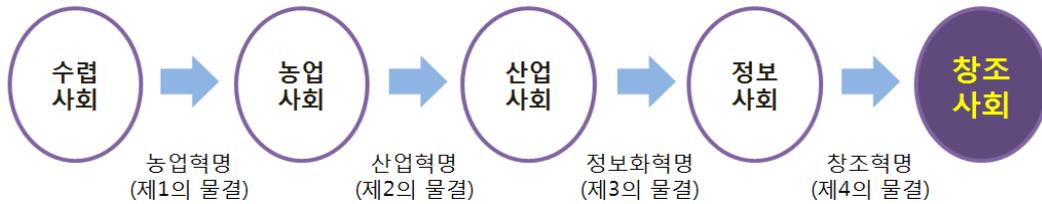
*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10. 10. 15). 변화하는 미래, 새로운 인재. p. 2.

(2) 미래 사회의 개념

정보사회 이후의 시대는 창조사회(creative society), 하이컨셉(high-concept)·하이터치(high-touch)시대,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 등이 예측되고 있다.

창조사회는 1990년 노무라 종합연구소에서 “정보화 사회를 잇는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창조활동의 가치와 역할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회”로서, 2005년 8월 Businessweek에서는 미래 경제 패러다임으로 “지식에서 창조성으로 중심이 이동하는 창조경제 시대의 도래”를 언급한 바 있다(차두원, 유지연, 2013: 5). 창조경제 시대는 사람의 지식과 정보에 중점을 두던 지식·정보사회와는 달리 사람의 아이디어를 강조한다(John Howkins, 2001; 장석영, 2014: 114에서 재인용).



【그림 II -1】 기술혁명과 사회진화 패러다임의 변화

* 출처: 차두원, 유지연(2013).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분석. p. 5.

창조(성)는 “문화, 예술, 과학기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창적이며 유용한 산물을 만들어내는 능력과 과정”으로 정의되며, 최근에는 융합적 창조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차두원, 유지연, 2013: 11). 창의적 인재가 갖추어야 할 대표적인 요소는 이러한 “창의성, 융·복합 능력, 정보활용능력” 등이 있다(시기자, 성태제, 이근호, 박태준, 노원경, 박찬호, 박도영, 정은주, 2013: 15).

하이컨셉(high-concept)·하이터치(high-touch)시대는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Daniel Pink)의 저서 「새로운 미래가 온다」에서 제시하는 미래 사회이다. 이는 “정보를 잘 다루고 분야별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인정받는 지식근로자의 시대”(p. 13)로부터 “패턴과 기회를 감지하고, 예술적 미와 감정의 아름다움을 창조해 내며, 훌륭한 이야기를 창출해 내고, 언뜻 관계가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를 결합해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능력과 관계 있는 하이컨셉(high-concept)”(p. 14),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미묘한 인간관계를 잘 다루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잘 유도해 내고, 목적과 의미를 발견해 이를 추구하는 능력인 하이터치(high-touch)”(p. 14)가 중시되는 시대를 말한다. 또한 그는 미래인재의 조건으로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놀이, 의미의 6가지로 제시하면서 이는 기능, 단순한 주장, 집중, 논리, 진지함, 물질의 축적과 대비된다고 말한다(다니엘 핑크, 김명철 옮김, 2006: 13~18).

드림 소사이어티는 덴마크 미래학자인 롤프 옌센(Rolf Jensen)이 자신의 저서 「드림 소사이어티

(The Dream Society)」에서 제시한 미래사회의 개념이다. 그는 앞으로 “기업, 지역사회, 개인이 데이터나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공하게 되는 드림 소사이어티”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였다(p. 12).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서는 꿈, 감성, 이야기가 핵심 단어이며, “창조성, 협동심, 동기부여, 자극, 진취적 기상”(p. 50)이 인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롤프 옌센, 서정환 옮김, 2005).

표 II-2 미래사회의 특성과 미래인재의 조건

미래사회의 유형	특성	미래인재의 조건
창조사회	창조활동의 가치와 역할을 중시	창의성, 융·복합 능력, 정보활용능력
하이컨셉·하이터치 사회	아이디어를 결합해 창조하고 공감과 의미를 중시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놀이, 의미
드림소사이어티	꿈과 감성, 이야기를 중시	창조성, 협동심, 동기부여, 자극, 진취적 기상

* 출처: 시기자 외(2013).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패러다임 전환. p. 15.
 다니엘 핑크, 김명철 옮김(2006). 새로운 미래가 온다. pp. 14~18.
 롤프 옌센, 서정환 옮김(2005). 드림 소사이어티. p. 50.

(3) 한국사회의 미래 인재상

미래 한국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한국정보화진흥원(2010: 16)에서는 국제기구, 각국 정부, 기업 및 민간연구기관 등 국내·외 51건의 미래전망 자료에 분석·정리된 메가트렌드 및 트렌드를 STEEP(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영별 3개의 총 15개의 메가트렌드를 제시하여 미래 사회를 전망한 바 있다.

표 II-3 한국사회의 15대 메가트렌드

분야	메가트렌드	내용
사회(S)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 인구 증가, 국가별·지역별 인구증가/정체/감소가 각기 진행, 저출산·고령화문제 등
	양극화	국가 간/기업 간/고용구조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별화,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책임 문제 등
	네트워크 사회	사이버 공동체 활성화, 영토 국가에서 네트워크 국가로 전환, 정보 독점 및 정보의 평준화 등
기술(T)	가상지능 공간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 간 상호작용 증대, 증강현실, 실감형 콘텐츠 등
	기술의 융·복합화	기술·산업간 융·복합화, 전통산업과 신기술의 융합 등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군사용 로봇, 나로로봇, 정서 로봇 등
경제(E)	웰빙, 감성, 복지경제	고령화·글로벌화에 따른 삶의 질 중시, 신종 질병, 전염병 증가에 따른 건강문제 대두 등
	지식기반 경제	경제의 소프트화 현상 심화, 정보·서비스·콘텐츠 등 무형자산시대 도래, 지식경영 확산, 디지털 중심의 산업 재편 등
	글로벌 인재의 부상	글로벌화에 따른 멀티플레이형 인재, 지식 경제력 부상, 창의력과 감성의 부각 등
환경(E)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환경오염과 기상이변에 따른 환경안보 부각, 국제 탄소거래제도, 물 부족 문제 등
	에너지위기	화석에너지 및 자원고갈 심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대체에너지 개발 등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	인간·윤리문제와 기술의 충돌, 기술 패권주의, 개인정보 보호 및 불건전 정보의 부작용 문제 등
정치(P)	글로벌화	이동성 증가, 인력 및 자본 이동, 국제 공조 확산, 다문화 및 이종문화 등
	안전 위협성 증대	신종 질병 및 전염병 확산, 핵 확산, 대량 살상무기 확산, 경비 산업 성장 등
	남북통합	남북한 경제협력, 북한문제의 국내화 및 급변화, 북한의 불확실성 등

*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2010). 한국사회의 15대 메가트렌드—Meta Analysis, p. 16.

사회(S)분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네트워크 사회를 예측하였고, 기술(T)분야에서는 가상지능공간, 기술의 융복합화, 로봇화를 예측하였다. 경제(E)분야에서는 웰빙/감성/복지경제, 지식기반경제, 글로벌 인재의 부상을 예측하였고, 환경(E)분야에서는 기후

변화 및 환경오염, 에너지 위기,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 등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정치(P)분야에서는 이동성의 증가, 국제공조의 확산 등 글로벌화, 질병, 핵 확산 등으로 인한 안전 위협성의 증대, 남북한 경제협력, 북한의 불확실성 등 남북통합 문제의 발생을 예측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16).

제시되고 있는 미래 한국사회의 모습은 향후 한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의 분야별 사항과 이에 필요한 인재상을 보여준다. 사회분야에서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세대 간 일자리 경쟁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김태준, 홍영란, 차성현, 허준, 2012: 11).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갈등과 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다룰 인재가 요구된다. 또한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해 네트워크 공동체 발달과 의식변화 등이 예측되어(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20),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 사회 통합적, 글로벌 경쟁력 등의 요소를 갖춘 인재”가 요구된다(김태준 외, 2012: 11).

기술분야에서는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 간 상호작용 증대로 다차원·다환경 가상지능공간이 등장”하고(p. 41), “나노기술, 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 인지과학의 융합이 가속화”되며(p. 45), “전통적 산업과 신기술 결합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기회가 창출”되고(p. 46), “학문간 경계를 넘는 융합 현상이 심화”(p. 46)될 것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41~46).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기술의 개발을 선도하고 관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 균형을 특징으로 하는 융합적 인재, 인간소외문제, 기술 패권주의, 감시와 통제사회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요구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21~32; 최상덕, 서영인, 황은희, 최영섭, 장상현, 김영철, 2013 : 15~17).

경제분야에서는 “고령화, 소득증대 등으로 삶의 질을 중시하는 소비가치의 이동”(p. 48), “유비쿼터스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와 지식의 획득 등 지식기반경제에서의 IT 역할 확대”(p. 49)와 “지식 패권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의 가속화”(p. 50), 국가간·지역간 경제공동체 형성의 강화,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전”(p. 50)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의성 있는 글로벌 인재, 경제 공동체 형성 능력이 있는 인재, 자율적 판단 행동, 인식능력, 생애 설계 능력, 관용적·친화적·능동적 학습능력을 지닌 자기주도형 학습능력을 지닌 인재의 확보가 요구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48~50).

환경분야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파괴,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한 에너지 위기, 기술발전 에 따른 국가 간 갈등 심화와 기술패권주의의 부각, 인간소외와 사회적 윤리 문제의 발생,

사회 질서 파괴 현상의 가속화 등이 예측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52~54). 따라서 친환경적 이해가 깊고, 갈등해결능력이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사회적 책임감이 강한 인재가 요구된다.

정치분야에서는 글로벌화의 가속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 증대와 세계시민권이 확대되고, 핵 확산, 사이버 테러 등 국제범죄 확대,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 등으로 인한 국제적 갈등과 협력의 필요성 증대, 남북한 간의 경제적 협력 등 교류 확대와 북한문제의 급변화 등이 예측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32~35). 따라서 세계시민 의식과 네트워크 구축 능력, 그리고 국제 간 및 남북 간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

3) 미래 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

세계화는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가 사회·정치·경제적으로 함께 하는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게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민족에 기반하여 협력과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타 민족과의 장벽을 높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중국, 이스라엘,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는 해외동포와의 연계를 통하여 화상네트워크, 유대인네트워크, 인상네트워크 등을 형성하여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가 발전에 있어서 재외동포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한인동포의 경우에도 그 수가 현재 700만명을 넘었으며, 향후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남북통일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외한인동포는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가 브랜드 선양”(p. 23)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국 상품의 1차적인 소비자, 광고자, 마케터 일뿐만 아니라 거주국과의 가교 역할”(p. 24)을 통해서 수출·입을 활성화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 “한국문화의 수용자, 전파자”(p. 24)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거주국에 영향력을 발휘”(p. 24)하여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이진영, 박우, 2013: 23~24). 이밖에도 재외동포는 미래 통일한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거주국에서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p. 29)을 이끌어내고, 남북경제 통합을 위한 재외동포의 투자를 통하여 “한민족 경제공동체 수립”(p. 32) 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백영옥, 2014: 29~33).

하지만 최근 재외동포 사회는 거주국에서 중심세력이 1세대에서 2~4세대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2~4세대인 재외동포청소년은 거주국에 동화되어 한민족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 청소년을 한민족 공동체의 인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서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미래 인재 개발 전략에 있어서 차별화가 요구된다. 즉,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개발의 측면을 전략적 목표로 강조해야 하지만, 거주국 상황에 따라서는 이에 앞서 거주국의 주류 사회에 잘 적응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의 미래 인재 개발의 전략 수립에 있어, 재외동포 청소년의 공통적인 목표와 방향 설정과 함께 국가별 또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재외동포 청소년 방향의 설정이 요구된다.

표 II-4 미래 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

분야	미래 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
사회	미래지향적, 사회 통합적,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문화	다문화 이해 능력, 한국 문화의 수용 능력과 전파 능력을 갖춘 인재
기술	기술의 개발을 선도하고 관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융합적 인재,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
경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의성 있는 인재,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경제공동체 형성 유지 능력이 있는 인재, 자기주도형 학습능력을 지닌 인재
환경	친환경적 이해가 깊은 인재, 갈등해결능력이 있는 인재,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사회적 책임감이 강한 인재
정치	세계시민 의식을 가진 인재, 네트워크 구축 능력이 있는 인재, 국가 브랜드 선양 능력을 갖춘 인재, 국제 간 및 남북 간 통합 능력을 갖춘 인재

* 주: 한국사회 미래인재상 분석과 재외동포의 역할 분석을 통해서 도출하였음

2. 재외동포청소년 현황 및 연구 동향

1) 재외동포청소년 현황

(1) 재외동포 현황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외동포 현황¹²⁾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외동포는 총 7,012,492 명으로 재외국민은 2,610,676명(37.2%)이고, 외국국적자(시민권자)는 4,401,816명(62.8%)으로 추산된다. 또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일반체류자가 1,191,758명으로 가장 많고, 영주권자가 1,122,161명, 유학생이 296,757명이다(재외동포재단, 2013a: 26).

표 II-5 거주자격별 재외동포 현황

거주자격별 지역별		재외국민				외국국적 (시민권자)	총계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계		
총계		1,122,161	1,191,758	296,757	2,610,676	4,401,816	7,012,492
동북아 시아	일본	442,790	82,376	21,764	546,930	345,774	892,704
	중국	3,211	297,405	49,913	350,529	2,223,399	2,573,928
	소계	446,001	379,781	71,677	897,459	2,569,173	3,466,632
남아시아태평양		75,823	286,149	66,974	428,946	56,890	485,836
북미	미국	465,916	396,825	102,574	965,315	1,126,117	2,091,432
	캐나다	57,017	19,545	18,441	95,003	110,990	205,993
	소계	522,933	416,370	121,015	1,060,318	1,237,107	2,297,425
중남미		49,180	23,609	1,288	74,077	37,079	111,156
유럽		25,846	54,493	34,175	114,514	501,333	615,847
아프리카		2,348	7,077	1,020	10,445	103	10,548
중동		30	24,279	608	24,917	131	25,048

* 재외동포재단(2013a). 2013 재외동포현황. p. 26.

12)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서 작성, 보고한 공관별 재외동포현황을 취합·정리한 것으로서 주재국의 인구 관련 통계자료, 한인회 등 동포단체 조사자료, 재외국민등록부 등 공관의 민원 처리기록, 직접 조사 등을 근거로 산출한 추산치임.

지역별로는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재외동포가 3,466,63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2,297,425명), 유럽(615,847명), 남아시아태평양(485,836명), 중남미(111,156명), 중동(25,048명), 아프리카(10,54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경우에는 외국국적자가 각각 2,569,173명, 501,333명으로 재외국민(유럽 501,333명, 동북아시아 2,569,173명)에 비해서 약 3배~4배 정도 많아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였다(재외동포재단, 2013a: 26).

최근 4년간 재외동포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 7,012,492명으로 2007년(7,041,684명)에 비해서 재외동포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북아시아, 북미, 유럽지역의 재외동포수가 2007년에 비해서 감소하였으며, 남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재외동포수는 2007년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동지역의 재외동포는 다른 지역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재외동포재단, 2013a: 14).

표 II-6 연도별 재외동포 현황

지역별		연도별				백분율(%)	전년비 증감율(%)
		2007	2009	2011	2013		
총계		7,041,684	6,822,606	7,167,342	7,012,492	100	-2.16
동북아시아	일본	893,740	912,655	904,806	892,704	12.73	-1.34
	중국	2,762,160	2,336,771	2,704,994	2,573,928	36.70	-4.85
	소계	3,655,900	3,249,426	3,609,800	3,466,632	49.44	-3.97
남아시아태평양		384,474	461,127	453,420	485,836	6.93	7.15
북미	미국	2,016,911	2,102,283	2,075,590	2,091,432	29.82	0.76
	캐나다	216,628	223,322	231,492	205,993	2.94	-11.02
	소계	2,233,539	2,325,605	2,408,490	2,297,425	32.76	-0.42
중남미		107,594	107,029	112,980	111,156	1.59	-1.61
유럽		645,249	655,843	656,707	615,847	8.78	-6.22
아프리카		8,485	9,577	11,072	10,548	0.15	-4.73
중동		6,440	13,999	16,302	25,048	0.36	53.65

* 재외동포재단(2013a). 2013 재외동포현황. p. 14.

(2) 재외동포 교육기관 및 재학생 현황

재외동포 교육기관으로는 한글학교,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주재관(교육관)이 있으며, 재외동포 청소년들은 한글학교와 한국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이들 교육기관과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한글학교는 15개 국가에 1,918개가 있고, 한국학교는 15개 국가에 31개교, 한국교육원은 17개 국가에 39개, 주재관(교육관)은 9개 국가에 12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한글학교의 경우에 북미지역이 1,070개교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아주·대양주(363개교), 구주, 러·CIS(363개교), 중남미(89개교), 아·중동(45개교)의 순이었으며, 한국학교의 경우에는 아주·대양주가 23개교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아·중동(4개교), 중남미(3개교), 구주, 러·CIS(1개교)의 순이었고, 북미지역의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원의 경우에는 아주·대양주가 19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구주, 러·CIS(10개), 북미(7개), 중남미(3개)였으며, 아·중동에는 없었으며, 주재관(교육관)의 경우에는 구주, 러·CIS가 7개로 가장 많고, 아주·대양주가 3개, 북미가 2개, 그리고 중남미와 아·중동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외동포재단, 2014. 10: 3).

표 II-7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단위: 명(%))

지역별	한글학교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주재관 (교육관)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교육원수	파견인원	기관수	파견공무원수
아주·대양주	363	2,884	25,179	23	1,108 (20)	11,594	19	19	3	4
북미	1,070	9,939	57,702	-	-	-	7	8	2	3
중남미	89	722	6,098	3	61 (3)	571	3	3	-	-
구주, 러·CIS	351	1,500	15,670	1	13 (1)	102	10	10	7	8
아·중동	45	288	1,748	4	18 (4)	55	-	-	-	-
계	1,918 (15국)	15,333	106,397	31 (15국)	1,200 (28)	12,322 (580)	39 (17)	40	12 (9국)	15

* 재외동포재단(2014. 10). 2014 재외동포 교육기관현황. p.3에서 재구성.

- 동포수 : 재외동포현황(외교부, 2012. 12 기준) - 한국학교, 재외동포재단(2014. 2. 기준)

-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현황(교육부, 2014. 3. 기준) - 주재관 : 교육부(2014. 9. 기준)

한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수는 한글학교가 106,397명, 한국학교가 12,322명으로 총 118,7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학교 학생수는 북미지역이 57,70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아주·대양주(25,179명), 구주, 러·CIS(15,670명), 중남미(6,098명), 아·중동(1,748명)의 순이었다. 한국학교 학생수의 경우에는 아주·대양주가 11,59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남미(571명), 구주, 러·CIS(102명), 아·중동(5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재외동포재단, 2014. 10: 3).

한글학교, 한국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은 유치원생에서부터 성인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성인을 제외하고 유·초·중·고 재학생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글학교 재학생은 90,771명, 한국학교 재학생은 12,322명으로 총 103,093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재외동포재단, 2014. 10: 7).

표 II-8 재외동포 교육기관 청소년(유·초·중·고) 재학생 현황(한글학교, 한국학교)

(단위: 명(%))

지역별	한글학교	한국학교	전체
아주·대양주	18,590	11,594	30,184
북미	54,993	-	54,993
중남미	4,986	571	5,557
구주, 러·CIS	10,748	102	10,850
아·중동	1,454	55	1,509
계	90,771	12,322	103,093

* 재외동포재단(2014. 10). 2014 재외동포 교육기관현황. p.7와 p.305~306에서 재구성.

한글학교 재학생을 교급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재학생 90,771명 중에서 초등학생이 50.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유치원생(23.6%), 중학생(16.8%), 고등학생(9.4%)의 순으로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외동포재단, 2014. 10: 7).

표 II-9 재외동포 교육기관 재학생 현황(한글학교)

(단위: 명(%))

지역별	청소년					성인	전체
	유	초	중	고	소계		
아주·대양주	4,229	11,127	2,316	918	18,590	6,589	25,179
북미	13,584	27,597	8,977	4,835	54,993	2,709	57,702
중남미	843	2,327	1,013	803	4,986	1,112	6,098
구주, 러·CIS	2,428	3,744	2,681	1,895	10,748	4,922	15,670
아·중동	337	778	268	71	1,454	294	1,748
계	21,421	45,573	15,255	8,522	90,771	15,626	106,397

* 재외동포재단(2014. 10). 2014 재외동포 교육기관현황. p.7에서 재구성.

한국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12,322명 중에서 초등학생이 44.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생(25.8%), 중학생(22.4%), 유치원생(7.3%)의 순으로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외동포재단, 2014. 10: 305~306).

표 II-10 재외동포 교육기관 재학생 현황(한국학교)

(단위: 명(%))

지역별	유	초	중	고	전체
일본	27	925	525	521	1,998
중국	392	2,448	1,422	1,657	5,919
대만	29	71	-	-	100
인도네시아	-	368	184	323	875
싱가포르	106	153	52	81	392
베트남	38	978	517	519	2,052
태국	-	34	25	37	96
필리핀	-	96	30	36	162
아주·대양주	592	5,073	2,755	3,174	11,594
파라과이	40	77	-	-	117
아르헨티나	149	176	-	-	325
브라질	72	57	-	-	129
중남미	261	310			571
러시아	50	52	-	-	102
구주, 러·CIS	50	52			102
사우디아라비아	-	26	-	-	26
이란	-	10	-	-	10
이집트	-	19	-	-	19
아·중동		55			55
계	903	5,490	2,755	3,174	12,322

* 재외동포재단(2014. 10). 2014 재외동포 교육기관현황. p.305~306에서 재구성.

2) 재외동포청소년의 연구 동향

재외동포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 대표 학술저널인 학술정보연구서비스(RISS)에 수록되어 있는 사회과학분야 논문 중에서 재외동포, 재미동포, 재일동포, 재중동포, 재러동포, 고려인 등 재외동포 관련 검색어로 검색한 후 중복된 논문을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1965년 이후에서 2015년 8월 현재까지 재외동포 관련 연구는 총 544편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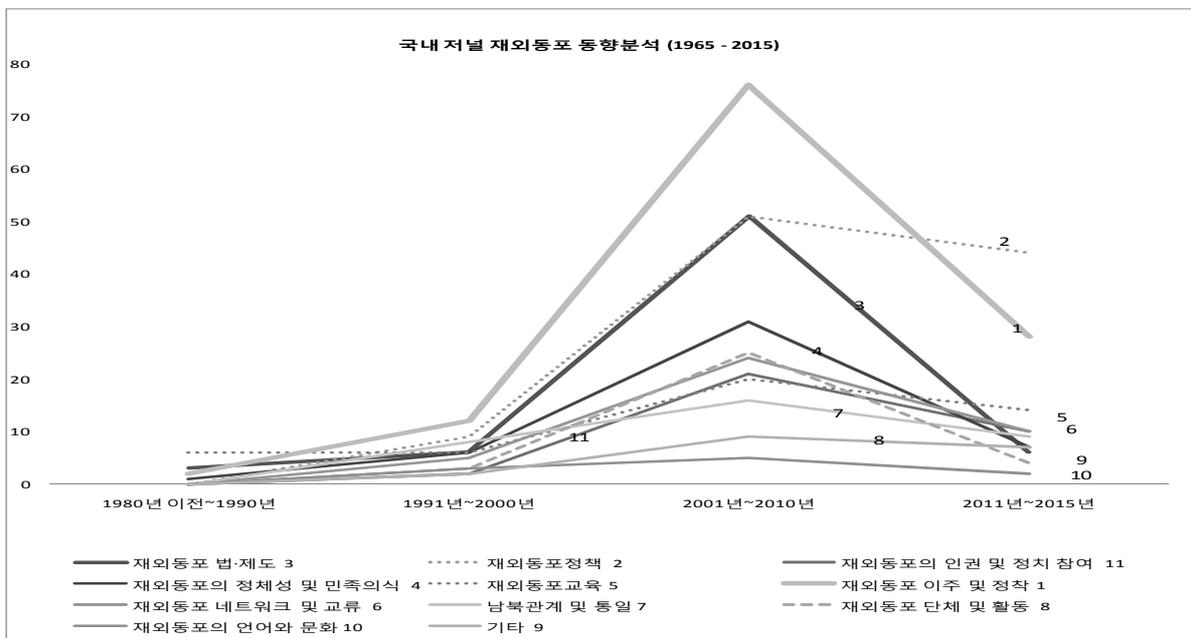
10년 단위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1990년 이전까지는 12편의 연구만이 진행되었으나 1991년~2000년 사이에는 62편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2010년에는 329편, 그리고 2011년 이후 2015년 현재까지는 141편으로 2011년 이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별로 재외동포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재외동포의 이주와 정착과 관련한 주제가 118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재외동포정책(104편), 재외동포 관련 법·제도(66편), 재외동포교육(46편), 재외동포의 정체성 및 민족의식(45편), 재외동포 네트워크 및 교류(39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2015년 현재까지 최근 5년간의 연구는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한 연구(44편)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28편), 재외동포교육(14편), 재외동포의 인권 및 정치 참여(10편)와 재외동포 네트워크 및 교류(10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까지도 재외동포 이주와 정착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보다 높아진 것을 보이고 있다.

표 II -II 재외동포 연구동향 분석

주 제	시 기				계
	1980년이전 ~ 1990년	1991년~ 2000년	2001년~ 2010년	2011년~ 2015년	
재외동포 법·제도	3	6	51	6	66
재외동포정책		9	51	44	104
재외동포의 인권 및 정치 참여		2	21	10	33
재외동포의 정체성 및 민족의식	1	6	31	7	45
재외동포교육	6	6	20	14	46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2	12	76	28	118
재외동포 네트워크 및 교류		5	24	10	39

주 제 \ 시 기	1980년이전 ~ 1990년	1991년~ 2000년	2001년~ 2010년	2011년~ 2015년	계
남북관계 및 통일		8	16	9	33
재외동포 단체 및 활동		3	25	4	32
재외동포의 언어와 문화		3	5	2	10
기타		2	9	7	18
총 계	12	62	329	141	544



【그림 II-2】 재외동포 연구동향 분석 (1965~2015)

논문 주제 영역별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재외동포 관련 법·제도의 경우에는 재외동포법 제정과 이중국적, 출입국과 법적 지위 등과 관련한 내용이 있었고, 재외동포정책의 경우에는 중국, 일본, 인도, 독일, 러시아, 이스라엘 등 국가별 재외동포정책, 남북한 재외동포정책비교, 그리고 각 정부별 재외동포정책 등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표 II-12 재외동포 연구 세부 내용

주제 영역	주제별 세부 내용
재외동포 법·제도	기본법제정, 재외동포법 개정, 국적 취득문제, 이중 국적 허용, 출입국과 법적 지위 등
재외동포정책	국가별 재외동포정책, 북한 재외동포정책, 남·북한 재외동포정책비교, 각 정부별 재외동포정책의 현황과 향후 방향
재외동포의 인권 및 정치 참여	재외국민선거, 지방자치참여, 한국과 거주국에서의 재외동포인권 위상, 정치의식과 참여, 거주국에서의 정치세력화 등
재외동포의 정체성 및 민족의식	민족·언어·집단·세대별 정체성, 민족의식 등
재외동포교육	민족교육, 한글교육, 자녀교육, 기술 연수, 인턴십 교육, 한글학교, 한국 학교 실태, 교직 경험,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등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이주역사, 디아스포라, 조선족·고려인 한국 재이주, 재일 한국인 뉴커머형성과정, 거주국과 한국사회에서의 적응, 한인 사회 갈등·통합, 조선족 집거구 해체위기, 생활문화(취업, 결혼, 세대관계 등) 등
재외동포 네트워크 및 교류	한상네트워크, 민간네트워크, 취업네트워크, 차세대 네트워크, 경제 공동체 형성 등
남북관계 및 통일	남북관계와 교류, 이산가족과 재외동포, 통일과 재외동포 역할, 의식, 통일대비 인적자원활용 등
재외동포 단체 및 활동	거주국 한인단체, 단체간의 갈등과 통합, 동포 사회에서의 언론의 역할, 거주국에서의 사회운동 등
재외동포의 언어와 문화	언어실태, 한류와 축제를 통한 한국과 거주국의 새로운 관계구축, 고려인 문화계승, 민족문화 현황 등
기타	재외동포개념,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의 인식, 해외동포 모국연수, 외국적 동포 노동시장, 재중동포 범죄와 대책, 재외동포이미지 등

재외동포 인권 및 정치 참여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선거, 지방자치 참여, 재외동포 인권 신장, 거주국에서의 정치세력화 등에 관한 내용이 있었으며, 재외동포의 정체성 및 민족의식의 경우에는 민족정체성, 언어정체성, 집단정체성, 세대별 정체성과 민족의식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재외동포교육의 경우에는 민족교육, 한글교육, 자녀교육 등의 교육현황과 한글학교, 교재, 프로그램 등 교육환경에 관한 내용이 있었으며, 재외동포 이주와 정착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이주역사와 고려인 강제 이주, 일제인 강제 이주, 하와이 농장 이주, 소련 해체 이후 고려인 재이주 등 디아스포라, 한국으로의 재이주, 한인사회의 통합과 갈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재외동포 네트워크와 교류의 경우에는 한상네트워크, 민간네트워크, 취업네트워크, 차세대네트워크 등 다양한 네트워크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내용이 있었고, 남북관계와 통일의 경우에는 남북관계와 교류, 이산가족, 통일과 재외동포의 역할, 통일 대비 인적자원 활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재외동포단체와 활동의 경우에는 거주국 한인단체 현황, 단체 간의 갈등과 통합, 동포사회에서의 언론의 역할, 사회운동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재외동포의 언어와 문화의 경우에는 언어실태, 한류와 축제를 통한 새로운 관계 구축, 문화계승, 민족문화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밖에 기타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개념과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모국연수, 외국인 동포의 노동과 범죄 등의 내용이 있었다.

한편, 재외동포청소년과 관련한 조사 연구를 살펴보면, 그동안 성인과 함께 수행된 경우도 있지만 청소년에 국한해서 이루어진 경우는 주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 대상 국가는 주로 미국, 중국, 일본, CIS 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국가별 특성에 따라서 면접조사, 온라인조사, 우편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청소년의 생활실태, 교육실태, 민족정체성,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구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생활실태 영역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 이해의 출발점으로서 부모의 가치관과 가정교육, 특히,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활용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실제로 부모의 영향과 한국어능력 등은 재외동포청소년의 민족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이석인, 임영언, 2011: 538~539)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수립 시 부모교육과 가정생활환경 등이 중요한 시사점이 되고 있다.

표 II-13

재외동포 청소년 조사연구 동향

연구자 (연도)	목적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조사내용
성경룡 외(1999)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 형성 의식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거주 재외동포 - 만 20~60세 미만의 성인 남녀 1,000명(국가별 250명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11.15. ~12.4 - 방문면접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민족의 생활상 ·한민족 정체성·민족성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 ·한반도 통일·미래에 대한 의식 ·우즈베키스탄 거주 한민족의 이주실태
김경근 외(2006)	재외 한인의 민족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한인(학생, 학부모) - 중국 : 동북 3성 거주 학생 361명 - CIS :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카자흐스탄(알마티) 353명 - 일본 : 도쿄, 오사카 거주 학생 약 418명 - 미국 : 뉴욕, 메릴랜드, 볼티모어, 시카고, 실리콘밸리, 휴스턴, LA 학생 약 31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 12. ~2005. 2. ·한글학교 등 현지 관련기관 및 단체 학생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구사능력 ·한민족으로서의 자부심 ·한민족에 대한 인식 ·민족기관의 접근성 ·민족교육의 필요성 ·민족교육의 문제점 ·민족교육의 기여점 ·한국유학 및 한국기업에서 일할 의향 ·정체성 갈등 정도 등
윤인진, 채정민(2007)	한민족청소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 연변자치주, 북경, 산둥성, 요녕성 및 기타 지역 5개 지역 거주 조선족청소년 845명 - CIS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4개 국가 13개도시 거주 16~24세 청소년 905명 - 일본 :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15~24세 청소년 2,500명 - 미국 :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볼티모어, 워싱턴 디씨, 어바나 샴페인, 토론토 및 인근 도시 등에 거주하는 한인 고등학생, 대학생 82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2007. 5~8 ·현지 지역 교수에 조사 의뢰 - CIS: 2007. - 일본:2007. 6~8 ·우편조사와 조사원 자택 방문조사 - 미국:2007. 8~10 ·인터넷 설문 조사 사이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 생활 ·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한민족 정체성 ·네트워크 구축

연구자 (연도)	목적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조사내용
이석인, 임영연(2011)	재일코리안 청소년의 민족정체성 형성요인과 효과조사	-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코리안 청소년(13~24세) 633명	- 우편조사와 면접조사 병행 실시	· 연령, 이름형식, 국적, 부모배경, 출신학교 · 한국어능력 · 부모의 영향 · 민족정체성 · 일본국적 선호도 · 한국관심도 · 한국이미지 · 네트워크활동
허동원 외(2012)	재외동포 차세대 의식조사	- 재외동포재단의 해외동포 사업 참가 경험자 : 약 3,481명(390명) - 세계 각국 재외동포 차세대(371명) : 재한조선족 유학생네트워크 등 재외동포 차세대단체, 재외국민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가입자, 해외소재 한인회 및 상인협회, 해외 한인 교회 목회자 및 교인 - 한국, 중국, 일본, 북미, 중남미, 동남아, 유럽, CIS지역, 대양주(호주, 뉴질랜드 등), 기타(아프리카 등)	- 2012. 9~11 - 재외동포재단의 해외동포 사업 참가 경험자: E-mail 조사 - 세계 각국 재외동포 차세대 : 재외동포 차세대 활동 각국의 주요거점 검색, 설문조사와 해외 거주 현지인을 통한 조사 병행 실시	· 한국 방문 경험 · 한민족 자긍심 · 한국어 구사수준 · 재외동포단체활동 및 친목 네트워크 · 정부 및 재외동포재단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등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한글학교, 민족학교는 가정 이외에 한국문화를 접하게 되는 거의 최초의 접촉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가별로 한국어 및 민족교육의 기반과 교육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에 대한 관심과 유대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경우에 거주 국가의 환경 변화와 함께 주류사회로의 진출 목표와 기존 민족교육과의 상충되는 측면은 민족교육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족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한국어 및 민족교육 환경에 대한 실태 파악과 인식 조사, 지원방안 등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김경근 외, 2006).

한민족 공동체에의 소속감 혹은 동일시 등을 의미하는 민족정체성은 그동안 많은 연구의 주제가 되어 왔다(정영훈, 2010; 이석인, 임영언, 2011; 임영언, 김태영, 2008). 이민의 역사와 진행됨에 따라 1세대, 1.5세대, 2세대, 3세대 등 세대별로 변화하게 되는 민족정체성은 모국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어 왔다. 민족정체성을 측정하고 그 유형을 분류하는 것을 비롯하여(성경룡 외, 1999; 윤인진 외, 2007), 어떠한 요인들이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민족정체성의 정도에 따라서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연령, 한국식 성명과 거주국 성명을 사용하는 등의 이름형식, 부모의 영향, 한국어능력 등은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이석인, 임영언, 2011: 538~539), 또한 민족정체성은 한국에 대한 관심도, 한국이미지, 네트워크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황혜경, 2015: 301; 이석인, 임영언, 2011: 540).

한편, 화교네트워크, 유대인네트워크, 인교네트워크 등 지구화와 함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해 가고 있는 글로벌 민족네트워크 사례는 한민족 발전을 위한 한민족 네트워크에 대한 실태 점검과 향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기 위한 노력에 영향을 주어 왔다(성경룡 외, 1999; 김인영, 1999; 전형권, 2004a; 전형권, 2004b). 특히, 재외동포청소년 네트워크 형성의 문제는 최근 차세대 재외동포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미래 동포사회 주역으로서의 차세대 재외동포청소년들을 한민족을 이끌어갈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모국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재외동포청소년 자신의 발전은 물론 미래 한반도공동체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다(이진영, 박우, 2013; 윤인진, 2013; 윤인진, 2005). 실제로 정부에서는 차세대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유능한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재외동포재단, 2014a: 23~33).

3. 재외동포 청소년정책의 변화

1) 해방 초기의 교육정책

(1) 이승만 정부의 재외동포 청소년정책

한국정부 수립이후 이승만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약 60만 명의 재외동포정책에 집중되어 있었다. 많은 재외동포들이 해방이후 귀국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전히 일본에 남아있었

고, 이들의 법적지위와 생활 그리고 청소년 교육은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였다. 하지만 국내의 정치 혼란 속에서 한국정부는 재일동포의 실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도 국내정치를 우선하여 주일 한국대사를 통해 재일한인의 권익을 지키려고도 하였지만, 적극적으로 재일한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았다(김태기, 2000: 61-74).

재일동포 청소년의 교육문제도 마찬가지였다. 1949년 현재 민단(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계 학교는 교토(京都)와 오사카(大阪) 그리고 효고(兵庫)에 4곳 밖에 없었고, 총 재학생은 1천 명이 되지 않았다. 이들 학교는 모든 학급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당시 민단계는 동포 청소년을 위한 학교가 턱없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학교를 늘려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일부 재일동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생계조차도 어려웠다. 민단은 부족한 학교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1953년 10월 민단 전체대회에서 도쿄(東京)에 한국학원을 설립할 것을 결의하고 그 준비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민단측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금 6천만 엔과 본국에 요청하여 지원 받은 34,500 달러(약 800만 엔)중에서 250만 엔은 지방 민단 육성비로 그리고 나머지는 한국학교 건설비로 충당하였다. 34,500불은 이승만 정부가 처음으로 민단에 지원한 경비였다. 이후에도 민단측은 한국정부에 대하여 재일동포 청소년 및 교원에 대한 지도를 요청하였으나, 이승만은 예산을 이유로 이를 보류하였다(김봉섭, 2009: 180).

한편 친북단체인 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 1955년에 결성된 이후 북한은 재일동포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1955년 9월 김일성은 총련 관계자와 접견한 자리에서 재일동포 청소년을 위해 거액의 교육원조비 및 장학금 지원, 그리고 북한에서 유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도 교육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한국정경연구소, 1974: 165).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교부는 1956년 2월 처음으로 재일동포의 교육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총련계 조선인학교가 민단계 학교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중앙대학교 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288-289). 또한 민단측으로부터 재일동포 교육을 위한 법령제정, 교육기관 신설 및 보수, 교사 재교육, 재일동포 거주지역에 도서관설치, 교육행정관 파견, 대학졸업자의 본국 취업 등을 요청받았다. 이후 문교부에서는 동포 교사 초청, 장학관 파견, 장학금 제도 도입, 학교시설 보조비, 현장교육담당 시찰단 방한, 교사 봉급 보조, 재외동포 학생 본국 초청 등의 사업을 검토하였다(김봉섭, 2009: 183).

그 결과 남한 정부는 1957년에 민단계 학교시설보조비 명목으로 22,000달러(약 500~580만 엔)와 교과서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문교부는 11월 교육관 1명을 주일한국외교대표부 보좌관으로 파견하려고 외무부와 협의하였는데,¹³⁾ 파견 여부는 확실치 않다. 당시 문교부는

민단체 한국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였으나 대부분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한편 북한은 총련에 약속한 대로, 1957년 4월에 약 1억 2천만 엔의 교육원조비를 1차로 송금하였다. 또한 10월에는 약 1억 엔의 교육원조비가 2차로 송금되었다. 한국정부의 지원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이들 자금으로 총련은 총련계 청소년을 위한 조선인학교를 증설하고 조선대학교의 부지 등을 매입하였다(金德龍, 2004: 192). 이후에도 교육원조비는 꾸준히 송금되었다.¹⁴⁾

남북한의 재일동포 교육정책이 비교 되는 속에서 한국정부는 과거처럼 민단체 청소년의 교육을 방치할 수 없었다. 1958년 5월 4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민단 출신의 이옥동 의원은 8월에 열린 제29회 국회(민의원)에서 “재일교포민족교육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하여 통과되었다. 그 내용은 ① 장학관 및 교사의 일본 파견, ② 민단체학교 교사의 본국 연수, ③ 학교 증설 및 장학금 지급위한 특별재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¹⁵⁾ 이들 사항은 과거에 이미 민단이 한국정부에 요청한 내용들이었다. 이와 같은 결정이 반영되어, 1958년도에는 학교시설보조비(39,600 달러) 외에도 교사봉급 보조비(15,200 달러) 및 학생 장학금(20,000 달러)이 추가로 지급되었으며, 또한 1959년에는 재일모범학교설치비(160,000 달러)가 추가로 지원되었다. 당시 교과서 공급비를 제외한 지원금액은 1957년에 22,000 달러, 1958년 74,800 달러, 1959년 176,000원으로 매년 예산이 증액되었다(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287-288). 하지만 앞서 소개했듯이 이들 금액은 북한이 총련에 지급한 교육 지원금과는 비교되지 않는 금액이었다.

당시 문교부나 민의원이 재일동포교육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지원을 늘려갔지만 이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동포교육이 아니었다. 조총련계 조선인학교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또한 많은 학생이 일본인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실태 그리고 나아가 민단보다 우세한 조총련 세력, 재일동포의 북한으로의 귀환 요구 등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재일동포 교육을 완전히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교육지원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적극적인 총련 지원 하에서 총련은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던 반면, 이승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민단체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던 참에 일본정부는 1949년 초, 북한이

13) 총무처, “재일교포 교육비 보조와 교육관 파견의 건”, 『제107회 국무회의(1957.11.05.) 회의록』, 국가기록원 소장 (<http://theme.archives.go.kr/next/cabinet/keywordSearchResultDescription.do> 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14) 2008년 4월 현재까지 북한의 교육원조 및 장학금은 총154회에 걸쳐 462억 1122만 3천 엔이 제공되었다(김봉섭, 2009: 181).

15) 김태기, 2000: 73-74; 총무처, “재일교포민족교육대책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국무회의 회의록(1958.08.29.)』, 국가기록원 소장(<http://www.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Up.do>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요구하던 재일동포의 북한으로의 귀환을 받아들였다. 이에 민단측은 북송반대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6월에 자신들에 무관심해 온 남한의 자유당 정권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김태기 2000: 75).

한편 일본 지역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대만에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룽 초등학교(基隆韓僑國民學校)가 있어 문교부에서는 1953년부터 2명의 교사를 파견하였다. 나아가 1958년부터는 교사봉급보조 및 학교시설 보조비로 8,800달러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290, 483).

(2) 장면 정부의 재외동포 청소년정책

1960년 4·19 혁명의 결과 윤보선 대통령, 장면 수상의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이른바 장면 정부는 이승만 정부보다는 재일동포사회, 특히 민단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다. 우선 한국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이 민단측과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00만 달러를 1960년 12월과 1961년 1월에 송금하였다. 또한 국내 입국이 쉽지 않은 당시, 1월에는 민단체 모국방문단 267명이 부산에 도착하였다(김태기, 2000: 78).

당시 문교부는 재일한인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도 이승만 정부보다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1960년 8월 문교부는 33개항의 문교행정 실천사항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해외교육행정”과 관련해 ① 재일교포 교원에 대한 재교육의 강화, ② 재외국민 교육의 강화, ③ 해외유학생의 지도 강화, ④ 국제문화 교류의 강화(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482) 등의 시책 등을 내세웠다.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의 정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재외동포 청소년 및 유학생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강화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이어 문교부는 1961년 2월 “재일교포상황시찰단”을 파견하여 재일동포의 교육실태를 파악하였다(김태기, 2000: 78).

표 II -14

장면 정부의 재일동포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사업지역	교육지원 내용	비 고
일본 현지	모범학교 설치비	이승만 정부의 교육 지원 사업을 승계
	시설 보조비	
	교사봉급 보조비	
	학생 장학금 지원	
	교과서 공급	
	주일한국외교대표부에 장학관 파견	문교부직제 개정 (1961년 3월 18일, 국무원령 제233호)
한국 국내	재일교포학교 교사초빙 재교육(1960년)	예산은 계상되었으나 집행 여부는 불명확
	재일교포학생초청 특별지도(1961년)	

* 출처: 1) 총무처, “재일교포 교육비 보조와 교육관 파견의 건”, 『제107회 국무회의(1957.11.05.) 회의록』,
(<http://theme.archives.go.kr/next/cabinet/keywordSearchResultDescription.do> 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2) 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1974). 문교사. pp. 482-483. 1) 2)에서 재구성

이상과 같은 시책을 반영하여 문교부는 일본 현지에서의 교육사업은 우선 이승만 정부 때부터 시행한 모범학교 설치비, 학생 장학금, 시설 보조비 지원, 현지 학교 교사봉급 보조비, 교과서 공급은 그대로 유지하였다(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482).

그리고 추가로 1958년 8월 국회에서 통과된 교육 공무원의 현지 파견 결정을 실천에 옮겼다. 문교부는 1961년 3월 18일 문교부직제를 개정(국무원령 제233호)하여 재외공관에 장학관을 파견할 수 있게 하였다(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483). 이 정령에 의해 문교부는 주일 한국외교대표부 내에 장학관실을 설치하고 동년 12월에 장학관 1명과 교사 9명을 일본에 최초로 파견하였다. 파견된 교사들은 도쿄, 교토, 오사카 등의 지역에서 민족교과를 담당하였다(석윤균, 1996: 24).

그리고 국내에서의 재일동포 교육 사업과 관련해, 문교부는 1960년에 재일한국학교 교사를 초빙하여 “재일교포학교교사초빙 재교육” 및 1961년에는 “재일교포학생초청특별지도”와 관련된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실시 여부는 확실치 않다.¹⁶⁾ 현지 학교 교사를 초빙하여 ‘재교육’을

16) 일반적으로 재일동포 청소년의 모국수학은 1962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960년부터 1969년 사이에 문교부가 집행한 경비 내역을 보면 재일동포 교사초빙연수는 1960년부터, 재일동포 학생 초청은 1961년부터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5·16혁명 등의 내란 상황에서 자료가 멸실 되었는지 구체적인 수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972: 209-210(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

한다거나, 재일동포 학생을 초청하여 '특별지도'를 한다는 등의 용어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이른바 현지 교사 및 학생에 대한 민족 및 국가의식의 제고라는 정치적 목적이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이들 사업은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교사연수 그리고 재외동포청소년 국내 단기 연수의 효시가 되었다.

한편 대만에는 1960년에 가오슝(高雄)에 주중한국대사관이 직영하는 민족학교가 추가로 설치되어, 문교부는 2명의 교사를 추가로 파견하였으며, 교사봉급과 학교시설보조비로 기존의 8,800 달러를 계속하여 지원하였다(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483). 나아가 지룽소학교 대북분교가 1962년 개설되어 1963년에는 타이페이(臺北) 한국학교로 명칭을 바꾸었다(한경구, 1996: 41).

2) 국가안보와 반공정책

(1) 박정희 정부의 재외동포 청소년정책

① 초기(1962~1968)

박정희는 1961년 정변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역임하면서, 1962년 3월 윤보선 대통령의 사임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에 겸하게 되었다. 그런 와중인 3월 9일 "해외이주법"(법률 제1030호)이 제정되었다. "인구정책의 적정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국위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국내경제 발전의 돌파구로 해외 이주를 적극 장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정희 정부 초기인 6월 26일 정부는 재외국민정책 수립 및 현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재외국민 지도위원회"¹⁷⁾를 설치하는 등 특히 재일동포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1962년 당시 외무부의 재일국민정책은 자유주의 남한 국민으로서의 단합과 법적 지위 향유, 공산세력으로부터 재일국민보호와 생활 향상, 한일관계 증진에 기여하게 함, 일본에서의 영주를 유도한다는 것이었다.

연구소, 1974: 490 참조).

17) 외무차관을 위원장(간사장은 외무부 정무국장)으로 하여 내무, 재무, 국방, 문교, 교통 및 공보부 각 차관과 중앙정보부제 3국장 등 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재외국민 관련 정책 수립, 재외국민 교육 및 유학생 지도, 이민 보호, 재외국민단체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위원회는 9월 10일 단 한 번만 열리고 활동이 없어 이후 1968년 9월 폐기되었다. 실무자 차원에서 충분히 업무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김태기, 2000: 79).

이에 따라 재일한인사회에 남한을 홍보하고 반공 선전을 하는 동시에 민단조직에 대한 강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 시작하였다(김태기, 2000: 79-80).

군사정권 하에서도 재일한인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사업은 장면 정부가 설정한 교육방향이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년도에 따라 사업 항목에 약간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일본 현지’에서의 재일동포청소년 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한국학교 시설 보조비와 현지 학생 장학금 그리고 현지 교사 봉급 보조 및 정부과건 교사 인건비 지원 및 교과서를 공급하였다(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481-483)

그런데 박정희 정부 초기의 ‘일본 현지’에서의 재일동포 교육정책과 관련해 주목할 것은 우선 문교부가 1963년 4월부터 도쿄, 오사카, 교토 등 10개소에 “재일교포교육의 장기적 진흥책을 위한 사회교육적 수단의 총체로서의 성격”을 가진 한교(韓僑)교육문화센터를 문교부 직할 사업으로 개설하였다는 것이다(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484).

그동안 한국정부의 일본 현지에서의 재일동포 청소년 교육은 민단계 한국학교에 대한 지원에 치중되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민단계 재일동포 청소년의 대부분이 일본인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총련계의 조선인학교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대응책이 필요하였다.

이 센터의 주요 방침 및 업무를 보면, ① 학원 및 강습소를 개설하여 일본학교 재학생에 대한 국민 교육 실시, ② 일본학교 재학생에 대한 국민교과 교육과 투철한 반공 애국정신 함양, ③ 일반 성인 동포 대상 문명퇴치(국어교육) 및 남한 홍보, ④ 공보·선전활동 전개(애국심 및 민족성 배양과 남한 홍보 그리고 총련계 조선인학교 저지 및 민단계로 유인), ⑤ 재일한국인교육 후원회 육성과 장학금 지원 등 관리, ⑥ 일본의 교육기관 등과의 교류, ⑦ 기타 사업(민단계 및 총련계 조선인학교 실태 조사, 국어 장려 사업 등) 등이다(김상현, 1969: 242).

초기에는 삿포로를 비롯한 7개원만이 1명씩의 운영책임자가 배치되어 정상적 활동을 하였는데, 3개원에는 재일교포 신분의 교직 유경험자가 운영책임자로 임명되었고, 4개원에는 이미 교포학교에 부임하여 근무하고 있었던 파견교사가 임명, 배치되었다. 나머지 3개원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유명무실한 상태를 면치 못하다가 1965년과 1966년에 비로소 문교부 파견교원의 대폭 증원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¹⁸⁾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교교육문화센터는 “한국교육문화센터”로 개칭되었으며, 1969년까지 21곳으로 증설되었다. 그리고 이들 센터 산하

18)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재외한국교육원” 항목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56615&cid=46615&categoryId=46615>에서 2015년 10월 10일 인출.

에 105곳의 상설 국어강습소가 개설되었다(김상현, 1969: 242). 이 센터 운영은 문교부 파견 인력이나 예산 등 부족한 면이 많았으나, 나름 남한과 재일동포청소년의 가교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정부 초기의 ‘일본 현지’에서의 재일동포 교육사업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업은 “재일한국인 교육후원회”를 발족시켰다는 것이다. 문교부는 1963년 6월 19일 “재일교포 교육을 위한 재정기반을 확립하여 자주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민단체 재일동포를 중심으로 한 “재일한국인 교육후원회”를 발족시켰다. 정부지원금과 현지 모금으로 100만 불의 기금 확보를 목표로, 1969년까지 정부지원금 462,410 달러 그리고 현지 모금 196,618 달러를 합쳐 659,028 달러가 확보되었다(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487-488).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단체는 1973년 한국교육재단으로 발전하였다.

표 II -15 박정희 정부 초기 재일동포 청소년 등 교육지원 사업

사업 지역	교육지원 사업내용	비 고
일본 현지	한교교육문화센터(1963.4) 개설	→ 한국교육문화센터(1965)→ 한국교육원(1977.2)
	재일한국인 교육후원회 발족(1963.6.)	→ 한국교육재단(1973)
	재일한국학교 시설보조, 교사 봉급 보조, 정부 파견 교사 인건비, 도서 및 교과서 공급 교육행정비(주일장학실 운영비)	이승만 및 장면 정부의 교육 지원 사업을 승계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1977.2.)으로 법제화
한국 내	모국수학제도(1962년부터) 국비장학금지급	
	재일교포학생모국초청지도	재일교포학생 하계 단기교육 규정(1966.8.)→ 재외교포학생 단기교육규정(1978.6.)

* 출처: 1) 김태기(2000). 한국정부와 민단의 협력과 갈등관계, pp. 79-80.
 2) 김상현(1969). 재일한국인, p. 242.
 3) 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1974). 문교사, pp. 487-488 1) 2) 3)에서 재구성

‘한국 국내’에서의 재일동포 교육사업과 관련해 박정희 정부 초기는 재일동포 국내 유학생에 대한 지원, 재일동포 학생 모국초청을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였다. 우선 주목할 것은 1962년부터 재일동포 모국유학생을 국비장학생의 형태로 새롭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모국수학제도). 총련의 경우 조선인학교 및 조선대학교를 통해 조직을 지탱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있었지만,

민단계 민족학교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한국정부는 민단계의 잠재적 인재를 국내에 초청하여 민단계의 우수 인재로 양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숫자는 결코 많지 않았으나 1962년 첫해에 3명을 비롯하여 1969년까지 183명의 재일동포 유학생을 받아들였고, 1978년부터는 기타 지역의 재외동포 유학생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 제도는 국내에서의 재외동포 청소년 및 대학원생 교육의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하게 되었다(석윤균, 1996: 24).

그리고 과거부터 이어져온 “재일교포학생모국초청지도”사업과 관련해 한국정부는 1966년 8월 22일 “재일교포학생 하계 단기교육규정”(대통령령 제2705호)을 마련하여 제도화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을 재일한인 청소년에게 “조국애와 반공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일본계 중고교 및 대학에 재학하는 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울과 부산에 하계학교를 개설하였다.¹⁹⁾ 국내에서 3주간의 교육(한국어 교육, 산업체 및 유적지 견학, 민박 그리고 운동회 등)과 1주간의 연구지 방문 등 4주간의 일정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1966년부터 예산을 9배 이상 증액하여 참가인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그 결과 1965년까지는 50명 수준에서 이루어진 모국 초청 사업이 1966년에 469명, 1967년에 431명, 1968년에 648명, 1969년에 525명이었고 매년 당시 화폐로 1천만 원에서 1천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488-489).

당시 박정희 정부가 재일동포 청소년의 하계 단기 교육을 강화한 것은 동포 사회의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 한국정부가 기대했던 협정영주권을 신청하는 재일동포가 많지 않았다. 마치 협정영주권 신청현황이 남북한 대결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1966년 8월까지도 총신청자는 겨우 11,695명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지만, 당시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재일동포 사회 속에서의 민단계에 대한 강화가 절실한 정책 과제로 부상되고 있었다(김태기, 2000: 83). 이러한 당시의 상황이 재일동포 청소년에 대한 교육정책에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② 중기(1969~1976)

1969년 이후 한국정부의 재일동포를 중심으로 한 재외동포정책은 약간의 변화를 맞게 된다.

19) 『관보』 제4430호, 1966년 8월 22일, 국가기록원소장.

<http://theme.archives.go.kr/next/gazette/viewGazetteDetail.do?gazetteEventId=0028013904&actionType=keywor>에서 2015년 10월 10일 인출

한일협정 체결 이후 협정영주권 신청자를 둘러싼 재일한인사회의 남북대립은 남한 열세의 현상을 보였다. 1968년 1월 13일 현재 60만 명을 넘는 재일동포 중에서 협정영주권 신청자는 58,176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국회는 현지에 조사단도 파견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재외 국민의 지도·보호와 육성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하여 외무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1969년 2월 외무부에 “재외국민지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다.²⁰⁾ 외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관계부처 차관과 국회의원 및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재외국민지도 자문위원회는 실질적인 역할도 하지 못하고 폐지되고 말았지만 박정희 정부의 의욕은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정부는 총련 세력에 대항시키기 위해 민단 조직에 직접 개입하였다. 또한 민단과 협력 하에 총련 세력을 와해하려고 노력하였다(김태기, 2000: 84-86).²¹⁾

그리고 이 시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1962년 해외이주법 제정 이후, 해외로의 이민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1970년 6월 현재 재외동포(한국적) 수는 일본지역 595,241명, 미주지역 51,648 명, 유럽 7,732 명, 아세아 11,676 명, 중남미 5,810명 등 약 67만 명이였다(외무부, 1970: 5). 이후에도 특히 미국으로의 이민이 증가하였다. 재외동포정책의 방향이 재일동포 중심에서 기타 지역도 서서히 그 시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였다.

박정희 정부초기까지의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청소년 교육 사업도 재일동포 청소년이 그 대상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초부터 기타 지역 동포의 증가로 인해 이들 지역 청소년에 대한 교육도 중요한 과제로 서서히 부상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외무부는 중앙정보부의 관여 하에, 1969년 8월 7일~8일, “재일거류민단 강화 대책회의”를 주관하였다. 이 회의에는 민단 관계자가 73명이나 참석하여, 민단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경제, 교육, 법적 지위 등 민단의 요구사항에 대해 한국정부와 의견을 조정하는 자리였다(김태기, 2000: 85). 재일동포 사회에 총련세력이 우세한 속에서 민단세력을 강화시켜한다는 중앙정보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20) “재외국민지도자문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3765호, 『관보』 제5172호(1969.2.13.), (<http://theme.archives.go.kr/next/pages/viewer/archiveViewer.jsp?archiveld=0001650240&archiveEventId=0028028271&isEbook=Y>에서 10월 8일 인출)

21) 1971년 12월에는 “재외교포교육정책심의위원회”라는 자문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변광화, 1988: 17)

표 II -16 재일거류민단 강화 대책회의(1969.8.) 민단의 요구 사항과 정부의 대응

민단 요구		정부의 대응
①	장학관실 확장	장학관실 확장은 어렵고, 연차적으로 장학사 증원
②	재일교육위원회 강화	재일교육위원회 강화에 협조
③	도쿄와 오사카에 고등학교 신설 본국 진학을 위한 1년 예비과정을 일본 국내에 개설 민단 지도자 및 한국학교 교사 양성	고등학교 추가 설치는 예산상 어려움 일본에 1년 예비과정 설치는 예산상 어렵고 본국 내에 개설 본국 유학생 중에서 교사 양성
④	재일한국인 교육후원회 자금 목표액 200만 불 달성 위한 교육 보조금 증액	정부 목표액인 100만 불은 조속히 지원 노력, 자체 노력도 바람
⑤	본국대학 일본 분교 설치	예산 상 어려우므로 본국 유학 권장

* 출처: 재일민단 강화 대책회의. 서울, 1969.8.6.-9”, 외교사료관 분류번호 791.26, 등록번호 3358, pp. 1468-1469. 에서 재구성

재일동포 교육과 관련해 당시 민단이 제시한 요구사항은 ① 장학관실 확장, ② 재일교육위원회 강화, ③ 도쿄와 오사카에 고등학교 신설, 본국 진학을 위한 1년 예비과정 개설, 민단 지도자 및 한국학교 교사 양성, ④ 재일한국인 교육후원회 자금 목표액 200만 달러 달성 위한 교육 보조금의 증액, ⑤ 본국대학 일본 분교 설치 등이었다.²²⁾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① 장학관실 확장 어려우나, 연차적으로 장학사 증원, ② 재일교육위원회 강화에 협조, ③ 고등학교 추가 설치는 예산상 어려움, 일본에 1년 예비과정 설치는 예산상 어려우므로 본국 내에 설치, 본국 유학생 중에서 교사 양성, ④ 정부 목표액인 100만 달러를 조속히 지원 노력, 자체 노력도 바람, ⑤ 예산 상 어려우므로 본국 유학 권장²³⁾ 등을 약속하였다. 즉 한국정부로서는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본 현지에 학교나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약간의 교육비 보조와 국내에서의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 회의 결과를 재일한인청소년 교육정책에 반영하였다. 우선 재일동포 본국 유학생의 국내에서의 유학을 돕기 위해 1년간의 예비 과정을 국내에 개설하기 위해 1970년 6월 12일 서울대학교 내에 “재외국민교육연구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실 1962년부터 재일동포 모국 유학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후 꾸준히 국내에서의 유학생이 재적하였으나

22) 재일민단 강화 대책회의. 서울, 1969.8.6.-9”, 외교사료관 분류번호 791.26, 등록번호 3358, pp. 1468-1469.
 23) 재일민단 강화 대책회의. 서울, 1969.8.6.-9”, 외교사료관 분류번호 791.26, 등록번호 3358, pp. 1468-1469.

언어나 생활 등의 문제로 적응을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많았다(1969년의 경우 28%)(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621). 그간 한국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모국수학생지도연구소(1962년), 동 학생지도연구소(1964년), 동 어학연구소(1968년), 동 교양과 정부(1969년)를 설치하여 재일동포모국수학생을 관장하였지만(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621),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재외국민교육연구소는 7월에 개설되어 모국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국어 및 역사 등을 교육하는 1년간의 예비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동연구소는 100여 명의 모국 유학생(대학 및 대학원생) 중에서 총 50명에 대해 생활정도에 따라 10명에게는 수업료와 생활비 전액, 40명에게는 매년 10,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620-621; 동아일보, (1970년 6월 23일자.24).

또한 한국정부는 재일한국인 교육후원회(1963년 6월 설치)의 기금 지원도 조금씩 이행하였다. 보다 적극적인 기금 확보를 위해 민단은 1969년에 재단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1973년 일본 문부성의 인가를 받아 “한국교육재단”을 발족하였다. 문교부는 이 재단에 매년 일정 금액을 보조하였는데, 1963년부터 1973년까지 정부 보조비 557,410불, 현지 모금 1,057,410 불로 총 1,227,209 불이 모금되었다. 이 기금은 한국학교 운영비를 일부 보조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재일동포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지급, 여름학교 운영비, 한국어 및 학술 장려 사업비로 사용되었다. 민단계 재일동포들은 1974년부터 본격적으로 장학기금 조성에 나서, 1977년경 4억 4천여만 원의 기금이 확보되어, 그 이자사업으로 재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700여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민단30년사편찬위원회, 1977: 488: 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623-624).²⁵⁾ 이 재단은 지금도 민단계 장학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체 사업 수익 외에도 정부 보조비와 현지 기부금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2014년 3월 현재 약13억 엔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약 120여 명의 고교생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한국학 관련 장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²⁶⁾

나아가 재일동포 학생을 대상으로 한 4주간의 하계학교도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특히 1973년부터는 재미동포학생들도 63명이 참여하는 등(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621)

24) 카인즈, http://gonews.kinds.or.kr/BEFORE_90_IMG/1970/06/13/19700613DAM01.pdf에서 2015년 10월 11일 인출

25) 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의 『문교사』는 한국교육재단의 설립이 문교부의 일방적인 지시와 관리 하에서 한국 교육재단이 설립된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데, 민단30년사편찬위원회의 『민단30년사』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26) “한국교육재단 2013년도 수지결산서”

<http://www.kref.or.jp/wordpress/wp-content/themes/website/pdf/2013result.pdf>, 2015년 10월 7일 인출

재외동포 청소년 교육의 중요한 사업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1969년부터는 매년 재일동포 교육 공로자를 초청하였으며, 1973년부터는 민단 및 민단산하 교육기관 그리고 한국교육문화센터 관계 청년층 중견간부를 초청하여 약 3주간의 국내 교육 및 견학 등을 실시하였다(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624-625).

한편 일본 이외 지역의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교육도 문교정책의 과제로 부상되었다. 재미동포가 증가하는 속에서, 임기응변으로 주미대사관 장학실은 1970년 6월 워싱턴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 및 현지 공관원 자녀를 대상으로 토요일학교를 개설하였다. 현지에 한국학교가 없는 관계로 토요일학교는 유치부부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학기 중에는 매주 토요일 그리고 여름방학 중에는 하계학교를 개설하여 한국어 교육 등이 보충적으로 이루어졌다. 교사는 현지 유학생을 채용하였다. 워싱턴의 토요일학교가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자, 재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미국내 로스엔젤레스, 하와이는 물론 기타 국가로 급격히 확산되었다. 문교부는 이들 학교에 대하여 교과서와 각종 교재를 공급하였다(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974: 621-623). 즉 토요일학교가 한국학교가 없거나 한국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재외동포 청소년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1976년도의 주일 한국대사관 교육관실의 재일한국인 교육목표는 “1.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각과 투철한 반공·애국정신의 함양. 2.재일국민으로서의 건전한 생활능력의 배양 3, 협동·단결과 조화·친선의 증진”이었다. 그리고 교육방침은 한국학교 지도·육성, 한국교육문화센터의 활동 강화, 교육후원기관 확립, 모국수학·모국방문권장, 교육 문화교류 등이었다(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 1990: 130-131).

③ 말기(1977~1979)

가. 교육법 개정

1970년대 중반 이후는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그것은 재외동포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의 재외동포의 숫자 및 현지 공관원 및 상사 주재원 그리고 그 가족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의 재설정과 현지 청소년에 대한 교육대책이 과제로 부상하였다. 브라질 등 남미로의 농업이민, 미국으로의 가족초청 이민과

취업이민, 독일로의 광부 및 간호원의 취업이민, 중동과 아프리카로의 건설 관계자의 진출로 인해 세계 각지에 재외동포가 증가하였다. 외무부 통계에 의하면 재외동포수가 1970년에는 67만 명이던 것이 1979년에는 134만 명으로 200%로 증가하였다(외무부, 1986: 17). 둘째는 1972년에 유신독재가 시작된 이후 유신체제 확립이 정부정책의 우선과제였다. 즉 재외동포정책은 물론 재외동포 청소년 교육정책이 유신체제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1974년 8월 문세광 사건이 발생한 이후 조총련에 대항하는 반공단체로서의 민단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그에 따라 재외동포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반공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한국정부는 우선 1976년 12월 교육법을 개정(1976.12.31. 법률 제2980호)하여,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162조의 2)고 규정하였다.²⁷⁾

그간 헌법상에 국민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규정되어 있어도, 재외국민의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것이 이것이 처음이었다. 이미 재외동포 교육에 관한 사업이 진행되어 있어도 이와 같은 법적 명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977년 당시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방침과 방안은 첫째, 교민사회의 육성 강화로 민단조직을 총련 세력에 대항할 수 있게 육성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모국과의 연대 강화로 남한 홍보, 본국 투자 촉진, 2세 교포에 대한 교육 강화, 민단 중견 간부 연수 등이었다. 셋째는 “교민사회에 대한 북한 침투 저지”를 위해 총련 동포에 대한 모국 성묘단 사업 지속, 총련 단체 등에 대한 정탐과 대처 등이었다(외무부교민1과, 1977: 76-80). 즉 당시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여전히 재일동포 반공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들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민단 조직에 관여하고 막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시작하였다. 즉 한국정부는 1978년부터 민단에 대한 60,000 달러의 단체 육성비와 별도로, 매년 10억 엔이라는 거액의 지원금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이 거액의 지원금은 민단 강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로 지출되었다(김태기, 2000: 90). 이 거액의 지원금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지원금이 청소년 교육비로 지원되었다면 재일동포사회는 현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다.

27) “교육법 중 개정 법률”, 『관보』 제7538호, 1976.12.31. <http://theme.archives.go.kr/next/gazette/listKeywordSearch.do>에서 2015년 10월 7일 인출

개정 교육법 (법률 제2980호, 1976.12)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1977.2.28. 대통령령 제8461호)	재외국민교육원 설치령 (1977.3.18. 대통령령 제8511호)	재외교포학생 단기교육규정(1978, 6.21, 대통령령 제9049호)
제162조 2 (재외국민의 교육) ①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외국민 교육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 “교육기본법” 제정(법률 제5437호, 1997.12.13.)으로 “재외국민의 교육” 규정 삭제	재외국민교육심의회(제4조) (재외)한국학교의 설립(제9조), (한국)교육원 설치(제10조) (재외)교육기관 및 단체 등록(제11조) (재외)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한 운영 경비 및 교육비 지원(제14, 15조) 교육공무원 파견(제16조) 교원 연수(18조) 교과서 등 공급(제21조) 국내 교육기관 및 단체 설치(제22조) 재외국민에 외국국적 취득자 및 그 직계 비속 포함(제24조) 주: 교육법 폐지로 인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164호, 2007. 1.3 제정, 7.4. 시행)이 새롭게 제정됨.	1) 재외국민에 대한 기초교양 및 수학능력 배양 등 국내 학교 입학에 위한 예비 교육 2) 재외국민의 단기초청교육 3) 재외국민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연수 교육 4) 국내학교 재학 중인 재외국민에 대한 장학 및 생활지도 5) 재외국민에 대한 통신교육 6)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연구 및 교육자료의 편찬·발행·제작과 보급 주: 서울대학교 부속 재외국민교육원을 개편하여 문교부 산하 국제교육진흥원으로 직제 개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 13623호, 1992.3.28)→ 국립국제교육원 (2008.7. 명칭변경)	대상: 외국에서 중학교 이상 재학하는 교포학생 목적: 재외교포학생에게 조국애와 반공정신 함양 주: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 운영규칙”(교육부령 제616호, 1992. 7. 3.)으로 대체. 이후 국제교육진흥원 업무로 규정. · 고등학교 및 대학 예비교육과정 · 단기 교육과정 · 계절제 교육과정 · 교원 연수과정

*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관보』 제7586호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1977.02.28.)
(<http://theme.archives.go.kr/next/pages/viewer/archiveViewer.jsp?archiveId=0001652610&archiveEventId=0028088123& eBook=Y>에서 2015년 10월 9일 인출)

②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외국 현지에서의 재외국민교육

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당시 한국정부는 국내외에서의 재외동포 교육에 대한 법적 제도화 및 교육기관을 정비하였다. 우선 외국 거주지에서의 재외동포교육과 관련해, 1977년 2월 28일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8461호)”²⁸⁾을 제정하여 외국 현지에서의 재외국민

28)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관보』 제7586호, 1977.02.28. (<http://theme.archives.go.kr/next/pages/viewer/archiv>

및 동포 교육에 관한 법적 체계화가 이루어 졌다.

이 규정은 우선 그 대상을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이라고 규정(제1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민이었던 자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그 직계비속을 포함시킬 수 있다”(제23조)고 규정하여, 재외국민의 범위를 ‘국민’만이 아니라, 재외‘동포’까지 확대하고 있다. 재일동포 등 현지 국적을 취득하는 재외동포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한국정부의 교육정책이 재외동포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²⁹⁾

그리고 이 규정은 재외국민 교육을 위해 재외 한국학교의 설립(제9조), 재외 교육기관의 등록(제11조), 재외교육기관의 경비·보조금 지원 및 교과서 공급(제14, 15조, 21조), 교육공무원 파견(제16조), 교원 연수(18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과거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법제화한 것이다.³⁰⁾

그런데 이 규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앞에서 소개한 ‘재외국민의 범위’ 외에도 우선 재외국민교육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제4조). 문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부처 국장 및 전문가로 구성된 15인 이내의 심의회를 두어 재외국민 교육과 관련된 중요 심의를 하도록 하였다.³¹⁾

이 규정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재외국민에 대한 사회교육을 위해 외국에 ‘교육원’(제10조)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일본 전국에 산재해 있던 35개의 한국교육문화센터가 모두 “한국교육원”으로 개칭되었다. 또한, 운영책임자로 재일동포를 임명할 수 있었던 현지 채용제도가 폐지되고,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책임자(원장)를 임명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한국교육원은 한국 정부의 직영기관으로 바뀌게 되었다.³²⁾

eViewer.jsp?archivelid=0001652610&archiveEventId=0028088123&isEbook=Y에서 2015년 10월 9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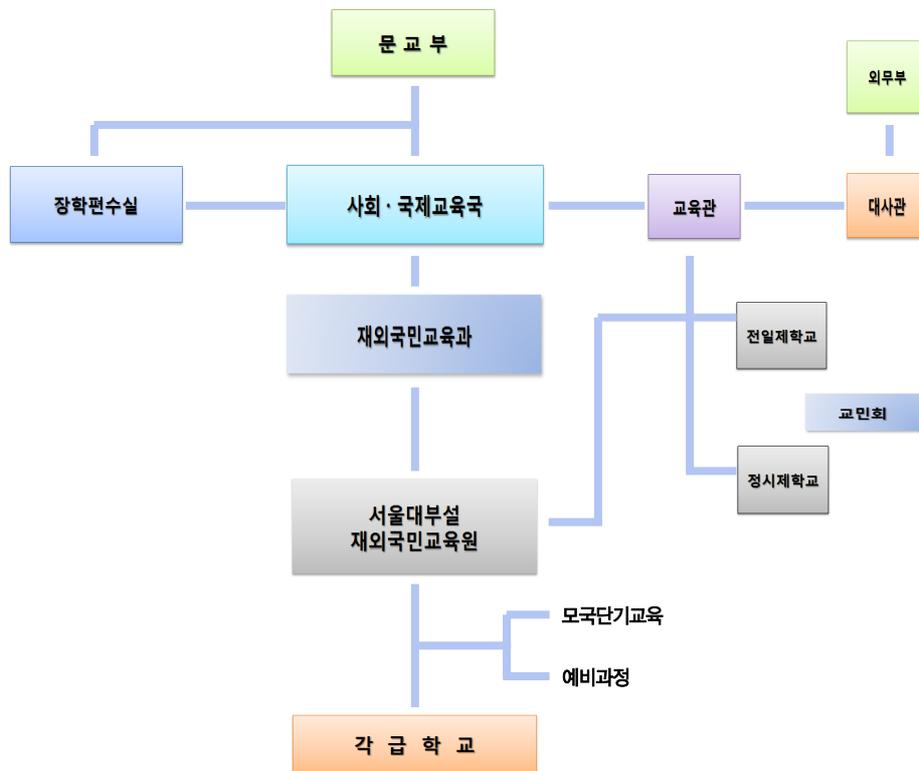
29)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관보』 제7586호, 1977.02.28. (<http://theme.archives.go.kr/next/pages/viewer/archiveViewer.jsp?archivelid=0001652610&archiveEventId=0028088123&isEbook=Y>에서 2015년 10월 9일 인출)

30)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관보』 제7586호, 1977.02.28. (<http://theme.archives.go.kr/next/pages/viewer/archiveViewer.jsp?archivelid=0001652610&archiveEventId=0028088123&isEbook=Y>에서 2015년 10월 9일 인출)

31)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관보』 제7586호, 1977.02.28. (<http://theme.archives.go.kr/next/pages/viewer/archiveViewer.jsp?archivelid=0001652610&archiveEventId=0028088123&isEbook=Y>에서 2015년 10월 9일 인출)

32) 한국교육원 설립은 총련과의 경쟁을 의식하여 일본국 지방행정구역 단위수에 따른 거점 확보 방식에 따라 증설하는 정책으로 추진되어 1985년 42개의 교육원으로 확장 설립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원이 원장 1인이 부담하여 운영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업무 수행의 곤란과 비능률성, 성과부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1990년에 몇 개의 교육원을 하나의 종합교육원으로 통합하여 운영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42개에서 19개로 축소 조정되었다. 1980년부터 구미지역에도 국력 신장에 따라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한국교육원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 3월 미국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에 한국교육원이 설치된 것을 비롯하여, 캐나다·파라과이와 유럽 여러 나라에도 설립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한국학중앙연구원, “재외한국교육원” 항목, 네이버지식백과.) 2015년 10월 10일 인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56615&cid=46615&categoryId=46615>에서 2015년 10월 9일 인출)

1962년에 대만의 타이베이 한국학교 이후 한국정부는 재외 한국학교를 신설하지 않았는데,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공포를 전후하여 한국정부는 중동과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5 개교를 신설하여 초중등 교육을 실시하였다. 테헤란 한국학교(1976년),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1976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젯다 한국학교(1979년)와 리야드 한국학교(1979년) 그리고 담맘 한국학교(1979년) 등 5개 학교를 설립하였다(석윤균, 1996: 34).



【그림 II-3】 재외국민교육 행정체계도(1977년 이후)

* 출처: 변광화(1988). 외국민교육의 발전방안모색에 관한 연구-정책적 측면에서, p. 20.
 김종철 외(1981). 在外國民教育發展 基本計劃에 관한 研究, p. 71.
 주: “교육관”을 “교육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정확함

③ 재외국민교육원: 국내에서의 재외국민교육

국내에서의 재외동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3월 앞에서 소개한 교육법 개정령(법률 제2980호)을 근거로 하여 3월 18일 “재외국민교육원 설치령”³³⁾을 공포하였다. 이 정령에 의해 서울대학교 “재외국민연구소”를 개편하여 “재외국민교육원”을 설치하고, 국내에서의 재외국민 교육과 관련해 모든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재외국민교육원의 역할은, ① 국내의 각 급 학교에서 수학하기 위하여 귀국한 재외국민에 대한 기초교양 및 수학능력의 배양을 위한 예비 교육, ② 재외국민의 단기초청교육, ③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에 근무하는 교직원(외국인 교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연수 교육, ④ 국내의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재외국민에 대한 장학 및 생활지도, ⑤ 재외국민에 대한 통신교육, ⑥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연구 및 교육 자료의 편찬·발행·제작과 보급(제2조)을 하는 것이었다.³⁴⁾

첫 번째 항목의 예비교육과정은 이미 앞서 소개한 것처럼 재외동포 모국 유학생의 국내 학교 입학 및 적응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도 면제되었는데, 이 사업의 대상은 재외국민으로서 고등학교예비교육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재외국민으로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그리고 대학예비교육과정 입학의 경우는 “재외국민으로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였다³⁵⁾

이 사업의 대상은 그간 재일동포 학생들이었으나 이 규정이 완비된 이후, 1978년부터 기타 지역 동포 학생의 입학이 증가하였다. 1977년에는 국내 대학에 75명이 입학하였으나 78년에는 342명, 79년에는 382명이 입학하였다. 1978년 이후 모국 유학생 수의 증가와 함께 거주국의 분포 상황에도 커다란 변화를 볼 수 있다. 정부는 모국 유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해 각 대학의 정원 외 입학과 함께 장학금 지급의 혜택을 주었다. 장학생 선발은 초기에는 서류전형이었으나 1980년대에 모국유학생이 급증하여 필기시험으로 변경되었다.³⁶⁾

33) 대통령령 제8511호, 『관보』 제7601호, 1977.03.18. 2015년 10월 10일 인출

34) 대통령령 제8511호, 『관보』 제7601호, 1977.03.18. 2015년 10월 10일 인출

35) 문교부령 제409호(1977. 7.5). 재외국민교육원설치령시행규칙 웹 페이지에서 2015년 7월 8일 인출.

36) 이 사업의 목적은 모국에서 수학 후 거주국으로 돌아가 현지 동포사회는 물론 모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었으나, 국내 거주자의 법적 맹점을 이용한 편법 입학이 많았다. “재외국민교육원설치령시행규칙”이 예비교육과정에 입소 자격인 교육과정 이수 연한을 ‘국외’로 한정하지 않아, 국내에서 학업을 어느 정도 마친 국민이 잠시 외국에 거주하였다가 ‘재외국민’의 자격으로 재외국민교육원에 입소한 후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특례 입학하는 편법이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야기 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1991년 9월 그 자격 관련 규정을 “외국에서만 9년 이상의 전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개정하였다(관보(1991.09.26). “재외국민교육원설치령시행규칙중 개정령, 교육부령 제599호”. <http://theme.archives.go.kr/next/pages/viewer/archiveViewer.jsp?archiveId=0001653777&archiveEventId=0028121371&>

재외국민교육원의 두 번째 역할로 규정된 “재외국민 단기초청교육”은 국내에서 시행하는 4주간의 재일동포청소년 하계학교 사업인데, 이와 관련해 정부는 1978년 6월 “재외교포학생 단기교육규정”을 마련하여 법제화하고 그 대상도 재일동포에서 모든 ‘교포’로 확대하였다. 이 규정에서 이 사업의 목적은 “재외교포학생에게 조국애와 반공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단기교육”이며, “외국의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교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기타 국내에서의 재외동포 교육 사업도 모두 재외국민교육원에서 관장하게 되었다.³⁷⁾

이상과 같이 외국 현지에서의 재외동포 청소년 교육과 관련해서는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문교부가 관리 및 집행을 하고, 그리고 국내에서의 재외동포 교육 관련 사업은 교육법 개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외국민교육원에서 주관하게 되었다.

(2) 전두환 정부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전두환 정부 초기인 1980년 10월, 헌법 2조 2항에 “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새롭게 규정(1987년 10월 29일 개정: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하여, 국가의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였다.³⁸⁾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이 과거의 재외동포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당시 전두환 정부는 박정희 정부의 반공중심의 재외동포 정책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교육정책도 민족교육은 물론 반공교육이 가미되었다.

isEbook=Y에서 2015년 10월 10일 인출)

37) 관보 7980호(1978.6.21), 대통령령 제 9049호 웹 페이지 <http://heme.archives.go.kr>에서 2015년 10월 10일 인출

38) 해당 조항의 삽입 과정에 대해서는 이형규(2000). **정책의제 형성과 전이에 관한 연구: 재일동포사회 활성화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p 108-120 참조



* 출처: 관보(1981.12.31). 제 9028호,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

【그림 II-4】 재외국민교육의 목표(전두환 정부)

1981년 9월 18일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개정(대통령령 제10675호, 1981.9.18.)하였지만, 그 주요 내용은 박정희 정부 시절 설치한 이후, 유명무실한 재외국민교육심의회를 폐지(제4조-8조 삭제)했을 뿐이고, 기타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교육을 규정한 “재외교포학생 단기교육규정”도 그대로 승계하였다.³⁹⁾

단지 당시 문교부는 외국으로의 이주자가 증가하고, 현지에서의 정착과 청소년의 적응 등 현실적 문제가 대두되자, 재외국민교육의 목표를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 함양과 외국 현지에서의 생활능력 배양 및 지원이라는 2원적 요소를 염두에 두고 재외국민교육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후자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대책과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외국민교육은 결과적으로 민족정체성 함양이 중심이 되고 또한 국시를 반영하여 반공교육이 동반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39)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 『관보』 제9028호, 1981년 12월 31일(<http://theme.archives.go.kr/next/pages/viewer/archiveViewer.jsp?archiveld=0001654050&archiveEventId=0028130535&isEbook=Y>에서 2015년 10월 9일 인출)

표 II -18 연도별 재외국민현황

연도	인구수	증감	비율(%)
1970	672,660		
1971	702,928	+30,268	4.5
1971	728,470	+25,242	3.6
1973	801,432	+72,962	10.7
1974	871,405	+69,973	8.7
1975	920,358	+48,953	5.6
1976	1,016,016	+95,658	10.3
1977	1,171,139	+155,274	15.3
1978	1,256,139	+81,849	6.9
1979	1,341,701	+88,562	7.1
1980	1,470,916	+129,215	9.6
1981	1,590,832	+119,916	8.2
1982	1,685,380	+94,548	5.9
1983	1,733,589	+48,209	2.9
1984	1,778,707	+45,118	2.6
1985	1,905,181	+126,474	7.1
1986	2,006,216	+101,035	5.3

출처: 외무부(1986). 재외국민현황. p. 17.

표 II -19 지역별 교민·체류자 현황

지역	교민수	체류자수	총계
일본지역	682,402	10,355	692,757
아시아지역	13,698	13,427	27,125
북미지역	1,071,142	66,454	1,083,593
중남미지역	69,448	3,620	73,088
구주지역	14,982	22,118	37,109
중동지역	47	89,942	89,989
아프리카지역	571	2,010	2,581
총계	1,798,290	207,926	2,006,216

* 출처: 외무부(1986). 재외국민현황. p. 21.

연도별 재외국민현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962년 해외이주법 제정 이후 1986년 6월 말 현재 약 200만 명이 해외에 거주하였다. 1970년 현재 재일동포를 중심으로 하여 약 67만 여명에 지나지 않던 재외동포는 10년 사이에 130여 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단순한 인력 송출 차원에서 벗어나 투자 이주라는 경제적 진출과 국위선양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남미 및 독일의 인력 송출에서 시작된 국민의 이주는 건설관계자의 중동진출, 목재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호주 등으로의 개인 이민이나 유학 등으로 확산되고 특히 미주로의 이주가 급증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의 필요가 대두된 것이다.

전두환 정부의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해 주목할 것은 1985년 6월 3일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는 것이다. “해외인력진출의 급증으로 재외국민에 관한 업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재외국민업무와 관련되는 기간간의 의견을 조정·협의하여 정부차원에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⁴⁰⁾이었다.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장은 외무부차관이며, 내무, 재무, 법무, 문교부, 국가안전기획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었다. 주요업무는 ① 재외국민의 정착지원, ②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 ③ 모국과의 유대 강화, ④ 국내·외 경제활동 지원, ⑤ 기타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조정이었다.⁴¹⁾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는 설립 초기에 년 2회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외무부는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 마련하고, 상공자원부는 재외동포와 관련된 경제분야 업무, 재무부는 해외이주비, 국내재산처분, 외국환 관리 및 외자 도입 등 세법 관련 업무, 문교부(교육부)는 재외동포 교육, 법무부는 국적 취득, 내무부는 국내 거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백영옥, 2014: 134-135).

그런데 1985년 7월에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북미지역교포사회내 제2조총련 세력형성 방지대책”, 12월에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는 “재미한인교회 및 교포언론 선도대책”이 회의주제로 심의된 것을 보면, 여전히 대북반공정책이 재외한인정책의 중요한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형규, 2000: 135).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재외동포를 비롯해 해외 체류 동포의 급증에 따라 1985년에 학계에서 교민청 설치를 건의하고, 외무부가 1986년 6월 “재외국민청 신설”과 관련해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재외동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정부차원에서 확실히 높아지는 시기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화 향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87년 5월, 문교부의 자문위원회 역할을 한 “교육개혁심의회 초·중등교육분과위원회(제2분과)”는 2차에 걸쳐 특별위원회(5.19; 5.21)를 개최하여 “해외교포교육 발전방안”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하였다. 당시 대학교수, 연구원, 고등학교 교장, 언론사 사장, 노총 부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가하였다. 5월 26일에

40) 관보(1985.6.3). 제11702호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규정. <http://theme.archives.go.kr>에서 2015년 10월 10일 인출

41) 관보(1985.6.3). 제11702호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규정. <http://theme.archives.go.kr>에서 2015년 10월 10일 인출

열린 교육개혁심의회 제42차 전체회의는 “해외교포교육 발전방안”를 의결하였다.⁴²⁾

이 교육개혁심의회 심의 의견서는 재외동포는 현재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경제 발전과 함께 증가 추세에 있어,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 자녀들이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모국어를 익히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자녀들도 현지에서 받은 교육이 귀국한 후에 학교교육과 잘 연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력배양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포교육을 강화·발전시키는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교육개혁심의회, 1987: i)고 지적하였다.

당시까지의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 및 청소년 교육정책이 조국과 민족 그리고 반공을 강조하며, 본국의 국가 안보 및 체제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6월 민주항쟁 1달 전에 제출된 “해외교포교육 발전방안”은 재외동포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미 문교부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재외동포 2, 3세 청소년의 민족적 정체성 확립과 현지에서의 적응 능력 배양이라는 2원적 요소를 반영한 재외국민교육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교포교육 발전방안”은 구체적인 과제로, ① 해외교포교육(전일제, 정시제, 통신교육, 단기집중교육, 모국수학)의 기회 확대⁴³⁾, ②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포교육 실시, ③ 교포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보급, ④ 우수한 담당 교원 확보 및 자질 향상(연수 등), ⑤ 교포교육 행·재정 지원체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교육개혁심의회 1987: ii-iii). “해외교포교육 발전방안”이 우리정부의 교육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노태우 정부이후이다.

한편 1987년 7월 전두환 정부는 “재외교포학생 단기교육규정”의 일부를 개정(대통령령 제 12215호, 1987.7.23.)⁴⁴⁾하였다. 개정된 규정은 여전히 “재외교포학생에게 조국애와 반공정신을 함양”(제1조)을 목적으로 하면서, 제3조 1항에서 규정한 단기 교육 담당기관을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서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확장하였다. 개정 이유는 참가학생 증가로 인한 교육 담당기관 확대 및 교육과정의 자율화였다. 둘째는 교육기관이 4주에서

42) 교육개혁심의회(1987), **해외교포교육 발전방안(정책연구 II-7)**, 서울: 문교부에서 필자 정리

43) 본 위원회는 재일한국학교를 본국 교육체계와 일본 교육체계를 갖춘 학교로 명확히 구분하여 장차 재일한국학교는 본국 교육체계를 갖춘 학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교육개혁심의회 1987: 61). 한국학교에서의 교육체계 문제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44) “재외교포학생단기교육규정중 개정령”, 『관보』 제10694호, 1987년 7월 23일(<http://theme.archives.go.kr/next/pages/viewer/archiveViewer.jsp?archiveld=0001655687&archiveEventId=0028198958&isEbook=Y>에서 10월 10일 인출)

2주로 줄어들고, 교육과정 및 시간 배당을 각 교육기관장이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다(재외교포학생 단기교육규정, 1987). 결국 단기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담당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역의 재외동포청소년을 초청하기 위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교육기간을 반으로 줄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II-20 재외한국학교(전일제) 현황

국명	학교수	교원수				학급수	학생수
		계	파견	현지채용	강사		
일본	4	142	21	98	23	62	1,655
자유중국	2	13	3	6	4	9	118
인도네시아	1	12	2	4	6	6	128
이란	1	16	1	9	6	9	93
사우디아라비아	3	31	7	15	9	24	397
이집트	1	7	1	2	4	4	40
바레인	1	5	1	3	1	4	35
쿠웨이트	1	8	1	6	1	7	81
리비아	1	8	1	7	0	7	43
미국	1	10	0	5	5	5	124
계	16	252	38	155	59	137	2,714

* 출처: 교육개혁심의회(1987). 해외교포교육 발전방안(정책연구 II-7), p. 9.

표 II-21 재외한국토요학교 현황

지역별	국가수	학교수	교원수	학 생 수					
				계	유	초	중	고	성인
아시아	14	22	139	1,600	393	1,035	333	20	30
북미	2	411	3,009	27,782	5,440	12,442	5,570	3,078	1,252
중·남미	12	32	223	3,141	560	1,933	445	119	84
구주	12	47	238	3,202	916	1,496	520	192	78
중동	3	3	17	164	63	82	14	5	0
아프리카	6	6	18	146	59	64	23	0	0
계	49	521	3,644	36,035	7,220	17,052	6,905	3,414	1,444

* 출처: 교육개혁심의회(1987). 해외교포교육 발전방안(정책연구 II-7), p. 10.

한편 정부 수립 초기에 일본과 대만에만 있던 재외한국학교는 1987년 현재 10개국에 16개교가 개설되었다. 재외한국학교현황표(1987)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간 중동으로의 건설업 진출 등으로 중동 지역 한국학교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토요일에 개설되는 한글학교는 49개국에 521개소가 개설되었다. 한글학교의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교육개혁심의, 1987: 10).

3) 한민족 공동체 형성과 민족정체성 함양 교육

(1) 노태우 정부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1988년 2월에 들어선 노태우 정부의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은 “해외교포교육 발전방안”(1987.5)의 정책안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1988년 4월 당시 문교부는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방향을 교민에 대하여는 거주국 사회에 알맞는 생활 능력 배양과 민족 교육 실시에 두고 있으며 체류자에게는 체류지 적응능력 배양과 본국과의 연계교육실시로 정하고 있다.”⁴⁵⁾ 그리고 재외국민 교육목표는 “한국인으로서 자각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생활능력을 배양하여 교민사회의 자생적 발전과 교민공동사회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모국발전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인간 육성”에 두었다.⁴⁶⁾

당시 외무부도 “현재 재외교포수는 사회주의권까지 포함하여 약 450만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바, 정부는 교민들이 거주국에서 정착, 안정된 생활을 하면 존경받는 시민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 교민정책”으로 삼고, “지원방식도 교포사회내에 있어서의 비정치화, 자율화를 도모하고 거주국의 발전에 기여케 함으로써 장기적 차원의 국제협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특히 재외동포청소년 교육과 관련해, “교포 2, 3세대들이 조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교포자녀에 대한 민족교육을 지원하며, 한글 및 우리말의 보존육성과 현지 교포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외무부, 1990: 197)고 밝혔다.

노태우 정부와 과거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및 청소년 교육정책의 큰 차이점은 우선 그간 우리정부가 수십 년간 지향했던 재외동포에 대한 ‘반공교육’을 서서히 지양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본국중심의 재외동포정책에서 재외한인의 입장과 사회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45) 문교부. 해외주재교육관회의자료, 미출판간행물, 1988.4(변광화 1988: 16에서 재인용)

46) 문교부. 해외주재교육관회의자료, 미출판간행물, 1988.4(변광화 1988: 17에서 재인용)

전환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⁴⁷⁾

물론 기본정책변화가 그대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않지만, 당시 노태우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당시의 1980년대 이후 재외동포수의 급격한 증가 및 국내외 정치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특히 2, 3세 재외동포의 현지 적응 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부상한 당시,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우리 정부는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1989년 1월부터 국외여행자유화를 허용하였다. 나아가 냉전붕괴이후 중국 및 러시아 거주 동포도 재외동포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공산진영의 붕괴는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를 가져왔고, ‘한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 분위기는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1987년부터 1991년까지 3차례에 걸쳐 세계 한민족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고, 1989년부터는 격년제로 세계한민족체전 행사를 개최하였다.⁴⁸⁾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외무부는 1990년 6월 30일 현재 “재외국민” 숫자를 2,177,955명으로 추산하였으나, 1991년도부터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 거주 동포를 재외동포로 포함시키기 시작하여 그 숫자가 배로 증가한 것이다(1991년 6월 30일 현재 4,832,414명).(외무부, 1991: 267) 그것은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 범위 및 과제가 추가로 부과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외동포 교육의 체계적 지원 및 국제교류를 증대를 위해 교육부는 1991년부터 검토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3월 서울대학교 부속 재외국민교육원을 전면 개편하여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진흥원”을 개설하기로 결정하였다.⁴⁹⁾

새롭게 만들어진 국제교육진흥원은 재외국민교육원 직원 61명 및 기타 직원 증원을 통해 83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었다(교육부, 1998: 890). 국제교육진흥원의 특징은 재외동포의 국내 교육과 교재연구 및 공급을 서울대학교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가 직접 관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제교육진흥원의 역할이 재외국민교육원이 담당하던 재외동포의 국내 교육 외에도 “교원 및 대학생의 국외 연수”, “국제교육교류협력사업 및 유학상담, 귀국자녀

47) 이와 같은 정책변화는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나(예를 들어 이재정, 2004: 233-234), 그 움직임은 이미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48) 1993년부터는 ‘체전’을 ‘축전’으로 바꾸고 청소년행사도 함께 열렸으며, 1995년부터는 매년 열리게 되었다. 2000년부터는 청소년과 성인 모두 참가하게 되었다.(네이버, 두산백과 “세계한민족축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4571&cid=40942&categoryId=31956>에서 2015년 10월 20일 인출)

49) 관보(1992.3.28), 제12078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623호). <http://theme.archives.go.kr/next/pages/viewer/archiveviewer.jsp?archiveld=0001657093&archiveEventId=0028269823&isEbook=Y>에서 2015년 10월 11일 인출

국내 적응 교육” 등 국제교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다.⁵⁰⁾

국제교육진흥원이 설립된 이후 교육부는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 운영규칙”(교육부령 제616호, 1992.7.3.)⁵¹⁾ 제정을 통해 재외동포 청소년 교육과 관련해 국제교육진흥원이 ① 고등학교 및 대학 예비교육과정, ② 단기 교육과정, ③ 계절제 교육과정, ④ 교원 연수과정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학교 및 대학예비 교육과정의 목적은 진학을 위한 “수학능력 배양”에 두었으며, “단기교육과정”은 “재외국민의 조국애 함양” 그리고 “계절제 교육과정”은 “재외교포학생의 모국이해”를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반공정신 함양’이라는 정책과제는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예비교육과정 기간은 예전대로 1년이며, 기타 교육과정은 3월의 범위내로 규정하였다.⁵²⁾

하지만 1년 과정으로 진행된 국내 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을 위한 예비교육과정은 2009년경부터 없어지고 3개월(단기) 및 6개월(장기) 교육과정만 남게 되며, 2주일 과정으로 진행되었던 재외동포 청소년 하계모국방문 사업도 2007년경부터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으로 이관되며, 1주일 과정으로 진행되게 된다.⁵³⁾ 재외국민교육원이 오로지 재외동포의 교육문제를 전담했던 것에 비해, 국제교육진흥원은 기타 업무도 함께 관장하게 됨에 따라, 재외동포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오히려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교육진흥원은 설립 당시 “재외국민교육부”와 “국제연수부”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는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재외동포재단 등의 설립과 외부 위탁 교육 등으로 인해,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어간다.

(2) 김영삼 정부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5 백만 해외 동포 여러분, (중략) 자랑스런

50) 국제교육진흥원의 주요 업무는 당시, 재외동포의 민족교육 및 국내학교 진학을 위한 예비교육, 재외동포 및 민족교육 관계자 초청연수, 재외동포교육에 관한 교재 연구·개발·공급, 교원 및 대학생 국외연수, 국제교육교류협력사업 및 유학상담 지원으로 설정되었다(상기 개정령 참조).

51) 관보(1992. 7.3). 제12158호.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 운영규칙.

<http://theme.archives.go.kr/next/pages/viewer/archiveViewer.jsp?archiveId=0001657175&archiveEventId=0028274663&isEbook=Y>에서 2015년 10월 10일 인출

52) 관보(1992. 7.3). 제12158호.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 운영규칙.

<http://theme.archives.go.kr/next/pages/viewer/archiveViewer.jsp?archiveId=0001657175&archiveEventId=0028274663&isEbook=Y>에서 2015년 10월 10일 인출.

53)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변화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한민족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⁵⁴⁾라고 강조하였다.

표 II-22 해외동포현황

지역별	동포수		체류자수		총계		백분율 (%)	전년비 증감율 (%)
	'91	'92	'91	'92	'91	'92		
아시아	2,655,311	2,643,819	61,626	69,705	2,716,937	2,713,524	54.9	-0.1
일본	695,033	679,743	35,868	32,776	730,901	712,519	14.4	-2.5
중국	1,920,597	1,923,361	1,500	3,917	1,922,097	1,927,278	39.0	0.3
기타	39,681	40,715	24,258	33,012	63,939	73,727	1.5	15.6
미주	1,485,804	1,577,215	120,851	119,407	1,606,655	1,696,622	34.3	5.6
미국	1,336,879	1,420,532	115,270	113,045	1,452,149	1,533,577	31.0	5.6
캐나다	62,594	68,356	2,020	1,825	64,614	70,181	1.4	8.6
중남미	86,331	88,327	3,561	4,537	89,892	92,864	1.9	3.1
구주	459,556	482,742	31,584	36,397	491,140	519,139	10.5	5.7
독립국가연합	437,000	457,462	680	1,461	437,680	458,923	9.3	4.9
독일	15,003	17,016	8,076	10,994	23,079	28,010	0.6	21.4
기타	7,553	8,264	22,826	23,942	30,381	32,206	0.6	6.0
중동	137	218	14,931	11,394	15,068	11,612	0.2	-22.9
아프리카	762	1,006	1,852	1,687	2,614	2,693	0.1	3.0
총계	4,601,570	4,705,000	230,844	238,590	4,832,414	4,943,590	100	2.3

* 출처: 외무부(1994), 외교백서 1994. p. 304.

그리고 정부는 1993년 8월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새 교포정책”을 수립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 교포의 거주국 사회내 정착지원, ② 민족 동질성 및 본국과의 유대 강화, ③ 교포 사회의 대동단합 지원, ④ 교포사회의 자조노력 지원과 교포행정 창구 일원화이다. 그리고 당시 김영삼 정부의 재외국민의 국내체류 및 외화 반출입 등에 대한 규제 등을 완화하였다 (외무부, 1994: 265-270).

과거 노태우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나, 동포사회의 단합과 동포사회의 자조노력 지원 및 행정창구 일원화를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당시 김영삼 정부 초기의 재외동포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1994년 2월 5일 재외공관장회의에서, “문민정부

54) 카인즈(1993.2.16). 한겨레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 전문 웹 사이트 <http://www.kinds.or.kr/>에서 2015년 10월 10일 인출

출범과 남북대결 외교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따라 교포들에 대한 정치적 이용을 자제하는 대신 현지적응 위주로 교포정책을 전환”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⁵⁵⁾

민단의 경우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인지, 현지화를 지향한다는 의도에서 3월에 재일본대한민국 ‘거류민단’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으로 단체명을 변경하였다. 특히 당시 김영삼 정부는 통일 정책 및 경제발전 정책과 관련해 노태우 정부시절 제기된 ‘한민족 공동체’와 더불어 ‘세계화’를 적극 주창하며, 국제적인 관점에서 우리 국민과 재외한인에 대한 정책 구상을 시작하였다(이재정, 2004: 234-235). 김영삼 정부는 1994년 12월 한국의 세계화를 선언하고 1995년 1월 민관합동의 세계화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세계화추진위원회는 12월 18일 29개 과제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였다.⁵⁶⁾ 그리고 외교·통일 분야의 6과제 중에는 세계화를 위한 “재외동포사회 활성화 지원방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 출처 : 이재정(2004), 탈냉전과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변화, p. 234.

【그림 II-5】 교육목표(김영삼 정부 초기까지)

“재외동포사회 활성화 지원방안”은 우선 재외동포정책 설정방향과 관련해 ①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그리고 1, 2, 3세 등에 대한 구체적 개념 정리 및 정책 설정이 필요, ② 21세기를

55) 카인즈(1994.2.7). 동아일보 ‘교포 현지적응 지원 강화/외무부/이민시 재산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웹 사이트 <http://www.kinds.or.kr/>에서 2015년 10월 10일 인출

56) 세계화추진위원회(1998). 재외동포사회 활성화 과제. 서울: 세계화추진위원회, p 40. 1995년에 29개 과제, 1996년에 15개 과제, 1997년에 9개 과제가 상정되었다. 이를 통해 169개의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맞는 시점에서 '93 신 교포정책'을 유지하면서, 특히 '한민족 공동체 의식 강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⁵⁷⁾

정책 대상을 재외'동포'로 확대한 지역별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은 ① 지역별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정착 지원, ② 현지 주민과의 화합과 모국과의 교류 지원, ③ 혈통·문화 및 전통의 뿌리가 한국에 있음을 유념하면서 거주국 주류사회내의 모범적 구성원으로 진입, ④ 한민족의 전통문화 계승과 한민족 교육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한민족 공동체 의식이 공고화될 수 있도록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일본 등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까지도 제시하였다.⁵⁸⁾

결국 '한민족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현지 사회의 모범적 구성원이 된 재외동포를 한국의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활용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정착 지원과 본국과의 교류 지원도 하지만, 한민족으로서의 '의식' 혹은 '정체성 확립'을 위해 민족 교육의 강화를 적극 제안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재일한인 사회의 경우는 이미 1980년대부터 2, 3세 재일한인의 민족의식 혹은 정체성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었고(장인성, 2003: 31) 재미한인 사회 또한 세대별 격차와 정체성 확립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었다(윤인진, 2007: 37-38). 나아가 냉전 붕괴 이후,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거주하는 동포도 한국정부의 정책 대상이 되고, 한강의 기적 이후 제2차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또한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계화를 주창하는 김영삼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재외동포들의 한민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은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한민족 공동체의식은 당연히 민족교육 강화라는 현실적 과제를 낳게 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위원회는 재외동포 지원체제 정비를 위해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관련 부처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갖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설치할 것, 그리고 각계의 요청이 있는 교민청 설치는 외교적 마찰의 여지가 있어, 재외동포재단을 설치하여 재외동포 관련 교류행사 및 지원업무를 수행시킬 것을 제안하였다.⁵⁹⁾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추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96년 2월 29일,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를 발전시켜, 국무총리 산하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기능은 재외동포의 정착, 법적·사회적 지위향상, 본국과의 유대 강화, 국내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57) 세계화추진위원회(1955.12.19) 14차 회의 심의·의결. 이형규 (2004) 정책의제 형성과 전이에 관한 연구: 재일동포사회 활성화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pp. 313-314에서 재인용

58) 상동.

59) 이형규(2000). 정책의제 형성과 전이에 관한 연구: 재일동포사회 활성화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pp. 322-323.

기구로 위원 구성은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여, 명실상부한 재외동포정책을 심의하는 최고기관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그리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하부에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외무부 차관, 관계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를 따로 구성하여, 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정책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⁶⁰⁾

마침내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5월 3일에 1차회를 개최하고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재외동포사회 활성화 지원방안”을 반영하여 새로운 재외동포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동 위원회는 새로운 정책이 요구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① 냉전 종식에 따른 상황 변화(영주 귀국 희망 동포, 탈북자, 중국 조선족 문제 등 대두, 21세기 통일된 세계중심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한민족공동체 의식 강화 요망), ② 지역별 역사적 특수성 및 재외동포 세대교체에 따른 재외동포정책 수립 필요, ③ 분산된 재외동포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제 필요 등을 제기하였다.

표 II -23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1. 재외동포 자조노력 권장 및 지원
2. 재외동포들이 거주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동 거주국 사회 내에서 융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
3. 재외동포의 요구에 부응하는 언어·전통·문화·예술 차원에서의 지원
4. 자유·민주·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재외동포사회의 발전 지원
5.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 지원
6. 재외동포의 한국내에서의 투자 등 경제활동의 장려 및 재산권 행사 등 이익보호를 위한 국내법 및 제도 개선

* 출처: 재외동포정책위원회(1996.5.3). 〈부록10〉 재외동포정책 추진계획 1차회의 심의·의결. 이형규 2000: 326에서 재구성

동위원회는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로 “재외동포들의 혈통·문화 및 전통의 뿌리가 한국에 있음을 유념하면서, 이들이 거주국 사회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또한 존경받는 모범적인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법·국내법 및 거주국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지원”한다고 설정하였다.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기본방향의 하나로 제시한 ‘한민족 공동체 의식의 공고화’는 기본목표에서 삭제되었다. 그리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결정하였다.⁶¹⁾

60) 관보(1996.2.29).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63호 http://theme.archives.go.kr/next/pages/viewer/archiveViewer.jsp?a_rchiveld=0001658507&archiveEventId=0028355175&isEbook=Y에서 2015년 10월 12일 인출)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과 관련해, 한민족의 전통문화 계승과 민족교육 지원 강화를 명확히 내세웠는데,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기본방향은 민족적 정체성 ‘확립’보다는 정체성을 ‘유념’하면서 “거주지역내에서의 융화”에 무게를 두는 것이었다. 결국 민족정체성 인식 및 확립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바 김영삼 정부의 현지화 정책은 동포사회의 현지 동화를 가져온다는 역풍을 맞게 된다. 기본방향에서는 현지화를 지향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지만, 재외동포 중점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세계화추진위원회의 권고를 그대로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우선 ① 지역별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지역 등을 나누어 지역적 특성을 살린 정책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들 모든 지역에서의 한국문화 및 역사 그리고 언어 교육 등 민족적 정체성 및 민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② 우수 인력활용을 위해 DB 구축 및 활용, ③ 한국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재외동포 활용, 모국방문 기회 확대, 우리문화 접촉 기회 확대, 재외동포언론사 지원 및 육성, 재외동포언론사 초청 연수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④ 재외동포 민족교육 지원강화를 위해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추가 설치·운영개선 및 기능강화,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지역별 특성 고려한 민족교육교재 개발 및 위성을 통한 민족교육 실시, ⑤ 외국적 동포를 위한 체류허가제도 개선, ⑥ 국내 재산권 행사 제한 완화 등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재외동포재단의 신설, 조직 및 역할 등에 대하여 결정하였다.⁶²⁾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997년 10월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재단이 설치되었다. 재외동포재단의 역할은 ① 재외동포 교류사업, ②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③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등으로 설정되었다.⁶³⁾ 재외동포재단은 1998년에 중장기 사업목표로 ① 민족정체성과 민족유대감을 높이고 민족정체성을 확립, ② 거주국의 모범적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주국 정착을 지원, ③ 우리의 국력에 부응토록 국가발전에 재외동포 참여 확대, ④ 장기적으로 세계한민족 공동체 구현한다고 정하였다(여인곤, 박영호, 허문영, 남궁영, 전재성, 이수훈, 장의관, 강동완, 2010: 141).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면서 재외동포청소년 교육과 관련해, 한글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은 교육부에서 재외동포재단으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한글학교 교사 연수,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

61) 재외동포정책위원회(1996.5.3). 〈부록10〉 재외동포정책 추진계획 1차회의 심의·의결. 이형규 2000: 326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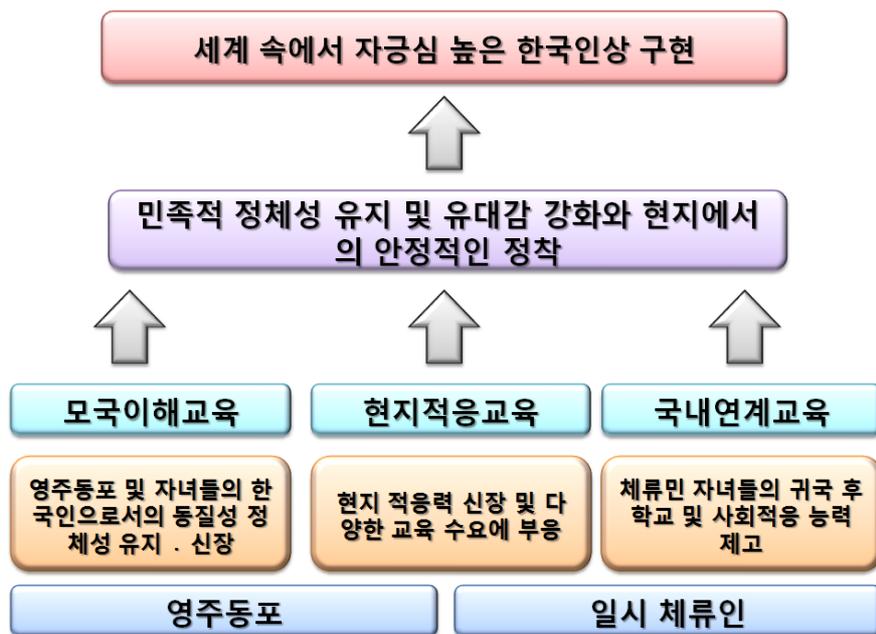
62) 재외동포정책위원회(1996.5.3). 〈부록10〉 재외동포정책 추진계획 1차회의 심의·의결. 이형규 2000: 326에서 재인용하

63) 재외동포재단법(1997.3.27). 법률 제5313호. 웹 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_/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010&PROM_DT=19970327&PROM_NO=05313에서 2015년 7월 8일 인출.

연수 등 재외동포 청소년 교육과 관련해 그 역할이 확대되어갔다. 반면에 국제교육진흥원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어 갔다. 이상, 1996년 5월에 새롭게 정립한 김영삼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의 해외 현지에서의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동포사회 형성을 우선과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에서는 한민족공동체의 형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그리고 현지에서의 요망에 의해 다양한 지역에 확산되어 살고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인식 및 확립을 위해 본국과의 교류 증대 및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는 물론 민족교육 강화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확대로 이어졌다.

(3) 김대중 정부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1998년 2월 출범과 동시에 김대중 정부는 IMF라는 국가적 금융위기와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재일동포를 비롯해 많은 동포사회가 외환위기 극복을 도왔다. 김대중 정부 초기의 재외동포정책은 김영삼 정부가 1996년 5월에 결정한 재외동포정책 기본목표 및 기본추진계획을 그대로 승계하였다(외교통상부, 1998: 435-436).



* 출처: 외교통상부(1998). 외교백서 1998. pp. 435-436.

【그림 II-6】 재외동포교육정책의 기본 방향(김대중 정부)

하지만 재외동포를 보는 시각에서는 과거의 정부와는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재외동포를 한국정부가 관리하고 보호하며, 육성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고, '한민족의 살아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한국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김봉섭, 2009: 30). 나아가 중국 및 러시아 및 미국동포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면서,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그 대상이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반자'들의 국내에서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재외동포에 대한 법체계가 요구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각계의 반대 속에서도 재외동포의 자유왕래와 참정권, 부동산 취득 등을 보장하는 법안제정을 주도하여, "재외동포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1999년 12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하지만, 외교부와 중국 및 러시아의 반대와 압력으로 중국 및 러시아 동포를 대상에서 제외하여, 논란이 일고, 2001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에 따라, 중국, 러시아 등의 동포도 그 대상이 되게 되었다(이재정, 2004: 62-65).

나아가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외교통상부는 김영삼 정부의 재외동포 기본목표는 그대로 승계하면서도 현지화 정책의 강도를 완화하였다. 즉 '국민정부'는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재외동포는 국력'이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거주국에서의 재외동포 지위향상 노력과 민족정체성 유지 지원'을 중점과제로 선정, 이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외교통상부, 2001: 456)하였는데, 그러한 정책입안 결과가 2000년부터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즉 김영삼 정부가 지양한 현지화 정책에서 벗어나 현지에서의 '지위향상'을 지원하는 정책 그리고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한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것이다.

즉 교육부는 당시 "재외동포교육의 목표는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유지와 모국에 대한 유대감 강화 및 현지에서의 안정된 생활영위와 존중받는 시민 육성에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세계 속의 자긍심 높은 한민족의 상을 구현하는 데 정책의 방향이 있다."(김이경, 한유경, 강경석, 한석훈, 2000: 107).

4) 국가발전과 재외동포 청소년 우수 인재개발

(1) 노무현 정부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다. 2003년 당시 외교통상부는 재외동포사회의 규모의 확대와

함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류 사회로의 진출도 활발해 지고 있다고 인식하였다(외교통상부, 2003: 489). 김영삼 정부의 '현지화' 정책에서 벗어나 김대중 정부의 '지위향상'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재외동포를 바라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정책이 여전히 현지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이 결여되어있다는 동포사회 및 학계의 비판을 받아, 2004년 11월 6년 만에 제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개최되어, 새로운 재외동포정책 기본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외교통상부, 2005: 489).

기본목표로는 ①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 강화, ②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양, ③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사회간 호혜적 발전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실천을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①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조 노력 지원, ② 거주국 내에서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 지원, ③ 모국과의 유대증진을 위한 국내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④ 한민족 정체성 유지를 위한 문화 교류 지원, ⑤ 재외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및 모국과 거주국간 우호 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 등을 설정하였다(외교통상부, 2005: 489).

표 II -24 재외동포교육기관현황 (2005년)

지역별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교육관실		비고
	학교 수	교원수 (파견)	학생 (학급수)	교육원 수	파견 인원	동포수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기관수	파견 공무원수	
일본	4	188 (21)	1,777 (75)	14	22	616,444	56	175	3,363	3	5	
아주	13	613 (40)	5,152 (230)	1	1	2,689,127	153	1,561	13,378	2	2	
북미	-	-	-	7	8	2,285,666	1,116	9,164	65,356	2	2	
중남미	3	114 (5)	698 (47)	3	3	107,162	58	439	3,569	-	-	
구주, CIS	1	24 (1)	99 (8)	10	12	640,276	612	1,565	31,616	3	3	
아·중동	4	49 (4)	113 (24)	-	-	14,823	38	241	1,149	-	-	
계	14 개교 25 개교	988 (71)	7,839 (384)	14 개국 35 개원	46	6,353,498	96 개국 2,033 개교	13,145	118,431	5 개국 10 기관	12	

* 주 : 동포수, 한국학교 교원수, 학생수, 학급수 : 2005.4. 기준.

* 출처: 외교통상부(2005). 참여정부의 재외동포정책. p. 8.

한편 2005년 4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부응하여 “재외동포 교육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⁶⁴⁾을 입법 예고하는 등, 재외동포 교육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⁶⁵⁾

당시 교육부는 정책 추진 배경으로 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6백만 재외동포 인적자원을 우수인력으로 적극 개발·활용, ② 교육기관기능 재정립을 통해 한류열풍 확산 및 유학생 유치 활용, 교육지원 기반 구축 및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재외동포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을 들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과제로는 ① 재외동포 인적자원의 적극적 개발 및 활용, ② 교육기관 기능 재정립 및 기관 확충, ③ 인력운영 시스템 개선, ④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 ⑤ 교육지원체제 구축 등을 설정하였다.⁶⁶⁾

첫째 과제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이트 그리고 콘텐츠 개발로 교육서비스를 강화하고 모국 방문을 통한 민족 정체성 교육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재외동포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노무현 정부가 2005년부터 처음 시행한 것이다.⁶⁷⁾

둘째 과제와 관련해, 한국교육원, 재외한국학교 및 한글학교의 기능을 강화는 물론, 중국에 현지 주재관을 대폭 증원하고, 동남아지역 주재관을 신설하며, 교육원을 5개원 증설하고, 2005년 당시 25개 있던 한국학교를 2009년까지 30개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⁶⁸⁾

셋째 과제와 관련해, 파견교원 선발 방식 개선을 통한 우수 교원 선발 및 합리적 배치, 재외동포교육기관 구성원들의 직무 연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과제와 관련해, 정부 지원 예산을 교육예산의 0.1% 수준에서 0.2%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파견교원 또한 증원(2004년 58명,

64) “교육법”이 폐지되고 1997년 12월 13일에 “교육기본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교육기본법에는 구 교육법이 제162조의 2항에 규정한 재외동포의 교육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재외동포의 교육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 제정 없이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재외동포신문(2005. 4.29). 재외동포교육 강화방안 주요내용.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2730>에서 10월 12일 인출

65)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재외동포신문(2005.4.29). 재외동포교육 강화방안 주요내용.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2730>에서 10월 12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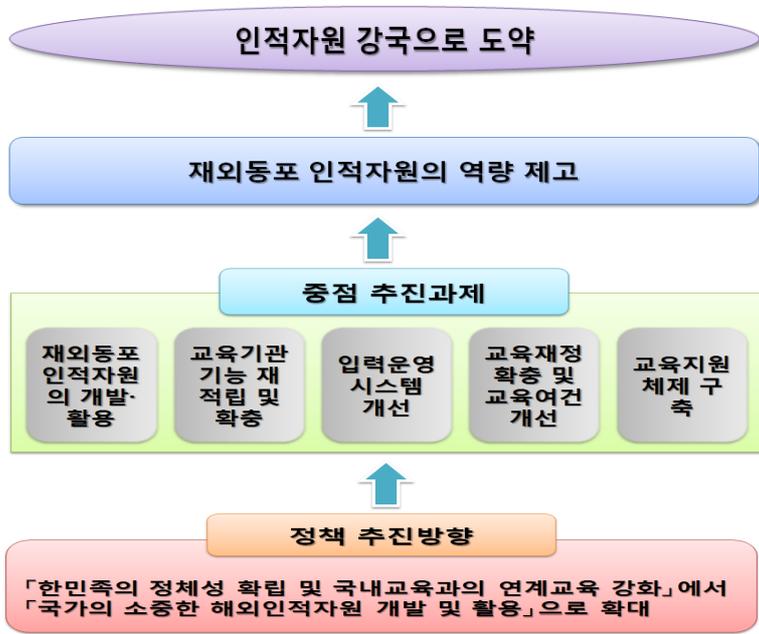
66)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재외동포신문(2005.4.29). 재외동포교육 강화방안 주요내용.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2730>에서 10월 12일 인출

67) 2006년도의 대상은 25개 재외한국학교 저소득층자녀 학생 400명(재학생 7,949명의 약 5%)으로 지원금은 수업료 및 입학금 8억 2300만원이다. 동포뉴스(2006.6.29). 재외한국학교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http://www.dongponews.net/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8371>에서 2015년 10월 12일 인출

68)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재외동포신문(2005.4.29). 재외동포교육 강화방안 주요내용. 웹 페이지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2730>에서 10월 12일 인출

2005년 73명, 2009년 150명)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교재 개발 지원 및 한교 신축 이전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재외동포 교육 지원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교육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 보강, 재외동포교육기관에 대한 3-5년 주기의 정기 종합실태조사 평가를 제시하였다.⁶⁹⁾

그리고 2005년 4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들어가 부처간 협의, 해외 현지 동포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여, 2006년 12월 통과하였다.⁷⁰⁾ 교육부는 2007년 1월 3일 공포(법률 제8164호)하고 시행은 7월 4일부터 시작하였다.(교육부, 2009: 3-4)



* 출처 : 재외동포신문(2005.4.29). 재외동포교육 강화방안 주요내용. 웹 페이지.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2730>에서 10월 12일 인출.

【그림 II -7】 교육목표(노무현 정부)

1977년 2월에 제정된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과 새로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규정과 법률이라는 위상의 차이도 있지만, 후자는 재외동포교육기관(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등)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지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69)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재외동포신문(2005.4.29). 재외동포교육 강화방안 주요내용. 웹 페이지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2730>에서 10월 12일 인출

한글학교 설치 허용 기준(재외동포수 1만명 이상) 및 정부의 재정지원금(교지매입 및 시설비의 50%, 시설임차료 및 대수선비의 70%)의 기준 등이 새로운 법률을 통해서 명시된 것이다. 2008년 4월 현재 한국학교의 숫자를 보면 14개국에 29개교가 개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87년 현재 16개교였는데, 그간 13개교가 증가한 것이다. 새롭게 증가한 학교는 대부분 중국에 개설되었다. 2008년 4월 현재 한글학교의 경우도 109개국에 2,097개교가 개설되었다. 1986년 현재 521개교였는데,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한글학교의 경우는 여전히 북미(미국 1011개교, 캐나다 105개교)가 중심이지만, CIS(498개교) 지역에서 급증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08: 870).

표 II -25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2008. 4. 기준)

구분	교육 기관			지원기관
	한국학교(전일제)	한국교육원	한글학교(정시제)	교육과학관
설치 현황	· 14개국 29개교 - 학생: 10,085명(454학급) - 전임교원: 878명(파견53)	· 14개국 34개원 - 파견공무원 : 45명	· 109개국 2,097개교 - 학생 : 127,184명 - 교원 : 14,172명	· 9개국 (15기관)22명 - 교육 : 13명 - 과학 : 9명
기능	· 영주동포자녀 모국어해교육 및 일시체류민자녀 국내연계교육	· 재외동포 민족교육 및 평생교육 · 교육정보, 자료수집등	· 한국어, 한국문화 등 모국어해교육	· 교육영사 업무 · 과학영사 업무
지원 내용	· 교사일부 파견(약11%) · 운영비 일부지원 · 교과서 무상지원 · 시설비 일부지원	· 교육공무원 파견 · 운영비 지원 · 교재 공급 · 한글학교 장학지도	· 재외동포재단(외교통상부) - 운영비 일부지원 - 모국연수사업 등 · 국립국제교육원 (교육과학기술부) - 교과서보급, 교원연수	· 교육전문직 또는 행정직 파견
수업 시간	· 사립 정규(각종)학교로 우리나라 교육과정 배당기준 과 유사	· 평생교육기관으로 과정별 주당 2~4시간	· 주로 주말학교로 토·일요일 수업 주당 2~6시간	
건물	· 임차(9개교) · 소유(20개교)	· 공간 등 활용(24개원) · 임차(8개원),소유(2개원)	· 한인회관, 교회, 학교 등 임차	

*출처: 교육과학기술부(08. 5.21). '중국 칭다오청운한국학교 중국정부인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해설자료.'

(2) 이명박 정부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외동포국정과제로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활동 지원'을 들었으나, 전체 193개 과제 중, 중요도가 떨어지는 82개 과제의 하나로 우선순위가

밀려났다(최우길, 2008: 2). 2008년 2월 입각한 이명박 정부는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를 “모국과 동포사회의 호혜적 발전 통한 선진국가와 성숙한 한인사회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4가지 세부목표로 ① 모국과 거주국과의 관계증진을 위한 동포사회의 전략적 기여, ② 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성화, ③ 모국과의 유대 증진을 위한 국내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 ④ 한인 정체성 및 자긍심 고양을 위한 교육, 문화 교류 확대를 정했다. ①과 관련해서는 차세대 지도자를 지원하고 활용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재외동포통합인물 DB시스템 구축을 세웠다. ②와 관련해서는 재외동포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재외동포통합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Korean.net)이다. ③과 관련해서는 재외국민선거제도 도입, 이중국적 허용 그리고 방문취업제 보완 등의 개선이다. ④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였다(이진영, 2010: 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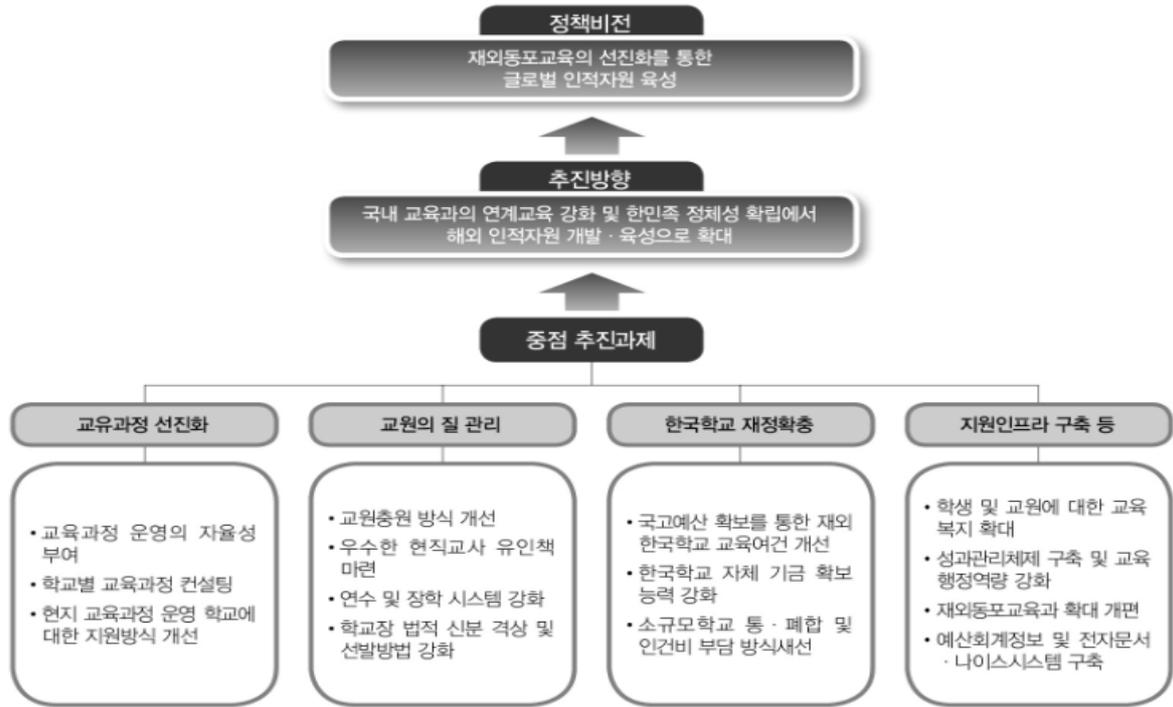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영어 공교육의 중요성을 주창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7월 재외동포 교육 전문기관인 국제진흥원을 영어 공교육 정책 위주로 재편하여, 명칭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변경하고 주요 업무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II -26 국립국제교육원 주요 업무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2. 국제교육 교류 협력 3. 외국어, 재외국민·국제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4. 국비 해외유학 지원 5. 외국인 유학생의 초청·유치·지원 6.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7. 외국어 공교육 지원 |
|--|

* 출처: 국립국제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기본 운영규정 제7조. 웹 페이지 <http://www.niied.go.kr /contents.do?contentsNo=49&menuNo=297>에서 2015년 10월 15일 인출.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는 하나, 2009년부터는 재외동포 장기교육 과정 프로그램을 국립공주대학교 재외동포교육센터에 위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단기 교육과정도 국내 대학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면서, 결국 국립국제교육원은 교과서와 교재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재외한국학교 교사연수 사업만을 직접 관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재외동포 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국립국제교육원의 위상과 역할은 약화되었다. 그와는 반대로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재외동포재단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어갔다.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에서부터 재외동포 청소년의 국내 단기 모국방문, 모국 유학생 장학금 지급, 특정 지역에 대한 기술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되었다.⁷¹⁾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2010). 글로벌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방안. p. 12.

【그림 II-8】 재외한국학교 선진화 방안(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로 들어와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가 했는데, 2009년 2월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고, 또한 기획재정부 및 국회 교과위에서 재외교육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종합발전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 2010: 1). 나아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들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재외동포정책이 1990년대 들어 민족적 자긍심 고취와 동포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과 글로벌 인재 확보로 변화하고 있다고 인지(안병만, 2010: 6)하고 재외동포의 글로벌 인재 양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이후 전문가의 정책 연구, 현지 방문,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2월

71) 외교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추진과제5, 재외국민의 안전·권익보호와 공공외교, 일자리 외교 확대'. 웹 페이지 http://www.mofa.go.kr/information/government/government5/index.jsp?menu=m_60_60_10&tabmenu=t_5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글로벌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한 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 중점사업은 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② 우수 교원 확보 및 질 관리, ③ 우수한 현직 교사 유인책 마련, ④ 연수 및 장학 시스템 강화 등, ⑤ 재정확충 방안 모색, ⑥ 성과관리 체제 구축 및 교육행정 역량 강화, ⑦ 한국학교장 신분 및 역량 등의 강화, ⑧ 학생 및 교원에 대한 교육 복지 확대, ⑨ 지원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다. 요점은 한국학교에 대한 자율성 부여와 교사 연수 확대 그리고 파견교사 및 교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재정 확충 등이다(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 2010: 13-23).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원장 총수의 50퍼센트까지 민간인 등에게 개방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11년 10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⁷²⁾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10년 이후 재외한국학교 및 한국학교에 대한 지원이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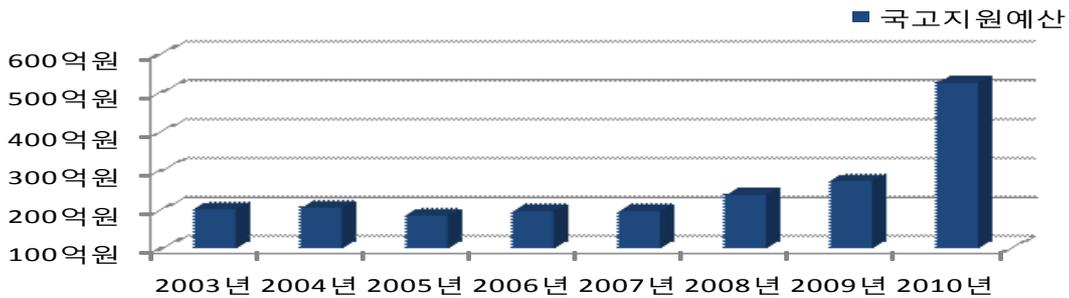
표 II -27 연도별 재외한국학교 국고지원 예산 추이

(단위: 교, 명, 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학교수	24	24	25	26	26	29	30	30
학생수	6,335	7,096	7,839	8,633	9,448	10,769	10,965	-
국고지원예산	20,075	20,431	18,395	19,565	19,545	23,715	27,271	52,371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2010). 글로벌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방안. p. 4.

국고지원예산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2010). 글로벌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방안. p. 4.

【그림 II -9】 연도별 재외한인학교 국고지원 예산추이

72) 교육부(2011. 10. 4). 보도자료 ‘재외 한국교육원장, 개방형공모제 최초 도입’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tPage=1&encodeYn=Y&boardSeq=34925&mode=view>에서 2015년 10월 14일 인출

표 II -28 한글학교 정부(외교통상부)지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글학교수	1,994	2,059	2,033	2,072	2,097	2,098	2,111	2,111
예 산 액	3,036	2,958	4,000	4,355	4,633	5,475	4,921	6,800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2010). 글로벌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방안. 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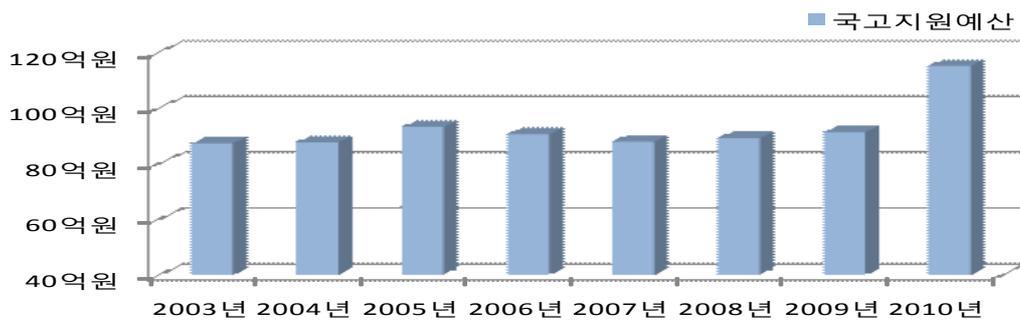
표 II -29 한국교원수 정부(외교통상부)지원 현황

(단위: 개, 명, 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교육원수	35	35	35	35	35	34	34	34	
국고 지원	인건비	7,721	7,721	7,721	7,868	7,384	7,224	7,186	7,636
	운영비	696	734	1,284	859	905	973	1,081	1,523
	사업비	307	307	307	324	494	715	855	2,340
합계	8,724	8,762	9,312	9,051	8,783	8,912	9,122	11,499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2010). 글로벌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방안. p. 4.

국고지원예산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2010). 글로벌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방안. p. 5.

【그림 II -10】 연도별 한글학교 국고지원 예산추이

표 II-30

재외동포 청소년 관련 주요 부처별 관장 업무 (2015년 현재)

부처명	주요업무	
재외동포정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 · 위원장(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 15인 이내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설치 ·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처리, 동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 처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재외동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재외동포 관련 법령·제도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재외동포정책 관련 정부부처 실무자간 협의체 운영 등 동포업무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재외동포재단 지도·감독 •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사항 •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정책 기획 	
교육부 국제협력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교육기관 관리 및 지원 : 한국학교 실행예산편성 및 결산, 한국학교 학사관리 지원, 재외교육기관 지도 점검 및 감사, 한국어보급 및 한국어 교재개발 보급,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선발·인사관리, 재외한국교육원 운영지원 • 국립국제교육원 관리 • 국립중앙연수원 관리 	
재외동포재단 교육지원부·차세대사업부	[교육지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학교 계획수립 •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 교육자료 및 기자재 지원 • 한글학교 교사 지원 :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지원,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지원(위탁교육), 한글학교 강사 파견 지원, 한글학교 교사 온라인 연수(위탁교육) • 스터디 코리안 운영(전문업체와 협력)
	[차세대사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청소년 교류사업 : 재외동포 중고등학생 초청 연수(위탁교육), 재외동포 대학생 초청연수(위탁교육) • 재외동포차세대IT교육지원 -특정 지역 대상 • 재외동포장학사업 : 초청장학사업(어학연수), 초청장학사업(석·박사과정), 초청장학생 보험 및 월생활비 지원, 특정 지역 현지 장학지원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재외동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 모국수학 교육과정 기획·추진 : (국립공주대학 위탁교육)-단기(3개월), 장기(6개월) • 재외한국학교 기관장 직무 연수 • 재외한국학교 교사 초청연수 : 목적-교사 전문성 강화, 대상-유, 초, 중 교사, 기간-10일 • 교과서·교재 보급 : 한국어(지역별) 교재 개발, 교과용 도서(국정, 검인정) 공급, 교재(한국어, 한국역사 및 문화) 공급 	
중앙교육연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한국학교 교사 연수(예정) 	

* 출처: 외교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추진과제5, 재외국민의 안전·권익보호와 공공외교, 일자리 외교 확대. 웹 페이지 http://www.mofa.go.kr/information/government/government5/index.jsp?menu=m_60_60_10&tabmenu=t_5,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3)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지원 현황

현재 교육부가 주관하는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지원을 제외한 한글학교 및 국내에서의 단기 교육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외동포재단 교육지원부는 2014년도에 우선, 한글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1,919개 재외한글학교에 약 104억 원의 운영비(임차료, 교사봉사료, 교재비, 교육행사비 등)를 지원하였다. 1개교 당 평균지원금은 약 540만원으로 전년대비 10%가 증액되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스터디 코리아”를 운영하여 한국어 교육 및 문화 관련 콘텐츠와 기타 교재를 제공하였다. 둘째 한글학교 교사 육성과 관련해서는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및 강사를 파견하였다. 이를 위해 약 4억 2천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재외동포재단, 2015: 7-10).

표 II -31 재외한글학교현황(2014)

대륙	국가수	학교수	교사수	학생수	재외동포수
아시아	19	296	2,144	19,709	3,764,182
오세아니아	4	67	740	5,470	188,286
북미	2	1,070	9,939	57,702	2,297,425
중남미	21	90	724	6,113	111,156
유럽	28	111	823	5,423	124,392
러시아 · CIS	9	240	677	10,247	491,455
아프리카 · 중동	34	45	288	1,748	35,596
계	117	1,919	15,335	106,412	7,012,492

* 출처: 재외동포재단(2015).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p. 7.

그리고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한글학교 교사 187명(60개국)에 대한 국내 초청 연수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이루어졌다. 나아가 재외한글 학교 교사에 대한 사이버 교사연수가 새롭게 시행되었다.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국내 대학에 위탁 교육을 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원의 수준별 교원 양성을 위한 온라인 연수이다. 11주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재외한글학교 교사 맞춤형 온라인 연수”(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는 245명(43개국)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중국 및 CIS 지역 등 특정 지역 한글학교에 대한 교육기자재 지원 그리고 교원 초청 연수가 별도로 진행되었다(재외동포재단, 2015: 9-10).

재외동포재단 차세대사업부가 진행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사업을 보면 우선, 재외동

포청소년(중고등학생) 416명, 대학생 227명이 국내에서 1주일간 모국을 방문하여 연수에 참가하였다. 이들 사업은 YMCA 등에 위탁하는 형태로 연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33개국 80명(학사 45명, 석박사 35명)에 대해 신규로 생활비(월 90만 원) 및 어학연수비 등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며, 2014년 말 현재 학사 132명, 석박사 76명, 어학연수생 34명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특정지역(중국 및 중앙아시아 등)에서 재외동포의 직업능력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 차세대 IT 교육”이 5개국 18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재외동포재단 2015: 27-28).

표 II -32 재외동포청소년 교류사업(2014)

사업명	기간	장소	참가인원	사업내용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사업	1차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공공외교단)	4.16~26 (9박 11일)	미국, 캐나다	30명 (국내 중·고등학생)	한인가정 홈스테이, 박물관·미술관·대학교 탐방, 기관 방문(총영사관, 교육원, UN대표부, ICAO본부), 독도 홍보 플래시몹, 위안부 기림비 참배 등
	2차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청소년 초청연수)	7.15~22 (7박 8일)	서울, 지방	632명 (해외 51개국 416명, 국내 216명)	농촌 및 전통문화체험(속초, 춘천, 대전, 울산, 영천, 진주, 구미, 진안, 군산) 일일 교환학생체험, 한국가정 민박체험, 서울시티투어 등
	3차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대학생 초청연수)	7.29~8.5 (7박 8일)	서울, 지방	291명 (해외 26개국 227명, 국내 100명)	농촌 및 전통문화체험(대전, 목포, 대구, 원주, 울산), 지역문화 관광 콘텐츠 학습 및 캠페인, 공공외교단 퍼포먼스, 템플스테이, 서울시티투어 등

* 출처: 재외동포재단(2015). 재외동포재단 연차보고서, p. 27.

한편 교육부 산하의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재외동포팀의 경우 국립공주대학교(재외동포교육센터)에 위탁하여 “재외동포 모국수학 교육과정”을 진행하였다. 2014년도에는 중국(59명), 러시아 및 CIS(77명)를 중심으로 182명이 단기(3개월), 장기(6개월) 교육에 참가하였다. 이사업은 애당초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을 위한 재외동포 청소년의 예비교육이 목적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외동포 성인의 참가 증가로 원래의 의도와는 다른 사업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 사업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단기교육의 경우 수업료와 기숙사비 그리고 식비로 약 190만원의 교육비가 필요하나, 공관장 추천의 경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장학제도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현지에서 채용한 유, 초등 및 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30명~35명에 대한 국내 초청연수(약 10일)을 시행하고 있으며,⁷³⁾ 이들에 대해서는 왕복항공료와 연수비 그리고 체재비 등 일체가 제공된다. 이 사업도 최근 공모를 통해 국내 대학에 위탁 교육을 시키고 있다. 교과서 및 교재는 여전히 국립국제교육원이 교육부와의 협조 하에, 재외한국학교의 수요량을 바탕으로 1년에 2차례(1학기, 2학기) 공급하고 있다.⁷⁴⁾

4. 대한민국의 미래인재 개발전략과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정책

1) 대한민국의 미래인재 개발전략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교육개혁’을 국정 4대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의 하나로 설정하고, 2013년부터 “행복교육과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15년 8월에 새롭게 교육개혁 3대 목표와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새로운 교육개혁의 추진 배경은 “글로벌화와 지식산업의 발달,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미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진학 경쟁으로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이 소홀해지고, 교육이 사회요구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능력보다 학벌을 강조하는 사회풍토가 여전”하다고 교육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교육부, 2015a: 1).

새롭게 책정된 교육개혁 3대 목표는 ①청소년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②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③능력중심 사회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즉 청소년 개개인의 관심과 능력에 바탕을 둔 창의성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 핵심역량을 육성하고 세계의 글로벌화와 한국사회의 소자고령화에 대응하고 기업사회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 청소년 교육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다(교육부, 2015a: 1).

73) 유, 초등과 중등 교원에 대한 연수를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다(2015년 10월 20일경 담당자와의 전화 인터뷰로 확인한 내용임).

74)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http://www.niied.go.kr/contents.do?contentsNo=49&menuNo=297>) 및 한민족교육문화원 홈페이지(<http://hansaram.kr/>)에서 2015년 10월 15일 인출

< 3대 목표 및 5대 핵심개혁 과제 >

목표	▶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 능력중심사회 구현
핵심 과제	① 자유학기제 확산 ② 공교육 정상화 추진 ③ 지방교육재정 개혁 ④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⑤ 일·학습 병행 확대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 출처: 교육부(2015a). 보도자료 교육개혁 추진계획 및 일정. p. 1. 75)

【그림 II -II】 재외한국학교 선진화 방안(이명박 정부)

그리고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①개인의 꿈과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과정에 도입, ②공교육의 정상화, ③지방교육재정 개혁, ④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⑤현장실습과 교육을 병행하는 일·학습 병행제 확산, ⑥취업후 대학 진학이 가능한 고교 졸업 후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15a: 3-15).

표 II -33 교육부 2015년 교육과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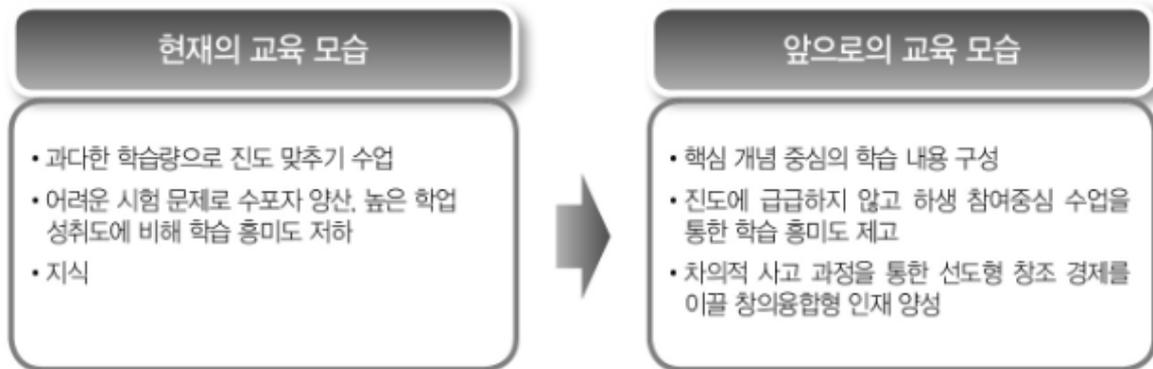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 개정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인 인재 양성 ○ 전인적 성장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강화 ○ 국민공통교육과정 조정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강화 ○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대학수능시험 제도 개혁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모든 학생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함양 ○ 학습량 적정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핵심역량 함양 교육 ○ 교육과정과 수능·대입제도 연계, 교원 연수 등 교육 전반 개선

* 출처: 교육부(2015b) 보도자료.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발표'. p. 5. 76)

75) 교육부(2015a). 보도자료 교육개혁 추진계획 및 일정. 웹 페이지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tPage=14&encodeYn=Y&boardSeq=60283&mode=view>에서 2015년 10월 16일 인출.

76) 교육부(2015b) 보도자료.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발표'. 웹 페이지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tPage=7&encodeYn=Y&boardSeq=60753&mode=view>에서 2015년 10월 14일 인출.

특히 교육부는 9월 23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과제로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기초로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새롭게 제시하였다(교육부, 2015b)교육부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인문학적 소양과 자연과학적 소양을 두루 겸비하고 이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15b: 3).



* 출처: 교육부 (2015b). 보도자료.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발표’ p. 5. 77)

【그림 II -12】 교과 교육과정 주요 개정 내용

이상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교육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있는데, 주요 개정 방향은 첫째,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인문계 및 자연계의 통합적 사고를 키우는 교과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고 2016년부터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창의력 개발을 위한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 셋째,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의 질을 높이는 대신 학습의 내용을 줄이고, 교수·학습

77) 교육부(2015b) 보도자료.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발표’. 웹 페이지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tPage=7&encodeYn=Y&boardSeq=60753&mode=view>에서 2015년 10월 14일 인출.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즐거운 교육 현장을 만든다(교육부, 2015b: 3-8).

즉 우리정부의 미래인재 개발과 관련해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은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미래 인재 육성 정책

우리 정부가 재외동포 청소년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이들을 우수 인력으로 적극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삼기 시작한 것은 2005년 4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재외동포교육방안”을 확정·발표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교육콘텐츠 개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우수 교원선발 및 교육관계자에 대한 직무연수 강화, 정부지원예산 확대 등을 진행해 왔다.⁷⁸⁾

특히 이명박 정부는 2010년 2월 “글로벌 인적 자원 육성을 위한 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외동포 청소년 교육을 선진화하여 재외동포 청소년을 글로벌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비전을 가지고 중점추진과제로 ① 교육과정 선진화, ② 교원의 질 관리, ③ 한국학교 재정확충, ④ 지원인프라 구축 등을 설정하였다. “① 교육과정 선진화”라는 것은 현지의 사정에 맞게 한국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고, “② 교원의 질 관리”는 교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직무 연수 강화, “③ 한국학교 재정확충”은 한국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서서히 확대하겠다는 것, 그리고 “④ 지원인프라 구축”은 학생 및 교원에 대한 복지확대 그리고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보다 추진하겠다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12).

그런데 이들 추진과제 중에서 이명박 정부가 특히 역점을 둔 것은 교장 및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0: 12). 즉 한국학교장의 신분 격상 및 교원에 대한 수당 증액, 승진 가산점 인정 등 재외동포 교육기관 관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질적 수준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즉 우수한 교원을 통해 우수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재외동포청소년 미래인재 개발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질적 강화라는 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히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재외 교육기

78)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재외동포신문(2005. 4.29). 재외동포교육 강화방안 주요내용.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2730>에서 10월 12일 인출

관의 교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⁷⁹⁾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완성되면,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에도 반영이 되겠지만, 현재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 미래인재 개발정책의 방향은 우수한 교원 확보와 교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주요 국가 재외동포청소년의 실태

1) 재미동포 청소년 실태

북미 사회는 “다민족 사회로서 소수 민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우대하고 존중하는 사회”이다(곽재석, 예동근, 장현일, 소은선, 문정매, 2011: 83). 이러한 사회에서 재외동포가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사회로 진출하는 것은 한민족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북미 이주의 역사가 깊어짐에 따라 차세대의 주류사회로의 진출은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과의 연계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에 미국 및 캐나다 한인청소년 769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사이트(www.surveymonkey.com)를 통해서 실시한 조사에서 한인청소년들은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p. 69~70)과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며”(p. 75), “한민족 정체성도 비교적 높았으나 세대별로 보았을 때는 한민족 정체성이 낮아지는 것”(p. 75)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의 네트워크 수준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한인단체에서의 활동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와 교류가 활발하지 않고, 유학, 취업 등 한국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며, 다만 한국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사이버공간에서의 교류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인진, 채정민, 2007: 69~76). 재미동포 사회의 한민족 정체성의 문제, 특히 세대별 한민족 정체성의 약화 추세와 동포사회 공동체 및 한국과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차세대의 주류사회 진출이 재외동포 사회의 성장 또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어 차세대 동포들의 주류사회 진출이 동포사회 및 한국의 실질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79) 교육부(2015c). 정책 자료.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재외한국학교 교원 역량 강화. 웹 페이지 <http://www.moe.go.kr/web/128166/ko/board/view.do?bbsId=426&boardSeq=54655>에서 2015년 10월 12일 인출.

재미동포 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 방문 기회의 확대,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2세대, 3세대 한글교육 및 민족정체성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윤인진, 채정민, 2007: 135~142; 송석원 외, 2012: 62). 특히 미국 대입자격시험인 SAT II에 한국어가 채택된 것을 계기로 한국어 과목을 지정한 중·고등학교 수의 확대, 한글교사 양성의 확대 등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를 통한 미국 사회에서의 한민족 정체성 강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곽재석 외, 2011: 83~84). 또한 한인단체, 미국 체류 조선족동포 및 미국 내 다른 인종 공동체 등 다양한 공동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유대 강화, 그리고 한국에서의 교육과 인턴 및 취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거주국뿐만 아니라 한국 및 국제사회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윤인진, 채정민, 2007:135~136; 송석원 외, 2012: 62).

2) 재중 동포 청소년 실태

1990년 이후의 시장경제의 도입, 조선족 여성의 국제결혼의 증가, 산업연수, 국제무역을 위한 해외진출 등으로 기존 조선족동포의 주요 거주지역인 동북3성(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에서 한국, 일본 등의 인접국가와 중국 대도시 지역으로 조선족 동포의 유출이 가속화되어 조선족 자치구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김정숙, 임채완, 김경근, 서범중, 2008: 135~136; 송석원 외, 2012: 61). 연변조선족자치주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했던 조선족 인구가 이제는 20%에 불과하여 곧 조선족자치주가 없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도 있다(곽재석 외, 2011: 87). 이로 인해서 조선족 학교 학생의 감소와 조선족 학교의 통폐합, 그리고 조선족 학교의 교육의 질 저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조선족 동포의 인구 이동 등으로 발생한 조선족 학교의 위기는 조선족 학교의 존립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기존 조선족학교의 교육 이념에 대한 재검토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즉, 조선족 자치구에서의 조선족 학교가 동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선호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민족교육의 유지와 중국 사회에서의 성공을 위한 실용주의적 현실 교육 목표 사이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김정숙 외, 2008: 148). 이밖에도 부모 등 가족의 일부 이동으로 부모들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성장하는 대신, 부모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물질만능주의에 빠지고, 가정과 도덕의 붕괴, 청소년의 불안과 일탈행위의 증가, 학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곽재석 외, 2011: 88; 김정숙 외, 2008: 152). 또한 젊은 세대들은 중국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해 중화민족주의에 따른 교육을 받으면서 조선족이기보다는 중국인으로

로 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곽재석 외, 2011: 88).

따라서 재중 동포 청소년과 관련한 과제는 조선족 공동체 붕괴에 따른 조선족 학교와 이들 청소년들의 교육 및 취업 지원, 그리고 주류사회 진출과 한민족 정체성 함양 등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집단 거주지역 내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으로는 민족교육지도자의 양성, 교사의 파견, 기자재 및 교재 지원 등이 있고, 기타 교육지원으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한국 학교에의 진학, 한국에서의 교육을 위한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다. 또한 중국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에의 취업 지원, 한국 초청 훈련지원, 인턴프로그램 지원, 한국 내 취업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익기, 이동훈, 2007: 157~158). 이 밖에도 조선족 차세대 우수인재가 주류사회 진출과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유대강화 프로그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송석원 외, 2012: 61).

3) 재일 동포 청소년 실태

최근 일본 동포사회에서는 일본국적 취득자 수의 증가, 민족학교 학생 수의 감소,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 모국에 대한 정체성 약화 및 정체성 혼란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민 1세대 고령의 재일동포는 점차 사망하는 추세이고, 최근 재일동포 3세들의 일본국적 취득이 연간 만 명 정도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송석원 외, 2012: 62). 이와 관련하여 민족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일본학교를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민족학교 학생 수의 감소는 민족교육의 질적 저하와도 관련 있다. 또한 재일 동포 청소년의 경우에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민족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청소년은 약 30% 정도이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한 두 번 정도 들어본 정도이고 학교교육이나 문화강좌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국어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한국어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포 청소년의 모국에 대한 정체성이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정체성 혼란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민족 배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았으며,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이나 자부심 등도 높지 않았으며,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일한인 단체나 조직참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태기, 임영언, 박일, 배광웅, 2007: 93~101).

재일 동포 청소년들의 일본국적 취득 증가와 한민족 정체성이 약화됨에 따라서 귀화동포를 포함하는 민족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이 요청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국적 취득 귀화동포를 포용하고 주류사회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한글교육, 한국문화체험 지원, 민족교육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재일한국학교, 일본학교 내 민족학급을 통한 민족정체성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송석원 외, 2012: 62). 또한 재일 동포 청소년 단체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 청소년들과의 다양한 교류활동과 한국에의 유학 기회의 제공, 그리고 한국 기업에서의 인턴십 등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김태기 외, 2007: 221~222).

4) 독립국가연합(CIS) 동포 청소년 실태

한인의 구소련지역의 이주의 역사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생존을 위한 이주가 시작된 1860년대 초반부터 1937년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전까지의 시기, 1937년부터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이 1953년 스탈린 사후 불명예를 벗고 구소련의 전 지역으로 이주가 가능하게 된 시기, 1991년 소련의 해체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구분한다(임영상, 황영삼, 고가영, 박지배, 이병조, 권주영, 김석원, 임현숙, 최소영, 최안나, 2007:19~51).

구소련 붕괴 이후 신생 독립한 독립국가연합국가의 재외동포는 매우 불안정한 거주상태에 있으며, 자기나라 민족어를 공시어로 지정하여 러시아어만을 구사하는 고려인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으며, 내란 등 정치적 불안으로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곽재석 외, 2011: 89).

고려인들은 세대별로 정체성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해주에 거주하였거나 연해주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주 1세대는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태어난 이후 2세대는 소련에 동화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페레스트로이카 즈음에 태어난 이주 3~4세대들은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임영상 외, 2007: 9). 또한 최근 태어난 이들 세대들은 한국과의 관계 형성과 교류를 원하고 있으며, 한국정부에의 유학 및 취업지원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하고 한국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가 충분하지 못하여 한국과의 관계 유지 및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임영상 외, 2007: 71~85; 송석원 외, 2012: 63).

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초기 연해주 이주 이후에 정치·경제적 상황 변화로 여러 국가로 흩어져 살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불안한 정치 상황 등으로 안정적인 생활터전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주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독립국가연합 고려인들에게 무엇보다

다도 필요한 일은 정착에 필요한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 직업을 갖는 일, 농업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일 등이다(곽재석 외, 2011: 89). 이밖에 거주 국가 및 지역의 특수성에 기초한 맞춤형 동포지원정책 추진, 현지 고려인동포의 정치력 신장 및 동포단체 내실화 지원, 고려인 차세대 성장과 리더십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 한글교육 확대 및 민족정체성 강화를 위한 동포언론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송석원 외, 2012: 63). 특별히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경우에는 민족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어서 한국어교육 강화를 통한 민족정체성 제고와 더불어, 원활하게 거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ODA사업 등을 통한 직업기술교육 등의 방안이 요청되고 있다(곽재석 외, 2011: 89).

제 Ⅲ 장

외국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비교

1. 미국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2. 중국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3. 일본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4. 독일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5. 이스라엘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제 III 장

외국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비교⁸⁰⁾

1. 미국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1) 개관

미국의 재외동포 관련 연구는 이민정책연구원(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의 보고서 및 연구, United Nation의 국제 이민관련 보고서, 재외동포의 참정권에 대한 Smith의 연구 및 유럽 몇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Klekowski von Koppenfels(2014, 2015)의 연구로 국한되어 있으며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현황 및 정책을 다룬 연구는 부재하다. 이에 위의 문헌자료, 재외동포 지원 민간단체 및 미국 정부의 주요 웹 사이트를 활용하여 미국 재외동포 청소년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미국 재외동포의 정의, 현황 및 이주원인

미국 재외동포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공용되게 사용되는 단어는 expatriate이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연구하는 특정 집단의 상황을 고려하여 expatriate, 디아스포라, 혹은 해외거주 미국인을 사용한다(Klekowski von Koppenfels, 2014: 1-5). 본 보고서에는 이데올로기적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해외거주 미국인’(Overseas Americans)이라는 명칭과 재외동포 미국인(overseas American diaspora)도 같은 의미에서 사용할 것이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100여개 국가에 약 220~760만 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국 전체 인구수의 약 0.78%를 차지한다. 미국 디아스포라들은 취업, 유학,

80) 이 장은 본 연구의 위탁용역으로 실시된 「외국의 재외동포청소년정책 비교 연구」(연구보고 15-R15-1)(이진영 외, 2015)를 요약하여 수록한 것임.

선교, 국제결혼 등의 이유로 모국을 떠나며 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유럽 국가에 정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는 멕시코,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 이스라엘, 일본, 프랑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Klekowski von Koppenfels, 2014: 30). 현재 미국 정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통계를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미국 국무부가 1999년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은 약 380만 여명이다(US Census Bureau, 2001).⁸¹⁾

해외거주 미국인들이 국외로 나가게 되는 동기는 다양하다. 그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결혼(29%), 직장(24%), 개인의 선택(15.4%) 등이다(OVF, 2009:14). 미국에서 태어나 거주하다 해외 파견 및 결혼 등의 이유로 국외에 거주하는 사례도 있지만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이민자의 부모에게 태어나 부모의 국가로 귀환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해외에서 미국 부모에게 태어나 신청을 통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이중국적 소유자로 계속 해외에서 거주하는 미국인도 있다. 소수이긴 하지만 특정 지역에 장기 체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는 '세계적 유목형'(D'Andrea, 2007)도 존재하기 때문에 딱히 전형적인 해외거주 미국인의 양상에 대하여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Klekowski von Koppenfels, 2014: 1-5).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인구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나이와 학력 부분에서 본토의 국민들과 비교했을 때 주로 40-59세 사이로 본토보다 평균연령이 높으며(Murray, 2012: 136; OVF, 2009: 14), 본토의 경우 투표를 하는 미국인들의 40% 정도가 고등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경우 60% 이상이 학사 혹은 석사 학위 소유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Smith, 2014: 34).

3) 미국의 청소년 개념 및 정책

미국에서는 청소년에 대응하는 단어로 teenager를 주로 사용한다. 영어의 어미에 -teen 이 들어가는 숫자가 13~19세이므로 이들을 teenager라고 하며, 이 시기는 청소년기 및 사춘기와 거의 일치한다.

미국정부는 연방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이라는 두 가지 기본 원칙에 의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말하자면 각 부처와 주정부에서

81)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01).

<https://www.census.gov/population/www/socdemo/overseas/overseas-congress-report.html>에서 2015년 6월 12일 인출.

독립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연방 정부는 청소년과 관련된 주 법령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청소년 노동법 (16세 이하의 청소년의 근무시간 제한), 음주연령(21세), 군 입대 연령 (18세) 등 대부분의 청소년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주 정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Juvenile Law Center, 2015).⁸²⁾ 따라서 재외동포와 그들의 자녀는 자신과 관련된 제반 행정업무에 있어 자신이 속해있는 해당 주의 법과 제도를 따라야 한다.

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들은 크게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에서 미국부모에게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와 미국에서 태어나서 거주하다 학업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간 경우로 나뉜다. 해외에 어학연수 등 학업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가는 학생들은 매년 증가는 추세여서 매우 중요한 집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11~2012년에는 28만 여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목적으로 해외로 나갔으며 이는 미국 총 고등교육 인구의 약 1.4%로 사상 최고치로 보도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8주 정도의 단기 어학 연수생으로 해외를 방문하고 있다(IEE, 2013: 33). 이러한 연수·유학 경험은 해외 장기 거주 및 이민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외에서 미국시민인 부모아래 태어난 아이는 두 부모 중 한 명의 부모가 미국 시민이며 '물리적 참석 요구'조항을 충족했을 경우 미국시민권을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이중국적자를 포함해서 18세가 되면 참정권이 주어진다. 해외에서 출생하여 한 번도 미국에서 거주한 적이 없어도 조건이 충족되면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FVAP, 2014).⁸³⁾

4) 미국 정부의 해외청소년 지원제도

(1) 의무교육 지원

미국의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령은 주로 5-8세부터 16-18세까지이며 미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미국학교를 통해 해외 거주 국민들의 자녀들이 미국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에 있는 미국학교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된다. 첫 째는, 미국 정부가 세우고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방부 소속 학교(Department of Defence Dependent Schools, DoDEA)와 해외에

82) Juvenile Law Center 웹 페이지 <http://www.jlc.org/news-room/media-resources/youth-justice-system-overview> 2015년 5월 7일 인출.

83) Federal Voting Assistance Program, <http://www.fvap.gov/vao/materials/ocit-order> 2015년 6월 10일 인출.

거주하고 있는 교육자, 비영리 단체, 학부모, 기업가 및 종교인 등에 의해 세워진 사립 혹은 독립 학교이다. 국방부는 1921년부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자녀를 위해 세운 학교는 현재 172개교이며 74,017명의 미국 자녀들이 재학 중이다.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모든 학교는 인준을 받은 상태이며 해당 학교 학생들은 여러 표준화된 평가에서 평균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소속 학교들이 양질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년말보고서, 감사, 자체 평가 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DoDEA, 2015).⁸⁴⁾

반면 국무부가 지원하고 있는 학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자녀들의 교육 및 해당 국가 및 제3국의 학생들에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들이다 (Simpson & Duke, 2000: 3~5). 국무부는 행정국 아래 해외학교부를 세우고 미국기업의 후원으로 해외학교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해외에 있는 학교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Overseas School Advisory Council, n.d.).⁸⁵⁾

(2) 미국정부 지원 학교의 현황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는 현재 약 136개국에 196개교이며 재학 중인 학생 수는 134,867명이다. 그 중 미국 청소년은 36,409명(27%)이었고, 동아시아지역에 12,196명의 가장 많은 수의 미국 청소년들이 미국학교에 다니고 있다. 해외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재외동포 청소년들은 본토에 있는 미국 청소년들과 비교한 결과 더 우수한 SAT 시험 점수를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Office of overseas schools, 2015).⁸⁶⁾

(3) 미국정부 지원 학교 운영 프로그램 및 사업

국무부의 해외학교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학교를 돕고 있다. 첫째, 지역마다 협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있는 미국학교의 행정, 교육, 기술, 재정, 교육, 직원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돕고 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 소속이 되어 있는 학교가 회원가입 시 필요한 정보 및 협력가능 단체/기관과 연락하여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또한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본토의

84) Department of Defence Education Activity (DoDEA). <http://www.dodea.edu/> 2015년 9월 28일 인출.

85) Overseas School Advisory Council.(n.d.) <http://www.state.gov/m/a/os/c6971.htm> 2015년 5월 20일 인출.

86) Office of Overseas Schools (201). Family resources:DoD education activity schools. Military.com: Benefits & Resources. http://www.military.com/Resources/ResourcesContent/0,13964,31992-mil_status_active-1,00.html 2015년 10월 1일 인출.

미국 청소년들이 받은 교육과 유사할 수 있도록 미국의 커리큘럼을 지원하고 있으며 베트남, 홍콩 등에 있는 미국학교에서는 졸업반을 위하여 국제 바칼로레아 디플로마를 수여하는 등 졸업생들의 용이한 대학교 진학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간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미국대학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미국대학 입학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Office of Overseas School, n.d.).⁸⁷⁾

둘째, 되도록이면 보다 많은 학생, 교사 및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별 지원보다는 지역별로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삼백칠십만 달러를 투자를 통해 129개의 사업(학습 계획안, 컴퓨터 프로그램, 교사/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자료 등)을 지원하였다.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학생보다는 학교와 교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학생들 보다는 교사 그리고 교장을 위한 것이며 개발도상국에 있는 교사와 직원들의 자원부족을 충당하기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Office of Overseas School, n.d.).⁸⁸⁾

(4) 미국정부 해외 학교 지원 예산

미국정부에서 해외미국학교에 제공하는 지원금 중 학교 보안을 위한 지원금이 가장 크며 2014~15년의 경우 일억 천만 달러(국무부 예산의 약 .002% 정도)가 투자되었다. 2014년 196개의 학교가 국무부와 여러 기관 및 제3국의 대기업 등을 통해 받은 지원금은 약 일천 오백만달러 이다(US Department of State, 2014;⁸⁹⁾ US Department of State. Executive Budget Summary, 2014.⁹⁰⁾

(5) 미국 정부의 인재 관리

그 외에도 미국정부는 여러 재단 및 비영리 단체 등과 협력하여 인재 관리를 하고 있다. Fulbright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로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우수한 학자, 교육자, 대학원생,

87) Office of Overseas Schools (OOS). (n.d.). 웹 페이지 <http://www.state.gov/m/a/os/index.htm> 2015년 5월 8일 인출.
 88) Office of Overseas Schools (OOS). (n.d.). 웹 페이지 <http://www.state.gov/m/a/os/index.htm> 2015년 5월 8일 인출.
 89)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Highlights of the Department of State an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budget, Fact Sheet*. Released April, 10, 2013. <http://www.state.gov/r/pa/prs/ps/2013/04/207281.htm> 2015년 7월 15일 인출.
 90)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2013.4.10). Executive budget summary—function 150 and other international programs. Fiscal Year 2014. <http://www.state.gov/s/d/rm/rts/ebs/2014/pdf/index.htm>에서 2015년 7월 15일 인출

연구원 및 각종 전문가들에게 국제 교환 프로그램 및 장학금을 부여한다. 이 프로그램은 15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122,800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다 (Fulbright, n.d.)⁹¹⁾.

5) 민간단체의 재외동포 관련 정책, 법령, 제도 및 프로그램

(1) 재외동포 지원 단체

재외동포를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미국 정부 보다 민간단체가 더욱 활발하며 많은 시민단체 및 비영리 단체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의 이권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해외미국시민(ACA), 해외미국여성연맹(FAWCO), 파리장기거주미국여성모임(AAWE), 그리고 해외미국인협회(AARO)이다. 이 세 민간단체들은 주로 해외 미국인들의 세금, 연금, 참정권, 시민권 등의 문제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ACA, 2011; FAWCO, n.d.; AARO, n.d.)⁹²⁾

(2) 민간단체의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FAWCO에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 및 적극 홍보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1991년 두바이의 미국여성 협회에서 만든 아메리카나 프로그램 (Americana Program)이다. 이 프로그램은 3세에서 10세 정도의 재외동포 아동 및 청소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며 긍정적인 환경 안에서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프로그램이다. 아메리카나 프로그램 안에는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정부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대통령의 날 프로그램 등 미국 고유의 휴일 및 역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다. 특히 음악, 문화와 문학을 통해서 영어실력 향상을 도모하고 미국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교육하며 미국부모와 자녀들이 미국 본토에 살고 있는 가정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FAWCO, n.d.)⁹³⁾

91) Fulbright,(n.d.). <http://eca.state.gov/fulbright> 2015년 5월 7일 인출.

92) American Citizens Abroad(ACA)(2011). <https://americansabroad.org/> 2015년 6월 13일 인출.

Association of Americans Resident Overseas (AARO). (n.d.). <https://aaro.org/> 2015년 6월 10일 인출.

FAWCO,(n.d). <http://www.fawco.org/> 2015년 6월 10일 인출.

93) FAWCO,(n.d). <http://www.fawco.org/> 2015년 6월 10일 인출.

AAWE는 프랑스인들과 결혼한 미국여성들이 자녀들에게 미국문화 (할로윈, 추수감사절 등)을 알려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사교활동을 통해 자녀들이 미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어머니'를 문화적 가교로 보고 이들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문화적 자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AAWE, n.d.).⁹⁴⁾

재외동포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현지 방문,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도록 권유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미국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미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개인 혹은 고립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 부모들은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FAWCO에서 제공하는 아메리카나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다(Klekowski von Koppenfels, 2014: 140-172).

6) 시사점

미국의 해외동포 및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째, 미국 정부는 재외동포 청소년의 (의무) 교육과 관련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립학교 및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지원의 주무부처가 국무부이며 (교육부가 아닌)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문화국 그리고 해외미국학교를 관리 및 지원하는 행정부 모두 국무부의 소속이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해외미국학교 자문위원회가 제반 사업을 국무부의 고위직 공무원들과 연2회 회의를 통해 보고 및 상의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국가 차원에서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에게 양질의 의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무부의 교육지원에 있어 개인단위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 양성에 힘을 쓰고 있으며 이로 하여금 학교 전체의 수준을 올려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동일하게 받아 본토 청소년들과 비슷한 교육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둘 째, 민간단체 및 비영리 단체들이 미국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FAWCO, AARO, ACA 등의 단체들은 재외동포들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겪는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립되었지만 다수의 단체들이 장기간 협력하여 세금, 참정권, 시민권

FAWCO. (n.d). <http://www.fawco.org/> 2015년 6월 10일 인출.

94) American women living long-term In France (AAWE),(n.d). <http://aaweparis.org/pages/index.html> 2015년 6월 10일 인출.

취득 등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공동체, 사회, 이웃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위의 단체들은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장학금을 제공하면서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미국 문화, 가치, 언어, 생활방식, 가치관 등을 직간접적으로 알려주어 이들이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셋 째, 미국 정부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이 미국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해외 거주 청소년들에게 미국학교에 입학 할 수 있는 것 이 외에도 18세가 되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부여하여 (주 별 차이가 있음) 미국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또한 세금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미국시민으로서 지켜야하는 의무도 알려준다. 미국 정부는 청소년 때부터 이러한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미국 청소년들이 미국의 시민참여, 정치참여 의식에 대하여 이른 나이부터 깨닫게 하여 미국사회에 대해 더 깊은 이해 및 민주주의의 가치를 내면화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한국 정부에서는 해외에 있는 한인 청소년들을 위하여 교육 관련 사업을 지원할 경우 개인 단위가 아닌 (예: 우수 학생들을 위한 개인별 장학금)학교별 혹은 지역별 지원을 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재외한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맡을 교사들에게 다양한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고 교사들이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교육과 관련된 수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중심 센터를 세울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중심 센터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함으로서 지원이 부족한 지역 및 학교/기관이 타 기관과 발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지역관리 책임을 맡을 것을 권장한다.

둘 째, 재외한인 청소년들이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장기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미국의 L.A. 등 한인사회가 활발한 지역에 사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아닐 경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매우 약할 수 있다.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을 위하여 FAWCO에서 만든 Americana Program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국인과의 접촉이 적고 한국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한국문화, 역사, 정서, 언어 등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FAWCO에서는 학부모등이 자발적으로 소그룹을 형성하고 지원할 경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이는 시간을 절약할 뿐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의 교제를 도모하고 청소년 아이들이 서로

만나 친구가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이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이 적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참여자들이 관계를 형성하여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체성 함양에 있어 장기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소그룹이 형성되면 전문성 있는 교사를 초청하여 장·단기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과도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셋 째, 미국 정부에서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이 미국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듯이 재외한인들이 한국에 대한 책임감을 질 수 있도록 권유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가령 한국에 대해 관심과 이해가 높은 동포 청소년들이 (부모의)모국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역량 혹은 방법을 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러한 청소년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 및 기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수단을 제공하여 권장하는 방법이 있다. 한 두 번의 참여가 개인적인 성취감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모국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고 추후 한국 방문 및 재능 기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 중국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⁹⁵⁾

1) 중국의 화교화인 청소년 개념

중국에서 청소년(青少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동년(童年)과 성년(成年)의 사이 시기를 지칭하며, 연령대로는 만 13세부터 19세 이하까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군중 조직인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과 소년선봉대를 통해 청소년 연령대를 유추해 보는 것도 타당하다. 1922년 창립된 중국공산주의청년단(中国共产主义青年团)은 2008년 통계로 약 7858만의 단원을 보유하고 있고, 정관 상 가입 연령은 14세 이상 28세 이하로 되어 있다. 또한 1948년 설립된 중국소년선봉대(中国少年先锋队)는 중국 전역에 약 1억 3천만 명의 단원을 보유하

95) 이 절의 내용은 2015년 12월 16일에 개최된 재외한인학회·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공동학술회의(차세대 재외동포와 교육)에서 “화교화인 청소년 정체성 함양을 위한 중화문화 프로그램 연구” (pp.11-34)의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음.

고 있고, 만 6세에서 14세까지를 가입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중국소년선봉대의 경우 13세와 14세,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의 경우 14세부터 19세까지가 청소년의 사전적 연령과 겹쳐 있다.⁹⁶⁾ 따라서 사전적 청소년 연령대에 근거하면, 중국소년선봉대의 경우 13세와 14세, 중국공산주의청년단의 경우 14세부터 19세까지가 청소년 연령대에 해당된다.

중국은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계 이민자를 국적에 근거하여 화교(華僑), 화인(華人)으로 구분하고 있다. 화교란 중국 국적의 해외거주자를 의미하며, 화인이란 외국 국적자를 가리킨다.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인 1980년대 이후 외국으로 이주한 화교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신화교(新華僑)라 지칭하고 이전 이주자를 노화교(老華僑)라고 사회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리고 혼혈 혹은 수 세대에 걸쳐 현지 거주국에 동화되었으나 중국인의 뿌리가 있는 후예를 화예(華裔)라 지칭한다.⁹⁷⁾ 그러므로 중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은 중국 국적인 화교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외국 국적인 화인 및 화예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중국의 화교화인 청소년에 관한 법과 제도

(1) 정책기구 및 관련 제도

중국의 화교화인 관련 정책기구는 국무원 교무관공실(侨务办公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화교위원회, 전국정치협상회의의 홍콩·마카오·대만·화교위원회(港澳台侨委员会) 등이 있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는 화교화인 사업추진과 관련 된 예산과 추진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무원 교무관공실이 화교화인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즉 국무원 교무관공실의 2014년도 재정 내역을 살펴보면, 573,906만 위안(한화 약 1조 1백억원)을 수입·지출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예산 수입 항목 중 정부 출연 54%, 사업 수입 20%, 기타 수입 17%로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지출 내역을 보면, 지출 합계 426,551만 위안 중 교육 지출이 380,098만 위안으로 2014년도 지출의 약 90%로 차지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96) ‘청소년’, ‘청년’,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소년선봉대’을 baidu 백과에서 검색하여 직접 작성. 청소년’은 http://baike.baidu.com/link?url=lypstpdEoywOIKhWg1zqqL3t7Dg-TmM3T-DdupriuVTg_5KnCre8A0qt4zbe6Ucq6oq3yk0VLNaXChirzSWqO9mk9gRiOXJhOciyIfP1suC에서 참조하였고,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은 <http://baike.baidu.com/view/20997.htm?fromtitle=%E5%85%B1%E9%9D%92%E5%9B%A2&fromid=215034&type=syn>, 소년선봉대는 <http://baike.baidu.com/view/62980.htm>, 그리고 청년에 대한 개념은 <http://baike.baidu.com/view/20565.htm> 참조.

97) 화교화인 <http://baike.baidu.com/view/1066153.htm>, 화예 <http://baike.baidu.com/view/71292.htm>, 신화교 ([http://mone](http://money.163.com/06/0904/08/2Q5QJA7T002510BC.html)

재정 예산이 교육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화교화인 청소년 대상 교육 예산 지출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⁹⁸⁾

또한 화교화인 교육 진흥을 위한 목적성 기금인 중국화문교육기금회의 경우도 2012년 7,511만 위안(한화 133억), 2013년 5,716만 위안(한화 101억), 2014년 4,172만 위안(한화 74억)에 달하는 등 기부금 모금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통계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중국의 화교화인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전개와 지원은 안정적 재정 투입과 민간 기금을 통해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다.⁹⁹⁾

국무원 교무판공실은 정책 수행 능력 측면에서도 중앙의 교무판공실과 지방의 교무판공실로 행정적 수직화가 이루어져 있어 해외 화교화인과 관련 된 사업과 프로그램이 중국 전역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있다. 또한 국무원 교무판공실은 정책 및 관련 법규 제정, 화교화인 현황 연구 및 과제 개발, 화교 업무의 타부서와의 협력, 귀국 화교의 지원, 화교화인 직능 및 지역 커뮤니티 협력, 화교화인 우수 인재 유입 사업, 화문(华文) 교육 사업 등 화교화인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국무원 교무판공실 산하에는 북경화문학원, 기남대학, 화교대학 등 교육 기관과 언론 단체인 중국신문사, 화성보사 등이 직속기구로 있으며, 화교화인 관련 다양한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즉 중국해외교류협회, 중국화문교육기금회,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 중국교상투자기업협회 등을 직접 또는 간접 조직함으로써 화교화인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¹⁰⁰⁾

(2) 해외 화교화인 청소년 사업 추진 체계

화교화인 업무의 총괄은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한 국무원 교무판공실이 담당하고 있으며, 교무판공실은 중국내 지방 조직으로 체계화 되어 있다.

그러나 해외 화교화인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추진은 정부 기관인 국무원 교무판공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해외의 화교화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추진은 사회단체 육성과 역할 분담을 통해 집행하고 있다. 즉 대표적인 화교화인 청소년 정책 협력 사회단체로 1990년에 설립 된 중국해외교류협회(中国海外交流协会)와 2004년 설립 된 중국화문

98) 국무원 교무판공실(2014), 2014 년도보고, p.4. 웹 페이지 <http://www.gqb.gov.cn/zwjg/>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99) 중국화문교육기금회. 웹 페이지 http://www.clef.org.cn/data.foundationcenter.org.cn/content_141.htm에서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15년 9월 1일 인출.

100) 국무원 교무판공실. 기능과 역할. 웹 페이지 <http://www.gqb.gov.cn/>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교육기금회(中国华文教育基金会)가 있다. 중국해외교류협회는 중국 전역 47개 성급, 시급 지부 협회가 조직되어 있고 해외 화교화인 사회의 유력 인사를 이사진으로 포괄하는 등 화교화인 사회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중국화문교육기금회는 정부 부처 인사 및 해외의 화교화인 교육체계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화문교육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핵심적인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¹⁰¹⁾

특히 두 단체는 모두 법인 정관상에 국무원 교무관공실의 업무 지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소지 역시 두 단체 모두 국무원 교무관공실과 같은 주소지 건물로 되어 있다. 즉 국무원 교무관공실과 중국화문교육기금회, 중국해외교류협회가 화교화인 청소년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단체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중국의 행정기구가 확일적으로 사업을 직접 관장하는 형태라기보다는 화교화인 거주국가별 상황과 사업 추진 대상에 따라 사회단체와 거주 국가별 커뮤니티가 협력하는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와 같이 국무원 교무관공실은 화교화인 거버넌스의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정책 기관, 사업단체, 지역별, 직능별 커뮤니티라는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중국해외교류협회와 중국화문교육기금회 등 사업단체 설립을 통해 정부 기관 인사, 화교화인 사회단체 인사, 그리고 국가별 유력 인사를 인적 네트워크로 재구성하고 있다.¹⁰²⁾

3) 중국의 화교화인 청소년 교육과 네트워크

(1) 화문교육기지 및 해외 화문교육시범학교

화교화인 청소년의 교육 공간인 화문(华文)학교의 역사는 화교화인의 해외 이주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대부분의 화문학교는 거주국 지역별로 자생적으로 세워졌다.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새롭게 해외로 이주한 화교화인의 증가는 전통적인 동남아 지역에서부터 미주와 유럽으로 지역적 확장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주말 중문학교 등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로 인해 최근 화문학교와 중문(中文)학교는 전 세계에 걸쳐 약 5000여개가 있으며, 4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101) 중국해외교류협회 조직 구조와 네트워크: <http://www.coea.org.cn/>, 중국화문교육기금회의 조직과 기능: <http://www.cief.org.cn/>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102) 중국해외교류협회. 협회 소개 ' 웹 페이지 <http://www.coea.org.cn/xhjs/index.shtml>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첫 번째는 동아시아 국가에 뿌리를 내린 노교화인 사회의 화문학교, 두 번째는 언어 보습반 형태의 화문학교, 세 번째는 1980년 이후의 신이민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형성 된 주말 중문학교, 네 번째는 거주국 교육체계에 편입 된 화문학교이다(陈真, 2007: 39).

이러한 화교화인사회의 교육 기반을 토대로 국무원 교무판공실과 중국해외교류협회는 중국 내 '화문교육기지' 지정 및 해외 '화문교육시범학교' 사업을 추진하였다. 즉 중국 내의 대학, 중학교 등 37개 교육 기관을 화문교육기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2009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210개의 '화문교육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는 화교화인 사회와 중국과의 교육·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본 사업이며, 해외 화교화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설치이다. 즉 국무원 화교판공실을 통해 매년 지출되는 교육 예산이 '화문교육기지' 및 해외 '화문교육시범학교'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교사 연수, 교재 개발, 문화 프로그램, 모국 연수 프로그램 등이 이러한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즉 중국 내 화문교육기지와 해외 화문교육시범학교는 교육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화교화인사회와의 지역적 매개를 통해 교육·문화 사업들을 추진되고 있다.¹⁰³⁾

(2) 해외 화교화인 청소년 중화문화 프로그램

1990년대 이후 화교화인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중화(中华)문화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1993년에 시작되어 매년 1회 개최되는 '화인소년작문 대회(华人少年作文比赛)', 1999년 시작되어 여름과 겨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국뿌리찾기여행(中国寻根之旅)', 그리고 2011년 시작된 '중화문화대낙원(中华文化大乐园)'과 '해외화예청소년중문노래대회(海外华裔青少年中文歌曲大赛)'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해외화예청소년중화문화대회(海外华裔青少年中华文化大赛)'가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화교화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중화문화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거주국 지역별 대회와 중국에서 개최되는 대회로 이어지며, 유형별로도 언어, 작문, 춤과 무용, 노래 등 다양하다. 특히 화문교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세계 화교화인 교육기관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화문화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으며, 세계 화교화인 청소년과 중국의 문화 네트워크를 강화하

103) 중국화문교육망. 웹 페이지 <http://www.hwjyw.com/info/content/2015/02/16/31444.shtml>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는데 일조하고 있다(刘华·程浩兵, 2014: 84).

주요 사업별 현황을 보면, 1993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는 ‘화인소년작문대회(华人少年作文比赛)’의 경우 10회인 2009년 참가작품수가 10만을 넘어섰으며, 15회인 2014년에 이르러서는 참가 작품수가 20만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2014년 수상자만 해도 1만 6천여 명에 이르는 등 중국과 해외 화교화인 청소년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¹⁰⁴⁾

또한 1999년 시작 된 ‘중국뿌리찾기여행(中国寻根之旅)’은 대표적인 모국 방문 프로그램으로 정착하였으며, 이 역시 중화문화 거버넌스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즉 중국해외교류협회 및 지방 교무관공실을 통해 매년 여름과 겨울에 동시 다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성, 시급 교무관공실과 지역 화문교육기지 등이 주관하고, 관련 지역 및 직능 단체 등이 공동 개최하면서 지역별, 주제별로 특성화 된 캠프들을 선보이고 있다.¹⁰⁵⁾

그리고 2011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해외 화예청소년 ‘중화문화대락원(中华文化大乐园)’은 화교화인 거주국에서 개최되는 중화문화 캠프이다. 즉 ‘중국뿌리찾기여행’이 모국 연수 형태로 중국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중화문화대락원’은 중국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화교화인 사회로 찾아가는 화교화인 청소년 거주국 개최 캠프이다. 즉 화교화인 청소년 거주 국가별로 중국과 방학이 다른 국가들이 있고, 또 모국 연수가 체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발 된 프로그램이다. ‘중화문화대락원’은 2011년 첫 해의 경우 9개국 1만 3천여 명 참가 수준에서 4회 대회인 2014년에는 16개국 3만여 명으로 참가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에서 강사를 파견하고 개최 거주국 주관 단체가 결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화문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매년 대회가 확대되고 있다.¹⁰⁶⁾

아울러 2011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중화문화대회는 거주 국가별 화교화인 청소년의 방학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방학을 기준으로 춘계 권역, 하계 권역, 추계 권역으로 국가를 분류하고, 국가별 방학 캠프를 개최해 지역 및 국가 우승자를 선발하고 최종적으로는 중국 캠프에서 전 세계 화교화인 청소년이 지식과 장기를 겨루는 글로벌 중화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¹⁰⁷⁾

이와 같이 화교화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화문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화문교육 네트워크

104) 중국화문교육망. 웹 페이지 <http://www.hwjyw.com/info/content/2015/02/16/31444.shtml>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105) 리지아위(李嘉郁), 2009. 近年来华裔青少年中国寻根之旅夏令营活动的特点和发展趋势, 八桂侨刊 pp.28-31

106) 중국화문교육망. 웹 페이지 <http://www.hwjyw.com/info/content/2015/02/16/31444.shtml>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107) 중국화문교육망. 세계화문교육대회 1회 대회. 웹 페이지 http://www.hwjyw.com/info/news/200908/t20090804_30651.shtml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와 연결되어 있으며, 중화 문화 프로그램 유형도 언어와 작문, 중화 문화 지식, 춤과 무용, 노래 등 다양하다. 특히 중화문화 거버넌스가 화문교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 세계 화교화인 교육기관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 세계 화교화인 청소년과 중국의 문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중국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정책과 화교화인 미래 인재 정책

(1) 중국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정책

1990년대 지식 기반 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우수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유학으로 해외 진출 후 해외에 정착한 20만 명 이상의 화교화인 우수 인재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해외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유학 인재의 귀국 인센티브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즉 1992년 국무원 교무관공실에서 ‘해외유학인원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공포하는 등 유학인재의 귀국 정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형성되게 되었으며, 유학 인재에 대한 귀국과 초빙, 창업을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실시하게 된다. 특히 취업 인센티브, 거주 및 가족에 대한 인센티브 등 해외 화교화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이 실시되고 제공되게 된다. 대표적인 해외 우수인재 유치 프로그램으로는 1998년에 시행된 ‘장강학자장려계획(长江学者奖励计划)’과 2008년 시행된 ‘천인계획(千人计划)’이 있다.¹⁰⁸⁾ ‘장강학자장려계획’은 최고 수준의 고급 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프로젝트로 해외 고급 인재를 1천 3백여 명 초빙하였으나, 사실상 해외 유학 후 정주하였던 인재가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마찬가지로 ‘천인계획’ 또한 유학으로 해외에 거주,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 주로 혜택을 받았으며, 2012년 7월까지 2,263명이 중국으로 귀환하였다. 특히 천인계획의 실시와 함께 중앙 차원과 지방 차원의 다양한 인재 초빙 프로그램 등이 실시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외 우수 인재의 귀국과 창업은 중국 사회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게 된다(재외동포재단, 2014b; 재외동포재단, 2013c: 109-110에서 재인용).

이러한 중국의 해외 유학 인재 유입 정책과 이로 인해 귀국하게 된 화교화인 차세대들은

108) 천인계획의 공식 명칭은 해외고층차인재인진계획(海外高层次人才引进计划), 즉 해외 고급인재 유치 정책이며, 천인계획인 통용 된 명칭이다. 현재는 홈페이지가 폐쇄되어 있으나 baidu 검색을 통해 주요 인재 유치 경과와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내에서 다양한 지역 및 직능 커뮤니티를 구축하게 되며, 이는 해외 화교화인 사회와의 또 다른 이주 네트워크로 작용하고 있다.

(2) 해외 유학생 귀환 정책의 성과와 화교화인 미래 인재 정책

중국의 해외 유학생 귀환 정책의 성과는 해외 화교화인 우수 인재를 이민 정책의 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이었고, 이를 통해 해외 유학 인재와 화교화인 차세대의 중국 귀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중앙의 귀환 정책과 함께 지방 정부에서도 인재 유치 인센티브 정책을 펼침으로써, 지식기반 사회로 접어 든 중국 경제에 대한 해외 화교화인 차세대들의 관심과 귀환이 큰 이슈가 되었다.

또한 화교화인 인재의 중국 귀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중국 정부는 화교화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인재 양성 또한 주목하게 된다. 특히 앞 장에서 보았듯이 중국 내·외를 연결하는 화문교육 네트워크의 구축과 이를 통한 화문 교육 강화 사업들을 장기적인 미래 인재 개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화교화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화문화 프로그램은 글로벌 중화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매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중국의 화교화인 청소년 정책이 주는 시사점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말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무원 교무관공실이라는 정책 추진기구의 존재와 한화 1조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재정의 뒷받침이고, 두 번째는 중국내 37개 '화문교육기지' 및 해외 210개 '화문교육시범학교' 지정을 통한 화교화인 교육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가동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교화인 청소년 사업 추진 단체로 중국해외교류협회와 중국화문교육기금회를 설립하여 정책 기구인 국무원 교무관공실과 함께 화교화인 교육문화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한 점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기구의 존재와 안정적인 재정, 중국 내·외를 연결하는 화문교육 네트워크는 화문 교육이 거주국별로 발전할 수 있는 교육 동력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화교화인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될 부분은 화문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전개되고 있는 중국과 해외를 잇는 다양한 중화문화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1993년 시작 된 화인소년작문대회는 전 세계 화문교육 네트워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

으로, 2014년 프로그램 실적을 보면 참가 작품수가 20만 건을 상회하며, 수상자만 해도 1만 6천여 명에 이르는 등 방대한 참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중국에 방문하는 모국 연수 유형인 ‘중국뿌리찾기여행’의 경우 1999년 개최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대표적인 중화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으며, 해외 화교화인 사회의 수요와 요청에 맞게 다양한 주제 캠프들이 여름과 겨울에 중국 내 여러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 화교화인 청소년 거주국에서 개최되는 ‘중화문화대낙원’은 모국 방문 연수인 ‘중국뿌리찾기여행’에서와 같은 중화문화 체험과 학습을 기본으로 하는 거주국 청소년 캠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거주국 사정에 맞는 프로그램과 중국과 거주국 간의 문화 교류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해외 화에 청소년 중화문화대회는 화교화인 거주국 대회, 거주국 방학을 기준으로 거주국을 재구성 한 권역 대회,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국 대회로 이어지는 글로벌 프로그램 모형을 선보이고 있다. 즉 화교화인 청소년의 디아스포라 정체성에 대한 공감과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며,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 내·외를 포괄하는 ‘전 세계 화인’을 주창하는 새로운 글로벌 사회통합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편 중국은 1990년대 이후 해외 우수인재 유입정책의 일환으로 화교화인 차세대 인재의 모국귀환을 추진하였으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천인계획’ 등을 통해 해외 유학 거주자와 화교화인 차세대가 성공적으로 중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정책 사업을 추진하였다. 즉 중국 정부는 ‘국가 중장기 인재발전 계획 요강 (2006~2020년)’을 시행하면서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우수 인재 수요의 상당수를 해외 화교화인 차세대 유입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화교화인 청소년에 대한 미래 인재 개발 전략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화문교육 네트워크의 구축, 그리고 다양한 중화 문화프로그램의 운영과 화교화인 차세대 인재의 귀환 정책은 불과 2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성과이다. 중국의 정책 의지가 중화문화 거버넌스를 전 세계 화교화인 교육기관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작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후에도 화문교육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을 위한 중화 프로그램의 운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 것을 전망하게 한다.

3. 일본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1) 일본의 재외방인 청소년 개념

일본에서는 각종 법령이 정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은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18세 미만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최대 20세 미만까지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⁰⁹⁾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본 청소년의 개념을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 20세 미만까지로 정의하였다. 일본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일계인을 국적구분에 의하여 일계인과 재외방인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먼저, 일계인(日系人)은 일본 이외의 지역에 이주한 후 거주하는 해당국가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일본인 및 그 자손을 지칭한다. 재외방인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일본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인으로 장단기 체류자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임채완, 임영언, 박구용, 2013: 29). 일본의 해외일계인 청소년 정책은 외국국적 일계인보다는 기본적으로 일본국적자인 재외방인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도 재외방인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2) 일본 정부의 청소년에 관한 제도적·정책적 기구

(1) 일본정부의 국내 청소년 정책

일본정부는 2000년 1월부터 중앙성청 개혁에 의해 시스템 전환을 도모하고 새로운 청소년 추진방안을 검토해왔다. 중앙성청의 개혁에 의해 내각의 중요 정책에 상호 협력하고 정부의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각부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의 청소년정책은 새로 편성된 관계성청이 청소년에 관한 각 분야의 정책을 분담하고 내각부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의 기획 및 입안, 종합조정 등을 맡고 있다.¹¹⁰⁾

또한 일본정부는 2014년 4월 '청소년 해외유학 촉진 실행계획'에 관한 관계 부성청의 대처라는

109) 内閣部. 청소년연령구분 웹 페이지 http://www8.cao.go.jp/youth/whitepaper/h20honpenhtml/html/sanko_02.html에서 2015년 7월 2일 인출.

110) 内閣部. 청소년행정의 종합적 추진. http://www8.cao.go.jp/youth/suisin/houkoku/c_1.htm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현재 유학중인 일본국적 대학생을 6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고등학생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2020년까지 재외방인 해외유학생을 배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주요 목적은 일본의 성장동력을 견인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일본 각 부성청의 강점을 살려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구체적인 실행과제에 대하여 부성청이 상호 연계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담고 있다.¹¹¹⁾

(2) 일본정부의 해외거주 일계인 청소년 정책

먼저 일본정부는 해외거주 외국국적 일계인 청소년 정책에 대하여 민간단체사업을 JICA의 일부사업으로 계승해 오고 있다. 일본정부의 해외 일계인 청소년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는 JICA 일본 ‘청년해외협력대(JOCV)’의 해외파견 사업이다. JICA는 개발도상국의 요청에 의해 기술, 지식, 경험을 가지고 개발도상국의 일계인들을 위하여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일본 국내에서 모집하여 선발과 훈련을 거쳐 해외현지로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응모기간에 20-39세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청년해외협력대’이다(和喜多裕一, 2011: 86).

‘청년해외협력대’는 민간 청소년단체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을 정부가 주관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1965년 4월 해외기술협력사업단을 실시기관으로 하는 정부사업으로 시작되어 1974년 8월 국제협력사업단(구 JICA) 발족에 따라 계승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년해외협력대’는 기술을 가진 20세부터 39세의 일본청소년 남녀가 개발도상국 지역주민과 생활을 함께 하며 해당지역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계인사회 청소년 보란티어는 ‘청년해외협력대’와 같은 활동과 활동대상지역을 중남미지역의 일계인·일계인 사회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년해외협력대’는 보란티어활동에 의한 빈곤퇴치활동, 국내 글로벌 인재양성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상대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둘째, 친선과 상호이해 증진, 셋째, 일본청소년의 국제적 시야 배양 등으로 인재육성측면에서 오늘날 봉사활동의 경험을 일본사회에 환원(지진 피해지)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¹¹²⁾

111) 文部省, 청소년해외유학촉진실행계획 http://www.cas.go.jp/seisaku/ryuugaku/dai2/siryu2_3.pdf#search에서 2015년 9월 2일 인출

112)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청년연수프로그램 일정 <http://www.jica.go.jp/chotatsu/domestic/komagane/ku57> 에서 2015년 11월 2일 인출.

(3) 일본정부의 재외방인 청소년 교육정책

글로벌시대 일본의 국제적인 활동무대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일본인들이 자녀들과 함께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 201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약 7만 7,000명 정도의 의무교육단계의 일본인 청소년들이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한 후 귀국하는 학생 수는 2013년도까지는 약 1만 1,000명 정도 된다. 일본정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일본국민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부과학성과 외무성은 일본헌법이 정하는 교육의 기회균등 및 의무교육무상의 정신에 따라 해외자녀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¹¹³⁾

일본문부성의 재외방인 청소년 지원정책은 기본적으로 일본헌법에 따라 일본 교육의 기본을 확립하고 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교육기본법(1947년 3월 31일 제정 법률 제26호),¹¹⁴⁾ 교육기본법(2007년 12월 22일 법률 제120호),¹¹⁵⁾ 학습지도요령¹¹⁶⁾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부과학성이 재외교육시설에 교원파견, 교재정비보조 및 귀국학생의 수용과 관련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무성에서는 재외교육시설의 건물임대료 및 현지채용 교원 사례금을 지원하고 있다.¹¹⁷⁾

3) 일본정부의 청소년에 관한 주요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

(1) 해외우수인재 유치정책

일본정부의 청소년 수용정책은 ‘유학생 10만 명 계획(1984년 8월)’의 실시로 취학생(주로

113) 海外子女教育振興財団. 在外教育施設支援 웹 페이지 <http://www.joes.or.jp/sub3.html>에서 2015년 8월 9일 인출.

114) 일본학교교육법. 웹 페이지 <http://law.e-gov.go.jp/htmldata/S22/S22H0026.html>에서 2015년 9월 8일 인출.

115) 1947년 3월 31일 제정된 학교교육기본법 제25호를 2007년에 전부 개정된 법률로 교육의 목적 제2조 제5항에는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것들을 배양해온 일본국과 향토를 사랑함과 동시에 타국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학교교육기본법. 웹 페이지 <http://law.e-gov.go.jp/htmldata/H18/H18H0120.html>에서 2015년 9월 8일 인출.

116) 학습지도요령은 일본정부가 1947년 제2차세계대전 이후 학습지도 안내라는 입장에서 각 학교의 재량으로 잠정적으로 활용하다가 1953년에 학습지도요령(시안)이라는 명칭이었던 초등학교, 중학교, 중등교육학교, 고등학교, 특별지원학교의 각 학교가 각 교과에서 가르치는 내용, 학교교육법시행규칙의 규정을 근거로 정한 것이다. 학습지도요령. 웹 페이지 <http://sj.wikipedia.org/wiki/>에서 2015년 9월 8일 인출.

117) 内閣部. 青少年政策 웹 페이지 http://www.cas.go.jp/jp/seisaku/ryuugaku/dai2/siryoutu_3.pdf#search에서 2015년 11월 7일 인출.

일본어학교)에 대한 입국절차의 간소화(1984년 10월)와 '개정출입국 관리법'이 시행 (1990년 6월 제1차 개정) 되어 전문직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문호개방과 미숙련 외국인노동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渡辺雅子, 1995: 20).

한편 일본 'IT혁명'과 더불어 '출입국관리기본계획(제2차)(2000년)'이 제시한 방침, 유학 및 취학생 중심에서 "국제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자의 국제이동의 원활화와 전문기술직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대해서는 추진여부에 대한 국내외 기운의 고조가 인정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일본 국내 유입조건 및 환경을 확보하면서 유입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라는 단기체류 전문직의 체류기한의 확대 방침을 결정하였다. 일본정부의 개정출입국관리법은 이전까지 외국인전문직노동자에 제한하여 문호를 개방해왔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IT전문기술자 또는 이공계 대학, 대학원생이 일본유학을 거친 후 관련기업에 취업하는 형태가 아니라 유입과 동시에 일본기업에 취업하는 현상이 나타났다(石田智恵, 2009: 428).

이러한 현상은 일본 민간기업들이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재 확보가 민간기업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일본정부는 이에 따른 제도적 정책을 뒷받침해 왔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이민정책의 실용적 측면에서 외국인 전문직노동자의 수용확대 방침과 실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2014년 4월 '청소년 해외유학 촉진 실행계획'에 관한 관계 부성청의 대처라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일본정부가 해외유학 중인 대학생 6만 명에서 12만 명, 고등학생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2020년까지 배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주요 목적은 일본의 성장동력을 견인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일본 각 부성청의 강점을 살리고 유기적 연대를 통해 구체적인 과제실행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관계 부성청이 협력하여 해외유학을 통한 일본인 청소년의 우수인재양성을 촉진시키며 동시에 대학과 산업계에도 인재양성에 대한 의식제고를 도모하고 있다.¹¹⁸⁾

(2) 재외방인 및 해외 일제인 청소년 교류프로그램

① 내각부 청소년사회활동 핵심리더 육성 프로그램

일본 내각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다양한 개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자립적으로 사회에

118) 内閣部 청소년 해외유학 촉진 실행에 관한 관계 부성청의 시도 웹 페이지 http://www.cas.go.jp/jp/seisaku/ryuugaku/dai2/siryu2_3.pdf#search 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참여함으로써 ‘공생사회’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일환이다. 일본정부는 지역주민이나 NPO 등에 의한 사회활동의 충실이 필요 불가결하다는 인식 하에 고령자 활동, 장애인 활동 및 청소년 활동의 각 분야에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청소년들을 해외에 파견하고 해외민간조직 등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리더를 일본에 초청하여 상호교류를 통해 사회활동의 중심적인 담당자로서 청소년리더의 능력향상과 각국 각 분야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¹¹⁹⁾ 이 사업은 ‘일본청소년 해외파견’과 ‘외국청소년 국내초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외무성 가케하시 프로젝트(KAKEHASHI Project)

일본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은 일본정부(외무성)가 추진하는 북미지역과의 일본청소년 교류의 일환으로서 ‘KAKEHASHI Project-The Bridge for Tomorrow-’을 실시하고 있다. 가케하시 프로젝트는 일본에 대한 잠재적 관심을 증대시켜 방일 외국인의 증가를 도모하고 일본적인 가치나 쿨 저팬(Cool JAPAN)과 같은 일본의 강점이나 매력 등 일본브랜드에 대한 국제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사업수행을 통해 일본경제의 회복과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교류사업을 통해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이해 심화, 일본과 미국 간의 미래 교류 담당자 층의 네트워크 형성 및 청소년층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있다.¹²⁰⁾

③ 개발도상국 청소년지원 연수사업

일본 정부의 청소년 초청 연수사업은 1984년 장래 국가만들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개발도상국의 청소년들이 교육, 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연수를 통해 지견을 넓히고 같은 분야의 일본 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시작되어 그 후 아시아 대양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이 대상국이 되어 2006년 31,428명이 일본에 초청되었다. 2007년에는 사업내용을 개편하여 대상국의 발전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습득에 중점을 둔 청소년연수로서 새롭게 출발하였다.¹²¹⁾

119) 内閣部. 청년국제교류사업 웹 페이지 <http://www8.cao.go.jp/youth/kouryu/data/core.html> 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120) 가케하시 프로젝트(架け橋プロジェクト): <https://www.jpf.go.jp/j/project/intel/youth/kakehashi/>에서 2015년 6월17일 인출.

121) 자이카. 일본국제협력기구 웹 페이지 http://www.jica.go.jp/activities/schemes/tr_youngleader/summary.html에서 2015년

일본정부의 해외 청소년 연수사업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대양주, 중동 등 개발도상국의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각 국가에서 필요한 분야에 일본의 경험, 기술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연수를 통해 장래 국가만들기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인재육성에 노력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청소년 연수목적은 첫째, 일본에서 각 분야의 기초적인 기술과 제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둘째, 일본의 기술이 발전한 역사, 경험과 문화,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고, 셋째, 대상국의 개발과제의 해결 노력에 적합한 지식과 의식을 상승시키는데 있다. 연수 분야로는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행정, 경제, 지역진흥, 농업, 환경보전, 정보통신기술(ICT), 평화구축 등 각 분야에서 각국의 청소년을 연수원에 초청하고 있다.¹²²⁾

④ 재미일계인 학생 초청사업

재미일계인 사회에서 일계인과 비일계인 등 어느 한쪽의 조상을 가진 청소년, 일본인 미국 영주자(신 일계인 1세)의 부모를 가진 청소년과 같은 일본인의 피를 가진 새로운 시대의 일계인 청소년에 대한 일본어 교육, 일본문화 계승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 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신일계인 청소년에게 일본인의 정체성을 인식시켜 주고 장래 일본과 미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가교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다. 사업목표는 신일계인 청소년 가운데 유망한 청소년을 선발과 일본 초청으로 일본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하거나 일본 청소년과의 교류 및 홈스테이를 통해 확고한 대일관을 형성하게 하여 친일파, 지일파를 양성하는데 있다. '신일계인초청프로그램'에서는 일본의 일반가정에서의 홈스테이를 비롯한 일본 고등학교방문, 일본 각 지역 견학을 통해 일본인 및 일본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있다.¹²³⁾

4) 재외방인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일본 문부성의 의무교육단계의 재외방인 교육지원정책은 일본인학교와 보습수업교에 현지고

6월 10일 인출.

122) 자이카. 청년연수프로그램 일정 웹 페이지 <http://www.jica.go.jp/shotatsu/domestic/komagane/ku570>에서 2015년 11월 2일 인출.

123) 国際交流基金日米センター. 日系アメリカ人との交流事業 웹 페이지 <http://www.jpfi.go.jp/cgp/exchange/jald/에서> 2015년 11월 7일 인출.

원 파견, 시니어 교원 파견, 교재정비추진, 안전대책, 지도안 작성 등이 있다. 현지교원 파견은 해외자녀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일본인학교와 보습수업교의 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현지 교원을 모집하고 있다.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방인조직의 단체가 설립한 일본인학교와 보습수업교에는 국내 의무교육학교의 교원(주로 공립학교 교원)을 원칙적으로 2년간(평가에 따라 최대 2년간 연장 가능)파견하고 있다. 다만 보습수업교에 대해서는 대규모 시설에 한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을 파견하고 있다. 2014년도 현지파견교원정수는 1,070명이었다. 매년 4월경에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등에 현지파견교원의 추천을 의뢰하고 있다. 시니어 교원 파견은 2007년도부터 재외교육시설의 파견교원 경험을 가진 퇴직교원을 파견하고 있다. 2010년도부터 관리직 퇴직자에 제한하여 모집했지만 모집대상을 현직교원까지 확대하였으며 2012년도 모집부터는 교원에 한하여 파견교원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도 시니어 파견교원정수는 87명이었다. 매년 4월경에 모집하고 있다. 일본 국내 학교법인 등이 설립한 해외학교 교원파견은 국내 학교법인 등이 모체가 되고 있는 학교교원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경비를 보조하고 있다.¹²⁴⁾

교재정비의 추진은 공익재단법인 해외자녀교육진흥재단이 문부과학성의 보조를 받아 재외방인교육시설에 대한 교재정비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파견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각종 협의회, 연수회, 순회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안전대책관리는 위기관리, 건강안전대책 등 분야별로 안전대책 자료를 작성하여 일본인학교 등에 배포하고 있다. 보습수업교를 위한 지도자료 작성은 재외방인청소년(해외자녀)교육 전문가 및 보습수업교의 지도경험자의 협력으로 지도계획이나 지도안 등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다. 재외교육시설(고등학교단계) 정책으로는 고등부의 수업료 지원이 있는데 문부성장관의 인정을 받은 재외교육시설의 고등부에 2014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에 대한하여 국내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에 상당하는 지원으로서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¹²⁵⁾

그밖에도 문부성은 1978년 4월부터 동경학예대학에 해외자녀교육에 관한 교육내용, 방법 등 실제적 조사연구 및 개발, 전문연수, 교육지도상담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전국공동이용시설물로서 '해외자녀교육센터'를 설치했다. 이 센터는 2002년부터 '국제교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제교육센터의 주요 업무는 재외교육시설 교육과정 및

124) 공익재단법인 해외자녀교육진흥재단. 귀국학생 수용학교 웹 페이지 <http://www.joes.or.jp/g-kokunai/indes.html>에서 2015년 8월 9일 인출.

125) 공익재단법인 해외자녀교육진흥재단. 귀국학생 수용학교 웹 페이지 <http://www.joes.or.jp/g-kokunai/indes.html>에서 2015년 8월 9일 인출.

교육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재외교육시설 교재개발 연구, 해외자녀교육담당교원 전문연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학교부적응아동 등 전문 지도에 관한 연구, 파견교원 지도실천 기록서 작성, 해외자녀교육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 관리 및 제공, 외국인아동 학생의 일본어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¹²⁶⁾

5) 시사점

일본정부의 국내 청소년 정책 및 해외일계인, 재외방인 청소년 정책의 시사점은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본정부의 청소년정책은 2001년 1월 이후 새로 편성된 관계성청이 청소년에 관한 각 분야의 정책을 분담하고 내각부가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기획 및 입안, 종합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즉 일본 국내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행정의 종합적 추진 및 일본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책 제안을 제시해 오고 있다.

둘째, 일본정부는 청소년 지원정책으로 2020년까지 약 18만 명의 유학생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의 성장동력을 견인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일본 각 부성청의 강점을 살리고 유기적인 대응으로 상호 연대하여 협력한다는 계획이다.¹²⁷⁾

셋째, 일본정부의 해외일계인 청소년정책은 국제협력사업단(JICA)을 중심으로 일계인 사회와의 관계유지, 개발경제와 기술분야 협력 지원, 일계인의 일본취업, 일계인 사회와의 연대와 협력 등 해외일계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¹²⁸⁾

넷째, 일본정부의 재외방인 교육시설은 해외에 체류하는 일본인 자녀를 위한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 규정을 준수하고 일본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와의 동등한 교육과정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지정, 혹은 인정을 부여하고 있다.¹²⁹⁾

다섯째, 일본정부는 해외귀국 학생들에 대한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지도 및 지원과 함께 해외에서 학습 및 생활경험을 존중하는 교육추진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和喜多裕一, 2011: 90).

126) 東京学芸大学. 国際教育センター 웹 페이지 <http://orie.u-gakugei.ac.jp/>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127) 文部科学省. 슈퍼글로벌 대학사업 웹 페이지 http://www.mext.go.jp/b_menu/shingj/chukyo/chukyo4/012/siryu/_icsFiles/afiedfile/2014/05/15/1347725_23.pdf#search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128) 자이카. <http://www.jica.go.jp/>에서 2015년 11월 7일 인출.

129) 文部科学省. 일본인학교 웹 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2/001.htm에서 2015년 9월 2일, 11월 6일 인출.

여섯째, 일본정부의 재외교육시설 지원정책은 넓은 의미에서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일본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과 동등한 과정을 가지고 있는 재외교육시설로 일본헌법, 교육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법규에 준거하여 학습지도요령의 지도방침에 의해 초등중등교육을 추진하고 교육과정은 문부성 학습지도요령을 기준으로 일본국내와 동등한 교육활동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⁰⁾

따라서 일본정부의 일제인 및 재외방인 청소년 정책은 일본인 후손에 해당되는 일제인 지원정책보다는 일본국적자에 해당되는 재외방인 지원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는 재외방인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1978년 4월부터 동경학예대학에 해외자녀교육과 전국공동이용시설로서 ‘해외자녀교육센터’를 설치하여 2002년부터 ‘국제교육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¹³¹⁾ 결론적으로 일본정부의 일본국내 청소년 및 재외방인 청소년 정책은 일본국내의 글로벌화와 해외거주 재외방인 청소년의 일본화(내부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4. 독일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¹³²⁾

1) 세 부류의 재외독일동포청소년과 독일의 역사적 특수성

독일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해는 독일의 재외동포정책이라는 보다 큰 틀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독일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이해는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재외독일동포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독일의 재외동포정책의 대상이 되는 재외독일동포는 크게 세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의 재외동포 개념 역시 ‘독일국적을 보유한 채 일정 기간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독일국민’을 첫 번째 부류로서 포함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재외독일인’(Auslandsdeutsche) 혹은 영어 표현인 Expatriate(혹은 줄여서 Expat)에 해당하는 집단을 일컫는

130) 文部科学省. 재외교육시설 사책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3.html#a08에서 2015년 9월 6일 인출.

131) 東京学芸大学. 国際教育センター <http://cie.u-gakugei.ac.jp/>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132) 이 절의 내용은 2015년 12월 16일에 개최된 재외한인학회·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차세대 재외동포와 교육)에서 “독일귀한 ‘후기재이주자’ 자녀 교육의 방향” (pp.77-96)의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음.

데, 많은 경우 '지식을 전달하거나 혹은 본국기관과 파견국기관 사이에 정보가 교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독일 내의 기업 내지 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 대개 1년에서 5년에 걸쳐 - 국외로 파견된 전문인력 내지 선도인력'에 해당한다.¹³³⁾

본 연구의 근본 취지와 관련해 보다 본질적인 의미를 갖는 두 번째 및 세 번째 부류는 공통적으로 한국에서의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 사이에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외국국적의 재외독일동포이되 동시에 독일 '연방추방자법' 상의 '후기재이주자'¹³⁴⁾(시기적으로 1993년 1월 1일 이전에 재이주 내지 귀환이주가 이루어진 경우는 '재이주자')에도 해당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이다.

과거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당시를 기준으로 영토의 4분의 1에 육박하던 오데르-나이세 강 동변 지역을 폴란드와 구소련에게 빼앗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33년 이래 자행되어 오던 나치 치하의 잔학상에 대한 혐오와 복수심으로 인해 앞서 언급한 동변 지역을 비롯해 구소련 및 동구 공산권 국가들에 이주해 살고 있던 천만 이상의 독일인 및 독일 동포들이 추방과 도주 및 강제이주로 대표되는 갖은 핍박과 고난 및 차별 등을 경험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독일은 2차 대전 종전을 전후해 자신들의 거주지로부터 추방당하거나 혹은 탈주하여 고국으로 귀환한 약 1,200만 명의 외국국적동포를 조건 없이 수용한 바 있으며, 그에 더해 과거 나치 치하의 온갖 과오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일관해 오던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상기 1,200만 명 이외에 자신들의 거주지에 남았거나 혹은 중앙아시아 등지로 강제이주 당했거나

133) Nieberg, Th. (2013). Auslandsdeutsche, Veröffentlichung unter Lizenz der Creative Commons,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Retrieved May 15, 2015, from <http://www.bpb.de/gesellschaft/migration/dossier-migration/160471/auslandsdeutsche>

134) 독일어 표현인 Spätaussiedler/Aussiedler(독일어 'spät'은 본래 '늦은' 내지 '지각한'을 의미하는 수식어이나, 명사/대명사의 첫머리에 놓임으로써 '후기'라는 의미를 부여하곤 한다)에 대한 국문 번역은 학자들에 따라 상이하다. 독일어 발음 그대로 '슈패트아우스지들러/아우스지들러'로 쓰는 경우(김명희 2003),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소련과 동유럽으로부터 독일로 재이주한 그룹'이라 표현하는 경우(조화성 2000), 그리고 '후기재이주자/재이주자'로 쓰는 경우(이규영 2000), '후기강제이주자/강제이주자'로 쓰는 경우(정준현 1994) 등이 발견된다. 그런데 본문에서도 언급하듯이, 이 두 용어가 시기상의 구분을 떠나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바가 "한때 독일제국의 영토였던 오데르-나이세 강 동변 지역을 비롯해 구소련 및 동구 공산권 국가들에 흩어져 살아오던 동포들 중 1933년 이래 자행되어 오던 나치 치하의 잔학상에 대한 혐오와 복수심 등으로 말미암아 2차 대전 종전 시점을 전후해 ①중앙아시아 등지로 강제이주를 당한 채 살아왔거나 혹은 ②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면서 상상하기 힘든 차별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거나 혹은 ③강제이주를 당했다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시 돌아가 계속해서 머물고 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온갖 차별과 핍박을 견뎌내며 살아오다 독일 정부의 모국귀환 지원책에 힘입어 고국으로 재이주하게 된 경우"이니 만큼, '강제이주의 경험'을 최소한의 공통분모로 설정하는 데에는 우리가 따를 수 있다. 왜냐하면 '강제이주의 경험'이라는 특징은 비록 중요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가령 위의 ②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모국인 독일로의 재이주'라는 특징만 큼은 어느 경우이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독일어 'Aussiedler'와 'Spätaussiedler'는 단순히 '재이주자'로 및 '후기재이주자'로, 그리고 이들 둘을 하나로 통칭해 써야 할 경우에는 간단히 '(후기)재이주자'로 표현하기로 한다.

혹은 강제이주지에서의 귀향 후 온갖 차별과 박해 속에서 살아오던 수백만 명의 외국국적 독일동포들을 대상으로 그 배우자 및 자녀 또한 포함하여 모국으로의 재이주 내지 귀환 및 국적 재취득 등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 이른바 ‘후기재이주자 정책’, 재이주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199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는 ‘재이주자 정책’을 전개해 오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찍이 1953년에 제정(2013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연방추방자법’은 제 4조 1~3항을 통해 ‘후기재이주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¹³⁵⁾ 그에 따르면 ‘후기재이주자’란 시기적으로 1992년 12월 31일 이후 ‘연방추방자법’에 열거된 거주 지역, 즉 구소련 지역을 비롯해 과거 독일의 영토였던 오데르-나이세 강 동부 지역, 단치히, 폴란드, 구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구유고, 알바니아 혹은 중국 등지를 떠나 6개월 이내에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즉 독일로 재이주 내지 귀환한 ‘독일민족귀속인’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요건에 더해 과거 2차 대전 종전을 전후해 자신이 단지 ‘독일민족귀속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거나 혹은 예전의 불이익으로 인한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다.¹³⁶⁾

이와 같이 하여 오늘날¹³⁷⁾ 독일의 재외동포는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① 독일국적을 보유한 채 일정 기간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독일국민 ②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 ③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135)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Bundesvertriebenengesetz - BVFG).

Stand: 2013. Retrieved May 11, 2015, from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bvfg/gesamt.pdf>

136)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거나 혹은 예전의 불이익으로 인한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달리 표현해 “과거에 한때 그랬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추방의 압력 하에 놓여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에 따라 21세기 들어와 어느덧 민주화를 이룩하였거나 혹은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된 동유럽의 구 공산권 국가들에 거주해 오던 외국국적의 독일동포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추방의 압력 하에 놓여 있음”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993년 1월 1일 이른바 ‘전쟁결과정리법(Kriegsfolgenbereinigungsgesetz 혹은 줄여서 KfbG)’이 발효된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방추방자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독일로 재이주하는 ‘후기재이주자’들의 출신국은 대부분 구소련에 속했던 국가들 - 물론 지난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발틱3국, 즉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 및 라트비아를 제외하고 - 로 국한되기 십상이었다. 발틱3국을 제외한 구소련 국가들에 거주해 오고 있는 ‘후기재이주자’들의 경우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거나 혹은 예전의 불이익으로 인한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는 ‘가정’이 기타 구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지금까지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연방추방자법’ 제4조 1항 및 2항이 포함하고 있는 ‘후기재이주자’에 대한 개념 규정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BAMF 2013, p. 47)을 참조

137) ‘연방추방자법’은 ‘후기재이주자’ 이외에도 제1~3조에 걸쳐 ‘추방자’(Vertriebenen)와 ‘고향추방자’(Heimatvertriebener) 및 ‘소비에트지역 탈주자’(Sowjetzonenflüchtlinge)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중 ‘이주와 난민을 위한 연방청’이 연방내무성의 위탁을 받아 매년 발간해 오고 있는 ‘이주보고서(Migrationsbericht)’에 의해 공식 통계가 잡힐 만큼 실제적이고 비중 있는 이주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경우는 ‘후기재이주자’에 한해서이다.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재외독일동포청소년의 경우 역시 세 부류로 구분이 가능함은 마찬가지이다. 즉 첫 번째로 독일국적을 보유한 채 일정 기간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독일국민으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 둘째로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 본인 내지 자녀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¹³⁸⁾ 셋째로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자녀’¹³⁹⁾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2) 두 부류의 재외독일동포청소년 정책과 독일식 접근법상의 또 다른 특징

재외독일동포청소년 정책은 ①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 본인 혹은 자녀 된 자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가 혹은 ②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자녀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 및 독일국적을 보유한 채 일정 기간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독일국민의 자녀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한 차이가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의미를 갖는 이유는 두 부류에 대한 독일 정부의 접근 방식이 서로 현격히 다르기 때문이다. 즉 전자에 대해 보이는 적극성과는 달리 후자에 대해 독일정부는 시종일관 소극적 자세를 견지해 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시 한 번 독일의 역사적 특수성이 그 배경을 형성하고 있다.

과거 나치 치하의 독일은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에 더해 그들에 의해 주도된 2차 세계대전에서 철저한 패망을 경험한 바 있다. 이후 독일은 -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 자의반 타의반 근본적인 사회 변혁을 힘겹게 수행해야 했는바, 그와 같은 독일 정부 및 대다수 독일인들에게 재외동포라는 존재는 모국인 독일을 떠나야 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여전히 과거의 전통적인 관점에 머물고 있었기에 “이제는 ‘극복된’ 복고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옛 시대의 유물”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그에 따라 자유민주주

138) ‘연방추방자법’은 제4조 1항의 3번을 통해 ‘후기재이주자’의 최소 연령이 1992년 12월 31일 생, 즉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만 22세일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가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자녀’로서 9~24세인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에 대해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는 22~24세의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 또한 포함함을 의미한다.

139) 연령대가 9~24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으로서 본인이 이민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이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판단이다.

의의 가치 아래 새롭게 재건된 독일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논의는 자연히 한동안 “금기시” 되다시피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부정적 시각은 상호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서독 사회 전반에서 진행됐던 근본적인 사회변혁이 거꾸로 많은 재외독일동포의 눈에는 다분히 “독일적인 전통에 대한 위협”으로 비춰지기 십상인 것이었다(Bleek, 2003: 21).¹⁴⁰⁾

이러한 맥락에 따라 재외독일동포에 대한 서독 정부의 공식적인 시각 및 접근은 사뭇 “일정 거리를 둬”에 의해 특징져지는 상황이 지속되었다(Witte, 1990: 38). 그 결과 재외동포에 대한 독일 정부의 접근은 그 대상을 단지 재외동포에만 국한하지 않고, 재외동포들이 삶을 영위하는 거주국 내의 내외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 ‘국제문화정책’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재외동포 일반에 대한 독일 정부의 이 같은 소극적인 태도는 한국의 ‘재외동포재단’과 같이 재외독일동포 ‘일반’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공식 주무기관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서도 재차 확인되고 있다. 재외동포 일반을 대상으로 한 독일정부의 이 같은 인식과 태도가 그들의 ‘자녀’에 해당하는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임은 물론이다.

한편 두 부류의 재외독일동포청소년 정책에 임하는 독일정부의 소극성 및 적극성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개발 내지 입안과 집행 등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으로 이어져 나타난다. 무엇보다 큰 특징은 재외동포 ‘일반’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주무기관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 것으로서, 어떤 ‘재외동포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이건 정책 내지 사업의 입안과 집행 전 과정을 전적으로 정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 대신 첫째, 정책 내지 사업의 입안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집행을 정부가 주도하되 민간단체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는 형태와 둘째, 거꾸로 정부는 목표설정과 방향제시라는 큰 그림만을 그리고 예산을 지원할 뿐 구체적인 정책 내지 사업의 설계와 기획 및 집행 등을 협회나 재단 같은 민간기구가 주도하는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조달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사업 내지 프로그램의 설계와 기획 및 집행 등을 협회나 재단과 같은 민간기구가 전담하는 형태 등 세 가지 서로 다른 접근방식이 혼용되어

140) Bleek에 따르면 지역적으로 남미에 정착해 거주하던 재외독일동포들이 독일적인 전통의 고수 및 문화적 정체성의 유지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반면, 북미 국가들 및 동구 공산국가들에 정착해 거주하던 재외독일동포들은 그와는 다르게 거주국 사회에 ‘강하게’ 동화 내지 - 정치적·사회적으로 - 통합되어 갔다. 차이점이 있다면, 북미 국가들에 정착한 재외독일동포들의 경우 “가장 광범위하게 그리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동화되어 간 반면, 동구 공산국가들에 정착해 거주하던 재외독일동포들의 경우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는 (공산주의)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동화 내지 통합 정책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Bleek 2003, p. 21 참조).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민관협력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유관기관이 어디인가에서 찾아진다. 먼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접근을 특징으로 하는 ‘후기재이주자’ 정책 중 9~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의 경우 - ‘후기재이주자’ 정책 자체가 그러하듯 외무성이 아닌 내무성이 유관기관이다. 다만 비록 내무성 산하이긴 하지만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세 개의 부서, 즉 ‘재이주자 문제와 소수 민족을 위한 담당관’과 ‘이주와 난민을 위한 연방청’ 그리고 ‘연방행정청’ 등이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접근을 특징으로 하는바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자녀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 및 독일국적을 보유한 채 일정 기간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독일국민의 자녀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자가 주요 대상인 정책 내지 프로그램의 경우 - 협회나 재단 등의 민간기구가 주도하는 형태를 제외하고는 어느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외무성이 지원의 주체가 된다.

3) 이주와 난민을 위한 연방청 주관의 재외독일동포청소년 정책

지난 2010년의 자료에 따르면 ‘후기재이주자’ 신분 취득을 위한 신청자들 중 독일어를 구사할 줄 아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비율이 1990년대 초의 80%에서 20%로 급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의 나머지인 80%의 대다수가 함께 귀환하는 가족구성원인 바, 이들에게 독일어는 전적으로 외국어일 뿐인 것이다. 가족구성원을 포함한 ‘후기재이주자’의 수가 과거에 비해 현격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1990년 이래로 가장 많은 수의 귀환이 이루어진 구소련 출신 ‘(후기)재이주자’ 자녀의 경우, 과거 1990년 이전 가장 많은 수의 귀환이 있어 왔던 루마니아나 폴란드 혹은 구체코슬로바키아 출신 ‘(후기)재이주자’ 자녀의 경우와는 달리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서 배우지 않았으며, 따라서 독일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했다.¹⁴¹⁾

‘(후기)재이주자’의 자녀들에게 독일로의 재이주는 본인들의 선택이 아니었는바, 이들로서는 온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독일 사회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셈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141) Schneider, J. (2005). Integration. Retrieved May 17, 2015, from <http://www.bpb.de/gesellschaft/migration/dossier-migration/56404/integration?p=all>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견 혹은 개개인 간의 관계의 측면에서 이견 부모 세대에 비해 독일보다는 자신들의 고향이자 조국인 출신국과 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 까닭에 독일이라는 새로운 사회에서의 새 삶에 적응하기 위한 또 한 번의 사회화 내지 정치사회화 과정 - 다시 말해 기존사회로의 편입 내지 사회통합 - 이 불가피하였다. 기성세대와는 달리 독일에서 자아를 실현해야 하는 그들에게 사회통합은 필수인 것이었으나, 새로운 언어 습득의 문제는 사회통합 과정이 험난할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초점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통합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사회로의 편입 내지 통합을 적극 지원하는 데에 맞춰지게 되었다.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자녀들을 위한 ‘사회통합 강좌’는 크게 ‘어학강좌’와 ‘오리엔테이션강좌’로 구성된다 (BAMF, 2015b). 청소년들을 위한 어학강좌의 경우 최대 900시간 - 300시간의 재수강이 진행될 경우는 최대 1200시간 - 으로 이루어지며, 오리엔테이션강좌는 총 60시간으로 구성된다. 언뜻 보아 독일어의 습득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어학강좌에서 다루지는 주제들이 훗날 오리엔테이션강좌의 내용을 보다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짜여 있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학강좌의 이수를 통해 ‘후기재이주자’의 청소년 자녀들은 일상의 모든 문제에서 제 3자의 도움이나 중개 없이도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만큼 독일어 및 독일에서의 생활환경에 친숙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강좌의 주제와 내용이 청소년적인 것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총 900시간의 어학강좌가 종료되면 ‘이주민을 위한 독일어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 때 B1 등급의 취득에 성공하게 되면 총 60시간의 오리엔테이션강좌를 이어 수강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반해, 실패할 경우 비록 B1 등급의 취득에는 실패했을지언정 그간의 어학강좌를 충실히 이수하였다는 전제 하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대 300시간의 어학강좌 재수강이 진행되게 된다 (BAMF 2015b).

재수강을 거쳐서 이견 아니건 어학강좌에 이어 두 번째 사회통합강좌인 오리엔테이션강좌가 총 6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어학강좌를 이수 내지 재수강한 후 B1 등급의 취득에 성공한 경우이거나 혹은 굳이 어학강좌를 이수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독일어의 구사에 능숙한 경우 오리엔테이션강좌로 진입하게 된다. 우리의 민주시민교육 - 독일의 경우 ‘정치교육’ - 과도 흡사한 오리엔테이션강좌는 기본적으로 ① 독일의 국가제도에 관한 이해를 일깨움, ② 독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발전시킴, ③ 주민 및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알게 하기, ④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능력 배양하기, ⑤ 사회생활에의 참여 가능케 하기, ⑥ 지적인 역량의 획득 등과 같은 여섯 가지 목표를 갖는다(BAMF, 2015b: 76-77).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오리엔테이션강좌는 일상의 삶에 필요한 지식의 전달에 더해 독일의 역사와 문화,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독일연방공화국의 가치, 법질서 및 법치주의의 원칙, 남녀평등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관용 및 신앙의 자유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은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60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오리엔테이션강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어학강좌가 단순히 독일어의 습득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말해 오리엔테이션강좌를 예비하는 역할 또한 수행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리엔테이션강좌가 종료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또 한 번의 시험이 ‘독일에서의 삶’이라는 제명 하에 치러진다. 두 번의 시험에 모두 합격한 이주청소년에게는 연방행정청이 발행하는 ‘사회통합강좌 증명’이 교부된다. 이 증명은 그것을 소지한 자가 한편으로는 충분한 독일어 구사 능력을,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의 법질서 및 사회 질서를 포함해 제반 생활환경과 관련된 기본 지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공식 문서인 셈이며, 이에 힘입어 ‘후기재이주자’의 청소년 자녀들은 보다 성공적인 기존 사회로의 편입 내지 통합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된다(BAMF, 2015b: 82).

4) 외무성 지원의 해외학교 정책과 민간기구 주도의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① 외무성 지원의 해외학교 정책

해외에서 독일적인 것 혹은 독일적인 전통을 보존하는 데에 핵심적인 것은 한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공유하게 되는 문화적인 정체성으로서, 여기에는 독일어의 장려와 전승, 다시 말해 독일어 교육이 핵심을 이룬다는 사실에서 독일은 출발하고 있다(Bleek, 2003: 21).

해외에서의 독일어 교육은 크게 두 곳, 즉 해외에 세워진 독일(국제)학교 - 이들 대부분은 사립학교이다 - 및 독일어 강좌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공인된 ‘독일어 어학 증명’(DSD) 또한 발행하는 현지의 학교이다. 이들은 독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연방행정청’ 내의 ‘해외학교를 위한 중앙기구’(이하 ‘중앙기구’)는 외무성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이들에 대한 외무성의

지원을 증대해 오고 있다. '중앙기구'는 전 세계 71개국에서 140개 이상의 해외 독일학교와 DSD를 제공하는 870개 이상의 현지 학교, 총 학생 수로는 79,000명이며, 그 중 58,000명이 비 독일인 을 지원해 오고 있다.¹⁴²⁾ 그에 있어 '중앙기구'는 외무성의 3대 외교정책 중 하나인 '국제 문화 및 교육 정책'의 목표들을 실현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그러한 목표에는 무엇보다 현지 국가의 문화 및 사회와의 만남, 해외 독일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학교 교육 지원, 독일어의 장려, 연구 및 경제 중심지로서의 독일의 입지 강화와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¹⁴³⁾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보다 해외의 독일학교가 이질적인 민족과 문화 간의 만남과 교류 및 대화의 장소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국국적의 독일 동포 청소년은 물론이고 직업 상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자녀들이 독일식 학교 교육을 받기 원하는 재외 독일 국민의 자녀, 그리고 독일과 독일의 문화 및 언어에 친숙해지기를 희망하는 다양한 국적의 현지 청소년들 등 모두가 외무성이 지원하는 해외학교 정책의 대상인 셈이다. 무엇보다 '중앙기구'는 해외 독일학교에 약 2천 명의 교원을 공급(6,800명은 현지에서 조달)하고, 이들을 돌본다. 지난 2011년의 자료에 따르면 2천명의 파견교원에게 외무성의 학교기금에서 1억5천5백7십만 유로, 그리고 외무성의 건축기금에서 6백만 유로가 각각 지원되었다.¹⁴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외무성을 비롯한 정부의 역할이 전적으로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이른바 '가장 오래된 형태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무엇보다 미래지향적인 민관협력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② 민간기구 주도의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재외독일동포 일반을 가장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양대 민간협회는 VDA, 즉 1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한 때 '재외독일인 협회'로도 불렸던 '재외독일인 문화교류 협회'와 지난 2004년에 설립된 '재외독일인과 함께하기 재단'이다.¹⁴⁵⁾ 이들은 스스로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142) Die Zentralstelle für das Auslandsschulwesen (ZfA). Retrieved June 07, 2015, from http://www.auswaertiges-amt.de/DE/Aussenpolitik/KulturDialog/SchulenJugend/Auslandsschulwesen-ZfA_node.html. 한편 '중앙기구'의 홍보사이트에 따르면 독일학교를 포함해 '중앙기구'에서 지원하는 해외학교의 수는 주말 학교까지를 포함하여 모두 1,200여 개에 달한다.

143) Die Zentralstelle für das Auslandsschulwesen (ZfA). Retrieved June 07, 2015, from http://www.auswaertiges-amt.de/DE/Aussenpolitik/KulturDialog/SchulenJugend/Auslandsschulwesen-ZfA_node.html

144) Deutsche Auslandsschulen – Orte der Begegnung und des interkulturellen Dialogs. Retrieved May 25, 2015, from http://www.auswaertiges-amt.de/sid_CFF3409170C69FA15ACA7515C3ACAC8E/DE/Aussenpolitik/KulturDialog/SchulenJugend/Uebersicht_node.html

독일인과 모국인 독일 사이의 '문화적 매개자'로서 이해된다.

이들 민간기구는 특정 정당의 노선과 무관하며, 또한 특정 종파의 교리와의도 무관하다. 나아가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상당 부분 중첩됨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그것들 중 청소년 집단과 관련된 부분만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 및 그들 공동체의 언어, 문화, 습속 등의 유지와 장려, ②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 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제교류 내지 교환의 장려, ③ 외국국적 독일동포 학생, 대학생, 직업청소년 등을 위한 장학사업의 수행, ④ 독일어 및 독일문화의 전파자, 그리고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들 간 연결고리로서의 해외 독일 매체에 대한 지원, ⑤ 교육, 문화, 학문, 연구 등을 위한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 시설(대표적으로 학교, 도서관, 각종 협회 등)에 대한 문화적이고 재정적인 지원, ⑥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들의 공동체와 관련된 국제회의나 포럼, 강연, 세미나 등을 직접 개최하거나 혹은 후원, ⑦ 의료와 구제 등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 등이 있다. 언뜻 보아 이들 목표는 여타 국가들이 자국의 해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펼치는 통상의 지원책 대부분을 망라하고 있다.¹⁴⁵⁾ 다만 독일의 경우는 별도의 정부 부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민간기구에 의해 추구되는 목표들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는 것이다.

5) 시사점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중심에는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 본인 혹은 자녀 된 자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지원 정책, 즉 '사회통합강좌'가 자리하고 있다. 이 '사회통합강좌'의 경우 '어학강좌'와 '오리엔테이션강좌'로 구성되어 있는바, 언어의 습득에 더해 민주시민교육 - 독일의 경우 '정치교육' - 의 이수를 사회통합의 지름길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의 습득 못지않게 민주시민교육 여부가 사회통합의 열쇠가 된다는 발상은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145) 지난 2004년 자아란트 주의 기업가이자 법학박사인 린스터(K. Linster)에 의해 설립된 '재외독일인과 함께하기 재단'의 경우 그 역사가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문자 그대로의 '재단'에 해당하는바, 130 여년 역사의 '재외독일인 협회' (VDA) 또한 지난 2004년 이래로 동 재단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DA Stiftung Verbundenheit, Retrieved June 26, 2015, from http://www.vda-kultur.de/de/ueber_uns/stiftung.php

146) Stiftung Verbundenheit mit den Deutschen im Ausland. Stiftungszweck, Retrieved June 27, 2015, from http://stiftung-verbundenheit.de/?page_id=22

크다는 판단이다.

‘사회통합강좌’를 구성하는 ‘어학강좌’ 및 ‘오리엔테이션강좌’의 운용을 ‘괴테문화원’과 같은 민간기구가 책임지게 되는 사실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어떤 재외동포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이건 정책 내지 사업의 입안과 집행 전 과정을 전적으로 정부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독일 외무성이 지원하는 해외학교 정책과 민간기구가 주도하는 지원방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민간기구가 주도하는 지원방안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외무성이 지원하는 해외학교 정책의 경우 ‘미래지향적인 민관협력의 가장 오래된 사례’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간 부문이 자리를 잡고 발전해 가는 데 있어서는 민간 부문의 의지와 역량 못지않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부의 의지와 역량 또한 필수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독일의 사례는 단지 부러움의 차원을 넘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어학강좌’와 ‘오리엔테이션강좌’로 구성되는 ‘사회통합강좌’가 오로지 ‘(후기)재이주자’나 그 가족 구성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듯, 또한 외무성의 지원을 받는 해외 독일학교가 오로지 재외독일동포 청소년에게만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듯, 그리고 민간기구가 주도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오로지 재외독일동포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듯,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독일식의 접근은 소극성 내지 수동성의 차원을 넘어 사뭇 탈국가주의적 내지 탈민족주의적 성격 또한 지니게 된다. 여기에는 한편으로 역사적 경험에 근거를 둔 독일의 특수성, 즉 재외동포 일반에 대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의 부정적인 시각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유럽연합의 한 부분으로서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배경을 이루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목표 중 하나가 차세대 리더의 발굴 및 그들 사이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그에 따른 미래 인재의 조기 확보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가령 총 1,200여개에 달하는 해외학교의 존재를 다양한 민족 및 문화 간 만남과 소통 및 대화의 장으로 간주하고 지원함으로써 독일을 보다 잘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다양한 국적의 차세대 인재들을 상대로 글로벌 네트워킹을 시도해 오고 있는 독일식의 접근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비록 언제부터인가 독일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중심에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 본인 혹은 자녀 된 자로서 9-24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지원책이 자리하게 되었지만, 정책 입안 과정에서 사회통합 상의 어려움이 처음부터 예측 및 고려되었던 것은 아니다. ‘자민족 끌어안기’ 식의 온정주의에 입각한 모국귀환 지원 일변도에서 현지화 지원 병행이라는 현실주의적 접근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동서독 통일과

동구권 몰락 및 소련 해체 등을 전후해 '(후기)재이주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결과로 사회통합 상의 제반 문제점이 돌출되면서부터였다. 시작 단계부터 모국귀환 지원과 현지화 지원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은 혹은 달리 말해 처음 단계부터 모국귀환 지원과 현지화 지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요청은 - 한편으로는 고려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을 전후 한 북한 주민의 대량 이주에 대비해야 하는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5. 이스라엘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¹⁴⁷⁾

1) 개관

이스라엘의 재외동포정책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스라엘로의 이주 후 정착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마련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50년 이스라엘 국회 크네셋 (Knesset)은 “모든 유대인들은 이 나라로 이민 올 권리를 갖고 있다”는 조항으로 시작되는 귀환법 (Law of Return)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서 유대인은 모계혈통으로 유대인이거나 비유대인일 경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의미한다 (박동, 강일규, 이영대, 정지선, 황규희, 2009: 109).

이스라엘 정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돌아와 살 수 있는 국가 건설을 위해 귀환법에 근거하여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기존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다. 재외동포정책의 핵심은 재외동포의 이주에 관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약 130여개 국가로부터 이민 온 유대인들이 전체국민의 85%를 차지한다 (박동 외, 2009: 111).

귀환법은 이후 1955년과 1970년 두 번에 걸쳐 개정된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재외동포의 정착을 위해 해외 거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이주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이스라엘 국가에 통합시키고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박 동 외, 2009: 111).

147) 이 절의 내용은 2015년 12월 16일에 개최된 재외한인학회 ·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공동학술회의(차세대 재외동포와 교육)에서 “이스라엘 청소년 재외동포정책” (35-60)의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음.

2) 이스라엘의 재외동포 법, 제도, 조직

(1) 재외동포 관련법

이스라엘의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귀환정책이다. 귀환법(Law of Return)은 1950년 7월 5일에 통과된 이스라엘 법으로 유대인에게 귀환의 권리와 이스라엘에서 살 권리, 이스라엘 시민권을 획득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이스라엘에 올 수 있는 유대인의 권리를 “모든 유대인은 이민자(oleh, olim)로서 이 나라에 들어 올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다. 이민 문제에 관한 후속입법은 1955년 제정된 국적법에 포함된다. 귀환법은 1970년 귀환의 권리를 유대인 조부모를 가진 비유대인과 그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하도록 개정되었다. 1970년 이래 귀환법은 유대인 모계의 선천적 유대인, 유대인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가진 유대인 혈통, 정통파나 개혁파 혹은 보수파이거나 종파에 관계없이 이스라엘 밖에서 개종한 유대교 개종자, 이스라엘 밖에서 세속 결혼한 유대인의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이진영·강성봉·김관준·임영언·정호원, 2013: 195-196).

(2) 재외동포 정부기관

이스라엘은 재외동포와 관련된 정부부처 2개를 운영하고 있다. 유대인의 국내이주를 돕기 위한 이민자 수용부와 해외 디아스포라를 관리하기 위한 디아스포라부다. 장관급의 디아스포라부는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부서는 원래 명칭은 ‘예루살렘 및 디아스포라부’였는데 2015년 5월 예루살렘 문제를 이스라엘 총리에게 일임하고 명칭은 디아스포라부로 바뀌었다. 이민 수용부는 1968년에 설치되는데 그 역할이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이주민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김수진, 2000: 25).

‘디아스포라부’는 부처 자체는 크지 않아서 전담 직원은 35명이며 연간 예산도 수백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해외 유대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디아스포라부’는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본국 귀환 의사가 없는 재외 유대인, 특히 유대인 후손의 이스라엘에 대한 친밀감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이진영 외, 2013: 214).

(3) 재외동포지원 민간기관

① 세계시온주의기구(World Zionist Organization, WZO)

세계시온주의 기구의 전신인 시온주의 조직(The Zionist Organization) 시온주의의 아버지 테오도르 헤르첼이 1897년 제1차 시온주의 총회가 열린 바젤에서 창설했다. 1960년 세계 시온주의 기구(WZO)로 이름이 변경된다. 1929년 세계 WZO에 의하여 설립된 유대기구(JAFI)는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통치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의 유대인 권익보호를 위한 기구 및 전 세계 유대인들의 대표기구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또한 WZO와 JAFI 두 기관은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스라엘 정부 사이에 제도적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정지영, 2000: 79).

② 유대기구(Jewish Agency for Israel, JAFI)

이스라엘에서는 재외동포에 대한 유대인 정체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유대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가 유대기구이다. 또한 유대인 이민과 정착을 지원한 가장 오래되고 전통을 가진 단체이다. 1929년 팔레스타인 시온주의 집행부(Palestine Zionist Executive)에서 유대기구로 명칭이 바뀌었다. 1948년 이후 300만명의 유대인 이민자가 유대기구를 통해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유대기구는 비영리단체로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는다. 대신 북미 유대인연합(The Jewish Federations of North America), 케렌 하예소드(Keren Hayesod), 주요 유대인 공동체와 연합체, 기독교와 유대인을 위한 국제 펠로우쉽 (International Fellowship of Christians and Jews) 등의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다(이진영 외, 2013: 202).

③ 네페쉬 베네페쉬 (Nefesh B'Nefesh)

비영리 단체로 북미와 영국에서 유대인 이민을 촉진, 장려, 알리야를(Aliyah, 이스라엘에 유대인 이민)을 지원 및 격려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잠재적인 이민자들의 발목을 잡는 경제, 금융과 사회적 장애물 제거를 목표로 한다. 네페쉬 베네페쉬는 유대 기구(Jewish Agency), 이스라엘 정부 등과 긴밀한 공조하고 있으며 이민자 재정 지원, 취업 지도 및 네트워킹, 이스라엘

시스템, 사회 지도 탐색 및 상담 지원 등의 리소스를 제공하고 이민 과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민 후에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2002년부터 약 3만명의 이민자가 네페쉬 베네페쉬를 통해 이스라엘에 이주했다.¹⁴⁸⁾

3) 이스라엘 이민 정책

(1) 이민 흡수 바스켓과 각종 혜택

흡수바스켓은 이민자수용부가 이민자에게 6개월간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이다. 지원금은 이민자의 나이, 결혼 여부, 은퇴 여부, 자녀수, 자녀의 연령 등 이민자의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흡수바스켓은 매년 1월 1일 금액이 조정된다.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흡수바스켓은 전년보다 1.5% 증액됐다.¹⁴⁹⁾

(2) 이민 방식

① 이민 수용센터 이민 프로그램

이스라엘에는 이민 수용 센터가 18곳 있다. 센터는 이민자의 초기 수용을 위한 곳으로 새 이민자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다. 수용 센터는 히브리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스라엘을 알아 가도록 한다. 또한 전문 기술 훈련과 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한다. 새 이민자의 자녀는 학교에 입학해 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추가적인 활동에 참여한다. 새 이민자가 센터를 떠날 때는 주택 보조금을 받아 주택 마련에 도움을 받는다. 이민 센터에 오는 이민자는 직업 프로그램과 직업 할당 등을 포함하는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들이 있다. 또한 이민 전에 이스라엘에 2~6달 방문하는 가족들과 빈곤국가에서 이민 온 가족들은 먼저 이민 센터에서 생활하게 된다. 유대 기구(Jewish Agency)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젊은이들도 센터를 통해 이민 과정을 밟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은 수용 센터에서 18~24개월 머무른다. 이 기간 중에 이민 수용부는 초기 이민을 돕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에 경제적 지원을 한다. 유대 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148) 네페쉬 베네페쉬 홈페이지 <http://www.nbn.org.il/>에서 2015년 8월 19일 인출

149) 이스라엘 이민부 홈페이지 <http://www.moia.gov.il/English/Pages/AllNews.aspx>에서 2015년 8월 19일 인출.

수용 센터를 통해 3,080명의 이민자들이 할인된 주거지, 히브리어 학습(울판), 다양한 카운셀링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¹⁵⁰⁾

② 직접 이민 프로그램

이민 수용부를 거치지 않는 이민자는 살 곳을 정할 수 있고 경제지원 수용 바스켓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민자는 가용 기금과 경제 지원을 어디에 쓸지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2010년 16,851명의 이민자가 직접 이민 방식을 이용했다.¹⁵¹⁾

③ 특별 이민 프로그램

직접 이민 방식 중의 하나인 특별 프로그램은 여러 프로그램이 있다. 공동 그룹 이민 프로그램은 2010 이스라엘 이민 장려 프로그램, 네게브와 갈릴지 이민과 정착 장려 프로그램, 라틴 아메리카 이민 장려 프로그램, 베네수엘라 이민 장려 프로그램, 구 소련연방 이민 장려 프로그램 등이다.¹⁵²⁾

4) 유대기구의 재외동포 이민 장려 프로그램

(1) 이스라엘 체험과 리더십 프로그램

이스라엘 정부와 이민지원 민간단체는 공동으로 다양한 이민 장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체험 및 리더십 프로그램, 사회활동 및 상담 프로그램, 교육 및 직업 프로그램, 군복무 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이스라엘 체험프로그램인 중에 가장 성공한 프로그램은 마사와 타글릿(생득권)이다¹⁵³⁾

150) 이스라엘 이민부 웹 페이지 <http://www.moia.gov.il/English/Pages/AllNews.aspx> 에서 2015년 8월 19일 인출.

151) 이스라엘 이민부 웹 페이지 <http://www.moia.gov.il/English/Pages/AllNews.aspx> 에서 2015년 8월 19일 인출.

152) 이스라엘 이민부 웹 페이지 <http://www.moia.gov.il/English/Pages/AllNews.aspx> 에서 2015년 8월 19일 인출.

153)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 웹 페이지 <http://www.haaretz.com/israel-news/israel-s-absorption-of-ethiopian-immigrants-rife-with-failures-comptroller-report-shows.premium-1.519796>에서 2015년 10월 1일 검색

표 Ⅲ-1 이스라엘 체험 및 리더십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름	내용
마사 이스라엘 (MASA Israel Journey)	자원봉사, 인턴, 유학 프로그램
타글릿 (Taglit-Birthright)	10일 동안 이스라엘 여행 체험 프로그램
온워드 이스라엘 (Onward Israel)	타글릿 마친 학생들 6-10주 동안 이스라엘 생활 경험
민야님 (Minyanim)	공동체 리더십 및 이스라엘 학습 프로그램
마콘 리더십 트레이닝 (Machon Leadership Training)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 출처: 유대기구 홈페이지 참조. <http://www.jewishagency.org/sites/default/files/Customised%20Connections%202014.pdf>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2) 사회활동과 상담 프로그램

또한 취약 계층 사회봉사를 통해 이스라엘 사회를 알아갈 수 있는 사회활동 프로그램 과 자매결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자매결연 프로그램으로는 세계 우수 도시와 자매결연 하여 그 도시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과 맺은 자매결연도시에 방문해 이스라엘을 알아가는 파트너십 투게더(Paternship2Gether)가 있다.

표 Ⅲ-2 사회활동 및 상담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름	내용
파트너십 투게더 (Paternship2Gether)	세계주요도시 자매결연 및 상호방문 프로그램
솔리힘 Shlichim (Israeli Emissaries)	청소년 교육, 공동체, 사회 활동 프로그램
스쿨 트윈닝 (School Twinning)	유대인 학교의 유대인 정체성 알기 프로그램
커넥트 이스라엘(Connect Israel)	도시 청년 네트워크 프로그램
프로젝트 (Project TEN)	이스라엘 사회 자원 봉사 프로그램
유스 빌리지 (Youth Villages)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헤 헤벤 센터 (Hechven Center)	키부츠와 에피온 프로그램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이민 상담 프로그램. 직업, 교육, 심리, 문화, 경제 문제 포함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 출처: 유대기구 웹 페이지 <http://www.jewishagency.org/sites/default/files/Customised%20Connections%202014.pdf>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3)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히브리어 언어학습과 대학 입시 준비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첨단 산업 분야는 이스라엘 업체에 직접 방문, 체험, 인턴, 창업까지 지원해주는 이스라엘 테크 챌린지 프로그램이 유명하다.

표 Ⅲ-3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이름	내용
직업 훈련 프로그램	이스라엘 테크 챌린지 (Israel Tech Challenge)	컴퓨터 과학 산업 분야에서 경험을 쌓거나 벤처 창업을 지원한다.
교육프로그램	나알레(Na'ale)	세계 유대인 고등학교 또는 엘리트 아카데미로 이스라엘 학제 10학년 중 3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고등학교를 마치도록 장학금, 숙식, 생활비를 제공한다.
	마사 이스라엘프로그램 (Masa)	유대인 청소년들이 한 학기나 1년 동안(5-12달) 자원봉사, 인턴, 유학 프로그램
	울판 에찌온 네트워크 (Ulpan Etzion Network)	이민자 히브리어 학습 프로그램
	메키나 (Mechina)	대학 입시 준비 프로그램
	타카(Taka)	대학생 이민자 이스라엘 대학 준비 프로그램
	스쿨 트윈닝 (School Twinning)	유대인의 학교의 유대인 정체성 알기 프로그램
	울판 키네렛 (Ulpan Kinneret)	히브리어 교육과 직업 교육 - 5개월 동안 언어, 직업교육 군복무 준비.
	베이트 브로데츠키 젊은 올림 프로그램 (The Beit Brodetsky Young Olim Program)	5개월 동안 히브리어와 이스라엘 문화 체험 프로그램

* 출처: 유대기구 웹 페이지 <http://www.jewishagency.org/sites/default/files/Customised%20Connections%202014.pdf>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5) 주요 청소년 이민 프로그램

(1) 청소년 이스라엘 체험 프로그램

청소년의 대표적인 이스라엘 체험 프로그램은 타글릿(Taglith, Birthright) 프로그램, 니쉬(niche) 프로그램, 야브네 올라미(Yavneh Olami), 키부츠 프로그램 등이 있다. 타글릿(Taglith, Birthright)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10일 무료 방문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은 키부츠여행, 고고학 유적지 탐방, 하이킹, 생태 탐방, 역사 탐방 등 다양하다. 니쉬(niche) 프로그램은 의대생, LGBTQ (성소수자), 음악가, 금융전문가 등 위한 특별 방문 프로그램이다. 야브네 올라미(Yavneh Olami)는 종교 시온주의 조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청소년들이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키부츠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성공한 프로그램으로 공동소유 집단농장에서 숙박을 해결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율판(히브리어 언어 학습) 프로그램, 티쿤 올람(사회 정의 프로그램) 과 각종 이스라엘 경험 프로그램 등이 있다.¹⁵⁴⁾

표 III-4 이스라엘 체험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이름	내용
타글릿 (Taglith, Birthright)	이스라엘 10일 무료 방문 프로그램
니쉬 (niche) 프로그램	의대생, LGBTQ (성소수자), 음악가, 금융전문가 등을 위한 프로그램
야브네 올라미 (Yavneh Olami)	종교 시온주의 조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청소년들이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키부츠 프로그램	키부츠 자원봉사 프로그램, 율판 (언어 학습) 프로그램, 티쿤 올람-사회 정의 프로그램과 각종 이스라엘 경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유대기구. 웹 페이지 <http://www.jewishagency.org/sites/default/files/Customised%20Connections%202014.pdf>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154) 유대기구. 웹 페이지 <http://www.jewishagency.org/sites/default/files/Customised%20Connections%202014.pdf>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이스라엘 테크 챌린지(Israel Tech Challenge)는 동포 유대인 학생과 이스라엘 현지 IT기술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컴퓨터 과학 산업 분야에서 경험을 쌓거나 벤처 창업을 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체인지 에이전트(Global Change Agents)는 유대 기구의 글로벌 리더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북미, 남미, 유럽과 이스라엘 등의 여러 그룹의 또래들과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예술 분야의 훈련과 글로벌 리더십 훈련과 개인 멘토도 제공한다. 마콘 젊은 지도자 훈련(Machon Youth Leadership Training)은 청년들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1946년 세워졌으며 현재까지 12,000명이 참여했다. 매년 400명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다.¹⁵⁵⁾

(3) 히브리어와 대학입시 교육프로그램

청소년 이주민의 히브리어 학습과 대학 입학에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나알레 (Na'ale)는 일명 세계 유대인 고등학교 또는 엘리트 아카데미로 불리며 이스라엘 학제 10학년 중 3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고등학교를 마치도록 장학금, 숙식 제공, 생활비, 다른 활동비도 지급한다. 현재까지 32개국에서 13,000명의 10대들이 프로그램 참여했다.¹⁵⁶⁾

마사 이스라엘 프로그램(Masa)은 18-30세 제외동포 유대인 청소년들이 한 학기나 1년 동안(5-12달) 자원봉사, 인턴, 유학 등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스라엘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북미 대학들은 전공을 정하기 전에 한 학기나 1년 동안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사 프로그램 수학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65,000명 마사 프로그램 참여했다. 관련 프로그램, 갭이어(Gap Year), Study Abroad, 발런티어 (Volunteer), 유대학(Jewish Studies), Teach in Israel 등이 있다.¹⁵⁷⁾

이스라엘 이민자를 위한 2가지 대학 준비 프로그램이 있는데 메키나 (Mechina)와 타카 (Taka)다. 메키낫 (메키나의 복수형)은 이스라엘 대학에 입학 준비 프로그램으로 이민 청소년의 히브리어 학습과 대학 입학을 앞둔 학생들이 입시 시험을 준비하는 프로그램. 타카는 이민 전에 대학교육을 이미 받아서 메키낫이 면제되는 이민자들이 이스라엘 대학에서 공부를 재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¹⁵⁸⁾

155) 유대기구. 웹 페이지 <http://www.jewishagency.org/sites/default/files/Customised%20Connections%202014.pdf>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156) 유대기구. 웹 페이지 <http://www.jewishagency.org/sites/default/files/Customised%20Connections%202014.pdf>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157) 유대기구. 웹 페이지 <http://www.jewishagency.org/sites/default/files/Customised%20Connections%202014.pdf>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158) 유대기구. 웹 페이지 <http://www.jewishagency.org/sites/default/files/Customised%20Connections%202014.pdf>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청소년 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히브리어 학습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키부츠 울판은 히브리어 학습과 집단 농장을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성공한 프로그램이다. 집단 농장에서 일을 하는 대신 숙식을 해결하면서 히브리어를 배울 있다. 현재 이스라엘 내 10개의 키부츠에서 발런티어를 모집 중이다. 울판 키네렛(Ulpan Kinneret)은 5개월 동안 히브리어 교육과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군복무 준비, 문화 활동 등을 포함한 초기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 갈릴리 호수 서쪽 도시 티베리아스에서 실시된다.¹⁵⁹⁾

울판 에찌온 네트워크(Ulpan Etzion Network)는 1949년 예루살렘에서 나이층 22-35세 이민자를 위한 히브리어 학습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 이스라엘 주요도시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베이트 브로데츠키 프로그램(The Beit Brodetsky Young Olim Program)은 5개월 동안 히브리어와 이스라엘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텔아비브 라맛 아비브에서 개설된다.¹⁶⁰⁾

(4) 상담 및 군복무 지원 프로그램

헤벤 센터(Hechven Center)는 키부츠와 에찌온 프로그램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이민 상담 프로그램으로 이스라엘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과 함께 직업, 교육, 심리, 문화, 경제 문제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커넥트 이스라엘(Connect Israel)은 새로 이주한 젊은 이민자들의 사회 모임으로 청년 도시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것이다. 경력 워크숍 등을 통해 이스라엘과 사회와 연결되고 통합하는데 도움을 준다. 텔아비브에서 약 2,000명이 매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가린 짜바르(Garin Tzabar)는 이민을 결정한 유대인 청년들이 이민 전 이스라엘 생활과 군복무에 대한 사전에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wings는 가족 없이 혼자 이주한 젊은 이민 군복무자들의 상담 및 사회 적응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이다.¹⁶¹⁾

6) 시사점

이스라엘의 재외 동포 정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스라엘은 재외동포 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과 분야 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종사자뿐만 아니라 음악과 미술 등 예술가들도 이스라엘을 방문할

159) 유대기구. 웹 페이지 <http://www.jewishagency.org/sites/default/files/Customised%20Connections%202014.pdf>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160) 유대기구. 웹 페이지 <http://www.jewishagency.org/sites/default/files/Customised%20Connections%202014.pdf>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161) 유대기구. 웹 페이지 <http://www.jewishagency.org/sites/default/files/Customised%20Connections%202014.pdf>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민에 관심 있는 다양한 계층과 직업에 알맞은 프로그램으로 잠재적 이민 동포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주요 민간 지원 단체들이 이스라엘 정부와 협업으로 이민 장려 프로그램을 직접 계획하고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 민간 지원 단체들이 대부분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다. 한국도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위한 더 많은 민간단체가 세워져야 되고 더 나아가 이들 단체를 지원할 개인 및 단체들의 후원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이스라엘 정부는 재외동포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에 매년 1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관련 부처도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통해 체계와 규모 있는 재외동포 정책 수립에 하루 빨리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는 군 복무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인다. 우리나라 재외동포 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은 군복무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재외 동포 청소년들에게 우리 군을 소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단순히 군복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무 기간 동안 한국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를 배우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국어 학습과 대학 입시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제 IV 장

.....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방향에 관한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3. 소결

제 IV 장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방향에 관한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¹⁶²⁾¹⁶³⁾

1. 조사개요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인재상과 주요 정책과제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학계, 현장 및 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차 조사는 2015년 4월 13일에서 2015년 4월 17일까지, 그리고 2차 조사는 2015년 4월 27일에서 2015년 5월 1일까지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의 선정은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 청소년 관련 연구·문헌의 검색과 전문가 추천을 통해서 전문가 리스트를 작성했으며, 이 중에서 전화를 통해서 조사 참여의사를 밝힌 3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조사지를 보내고 일주일 정도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두어 회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차에서는 30명 중 26명이 응답하였으며, 2차에서는 25명이 응답하였다. 해외출장 등으로 인해서 응답을 하지 못하거나 조사기간 이후에 회신하여 조사결과에 반영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조사대상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관련 분야는 다음과 같다.

학계전문가는 정치외교학, 글로벌 서비스학, 문화콘텐츠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현장전문가는 시민단체, 신문사,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정책전문가는 외교부, 교육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문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7명), 중국(6명), 일본(5명), CIS(3명), 기타(4명)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타 지역에는 유럽, 중동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162)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의 하나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재외동포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pp.1~38)에서 연구진이 발표한 후 수정·보완하여 이 장에 수록하였음.

163) 이 장의 일부 내용은 연구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이슈브리프 제18호로 발간한 바 있음(“재외동포청소년의 주요 이슈와 지원방안”, 2015년 11월 30일)

표 IV-1 조사대상자 관련분야 및 참여자수

구분	전문가관련분야	참여 전문가 수
학계전문가	정치외교학, 글로벌 서비스학, 문화콘텐츠학, 이주동포 연구원 등	16명(1,2차 동일)
현장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신문, 지역 한국어 교사 등	7명(1,2차 동일)
정책전문가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국제교육원 등	5명(2차 4명)

1차 조사에서는 재외동포 청소년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들어보기 위하여 재외동포사회와 재외동포청소년과 관련된 지역별 현재 이슈, 지역별 미래 이슈, 재외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상과 미래인재로서 필요한 능력, 정부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 방향, 미래인재 개발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과제, 미래인재 개발을 위한 동포사회가 제공해야 할 지원 등에 대해서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의견조사에서 제시된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각 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동의 정도와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을 작성하여 재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결과

1) 동포사회의 현재 및 미래 이슈

(1) 동포사회의 현재 이슈

① 미국 동포사회의 현재 이슈

미국 동포사회의 역사가 깊어지고 미국사회에서의 동포들의 성공 경험이 축적되어짐에 따라서 거주국에서 동포사회의 권익 신장을 위한 성장·발전, 그리고 이를 위한 동포 사회의 결속

표 IV-2 미주 동포사회의 현재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정치적·사회적 역량강화: 주류사회 진출	4.60	0.5	100
동포사회 결속 및 네트워크 구축	4.40	0.64	92
이중국적취득문제	3.68	0.94	64
자녀교육 및 결혼	3.60	0.95	64
동포 경제 개선 문제	3.50	0.97	50
한인커뮤니티에 대한 부정적 인식	3.48	1.04	48
노후준비	3.36	1.07	44
남북통일문제	3.28	0.89	44
재외국민선거권	3.28	0.89	40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3번 문항 = 24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등의 문제가 더욱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전문가 조사 결과, 현재 미국 동포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정치적·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주류 사회 진출(4.6)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동포사회 결속 및 네트워크 구축(4.4), 이중국적 취득 문제(3.68), 자녀 교육 및 결혼(3.6), 동포 경제 개선 문제(3.5),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부정적 인식(3.48), 노후 준비(3.36), 남북통일문제(3.28)와 재외국민선거권(3.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② 중국 동포사회의 현재 이슈

중국 동포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동포들의 도시 및 국제 이주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조선족 자치구의 해체, 조선족학교 폐교, 가족의 해체 등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전문가 조사 결과, 현재 중국 동포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조선족학교 폐교 등으로 인한 민족교육 지원(4.52)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도시 및 국제 이주로 인한 가족 해체(4.21), 조선족 자치주 해체에 따른 네트워크 구축(4.17) 및 한국 내 취업·직업교육 및 비자발급 조건 완화(4.17), 조선족 동포사회와 뉴커머와의 조화(4.00), 경제적 생활 안정(3.89), 재중 동포들의 권익 보호(3.86), 현지 상류사회 진출(3.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 중국 동포사회의 현재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조선족 학교 폐교 등으로 인한 민족교육 지원	4.52	0.66	91.3
도시 및 국제 이주로 인한 가족 해체	4.21	0.99	82.6
조선족 자치주 해체에 따른 네트워크 구축	4.17	0.88	69.5
한국 내 취업·직업 교육 및 비자발급 조건 완화	4.17	0.77	56.5
조선족 동포사회와 뉴커머와의 조화	4.00	0.79	69.5
경제적 생활 안정	3.89	0.81	69.5
재중 동포들의 권익 보호	3.86	0.86	65.2
현지 상류사회 진출	3.52	0.73	47.8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3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③ 일본 동포사회의 현재 이슈

일본 동포사회에서는 민족교육문제, 일본 내에서의 법적 지위 문제 등 그동안 동포사회 안에서 지속되어 온 문제 이외에 최근 한일 간의 정치 상황의 악화가 동포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조사 결과, 현재 일본 동포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험한 여론 형성으로 인한 불안감(4.30)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민족교육 문제(4.17)와 한일관계 및 북일관계의 정치 이슈화(4.17), 뉴커머와 기존 정주자와의 통합(4.04), 체류에 관한 안정적 법적 지위 확보(3.95), 동포사회 계층 간 이해 차이(3.86), 상급학교 및 주류사회 진출(3.82), 모국 자유 왕래 기반 마련(3.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 일본 동포사회의 현재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험한 여론 형성으로 인한 불안감	4.30	0.76	82.6
한일관계 및 북일관계의 정치 이슈화	4.17	0.71	82.6
민족교육 문제	4.17	0.86	78.2
뉴커머와 기존 정주자의 통합	4.04	0.87	65.2
체류에 관한 안정적 법적 지위 확보	3.95	0.84	65.2
동포사회 계층 간 이해 차이	3.86	1.01	52.1
상급학교 및 주류사회 진출	3.82	0.77	69.5
모국 자유 왕래 기반 마련	3.52	0.84	47.8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3명 (4번 문항 = 22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④ 독립국가연합(CIS) 동포사회 현재 이슈

독립국가연합(CIS) 동포사회에서는 거주국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 등으로 인한 거주국 내외에서의 안정적인 정착, 한민족 정체성 유지의 문제 등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전문가 조사 결과, 현재 독립국가연합(CIS) 동포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거주국의 경제침체로 인한 안정적 정착 및 경제적 성공의 어려움(4.39)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한민족 정체성 및 한국어 능력 상실(4.30), 자녀교육문제(4.13), 러시아 이주자들의 러시아 국적 취득(3.95), 한국 내 자유로운 거주와 노동권 등 법률의 제도화 문제(3.91),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3.86), 역사·문화·예술 활동 지원(3.68), 중앙아시아 국가 언어사용 문제(3.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5 독립국가연합 동포사회의 현재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거주국의 경제침체로 안정적 정착, 경제적 성공의 어려움	4.39	0.58	95.6
한민족 정체성 및 한국어 능력 상실	4.30	0.92	78.2
자녀교육문제	4.13	0.71	81.8
러시아 이주자들의 러시아 국적 취득	3.95	0.63	78.2
한국 내 자유로운 거주와 노동권 등 법률의 제도화 문제	3.91	0.9	65.2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	3.86	0.69	69.5
역사, 문화, 예술 활동 지원	3.68	0.83	65.2
중앙아시아 국가 언어 사용 문제	3.47	0.84	52.1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23명(5번, 8번 문항 =22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⑤ 동포사회 공통의 현재 이슈

동포사회 공통적으로는 거주국에서의 동포사회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한민족 공동체 강화를 위한 동포사회의 권리 신장과 동포들의 주류사회로의 진출, 동포사회의 통합과 한민족 정체성 강화 등이 주요 이슈로 나타났다. 전문가 조사 결과, 현재 동포사회 공통의 가장 큰 이슈는 동포사회 권리 신장 및 주류사회 진출(4.45)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동포사회 통합 및 네트워크 구축(4.33), 한민족 정체성 강화(4.32), 모국과의 네트워크 구축(4.16), 경제적 생활 안정(4.12), 부모와 자녀세대와의 소통 확대(4.00),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와 거주국 사회의 가교 역할(3.92) 및 민족 교육 지원(3.92), 모국에서의 권리 확대 문제(3.8), 국제 이해 교육 및 외국어 교육(3.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6 동포사회 공통의 현재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동포사회 권리 신장 및 주류사회 진출	4.45	0.65	91.6
동포사회 통합 및 네트워크 구축	4.33	0.76	83.3
한민족 정체성 강화	4.32	0.85	84
모국과의 네트워크 구축(한국유학 및 취업,연수 등의 기회)	4.16	0.62	88
경제적 생활 안정	4.12	0.66	84
부모와 자녀세대와의 소통 확대	4.00	0.76	72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와 거주국 사회의 가교 역할	3.92	0.99	68
민족 교육 지원	3.92	0.81	72
모국에서의 권리 확대 문제(재외국민선거권, 병역, 이중국적 허용, 거주및노동비자등)	3.80	0.70	64
국제 이해 교육 및 외국어 교육	3.48	0.65	52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3명 (1번, 2번 문항 = 24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2) 동포사회의 미래 이슈

① 미국 동포사회의 미래 이슈

미국 동포사회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동포들의 주류사회 진출과 동포사회의 통합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문제가 미래에도 여전히 주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미국 동포사회 미래의 가장 큰 이슈는 현지 주류사회 진출(4.56)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동포사회의 통합과 네트워크 구축(4.40), 교육을 통한 차세대 인재 육성(4.28), 한류 등 한국사회와 미국사회의 가교 역할(4.12), 한인사회의 외연 확대(4.08), 모국과의 네트워크 확대(4.00), 부모와 자녀간 의사소통 증대(3.92), 경제적 안정 및 노후 준비(3.68), 남북통일(3.6), 재외국민선거권을 통해 한국 내 정치 참여 확대(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7 미주 동포사회의 미래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현지 주류사회 진출	4.56	0.58	96
동포사회 통합 및 네트워크 구축	4.4	0.70	88
교육을 통한 차세대 인재 육성	4.28	0.89	80
한류 등 한국사회와 미국사회의 가교 역할	4.12	0.78	76
한인 사회의 외연 확대(다인종 한국인을 커뮤니티에 포함)	4.08	0.64	84
모국과의 네트워크 확대(문화, 경제, 학술 교류 등)	4.00	0.81	68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 증대	3.92	0.86	68
경제적 안정 및 노후 준비	3.68	0.69	64
남북 통일	3.60	0.91	48
재외국민선거권을 통해 한국 내 정치 참여 확대	3.20	0.91	36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② 중국 동포사회의 미래 이슈

중국 동포사회에서는 현재 심각한 상황에 있는 연변 자치구의 존립의 문제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한민족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동포사회의 역량 강화가 미래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동포들의 문제에 대한 대응 등도 주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조사 결과, 중국 동포사회 미래의 가장 큰 이슈는 연변 자치구 유지 문제(4.2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통일된 한국에 기여하는 동포사회 역량 발전(4.17), 국내의 반사회적 문제에 따른 대응(4.04), 한국 취업 및 비자 발급(3.95), 경제적 생활 안정(3.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8 중국 동포사회의 미래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연변 자치구 유지 문제	4.21	0.73	82.6
통일된 한국에 기여하는 동포 사회 역량 발전	4.17	0.71	82.6
국내의 반사회적 문제에 따른 대응	4.04	0.82	78.2
한국 취업 및 비자 발급	3.95	0.76	69.5
국내권익신장	3.91	0.79	65.2
민족 문화 및 언어 교육	3.91	0.79	65.2
경제적 생활 안정	3.86	0.62	73.9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3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③ 일본 동포사회의 미래 이슈

일본에서는 최근 한일관계의 악화에 따른 한국인 배척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향후에도 지속되고, 민족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과 재일동포 간의 통합 등의 문제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전문가 조사 결과, 일본 동포사회 미래의 가장 큰 이슈는 혐한류 및 재일외국인 배외주의(4.34)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민족교육 및 정체성(4.30), 한일 및 북일 관계의 정치 이슈화(4.08), 뉴커머와 기존 정주자의 통합(4.04), 동포사회 계층 간 이해 차이의 극복 문제(3.82), 상급학교 및 주류사회 진출(3.77), 모국 자유 왕래 기반 구축(3.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9 일본 동포사회의 미래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혐한류 및 재일외국인 배외주의	4.34	0.77	82.6
민족교육 및 정체성	4.30	0.76	82.6
한일 및 북일 관계의 정치적 이슈화	4.08	0.79	82.6
뉴커머와 기존 정주자의 통합	4.04	0.76	73.9
동포사회 계층 간 이해 차이 극복 문제	3.82	0.77	60.8
상급학교 및 주류사회 진출	3.77	0.68	65.2
모국 자유 왕래 기반(법적체류문제)	3.69	0.70	56.5

-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3명 (5번 문항 = 22명)
-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④ 독립국가연합(CIS) 동포사회의 미래 이슈

독립국가연합(CIS) 동포사회에서는 현재와 같이 미래에도 동포들의 경제적 안정과 재정착 문제 등이 가장 주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조사결과, 독립국가연합(CIS) 동포사회 미래의 가장 큰 이슈는 경제적 안정(4.2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동포들의 재정착 문제(4.17), 현지 정치참여 및 주류 사회 진출(4.00), 한민족 정체성 유지(3.95)와 동포사회 지역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3.95), 한국사회와의 네트워킹(3.91)과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구제 문제(3.91),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영주권 취득 조건 완화(3.82), 지역 내 종교적 갈등 문제(3.45), 한인 이중국적 문제(3.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0 독립국가연합 동포사회의 미래 이슈

항목	평균	표준편차	긍정률 (%)
경제적 안정	4.21	0.67	86.9
동포들의 재정착 문제 (구소련 붕괴 후 러시아권을 떠도는 동포들의 정착 문제)	4.17	0.77	78.2
현지 정치참여 및 주류사회 진출	4.00	0.73	73.9
한민족 정체성 유지	3.95	0.82	73.9
동포사회 지역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3.95	0.56	82.6
한국사회와의 네트워킹	3.91	0.51	82.6
사할린 강제 동원 피해 구제 문제	3.91	0.66	73.9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영주권 취득 조건 완화	3.82	0.86	60.8
지역 내 종교적 갈등 문제(한국 선교단체와 아랍권 국가, 러시아 정교 등)	3.45	0.73	52.1
한인 이중 국적 문제	3.30	0.92	43.4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3명 (1번 문항 = 22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⑤ 동포사회 공통의 미래 이슈

재외동포 사회에 공통적인 미래의 주요 이슈는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 주류사회 진출, 한민족 정체성 강화, 동포사회 통합 및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나타나, 점차적으로 동포사회에서 차세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결과, 미래 동포사회 공통의 가장 큰 이슈는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4.56)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권리 신장과 정치 참여를 통한 주류사회 진출(4.44), 한민족 정체성 강화(4.28), 동포사회 통합 및 네트워크 구축(4.24), 모국과의 네트워크 유지 및 모국에의 기여(4.08), 세대간 의사소통 및 단절문제(3.96), 한국 유학 및 취업, 연수 등의 기회 제공(3.92), 경제적 생활 안정(3.88), 모국에서의 동포 권리 문제(3.80), 해외대학 등에 한국학 또는 교양과목에 대한 지원(3.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 동포사회 공통의 미래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	4.56	0.65	92
권리 신장과 정치 참여를 통한 주류사회 진출	4.44	0.65	92
한민족 정체성 강화	4.28	0.67	88
동포사회 통합 및 네트워크 구축	4.24	0.72	84
모국과의 네트워크 유지 및 모국에의 기여	4.08	0.64	84
세대 간 의사소통 및 단절 문제	3.96	0.67	76
한국 유학 및 취업, 연수 등의 기회 제공	3.92	0.70	80
경제적 생활 안정	3.88	0.66	80
모국에서의 동포 권리 문제 (재외국민선거권, 병역, 이중국적 허용, 거주, 노동 비자 등)	3.80	0.57	72
해외대학 등에 한국학 또는 교양과목에 대한 지원	3.64	0.81	60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2) 재외동포 청소년의 현재 및 미래 이슈

(1) 재미동포 청소년의 현재 이슈

① 재미동포 청소년의 현재 이슈

현재 재미동포 청소년들의 가장 큰 이슈는 동포사회의 이슈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주류사회로의 진출이었으나, 이와 함께 한민족 정체성의 혼란과 민족교육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었다. 또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의사소통 문제 등도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현재 재미동포 청소년의 가장 큰 이슈는 주류사회 진출(4.40)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정체성 혼란(4.24), 민족교육 인프라의 부족(4.16), 부모세대와의 의사소통 문제(4.12), 사각지대의 청소년 지원 문제(3.96), 소수민족이 받는 차별 대우(3.64), 고등교육기관 입학 문제(3.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재미동포 청소년의 현재 이슈

항목	평균	표준편차	긍정률 (%)
주류사회 진출	4.40	0.64	92
정체성 혼란	4.24	0.66	88
민족교육 인프라의 부족	4.16	0.74	80
부모세대와의 의사소통 문제	4.12	0.72	80
사각 지대의 청소년 지원 문제	3.96	0.78	76
소수민족이 받는 차별 대우	3.64	0.63	56
고등교육기관 입학 문제	3.48	0.58	44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② 재중동포 청소년의 현재 이슈

재중동포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조선족 자치구 해체에 따른 민족정체성 유지와 청소년의 지원 문제 등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었다. 조사결과, 현재 재중동포 청소년의 가장 큰 이슈는 민족정체성 유지 문제(4.42)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와 분리된 청소년 지원 문제(4.17), 주류사회 적응 및 진출(4.13), 현지 한국학교의 지원(3.86), 한국에서의 교육 및 취업기회 확대(3.86), 한중 FTA에 대비한 인적자원 육성(3.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3 재중동포 청소년의 현재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민족정체성 유지 문제	4.43	0.66	82.6
부모와 분리된 청소년 지원 문제 (부모의 도시 혹은 한국의 취업으로 가족 분리 혹은 해체)	4.17	0.77	78.2
주류사회 적응 및 진출	4.13	0.75	78.2
현지 한국학교의 지원	3.86	0.69	69.5
한국에서의 교육 및 취업기회 확대	3.86	0.75	73.9
한중 FTA에 대비한 인적자원 육성	3.82	0.71	65.2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3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③ 재일동포 청소년의 현재 이슈

재일동포 청소년의 경우에도 최근 한일 관계의 악화에 따른 반한 감정 등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민족정체성 유지, 조선학교 차별 등의 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었다. 조사결과, 현재 일본 재외동포 청소년의 가장 큰 이슈는 혐한류 등 재일외국인 배외주의(4.34)였으며, 그 다음으로 민족정체성 함양(4.21)과 민족교육의 위축(4.21),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4.13),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3.95)과 한국과의 교류(3.95), 부모세대와의 소통(3.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4 재일동포 청소년의 현재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혐한류 등 재일 외국인 배외주의	4.34	0.64	91.3
민족정체성 함양	4.21	0.79	91.3
민족교육의 위축	4.21	0.73	91.3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4.13	0.54	91.3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	3.95	0.63	78.2
한국과의 교류	3.95	0.76	69.5
부모세대와의 소통	3.82	0.65	69.5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3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④ 고려인동포 청소년의 현재 이슈

고려인동포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 유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의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갖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현재 고려인 동포청소년의 가장 큰 이슈는 한국 유학 및 연수 기회(4.34)였으며, 그 다음으로 고려인 정체성 유지(4.30)와 고등교육 기회와 취업(4.30), 부모세대와의 언어·문화 단절(4.13), 국내 체류 청소년의 교육문제(3.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5 고려인동포 청소년의 현재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한국 유학 및 연수 기회	4.34	0.57	95.6
고려인 정체성 유지	4.30	0.7	86.9
고등교육 기회와 취업	4.30	0.82	86.9
부모세대와의 언어·문화 단절	4.13	0.62	86.9
국내 체류 청소년 교육 문제	3.95	0.63	78.2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⑤ 재외동포 청소년 공통의 현재 이슈

국가별로 우선순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재외동포 청소년의 민족교육과 주류사회 진출의 문제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었다. 조사결과, 현재 재외동포 청소년 공통의 가장 큰 이슈는 차세대 민족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4.60)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4.24), 재외동포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20), 민족교육 지원(4.16)와 한민족 정체성 유지(4.16) 및 차세대 단체 육성(4.16), 한국 청소년과의 네트워킹(4.12), 부모세대와의 소통기반 구축(3.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6

재외동포 청소년 공통의 현재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차세대 민족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	4.60	0.57	96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	4.24	0.72	84
재외동포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20	0.57	92
민족교육 지원	4.16	0.68	84
한민족 정체성 유지	4.16	0.74	80
차세대 단체의 육성	4.16	0.8	76
한국 청소년과의 네트워크	4.12	0.83	80
부모세대와의 소통 기반 구축	3.96	0.73	72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2)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이슈

① 재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이슈

미래에 재미동포 청소년들 사이에는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주류사회 진출의 문제도 여전히 주요 이슈가 될 것이지만, 이보다는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청소년들의 역할과 가치관의 정립, 민족정체성의 유지 등의 문제가 보다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조사결과, 미래 재미동포 청소년의 가장 큰 이슈는 모국과 거주국에서의 조화로운 역할과 가치관 정립(4.44)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민족정체성 유지 및 함양(4.24), 모국과의 교류 및 유대강화(4.16),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4.12), 한국 학생들과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3.80), 거주국 지역 학생들과의 네트워크 구축(3.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7 재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모국과 거주국에서 조화로운 역할과 가치관 정립	4.44	0.5	100
민족정체성 유지 및 함양	4.24	0.66	88
모국과의 교류 및 유대 강화	4.16	0.74	80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	4.12	0.72	80
한국 학생들과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3.80	0.7	64
거주국 지역의 청소년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3.79	0.65	66.6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② 재중동포 청소년의 미래 이슈

재중동포 청소년의 경우에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민족 정체성 유지와 한국과의 협력 등이 미래 재중동포 청소년의 주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조사결과, 미래 재외동포 청소년의 가장 큰 이슈는 한민족 정체성의 유지(4.39)였으며, 그 다음으로 조선족 교육을 위한 모국과의 협력(4.26), 고유의 역사와 문화의 계승(4.21)과 주류사회 진출(4.21), 연변자치구 유지(4.17), 가족 해체로 인한 문제(4.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8 재중동포 청소년의 미래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한민족 정체성 유지	4.39	0.72	86.9
조선족 교육을 위한 모국과의 협력	4.26	0.54	95.6
고유의 역사와 문화의 계승	4.21	0.67	86.9
주류사회의 진출	4.21	0.73	82.6
연변자치구 유지	4.17	0.65	86.9
가족 해체로 인한 문제	4.00	0.79	69.5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3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③ 재일동포 청소년의 미래 이슈

재일동포 청소년의 경우에는 한민족 정체성 유지와 반한 감정에 대한 대처, 민족 차별 문제 등 현재의 이슈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미래 재일동포 청소년의 가장 큰 이슈는 한민족 정체성 유지 및 함양(4.26)과 반한감정에 대한 대처(4.26)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민족학교 차별 문제(4.21), 모국 연수, 교육, 유학 등의 기회 확대(4.13), 주류사회 진출 및 상급학교 진학(4.08), 일본 내 청소년 조직기반 구축(3.73), 남북한 통일 문제(3.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9 재일동포 청소년의 미래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한민족 정체성 유지 및 함양	4.26	0.61	91.3
반한감정에 대한 대처	4.26	0.75	82.6
민족학교 차별 문제	4.21	0.51	91.3
모국 연수, 교육, 유학 등의 기회 확대	4.13	0.75	86.9
주류사회의 진출 및 상급학교 진학	4.08	0.73	78.2
일본 내 청소년 조직기반 구축	3.73	0.68	60.8
남북한 통일 문제	3.69	0.7	56.5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3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④ 고려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이슈

고려인 재외동포 청소년의 경우에도 한국과의 교류기회의 확대, 한민족 정체성 유지,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 등 현재의 이슈가 대부분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미래 고려인동포 청소년의 가장 큰 이슈는 한국과의 교류기회의 확대(4.52)였으며, 그 다음으로 한민족 정체성 유지 및 함양(4.21),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4.17), 부모세대와의 의사소통 및 세대 갈등(4.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0 고려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이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한국과의 교류기회 확대	4.52	0.51	100
한민족 정체성 유지 및 함양	4.21	0.73	82.6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	4.17	0.71	82.6
부모세대와의 의사소통 및 세대 갈등	4.13	0.62	82.6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3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⑤ 재외동포 청소년 공통의 미래 이슈

재외동포 청소년 공통적으로는 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 이해를 위한 교육과 주류사회 진출, 한국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이 미래의 주요한 이슈로 예측되었다. 조사결과, 미래 재외동포 청소년 공통의 가장 큰 이슈는 한국어·문화·역사 교육의 확대(4.48)였으며, 그 다음으로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4.24)과 모국과의 네트워크 유지(4.28), 한민족 정체성 강화(4.24), 차세대 지역 커뮤니티 조직 및 지원(4.20), 부모세대와의 의사소통 증진(4.16), 민족교육기관 지원(4.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한국어·문화·역사 교육의 확대	4.48	0.65	92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	4.28	0.73	84
모국과의 네트워크 유지	4.28	0.54	96
한민족 정체성 강화	4.24	0.66	88
차세대 지역 커뮤니티 조직 및 지원	4.20	0.70	84
부모 세대와의 의사소통 증진	4.16	0.68	84
민족교육기관 지원	4.04	0.61	84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3)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인재상과 필요 능력

(1)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인재상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인재상에 대해서는 세계시민의식, 글로벌 경쟁력, 한민족 정체성, 갈등해결 및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책임의식, 융합적 지식 생산 능력, 창의성, 국제간 및 남북간 통합능력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재상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계시민인 동시에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한민족의 구성원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해 나가는 능력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인재상에 대해서는 세계시민의식을 가진 인재에 대한 동의 정도(4.48)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글로벌 경쟁력 있는 인재(4.44), 한민족 정체성을 가진 인재(4.40)와 갈등해결 및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인재(4.40),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한 인재

(4.29), 융합적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인재(4.24)와 창의성을 갖춘 인재(4.24), 국제간, 남북간 통합능력이 있는 인재(4.04), 네트워크 구축능력이 있는 인재(3.62), 정치 참여 수용성이 높은 인재(3.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2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인재상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세계시민의식을 가진 인재	4.48	0.65	92
글로벌 경쟁력 있는 인재	4.44	0.65	92
한민족 정체성을 가진 인재	4.40	0.64	92
갈등해결 및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인재	4.40	0.64	92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한 인재	4.29	0.62	91.6
융합적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인재	4.24	0.72	84
창의성을 갖춘 인재	4.24	0.72	84
국제 간 및 남북 간 통합능력이 있는 인재	4.04	0.67	80
네트워크 구축능력이 있는 인재	3.62	0.57	80
정치 참여 수용성이 높은 인재**	3.60	0.70	48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24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2) 미래인재로서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능력

미래 인재로서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능력으로는 의사소통능력, 세계시민의식,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창의적인 능력, 타인 존중 및 배려, 인생·진로 개척 능력, 협동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와 지식의 통합 능력 등 다양한 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와 지식의 통합 능력, 정보/ICT활용능력 등의 기술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의사소통, 세계시민의식, 사회적 책임의식 등의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의식이 미래 인재로서의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재외동포 청소년이 미래 인재로서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는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동의 정도(4.44)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계시민의식(4.40),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4.32), 창의적인 능력(4.20)과 타인에 대한 존중 및 배려(4.20), 인생·진로 개척 능력(4.12)와 협동 능력(4.12), 문제해결능력(4.04)와 정보와 지식을 통합하는 능력(4.04), 비판적 사고력(3.88)과 정보/ICT 활용능력(3.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3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인재로서 필요한 능력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의사소통능력	4.44	0.65	92
세계시민의식	4.40	0.64	92
개인 및 사회적 책임 의식	4.32	0.62	92
창의적인 능력	4.20	0.57	92
타인에 대한 존중 및 배려	4.20	0.7	84
인생·진로 개척 능력	4.12	0.52	92
협동 능력	4.12	0.6	88
문제해결능력	4.04	0.53	88
정보와 지식을 통합하는 능력	4.04	0.73	76
비판적 사고력	3.88	0.52	80
정보/ICT 활용 능력	3.88	0.43	84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4) 재외동포 청소년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재외동포 청소년들은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문화적 소외와 정체성, 정체성 형성을 위한 인프라 부족 등 정체성 형성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재외동포 청소년이 미래 인재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거주국에 적응하면서 겪는 문화적 소외감과 정체성의 문제(4.60)였으며, 그 다음으로 한민족 문화, 한국어 등을 배울 수 있는 인프라 부족(4.28),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에 대한 비전 부재(4.20), 재외동포로 성장하기 위한 롤모델 등 정보 부족(4.08), 부모세대와의 의사소통 단절(4.00),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문화생활 및 교육기회의 제한(3.92), 거주국에서 겪는 차별문제(3.76), 거주국 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3.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4 재외동포 청소년이 미래 인재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거주국에 적응하면서 겪는 문화적 소외감과 정체성의 문제	4.60	0.50	100
한민족 문화, 한국어 등을 배울 수 있는 인프라 부족	4.28	0.79	80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에 대한 비전 부재 (장학금, 프로그램 확보 등)	4.20	0.76	80
재외동포로서 성장하기 위한 롤 모델 등 정보 부족	4.08	0.81	72
부모세대와의 의사소통 단절	4.00	0.76	72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생활 및 교육기회의 제한	3.92	0.64	76
거주국에서 겪는 차별문제	3.76	0.52	72
거주국 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러시아, 중국 등)	3.64	0.81	60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5) 미래 인재 개발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 및 이유

(1) 미래 인재 개발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

미래 인재 개발 차원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는 중국이었으며, 이밖에 미국, 일본, 독립국가연합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미래 인재 개발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에 대해서 중국이라는 데에 대해서 동의 정도(4.66)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4.44), 일본(4.33), 독립국가연합(4.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으로는 남미, 동남아, 유럽 등의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로 제시되었다.

표 IV-25 인재개발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중국**	4.66	0.48	100
미국***	4.44	0.71	88
일본 ****	4.33	0.70	87.5
독립국가연합(CIS)*****	4.25	0.67	87.5
기타지역 { 응답: 유럽 (1명), 남미(4명), 동남아(2명) }*****	4.25	0.46	100

* 총 사례수 = 25명/유효 사례수 **=25명, ***, ****, ***** = 24명, ***** = 8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2) 미래 인재개발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를 선정한 이유

미래 인재 개발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 선정에는 인재개발 효과와 파급효과, 정치·경제적 비중, 정치·경제·문화·교육 측면에서의 교류, 민족교육의 실태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미래 인재 개발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의 선정에는 인재개발 효과와 파급효과(4.44)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그 다음으로 관심국의 정치·경

제적 비중과 중요성(4.36), 관심국과 정치·경제·문화·교육 측면에서의 빈번한 교류(4.08), 관심국의 민족교육의 어려움(4.00), 전 세계의 축소판(3.84), 관심국의 재외동포 및 한국유학생 수(3.60), 관심국의 경제적 어려움(3.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6 관심 국가의 선정 이유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관심국의 인재개발 효과와 파급효과	4.44	0.71	88
관심국의 정치·경제적 비중과 중요성	4.36	0.70	88
관심국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측면에서의 빈번한 교류	4.08	1.03	72
관심국의 민족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4.00	0.78	80
관심국이 다양한 인종 및 민족이 살고 있어 전 세계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3.84	0.85	64
관심국의 재외동포 및 한국유학생의 수가 많기 때문에	3.60	0.95	52
관심국의 경제적 환경이 어려워 한국 기업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해서	3.24	1.01	36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6) 미래인재 개발을 위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 방안

(1) 미래인재 개발을 위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개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비전과 장기적인 정책의 부족, 정책 수행의 컨트롤타워의 부재, 지원 방안의 부재, 예산과 인력의 부족, 국가별 차별적인 정책의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전 및 장기적인 정책의 부족에 대한 동의 정도(4.72)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컨트롤타워의 부재(4.40)와 외국적 재외동포 청소년의 지원방안 부재(4.40), 예산 및 인력 부족(4.28), 국가 간 차별적인 정책의 부재(4.24), 병역, 이중국적, 노동과 거주 비자문제 등 법적 문제 해결(3.92), 재외동포 청소년을 격려하는 정책 부재(3.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7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인재로 개발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문제점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비전과 장기적인 정책의 부족	4.72	0.54	96
컨트롤타워의 부재	4.40	0.70	88
외국적 재외동포 청소년의 지원 방안 부재	4.40	0.64	92
예산 및 인력 부족	4.28	0.84	76
국가 간 차별적 정책 부재	4.24	0.77	80
병역, 이중 국적, 노동과 거주외 비자문제 등 법적 문제 해결	3.92	0.75	76
재외동포 청소년을 격려하는 정책 부재	3.84	0.85	64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2) 향후 미래인재 개발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안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또는 지역별로 재외동포 청소년에 관한 정책 방향 설정이 우선되어야 하고, 재외동포 청소년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의 수집, 재외동포 청소년 관련 법 및 정부조직의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연수·교육 및 민족교육 지원, 한국청소년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지역별 맞춤형 지원 방향 설정에 대한 동의 정도(4.56)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체계적인 정책 방향 및 지원 목표 설정(4.48), 모국연수, 교환학생, 유학, 취직 등의 지원 확대(4.44), 재외동포 청소년 기초통계 수집 및 분석(4.40), 재외동포 관련 통일적인 정부조직 정비(4.32), 재외동포 관련 법 제정(4.12), 거주국의 민족교육 지원 확대(4.08), 거주국 단체 및 한국 청소년들과의 네트워크 활성화(4.04), 현지 NGO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 방향 수립(4.00), 통일시대 국제적 감각 함양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수립(3.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8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향후 정책 방안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지역별 맞춤형 지원 방향 설정	4.56	0.50	100
체계적인 정책 방향 및 지원 목표 설정	4.48	0.71	88
모국연수, 교환학생, 유학, 취직 등의 지원 확대	4.44	0.57	96
재외동포 청소년 기초 통계 수집 및 분석(체계적인 조사 연구)	4.40	0.70	88
재외동포 관련 통일적인 정부조직 정비	4.32	0.80	80
재외동포 관련 법 제정**	4.12	0.72	80
거주국의 민족교육 지원 확대	4.08	0.64	84
거주국 단체 및 한국 청소년들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4.04	0.69	79.1
현지 NGO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 방향 수립	4.00	0.81	88
통일시대 국제적 감각 함양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수립	3.88	0.83	76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24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3)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는 법·제도적 측면, 시설적인 측면, 인력적인 측면, 프로그램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① 법·제도적 측면의 정책과제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법·제도적 측면의 정책과제는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 미래 인재 육성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국내 기술 교육 및 취업제도 확대, 거주국 교육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재외동포처 신설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조사결과, 정부의 법·제도적 측면의 정책과제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대한 동의 정도(4.44)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재외동포 청소년 미래 인재 육성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4.36), 국내 기술 교육 및 취업제도 확대(4.12)와 거주국 교육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4.12), 재외동포처 신설(3.96), 재외동포 인구 비례로 예산 지원 규모 현실화(3.88), 단기 대체 복무 등 병역문제 개선(3.80)와 거주 및 노동비자 확대 (3.80), 국회상임위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3.76)와 이중국적 허용(3.76), 재외한국학교 외국인 입학 허용(3.68), 국내체류 동포에 대한 의료보험제도 개선(3.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9 미래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법·제도적 측면의 정책 과제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4.44	0.71	88
재외동포청소년 미래 인재 육성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4.36	0.63	52
국내 기술 교육 및 취업 제도 확대	4.12	0.66	84
거주국 교육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모국방문, 장학금 지급 등)	4.12	0.83	72
외교부에서 분리하여 재외동포처 신설	3.96	1.13	64
재외동포 인구 비례로 예산 지원 규모 현실화	3.88	0.72	76
단기 대체 복무 등 병역문제 개선	3.80	0.57	72
거주 및 노동비자 확대	3.80	0.64	68
국회상임위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3.76	1.05	60
이중국적 허용	3.76	0.72	68
재외한국학교 외국인 입학 허용	3.68	0.69	64
국내체류 동포에 대한 의료보험 제도 개선	3.52	0.58	48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② 시설적인 측면의 정책과제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시설적인 측면의 정책과제는 국내·외 재외동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재외동포 민족학교 지원, 교육·숙박시설의 확충 및 개선, 재외동포 청소년 관련 세미나 및 국제회의 시설 설치, 지역별 재외동포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등이

주요과제로 제시되었다. 조사결과, 정부의 시설적인 측면의 정책과제로 국내·외 재외동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동의 정도(4.44)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재외동포 민족학교(유치원, 초·중·고) 지원(4.29), 동포청소년들이 한국 방문 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숙박시설 확충 및 개선(4.16), 재외동포 청소년 관련 국제회의, 포럼, 강연,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한 지원(4.12), 지역별 재외동포청소년지원센터 설치(3.88), 한국교육원과 한국문화원 통합 운영(3.76), 거주국 연수센터 설치(3.72), 거주국에서의 청소년교육을 위한 박물관·도서관 건립(3.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0 미래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시설적인 측면의 정책 과제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국내·외 재외동포 통합지원센터 설치	4.44	0.65	88
재외동포 민족학교(유치원, 초·중·고) 지원	4.29	0.62	92
동포청소년들이 한국 방문 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숙박 시설 확충 및 개선	4.16	0.74	80
재외동포 청소년 관련 국제회의, 포럼, 강연, 세미나 개최 등을 위한 지원	4.12	0.78	84
지역별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3.88	0.72	68
한국교육원과 한국문화원 통합 운영	3.76	0.77	64
거주국 연수센터 설치	3.72	0.73	56
거주국에서의 청소년교육을 위한 박물관·도서관 건립	3.64	0.9	52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③ 인력적인 측면의 정책과제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인력적인 측면의 정책과제로는 현지 교사의 확보와 지원, 국내·외 전문가 간의 협력체계 구축, 한국 교사 파견 확대 등 기존 전문가 인력에 대한 확보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재외동포 청소년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현지 교사의 확보와 지원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4.32)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국내와 현지 전문가 간의 협력 체계 구축(4.25), 동포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 전문인력의 양성(4.24), 재외동포교육에 특화된 전문가 양성과정 개발(4.16), 미래 인재로서 한인 유학생 관리(4.04), 현지 대학의 한국(어) 관련학과 학생 지원(4.00), 한국에서 교사 파견 확대(3.80), 재외동포 청소년 교사뱅크 구축(3.79), 교육부 산하 재외동포 청소년국 설치 및 담당관 배치(3.60), 재외동포 전문가 자격증 신설(3.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1 미래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인력적인 측면의 정책 과제

항목	평균	표준편차	긍정률 (%)
현지 교사의 확보와 지원 확대	4.32	0.62	92
국내와 현지 전문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4.25	0.60	92
동포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 전문 인력 양성	4.24	0.72	84
재외동포교육에 특화된 전문가 양성과정 개발(거주지 교육, 국내 초청 연수 등)	4.16	0.74	88
미래 인재로서 한인 유학생 관리	4.04	0.67	80
현지 대학의 한국(어) 관련학과 학생 지원	4.00	0.57	84
한국에서 교사 파견 확대	3.80	0.57	72
재외동포 청소년 교사뱅크 구축	3.79	0.72	72
교육부 산하 재외동포 청소년국 설치 및 담당관 배치	3.60	1.19	60
재외동포 전문가 자격증 신설	3.48	0.82	44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④ 프로그램 측면의 정책과제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인력적인 측면의 정책과제로는 재외동포 우수인재 발굴 프로그램, 모국 연수·교육·체험 프로그램,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 프로그램, 기업 연계 프로그램, 재외동포용 콘텐츠, 거주국 청소년 활동지원과 활동대회 개최, 거주국 내 지역별, 연령별 프로그램, 차세대 리더들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표 IV-32

미래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 측면의 정책 과제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재외동포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48	0.65	92
모국 연수·교육·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4.48	0.82	88
모국 청소년과의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4.44	0.71	88
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4.32	0.47	100
재외동포용 한국어교재 등 콘텐츠 개발	4.2	0.70	84
거주국 청소년 활동지원과 활동대회 개최	4.16	0.88	88
거주국 내 지역별, 연령별 프로그램 개발	4.16	0.68	84
차세대 리더들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	4.12	0.70	88
지자체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4.12	0.78	76
재외동포청소년 정체성 함양 교육 확대	4.12	0.78	76
인터넷 원격 교육 프로그램 개발	4.04	0.67	80
모국 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4.00	0.64	80
군대 체험·국토대장정·문화답사 프로그램 등	3.96	0.78	76
거주 국가별 주요 청소년 프로그램 비교 연구	3.96	0.67	76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조사결과, 정부의 인력적인 측면의 정책과제로 재외동포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4.48)과 모국 연수·교육·체험 프로그램 활성화(4.48)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모국 청소년과의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4.44), 한국계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인턴십 등 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4.32), 재외동포용 한국어교재 등 콘텐츠 개발(4.20), 거주국 청소년 활동지원과 활동대회 개최(4.16)와 거주국 내 지역별, 연령별 프로그램 개발(4.16), 차세대 리더들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4.12)과 지자체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4.12) 및 재외동포 청소년 정체성 함양 교육 확대(4.12), 인터넷 원격 교육 프로그램 개발(4.04), 모국 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4.00), 군대 체험·국토대장정·문화답사 프로그램 등 개발(3.96)과 거주 국가별 주요 청소년 프로그램 비교 연구(3.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동포사회의 지원과제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동포사회의 지원과제를 법·제도적 측면, 시설적인 측면, 인력적인 측면, 프로그램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① 법·제도적 측면의 지원과제

재외동포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동포사회의 법·제도적 측면의 지원과제는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을 위한 민간교육기금의 설치, 현지정착과 국적취득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무엇보다도 재외동포청소년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었다. 조사결과, 동포사회의 법·제도적 측면의 지원과제로 민간교육기금의 설립(4.28)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현지정착과 국적취득에 필요한 정보 제공(4.16), 한국학교 졸업생들에게 거주국 학교의 제2외국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 요구(4.00),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법 및 제도 개선위원회 설치(3.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3 동포사회의 법·제도적 측면의 지원과제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민간 교육기금의 설립	4.28	0.79	88
현지정착과 국적취득에 필요한 정보 제공	4.16	0.62	88
한국학교 졸업생들에게 거주국 학교의 제2외국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 요구	4.00	0.81	68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법 및 제도 개선위원회 설치	3.96	1.05	72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② 시설적인 측면의 지원과제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동포사회의 시설적인 측면의 지원과제로는 재외동포청소년센터의 확충, 민족 교육시설의 확충, 기숙시설의 운영 등이 제시되었다. 조사결과, 시설적인 측면의 지원과제로 재외동포청소년센터의 확충(4.33)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민족 교육시설의 확충(4.29), 미래인재 개발 차원의 기숙시설 운영(4.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4 동포사회의 시설적인 측면의 지원과제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재외동포청소년센터 확충	4.33	0.7	88
민족 교육시설 확충	4.29	0.69	88
미래인재 개발 차원의 기숙시설 운영(타국 간 유학동포청소년 활용시설)	4.12	0.74	80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③ 인력적인 측면의 지원과제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동포사회의 인력적인 측면의 지원과제로는 교육 및 정보 담당 전문가 양성, 교사뱅크 구축, 전문가의 파견 등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조사결과, 동포사회의 인력적인 측면의 지원과제로 교육 담당 전문가의 양성(4.28)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거주국과 한국을 연계하는 정보담당 전문가 양성(4.16), 거주국 교사뱅크 구축 및 운영(4.12), 선진지역 동포사회 전문가의 후진지역 동포사회 파견(3.92), 청소년문화대학 설립(3.68), 현지인 시니어 및 실버 세대를 중심으로 인력풀 확보(3.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5 동포사회의 인력적인 측면의 지원과제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교육 담당 전문가 양성	4.28	0.73	84
거주국과 한국을 연계하는 정보담당 전문가 양성	4.16	0.62	88
거주국 교사뱅크 구축 및 운영	4.12	0.60	88
선진 지역 동포사회 전문가의 후진지역 동포사회 파견	3.92	0.81	64
청소년문화대학 설립	3.68	0.74	52
현지인 시니어 및 실버 세대를 중심으로 인력풀 확보	3.60	0.64	60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③ 프로그램 개발 측면의 지원과제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동포사회의 프로그램 개발 측면의 지원과제로는 동포 기금 및 장학사업 프로그램, 창의성 및 자기주도성 함양 프로그램, 멘토·멘티 프로그램, 민족교육 프로그램, 민족학교 연합 축제 및 캠프 개최 등이 제시되었다. 조사결과, 동포사회의 프로그램 개발 측면의 지원과제로 동포 기금 및 장학사업 프로그램 운영(4.60)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4.28),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4.24), 민족교육 프로그램 개발(4.08)과 민족학교 연합 축제 및 캠프 개최(4.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6 동포사회의 프로그램 개발 측면에서의 지원과제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동포 기금 및 장학 사업 프로그램 운영	4.60	0.5	100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28	0.54	96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4.24	0.59	92
민족교육 프로그램 개발	4.08	0.75	80
민족학교 연합 축제 및 캠프 개최	4.08	0.7	80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④ 기타 지원과제

재외동포 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동포사회의 기타 지원과제로는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수요 파악, 경제적으로 열악한 동포지역의 지원, 동포청소년 관련 정보 DB화 지원,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지원, 거주국 지역별 동기 부여 등이 제시되었다. 조사결과, 동포사회의 기타 지원과제로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수요 파악에 대한 동의 정도(4.36)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동포지역 지원(4.28), 동포청소년 관련 정보 DB화 지원(4.24),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지원 방안 마련(4.20), 거주국 지역별로 동기 부여 방안 개발(4.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7 동포사회의 기타 지원과제

항목	평균	표준 편차	긍정률 (%)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수요 파악	4.36	0.56	96
경제적으로 열악한 동포 지역 지원(CIS 지역 등)	4.28	0.67	88
동포청소년 관련 정보 DB화 지원	4.24	0.66	68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지원 방안 마련	4.20	0.64	88
거주국 지역별로 동기 부여 방안 개발	4.12	0.72	80

* 총 사례수 = 25명/ 유효 사례수 = 25명

* 표준편차: 0.8 이하일 때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함.

* 긍정률: 4 이상의 응답을 보인 비율을 의미함

3. 소결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동포사회와 재외동포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의 이슈, 재외동포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 그리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과제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동포사회별로 이슈의 차이는 있었지만,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슈는 곧 미래의 이슈가 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동포사회의 경우에는 주류사회 진출이 최대의 이슈였으나, 중국 동포사회는 조선족학교 폐교 등으로 인한 민족교육 지원, 일본 동포사회는 협한 여론으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독립국가연합 동포사회는 거주국의 경제침체로 인한 안정적 정착과 경제적 성공의 어려움이 가장 큰 이슈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슈는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따라서 미국에서는 현지 주류사회 진출이 미래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고, 중국은 연변 자치구 유지 문제가, 일본의 경우에는 협한류 및 재일외국인 배외주의 문제가, 그리고 독립국가연합의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과 동포들의 재정착의 문제 등이 미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았다. 동포사회 공통적으로는 동포사회 권리 신장과 주류사회 진출, 동포사회 통합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문제가 현재의 이슈이고,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 권리 신장 및 정치참여를 통한 주류사회 진출이 동포사회 공통의 미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았다.

재외동포청소년과 관련 이슈도 동포사회 이슈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소년의 공통적인 현재 이슈는 차세대 민족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 등이었다. 국가별로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최대의 현재 이슈는 주류사회 진출이었고, 재중동포청소년은 민족정체성 유지, 재일동포청소년은 협한류 등 재일외국인 배외주의 극복, 그리고 고려인 동포청소년은 한국 유학 및 연수 기회로 나타났다. 또한 재외동포청소년의 미래 이슈는 공통적으로 한민족교육의 확대, 한민족 정체성 강화, 모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주류사회 진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는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에 모국과 거주국에서의 조화로운 역할과 가치관 정립이 최대 이슈이고, 재중·재일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한민족 정체성 유지가, 그리 고려인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과의 교류기회 확대가 가장 큰 미래 이슈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에 한민족정체성 함양과 주류사회 진출, 그리고 한국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 등이 현재와 미래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외동포청소년의 미래의 인재상은 세계시민의식과 글로벌 경쟁력, 갈등해결과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책임의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인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거주국에서 적응하면서 겪는 문화적 소외감과 정체성 문제, 한민족교육 인프라의 부족,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비전 부재 등이 재외동포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성장하게 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방안과 민족교육 인프라의 확대, 그리고 정부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에 대한 비전 수립 등이 필요하다.

재외동포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비전과 장기적인 정책의 부족, 정책 수행의 컨트롤타워의 부족, 국가별 차별적인 정책의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재외동포청소년을 미래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소년 육성에 대한 비전과 중장기 정책의 수립, 동포사회 국가별 특성에 적합한 정책의 수립, 정부정책 시행을 위한 컨트롤타워와 국내·외 지원 조직 및 시설의 구축, 관련 법·제도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동포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등이 필요하다.

제 V 장

재외동포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2. 주요 조사결과
3. 소결

제 V 장

재외동포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분석¹⁶⁴⁾

1. 조사 개요

미래 한민족 공동체 발전의 중요한 자원으로 논의되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고·대학생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와 한민족에 대한 의식, 재외동포청소년의 동포사회와 한국 사회에서의 역할 기대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주관하여 2015년 7월 14일에서 2015년 8월 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실시된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고·대학생 청소년 800여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차 조사는 2015년 7월 14일에서 2015년 7월 21일 사이에 참가한 중고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2차 조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28일부터 2015년 8월 4일 사이에 조사가 실시되었다. 또한 3차 조사는 재중동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27일부터 2015년 8월 4일까지 진행되었다. 1, 2, 3차 모국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은 중·고등학생 602명, 대학생 249명 등 총 851명 이었다. 이들 조사 대상 중 최종 조사되어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575명에 대한 설문지였다.

조사내용은 재외동포 청소년 관련한 선행 연구와 전문가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와 관련된 재외동포 청소년 생활실태, 한민족 정체성, 한민족 청소년 간 교류 경험, 재외동포 청소년에 기대하는 역할, 동포사회나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한국에서의 교육·문화·취업 활동 참여에 관한 문항 등 총 22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문항의 구성은 델파이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래 인재가 궁극적으로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데 의미가 크다는 생각에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현재 가지고 있는 한민족정체성과

164) 이 장의 일부 내용은 연구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이슈브리프 제18호로 발간한 바 있음(“재외동포청소년의 주요 이슈이슈와 지원방안”, 2015년 11월 30일)

한민족 공동체 발전 기여에 대한 생각 등을 파악하여 향후 미래 인재로서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과 관련한 가정에서의 생활실태 파악에서부터 한민족 정체성의식, 그리고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향후 한민족 발전 기여에 대한 태도와 그와 관련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조사도구를 설계하였다.

조사자료는 재외동포청소년의 기본적인 정보 파악을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집단간 차이 분석을 위해 카이제곱검정과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재외동포청소년의 민족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V-1

설문조사 항목

조사 내용	문항번호	출처
배경변인	현재 거주 국가 및 지역, 출생년도, 성별, 신분, 현재 다니는 학교, 이민세대, 부모 한인 유무, 가족수입	1~8 조혜영, 문경숙, 박동성, 양한순, 최진숙 (2007)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가정생활 및 생활만족도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가정생활(한국어 사용, 한국음식 만들기, 한국 드라마나 뉴스 보기, 한국 관련 직업 희망, 한국 사람과 결혼 희망)	9(1~5) 조혜영, 문경숙, 박동성, 양한순, 최진숙 (2007) 연구진 개발
	거주국에서의 생활만족도	10 조혜영, 문경숙(2007)
장래희망	장래희망직업	11 송창용, 장현진, 김나라, 김민경, 윤수린, 박봉남(2014)에서 수정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12 송창용, 장현진, 김나라, 김민경, 윤수린, 박봉남(2014)
	장래 희망을 이루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13 연구진 개발
	장래희망을 이루는데 동포사회나 대한민국 정부에 필요한 지원	14 //
한국어능력 및 한민족정체성	한국어능력(말하기, 듣고 이해하기, 읽고 쓰기)	15(1~3) 이석인, 임영연(2011)
	한민족에 대한 생각(한민족 후손임이 자랑스러움,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 한민족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랑스러움, 한민족에 대한 잦은 대화, 동포사회 배경에 대한 이해, 한민족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공감)	16(1~6) 이석인, 임영연(2011) 성경룡(1999)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22 연구진 개발
동포청소년간 교류경험 및 한국 관련 교류 희망 정도	동포청소년 및 대한민국 청소년과의 교류 경험(동포청소년과의 만남, 동포청소년단체 사람들과의 연락 혹은 활동 경험, 거주국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 참여 경험)	17(1~4) 윤인진, 채정민(2007) 연구진 개발
	한국 관련 교류 욕구(한국청소년과의 교류, 연수프로그램 참여, 유학, 한국 관련 기업에서의 인터활동, 한국 관련 기업 취업, 한국 문화 경험)	20(1~6) 윤인진, 채정민(2007) 연구진 개발
	한국에서의 교육이나 취업 방해 요인	21 연구진 개발
재외동포청소년의 역할 기대 및 필요 지원	동포사회와 대한민국 사회의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역할 기대(거주국 동포사회 발전, 한국 문화 보급, 동포사회 단합, 한국 경제나 사회발전에 기여, 남북통일에 기여)	17(1~4) 연구진 개발
	동포사회나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한국 방문기회 제공, 프로그램 개발, 정보교류 활성화,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 주류사회 진출 지원, 민족교육 지원)	20(1~6) //

한민족정체성, 한국어사용, 교류희망, 교류경험, 역할기대, 부모관련 가정생활 등 주요 변인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새롭게 구성한 척도와 함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중 수정·보완한 문항에 대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표 V-2 측정도구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변수	측정문항	1	2	3	4	5	6	신뢰도	
정체성	identity2	.875	.086	.247	.140	-.400	.242	.890	
	identity3	.874	.082	.327	.155	-.471	.190		
	identity1	.831	.126	.349	.141	-.395	.090		
	identity6	.774	.312	.303	.329	-.508	.168		
	identity4	.756	.191	.357	.270	-.495	.238		
	identity	.668	.367	.216	.289	-.476	.118		
한국어사용능력	kolanguage 1	.152	.927	.052	.092	-.187	-.061	.913	
	kolanguage 2	.180	.908	.031	.135	-.215	-.054		
	kolanguage 3	.123	.777	.164	.252	-.200	-.021		
교류희망	interhope4	.296	.042	.886	.265	-.336	.266	.876	
	interhope5	.283	.004	.873	.252	-.341	.300		
	interhope3	.314	-.013	.855	.187	-.330	.189		
	interhope2	.469	.157	.737	.210	-.440	-.026		
	interhope1	.530	.163	.636	.133	-.490	.004		
	interhope6	.299	.286	.619	.133	-.423	.122		
교류경험	interexpi.2	.195	.269	.181	.822	-.298	.022	.759	
	interexpi.3	.162	.009	.159	.799	-.233	.149		
	interexpi.4	.262	.359	.164	.716	-.280	.084		
	interexpi.5	.179	-.084	.225	.693	-.109	.053		
역할기대	roleexpect.3	.439	.253	.333	.238	-.882	.010	.889	
	roleexpect.4	.424	.203	.358	.236	-.858	.125		
	roleexpect.2	.473	.126	.404	.179	-.829	.130		
	roleexpect.5	.406	.120	.348	.193	-.799	.165		
	roleexpect.1	.430	.160	.237	.216	-.781	.083		
부모 관련 가정 생활	부모 기대	parents5	.188	-.065	.218	.104	-.109	.770	.610
		parents4	.276	.061	.456	.197	-.265	.689	
	공동 활동	parents2	.290	.451	.008	.069	-.226	.546	.735
		parents1	.181	.811	-.033	.033	-.138	.154	
		parents3	.302	.709	.179	.121	-.361	.361	

요인분석에서 요인추출은 주성분분석방법을, 회전방식은 사각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수에서 요인적재량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들이 모두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관련 가정생활의 경우에는 부모의 기대와 부모와 함께하는 활동의 두 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요인에 대한 요인적재량은 0.6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체 변인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부모와 함께하는 공동활동은 한국어 사용능력과 같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한국어사용능력과 부모와의 한국어 대화, 부모와의 한국드라마, 뉴스, 노래 청취 등의 부모 공동활동은 언어 관련 영역이므로 같은 요인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이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 관련 가정생활을 중요한 영역으로 보고 있으므로 별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부모 관련 가정생활 중 공동활동과 부모기대의 경계에 있는 “부모님과 한국음식을 즐겨 만들어 먹는다”는 문항은 논리적으로 부모기대보다는 공동활동요인에 가까워 공동활동 요인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각 변수에 대한 신뢰도계수는 부모관련 가정생활 중 기대변인만 0.61이고, 나머지는 0.7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reliability)를 보이고 있었다.

2. 주요 조사결과

1) 조사응답자 특성

설문조사에 응답한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신지역 국가별로는 중국이 3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러시아 및 CIS(26.3%), 북미(14.8%), 기타 지역(9.2%), 남미(7.1%), 유럽(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에는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 동포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일본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일본 내에서 재일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서 소수만이 참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별도로 분석하지 못하고 기타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37.4%, 여자 청소년이 62.6%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4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학생(36.0%), 중학생(15.5%)의 순이었다. 학교유형은 거주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국제학교, 한국학교, 기타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는데, “거주국학교”가 7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국제학교”(12.3%), “한국학교”(3.7%) 등으로 나타났다.

표 V-3

응답 대상자의 특성

		빈도(N)	비율(%)
전체		575	100
출신 지역 국가	중국	208	36.2
	북미	86	14.8
	남미	40	7.1
	유럽	33	5.6
	러시아 및 CIS	149	26.3
	기타	54	9.2
	무응답	5	0.9
성별	남자	215	37.4
	여자	360	62.6
학교급	중학생	89	15.5
	고등학생	274	47.7
	대학생	207	36.0
	무응답	5	0.9
학교유형	거주국 학교	415	72.2
	한국학교	21	3.7
	국제학교	71	12.3
	기타	41	7.1
	무응답	27	4.7
이민세대	1.5세대	65	10.8
	2세대	88	15.3
	3세대 이상	188	32.7
	모른다	237	41.3
부모님 국적	아버지만 한인	30	5.2
	어머니만 한인	44	7.7
	두 분 다 한인	324	56.3
	두 분 다 한인 아님	174	30.3
	무응답	3	0.5
경제적 수준	매우 넉넉함	101	17.6
	약간 넉넉함	186	32.3
	부족하지도 넉넉하지도 않음	211	36.7
	약간 부족함	57	9.9
	매우 부족함	14	2.4
	무응답	6	1.0

이민세대별로는 자신의 이민세대를 모른다는 청소년들이 41.3%로 상당수 청소년들이 이민세대 의미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으며, “3세대 이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32.7%, “2세대”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5.3%, “1.5세대”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0.8%로 나타났다. 향후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이민세대를 이해하여 조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면접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모님 국적에 대해서는 “두 분 다 한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6.3%로 과반수이상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두 분 다 한인이 아닌 경우”(30.3%), “어머니만 한인”(7.7%), “아버지만 한인”(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포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서는 “넉넉하다”가 49.9% (“매우 넉넉하다” 17.6%, “약간 넉넉하다” 32.3%), “부족하지도 넉넉하지도 않다”가 36.7%, “부족하다”가 12.3% (“약간 부족하다” 9.9%, “매우 부족하다” 2.4%)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넉넉한 청소년이 그렇지 못한 청소년보다도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재외동포청소년의 의식 및 생활실태

(1)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가정생활 및 생활 만족도

①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가정생활

가정에서의 한국과 관련한 부모의 생활과 태도는 자녀들의 의식, 특히,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이석인, 임영언, 2011: 538)에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의 한국어 사용, 한국 음식 만들기, 한국 드라마, 뉴스 시청 및 노래 청취, 한국 관련 직업 희망, 한국 사람과의 결혼 희망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중국, 북미, 남미, 유럽, 러시아 및 CIS 등 거주 지역별로 볼 때,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가정생활은 전체적으로 한국 음식 만들기(4.12)가 가장 관련성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 드라마, 뉴스 시청 및 노래 청취(3.58), 한국어 사용(3.26) 등이었으며, 한국과 관련한 직업 희망(2.93)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가정생활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지역(4.19)과 북미 지역(4.04)의 청소년들이 중국(3.49), 남미(2.66), 러시아 및 CIS 지역(2.07)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한국어 사용을 훨씬 많이 하였으며, 한국음식 만들기는 대부분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이 즐겨 만들어 먹었으나 상대적으로 남미 지역 청소년(3.49)의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드라마, 뉴스 시청 및 노래 청취는 기타 지역(4.25)과 중국 청소년들(4.04)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럽(3.81), 북미(3.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희망은 러시아 및 CIS 지역(3.40)과 남미 지역 부모들(3.34)이 다른 지역의 부모들에 비해서 희망 정도가 높았고, 북미 지역의 부모들(2.12)은 희망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러시아 및 CIS 지역의 부모들(3.84)이 가장 희망 정도가 높았으며, 대부분의 지역의 부모들이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중국 지역의 부모들(2.72)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가정생활 (지역별)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전체	중국	북미	남미	유럽	러시아 및 CIS	기타	F값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3.26 (1.44)	3.49 (1.22)	4.04 (1.16)	2.66 (1.84)	4.19 (1.36)	2.07 (.89)	2.80 (.99)	46.22***
나와 부모님은 한국 음식을 즐겨 만들어 먹는다.	4.12 (1.03)	4.11 (1.01)	4.32 (.93)	3.49 (1.68)	4.25 (1.11)	4.07 (.79)	4.53 (.85)	5.28***
나와 부모님은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자주보거나 한국 노래를 자주 듣는다.	3.58 (1.33)	4.04 (1.10)	3.41 (1.42)	3.22 (1.65)	3.81 (1.28)	2.88 (1.15)	4.25 (1.21)	16.83***
부모님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	2.93 (1.20)	2.89 (1.14)	2.12 (1.05)	3.34 (1.41)	2.53 (1.27)	3.40 (1.08)	3.04 (1.18)	13.38***
부모님은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신다.	3.20 (1.32)	2.72 (1.27)	3.36 (1.36)	3.02 (1.56)	3.28 (1.58)	3.84 (.97)	3.04 (1.17)	12.32***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가정생활은 교급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3.74)이 고등학생(3.34), 대학생(2.97)보다 한국어 사용을 더 많이 하였으며, 한국음식 만들기와 한국 드라마, 뉴스 시청 및 노래 청취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生の 순으로 어릴수록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님이 한국 관련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대학생(3.09)이 가장 높았고, 중학생(3.08), 고등학생 (2.77)순이었고, 한국 사람과의 결혼도 대학생 (3.50), 중학생 (3.27), 고등학생(2.96)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어릴수록 한국어사용, 한국 음식 만들기, 뉴스나 드라마 시청, 음악 청취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한국과 관련한 행동을 많이 했으며, 직업이나 결혼과 같이 자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현재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대학생 시기에 더 많이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5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가정생활(교급별)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F값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3.74 (1.30)	3.34 (1.42)	2.97 (1.45)	8.07***
나와 부모님은 한국 음식을 즐겨 만들어 먹는다.	4.32 (1.05)	4.16 (.92)	4.00 (1.14)	2.26
나와 부모님은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자주보거나 한국 노래를 자주 듣는다.	3.82 (1.36)	3.70 (1.32)	3.33 (1.30)	4.69**
부모님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	3.08 (1.38)	2.77 (1.15)	3.09 (1.17)	3.51*
부모님은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신다.	3.27 (1.42)	2.96 (1.30)	3.50 (1.23)	7.07***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가정생활은 이민세대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한국어 사용, 부모님과 한국 음식 즐겨 만들기, 한국 드라마나 뉴스 시청 및 노래 청취의 경우에는 1.5세대 청소년들과 부모가 가장 많이 하였고, 그 다음으로 2세대, 3세대 이상의 순으로 세대가 진행될수록 가정에서 청소년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과 관련된 직업 희망의 경우에는 3세대 이상의 부모들이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5세대, 2세대의 순으로 나타나,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과 자녀에 대한 기대가 차이가 있었다.

표 V-6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가정생활(세대별)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1.5세대	2세대	3세대이상	모른다	F값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4.65 (.87)	3.78 (1.31)	2.45 (1.36)	3.33 (1.44)	54.6***
나와 부모님은 한국 음식을 즐겨 만들어 먹는다.	4.55 (.84)	4.26 (1.10)	3.85 (1.07)	4.17 (.96)	8.76***
나와 부모님은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자주보거나 한국 노래를 자주 듣는다.	4.18 (1.04)	3.42 (1.46)	3.18 (1.27)	3.80 (1.27)	12.95***
부모님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	2.94 (1.32)	2.53 (1.31)	3.11 (1.18)	2.94 (1.11)	4.72***
부모님은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신다.	3.42 (1.29)	3.11 (1.49)	3.23 (1.32)	3.15 (1.26)	.84

② 거주국 생활 만족도

거주국에서의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2점으로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북미 지역 청소년들(4.38)의 거주국에서의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럽(4.19), 기타 지역(4.08), 중국(3.88), 남미(3.46), 러시아 및 CIS(3.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혜영 외(2007: 65)의 연구에서의 결과와 그 순서에서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재외동포 청소년들 중에서 북미 지역 청소년들이 거주국 생활에 가장 만족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 V-7 거주국에서의 생활 만족도(지역별)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전체	중국	북미	남미	유럽	러시아 및 CIS	기타	F값
거주국에서의 생활 만족도	3.82 (.91)	3.88 (.81)	4.38 (.72)	3.46 (1.09)	4.19 (.78)	3.36 (.88)	4.08 (.80)	16.97***

거주국에서의 생활 만족도 또한 이민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세대 청소년들이 거주국에서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세대, 3세대 이상의 순으로 세대가 진행될수록 거주국에서의 생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 거주국 생활 만족도(이민세대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이민 세대	15세대	-	1.6	17.7	56.5	24.2	100.0	25.044 *
	2세대	2.3	2.3	17.0	43.2	35.2	100.0	
	3세대이상	3.2	6.5	30.3	42.7	17.3	100.0	
	모른다	1.7	3.8	30.4	40.4	23.8	100.0	

(2)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과 정체성 형성과의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이석인, 임영언, 2011: 539)를 토대로 한국어능력을 말하기, 듣기 및 이해하기, 읽기 및 쓰기의 3가지로 나누어 한민족정체성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한국어능력은 지역별, 교급별, 세대별로 한민족정체성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는 중국지역의 재외동포청소년들이, 교급별로는 중학생들이, 그리고 이민세대별로는 1.5세대들이 한국어능력이 가장 높았다. 한국어 능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국어 능력 중 말하기 능력과 듣기 및 이해하기 능력은 기타(4.57), 중국(4.18), 유럽(4.06), 북미(3.86), 러시아 및 CIS(2.49), 남미(2.45)의 순이었고, 읽기 및 쓰기 능력은 기타(4.37), 중국(4.15), 유럽(3.85), 러시아 및 CIS(3.30), 북미(3.29), 남미(2.7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을 제외하고는 중국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어능력이 가장 높음을 보이고 있다.

표 V-9 한국어 능력(지역별)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전체	중국	북미	남미	유럽	러시아 및 CIS	기타	F값
한국어를 말할 수 있다.	3.59 (1.37)	4.18 (1.08)	3.86 (1.16)	2.45 (1.63)	4.06 (1.14)	2.49 (1.04)	4.57 (.79)	50.33***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	3.77 (1.29)	4.36 (.93)	3.91 (1.08)	2.48 (1.68)	4.24 (.94)	2.79 (1.05)	4.65 (.76)	51.56***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다.	3.70 (1.35)	4.15 (1.25)	3.29 (1.21)	2.78 (1.61)	3.85 (1.40)	3.30 (1.25)	4.37 (.92)	15.78***

한국어능력을 교급별로 살펴보면, 말하기 능력, 듣고 이해하기 능력, 읽기 및 쓰기능력의 모든 한국어능력에서 중학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생, 대학생의 순서로 나타나, 어릴수록 한국어능력이 높다는 것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관련한 가정생활에서 한국어 사용을 중학생이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생, 대학생의 순서로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V-10 한국어 능력(교급별)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F값
한국어를 말할 수 있다.	3.82 (1.17)	3.77 (1.37)	3.29 (1.37)	7.35***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	4.10 (1.08)	3.92 (1.27)	3.44 (1.31)	9.30***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다.	3.65 (1.42)	3.90 (1.30)	3.49 (1.33)	6.73***

또한 한국어능력은 이민세대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말하기 능력, 듣고 이해하기 능력, 읽기 및 쓰기능력 등의 모든 영역에서 15세대의 한국어능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세대, 3세대이상 순으로 나타나, 세대가 진행될수록 한국어 능력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표 V-11 한국어 능력(이민세대별)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1.5세대	2세대	3세대이상	모른다	F값
한국어를 말할 수 있다.	4.56 (.78)	3.83 (1.25)	3.01 (1.41)	3.71 (1.30)	26.37***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	4.58 (.78)	3.99 (1.12)	3.21 (1.39)	3.90 (1.20)	24.08***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다.	4.27 (.93)	3.83 (1.32)	3.01 (1.40)	3.71 (1.37)	5.84***

(3) 장래 희망

① 장래 희망 직업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직업으로는 사업가(9.0%)와 의사(8.9%)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디자이너(8.0%), 교사(7.0%), 연구원(5.1%), 법조인(4.9%)과 회사원(4.9%), 엔지니어

(4.5%), 외교관(4.2%) 등이었으며, 장래 희망직업이 없다는 청소년도 7.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직업으로는 정치인, 운동선수, 사회복지사, 간호사, 약사, 비행기승무원, 비행기조종사, 경찰, 작가, 상담치료사, 건축가, 아나운서, 저널리스트, 심리학자, 금융권, 기자, 수의사, 만화가, 보험설계사, 군인, 영화제작자, 교수, 안무가, 귀금속공, 매니저 등이 있었다. 한국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교사, 연예인 등에 대한 희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송창용, 장현진, 김나라, 김민경, 윤수린, 박봉남, 2014: 102).

표 V-12 장래 희망 직업

구분	사업가	의사	디자이너	없음	교사	박사, 과학자 등 연구원	법조인	회사원	엔지니어	외교관
빈도(N)	52	51	46	42	40	29	28	28	26	24
비율(%)	9	8.9	8	7.3	7	5.1	4.9	4.9	4.5	4.2

구분	컴퓨터 프로그래머	연예인	음악가	회계사	공무원	요리사	번역가	기타	무응답	전체
빈도(N)	21	19	19	16	14	12	10	93	5	575
비율(%)	3.7	3.3	3.3	2.8	2.4	2.1	1.7	16.1	0.9	100

지역별로 장래 희망직업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에는 교사가 1순위였으나, 북미와 남미, 그리고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의사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유럽은 과학자가 1순위였고, 러시아 및 CIS지역의 경우에는 사업가가 1순위로 나타나, 지역 간 차이를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은 1순위가 교사였으며, 그 다음으로 디자이너(2순위), 사업가(3순위) 등의 순이었고, 북미는 1순위가 의사였고, 사업가(2순위), 엔지니어(3순위) 등의 순이었다. 남미지역의 경우에는 1순위가 의사, 2순위가 엔지니어, 3순위가 법조인 등이었고, 유럽의 경우에는 1순위가 과학자, 2순위가 법조인, 3순위가 없음, 4순위가 의사 등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및 CIS지역의 경우에는 1순위가 사업가, 2순위가 의사, 3순위가 디자이너 등이었고,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1순위가 의사, 2순위가 디자이너, 3순위가 없음, 4순위가 연예인 등으로 나타났다.

표 V-13 장래 희망 직업(국가별)

국가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중국	직업	교사	디자이너	사업가	없음	회사원	법조인	공무원	연예인	과학자	정치인
	비율(%)	10.6	10.1	7.7	7.2	6.7	5.8	5.3	4.8	3.9	2.4
북미	직업	의사	사업가	엔지니어	과학자	없음	교사	프로 그래머	약사	저널 리스트	요리사
	비율(%)	14.0	10.5	10.5	9.3	8.1	7.0	7.0	3.5	3.5	2.3
남미	직업	의사	엔지니어	법조인	요리사	외교관	없음	과학자	사회 복지사	프로 그래머	디자이너
	비율(%)	15	10	7.5	7.5	7.5	7.5	7.5	5.0	5.0	5.0
유럽	직업	과학자	법조인	없음	의사	사업가	외교관	디자이너	음악가	교사	회사원
	비율(%)	15.6	12.5	12.5	9.4	6.3	6.3	6.3	6.3	3.1	3.1
러시아 및 CS	직업	사업가	의사	디자이너	외교관	음악가	엔지니 어	번역가	교사	프로 그래머	없음
	비율(%)	16.7	11.6	8.7	7.2	5.8	5.1	5.1	4.3	4.3	4.3
기타	직업	의사	디자이너	없음	연예인	교사	법조인	회사원	공무원	간호사	엔지니어
	비율(%)	13.6	10.6	10.6	9.1	6.1	4.5	3.0	3.0	3.0	3.0

한편, 학교급별로 장래 희망직업을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에는 교사가 1순위였고, 그 다음으로 디자이너(2순위), 연예인(3순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고등생과 대학생의 경우에는 모두 1순위가 사업가, 2순위가 의사로 나타나, 중학생과 차이를 보였다.

표 V-14 장래 희망 직업(학교급별)

국가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중학생	직업	교사	디 자 이 너	연예인	없음	의사	프로 그래머	법조인	운동 선수	엔지니어	요리사
	비율(%)	12.4	11.2	9.0	9.0	7.9	5.6	4.5	4.5	4.5	4.5
고등 학생	직업	사업가	의사	없음	디 자 이 너	법조인	과학자	회사원	교사	외교관	연예인
	비율(%)	9.8	9.5	9.1	7.6	6.5	6.0	5.1	4.7	4.0	3.3
대학생	직업	사업가	의사	엔지니어	디 자 이 너	교사	외교관	음악가	회사원	프로 그래머	과학자
	비율(%)	11.1	8.7	7.2	6.7	6.7	5.8	5.8	5.8	3.8	3.8

②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30.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21.7%), “건강하게 사는 것”(10.4%),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9.7%), “돈을 많이 버는 것”(8.7%),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6.6%) 등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회 발전과 이웃에 대한 봉사보다는 개인의 발전과 가정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도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외동포청소년들과 한국 중·고등학생들의 인생에 대한 생각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창용 외, 2014: 110).

표 V-1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구분	빈도(N)	비율(%)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173	30.1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125	21.7
건강하게 사는 것	60	10.4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	56	9.7
돈을 많이 버는 것	50	8.7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38	6.6
종교생활을 하는 것	29	5.0
명예를 얻는 것	16	2.8
행복하게 사는 것	8	1.4
모름/무응답	7	1.2
나의가족	3	.5
기타	10	2.0
전체	575	100

③ 장래 희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장래 희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개인의 능력 부족”(39.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25.9%), “교육기회의 부족”(8.5%), “동포사회의 취약성”(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경쟁률이 심한 것”, “동기 부족”, “현재의 현재 취업률”, “게으름”, “가치관이 다른 것”, “노력 부족” 등이 있었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은 장래 희망을 이루는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을 사회나 국가보다는 개인의 능력이나 가정의 취약함 등에 보다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V-16 장래 희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

구분	빈도(N)	비율(%)
개인능력 부족	228	39.7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149	25.9
교육기회의 부족	49	8.5
모름/무응답	41	7.1
동포사회의취약성	32	5.6
없다	31	5.4
현재 살고 있는 사회의 차별	20	3.5
부모님의 관심 부족	12	2.1
장래희망이 자주 바뀌는 것	5	.9
지역/국가	2	.3
기타	6	1.2
모름/무응답	41	4.1
전체	575	100

(3) 한민족 정체성

① 한민족 정체성 정도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정체성을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 동포사회의 배경, 한민족의 사건이나 문제 등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재외동포청소년들은 한민족의 후손임과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동포사회의 배경에 대한 이해와 한민족 사건이나 문제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미지역 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인식 이외의 모든 정체성 영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중국지역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한민족의 후손임과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민족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남미지역(4.5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유럽(4.52), 기타지역(4.41), 러시아 및 CIS(4.35), 북미(4.27), 중국(4.19) 순이었다.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은 남미지역(4.30)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 지역(4.28), 유럽(4.15), 러시아 및 CIS(4.12), 북미(4.09), 중국(3.89) 등의 순이었다.

표 V-17 한민족 정체성(지역별)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전체	중국	북미	남미	유럽	러시아 및 CIS	기타	F값
한민족의 후손임이 자랑스럽다	4.31 (.89)	4.19 (.96)	4.27 (.97)	4.55 (.81)	4.52 (.71)	4.35 (.79)	4.41 (.81)	1.74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을 느낀다.	4.07 (.55)	3.89 (1.09)	4.09 (.92)	4.30 (1.02)	4.15 (.87)	4.12 (.81)	4.28 (.88)	2.33*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4.18 (.92)	4.04 (1.03)	4.16 (.90)	4.54 (.71)	4.16 (.85)	4.29 (.80)	4.19 (.98)	2.21*
다른 사람에게 한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한다.	3.69 (1.03)	3.71 (1.15)	3.42 (1.19)	3.98 (1.23)	3.55 (1.12)	3.69 (1.03)	3.87 (1.10)	1.66
나의 동포사회의 배경에 대해 잘 안다.	3.60 (1.06)	3.72 (1.03)	3.82 (1.08)	3.95 (1.30)	3.66 (1.00)	3.16 (.93)	3.74 (1.04)	6.72***
한민족의 사건이나 문제가 나의 일로 느껴진다.	3.62 (1.07)	3.64 (1.02)	3.55 (1.09)	3.73 (1.30)	3.97 (.78)	3.42 (.99)	3.89 (.91)	2.22*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남미지역(4.54)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러시아 및 CIS(4.29), 기타지역(4.19), 북미(4.16)와 유럽(4.16), 중국(4.0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민족과 관련한 대화는 남미지역(3.98), 기타지역(3.87), 중국(3.71), 러시아 및 CIS(3.69), 북미(3.42)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포사회의 배경에 대한 인식은 남미지역(3.95)과 북미지역(3.82)의 청소년들이 가장 높으나 러시아 및 CIS지역의 청소년들(3.16)이 가장 낮았으며, 한민족의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유럽(3.97), 기타 지역(3.89), 남미지역(3.73)의 청소년들의 인식이 높고 러시아 및 CIS지역 청소년들(3.42)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 한민족 정체성을 살펴보면, 한민족 정체성 영역 중에서 한민족의 사건이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생의 인식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생, 대학생의 순으로 나타나 어릴수록 한민족 정체성이 높음을 보이고 있다.

표 V-18 한민족 정체성(교급별)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F값
한민족의 후손임이 자랑스럽다	4.41 (.87)	4.34 (.83)	4.23 (.96)	1.25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을 느낀다.	4.25 (.91)	4.08 (.95)	3.98 (1.00)	1.76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4.27 (.91)	4.18 (.90)	4.14 (.95)	.51
다른 사람에게 한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한다.	3.85 (1.08)	3.61 (1.15)	3.73 (1.11)	1.31
나의 동포사회의 배경에 대해 잘 안다.	3.73 (1.08)	3.65 (1.03)	3.48 (1.09)	1.53
한민족의 사건이나 문제가 나의 일로 느껴진다.	3.86 (.99)	3.64 (1.08)	3.50 (1.08)	2.89*

이민세대별 한민족 정체성의 경우에도 한민족 정체성 영역 중에서 한민족의 사건이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1.5세대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2세대, 3세대이상의 순으로 나타나, 이민세대가 진행될수록 한민족 정체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1.5세대	2세대	3세대이상	모른다	F값
한민족의 후손임이 자랑스럽다	4.39 (.88)	4.35 (.97)	4.31 (.83)	4.28 (.90)	.79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을 느낀다.	4.26 (.79)	4.19 (.99)	4.04 (.97)	3.99 (1.00)	.14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4.37 (.81)	4.18 (.97)	4.24 (.84)	4.08 (.98)	.09
다른 사람에게 한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한다.	3.69 (1.14)	3.61 (1.28)	3.72 (1.02)	3.69 (1.15)	.91
나의 동포사회의 배경에 대해 잘 안다.	3.79 (1.05)	3.80 (1.12)	3.48 (1.06)	3.58 (1.06)	.06
한민족의 사건이나 문제가 나의 일로 느껴진다.	3.94 (.99)	3.76 (1.04)	3.49 (1.06)	3.58 (1.07)	.02*

② 한민족에 관심을 갖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한류를 통한 드라마나 K-POP”(26.3%)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교육”(18.8%), “개인적인 한국 방문”(15.3%), “주변 친구들의 관심과 대화”(8.7%), “한글학교 등에서의 교육”(8.3%), “한민족 캠프나 축제”(7.8%), “교환학생이나 한국방문 프로그램”(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류의 영향이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에 대한 관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모의 관심과 교육,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에의 참가 등이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V-20

한민족에 관심을 갖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빈도(N)	비율(%)
한류를 통한 드라마나 K-POP	151	26.3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교육	108	18.8
개인적 한국 방문	88	15.3
주변 친구들의 관심과 대화	50	8.7
한글 학교등의 한국어 교육	48	8.3
한민족 캠프나 축제	45	7.8
교환학생이나 한국 방문 프로그램	41	7.1
인터넷 사이트 방문이나 SNS활동	21	3.7
역사와 문화를 알고 있는 것	3	.5
기타	3	.6
무응답	17	3.0
합계	575	100

(4) 한민족 청소년 간 교류 경험

재외동포청소년들 간의 교류 경험을 동포청소년 간에 평상시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 동포청소년 단체 사람과의 연락과 활동 경험, 거주국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 참여 경험, 한국에서 열리는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교류 경험은 평상시 동포청소년들 간의 만남이나 연락(3.25)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동포청소년 단체 사람들과의 교류(3.06), 한국에서의 동포프로그램 참여 경험(2.87), 거주국에서의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 참여 경험(2.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재외동포청소년들 간의 교류 경험은 친구 등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주국이나 한국에서의 동포 청소년 캠프 참여 경험은 적으며, 특히 거주국에서의 캠프나 연수 기회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평상시 동포청소년들 간의 교류 경험은 유럽(3.66)이나 기타 지역(3.60)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데 비해 북미 청소년들(2.85)이 가장 적었으며, 동포청소년 단체 사람들과

의 교류 경험도 유럽지역의 청소년들(3.44)이 가장 많은데 비해 북미지역 청소년들(2.49)의 경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국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 참여 경험은 남미지역 청소년들(3.12)이 가장 많은데 비해, 북미지역(2.25)과 중국지역 청소년들(2.50)이 가장 적었으며, 한국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러시아 및 CIS지역 청소년들(3.44)이 가장 많고, 중국(2.39)이나 기타 지역 청소년들(2.64)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거주국에서의 교류경험은 상대적으로 유럽지역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서 북미지역 청소년들의 교류 경험은 가장 적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21 한민족 청소년 간 교류 경험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전체	중국	북미	남미	유럽	러시아 및 CIS	기타	F값
평상시 동포청소년들과 자주 만나거나 연락한다.	3.25 (1.31)	3.38 (1.34)	2.85 (1.39)	3.15 (1.62)	3.66 (1.29)	3.11 (1.04)	3.60 (1.52)	3.28**
동포청소년 단체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다.	3.06 (1.30)	3.25 (1.29)	2.49 (1.32)	2.88 (1.55)	3.44 (1.13)	3.03 (1.12)	3.21 (1.39)	4.35***
거주국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2.65 (1.44)	2.50 (1.45)	2.25 (1.32)	3.12 (1.72)	2.78 (1.52)	3.01 (1.27)	2.42 (1.51)	4.4***
한국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2.87 (1.54)	2.39 (1.49)	2.93 (1.62)	3.20 (1.72)	2.88 (1.72)	3.44 (1.27)	2.64 (1.56)	8.23***

재외동포청소년들 간의 교류 경험은 지역별 차이 이외에 이민세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포 청소년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이나 동포청소년단체와의 교류 경험은 1.5세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세대 이상, 2세대의 순이었으나, 거주국에서의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 참여 경험이나 한국에서의 동포청소년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3세대 이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5세대, 2세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포청소년들 간의 모든 교류 경험에서 3세대 이상보다도 2세대 청소년들의 교류 경험이 가장 적은 것은 눈여겨 볼만한 일이다. 1.5세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살다가 간 세대이기 때문에 동포청소년 간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세대 이상이 2세대보다도 교류 경험이 많은 것은, 본 연구의 일환으로 방문한 거주국 학교교사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한국사회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진 것과 더불어 과거에 비해서 동포청소년들의 주류사회 진출에 한민족 정체성이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인식이 교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표 V-22 한민족 청소년 간 교류경험 (이민세대별)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별로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1) 동포청소년들과 자주 만난다	1.5세대	20.0	-	-	60.0	20.0	100.0	35.111***
	2세대	23.9	19.3	18.2	13.6	25.0	100.0	
	3세대이상	9.7	22.2	25.4	25.4	17.3	100.0	
	모른다	8.8	21.2	22.1	27.1	20.8	100.0	
2) 동포청소년 단체와 연락하거나 활동한다	1.5세대	11.3	16.1	21.0	19.4	32.3	100.0	34.150**
	2세대	27.3	18.2	25.0	14.8	14.8	100.0	
	3세대이상	10.8	25.9	23.8	20.0	19.5	100.0	
	모른다	9.6	27.9	24.6	23.8	14.2	100.0	
3) 거주국 청소년 동포 캠프나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1.5세대	37.1	11.3	19.4	17.7	14.5	100.0	21.174*
	2세대	43.2	18.2	14.8	9.1	14.8	100.0	
	3세대이상	24.3	28.6	14.1	17.8	15.1	100.0	
	모른다	27.1	22.1	16.2	19.2	15.4	100.0	
4) 한국에서의 동포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1.5세대	37.1	9.7	11.3	9.7	32.3	100.0	32.130**
	2세대	34.1	17.0	12.5	10.2	26.1	100.0	
	3세대이상	24.9	15.1	11.9	29.7	18.4	100.0	
	모른다	32.1	12.9	18.3	18.8	17.9	100.0	

(5) 재외동포 청소년에 기대하는 역할

미래 동포사회의 주역이 될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사회 및 동포에 대한 인식은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향후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동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거주국에서의 성공을 통한 동포사회의 발전, 동포사회와의 교류를 통한 동포사회의 단합,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가교 역할을 통한 남북통일에의 기여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은 동포사회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동포사회의 단합에 대한 역할(3.60)을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생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남북통일에의 기여(3.51), 동포사회 발전에의 기여(3.40)의 순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동포사회의 발전에 대해서 중국(3.98), 유럽(3.75), 북미(3.73), 러시아 및 CIS (3.70), 남미(3.51), 기타(3.36) 등의 순으로 자신들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동포사회의 단합에 대해서는 중국(3.91), 유럽(3.81), 남미(3.73), 기타(3.71), 북미(3.64), 러시아 및 CIS(3.43) 등의 순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남북통일에의 기여에 대해서는 남미(3.78), 중국(3.69), 러시아 및 CIS(3.49), 기타(3.38), 북미(3.24), 유럽(3.1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3 재외동포 청소년에 기대하는 역할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전체	중국	북미	남미	유럽	러시아 및 CIS	기타	F값
현재 살고 있는 나라에서 성공해서 동포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3.40 (1.14)	3.98 (1.01)	3.73 (1.02)	3.51 (1.36)	3.75 (.65)	3.70 (.80)	3.36 (1.11)	3.76**
현재 살고 있는 나라에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다.	3.77 (.98)	3.87 (1.05)	3.53 (.98)	4.03 (1.05)	3.85 (1.00)	3.72 (.83)	3.60 (.92)	1.81
다른 동포사회와 교류하여 동포사회를 단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60 (1.02)	3.91 (1.05)	3.64 (1.01)	3.73 (1.16)	3.81 (.86)	3.43 (.94)	3.71 (.93)	3.45*
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경제나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66 (1.02)	3.78 (1.05)	3.56 (.98)	3.75 (1.34)	3.55 (.91)	3.54 (.96)	3.67 (.95)	1.14
국제사회에서 가교 역할을 통해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	3.51 (1.02)	3.69 (1.17)	3.24 (1.16)	3.78 (1.19)	3.13 (1.07)	3.49 (.78)	3.38 (1.06)	3.04*

전체적으로 볼 때, 동포사회 발전, 동포사회 단합, 남북통일에의 기여 등 중국 동포청소년들의 동포사회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남미지역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남북통일에의 기여에 대한 역할 인식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과 북미지역의 동포청소년들은 동포사회의 발전과 동포사회 단합에서의 역할 인식은 비교적 높았으나 남북통일에의 기여에 대한 역할 인식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러시아 및 CIS지역 동포청소년들은 동포사회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는 비교적 높았으나 동포사회 단합과 남북통일에의 역할 기대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 지역별로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향후 지역별 재외동포청소년 육성 방향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북통일에의 기여에 대한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인식은 이민세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3세대 이상이 이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5세대, 2세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3세대 이상의 동포청소년들은 동포청소년들 간의 교류에 대한 관심이 큰 것과 함께 남북통일에서의 자신의 기여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V-24 재외동포 청소년에 기대하는 역할 - 남북통일에 기여 할 수 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이민세대	1.5세대	4.8	12.9	38.7	29.0	14.5	100.0	35.752**
	2세대	11.4	20.5	27.3	17.0	23.9	100.0	
	3세대이상	2.7	13.5	29.7	29.2	24.9	100.0	
	모른다	1.2	12.5	37.5	22.5	26.2	100.0	

(6) 동포사회나 한국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요인 및 필요한 지원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소년 “개인의 능력 개발 지원”(24.5%)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지원”(21.2%), “문화교류 지원”(18.6%), “거주국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14.8%), “민족교육 기회의

제공”(13.9%) 등의 순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원으로는 “차별 철폐”, “장학금 지원”, “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한국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 “더 큰 세상과 생각을 키워 주는 것”, “구직 지원” 등이 있었다.

표 V-25 재외동포 청소년의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와 관련된 요인

구분	빈도(N)	비율(%)
능력 개발 지원	141	24.5
경제적 지원	122	21.2
문화 교류 지원	107	18.6
현재 사는 국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85	14.8
민족 교육 기회의 제공	80	13.9
없다	16	2.8
교육지원	2	.3
기타	6	1.2
모름/무응답	16	2.8
합계	575	100.0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동포사회나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 지원(4.40)과 한국 방문기회 제공(4.40)이 가장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재외동포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4.18)과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4.18), 민족교육 지원(4.14), 거주국 동포청소년들과의 정보 교류(4.13) 등의 순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포사회나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주류사회 진출과 민족교육 지원에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에 대한 지원은 기타 지역 청소년들(4.40)이 가장 원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국(4.11), 남미(4.03), 북미(3.84), 유럽(3.79), 러시아 및 CIS(3.65)의 순이었다. 민족교육에 대한 지원은 중국동포청소년들(4.31)이 가장 원했으며, 그 다음으로 남미(4.27), 러시아 및 CIS(4.10), 유럽(4.06), 기타(4.00), 북미(3.8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26

동포사회나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전체	중국	북미	남미	유럽	러시아 및 CIS	기타	F값
한국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한다.	4.40 (.90)	4.19 (1.02)	4.09 (.84)	4.35 (.80)	4.06 (1.03)	4.21 (.70)	4.13 (.99)	.59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4.18 (.86)	4.25 (.99)	4.08 (.84)	4.23 (.83)	4.27 (.80)	4.07 (.65)	4.19 (.89)	.97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동포청소년들과의 정보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4.13 (.91)	4.24 (1.01)	3.99 (.85)	4.38 (.71)	4.09 (.84)	4.01 (.79)	4.17 (1.00)	1.87
한국의 청소년들과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4.18 (.88)	4.31 (.94)	4.09 (.86)	4.25 (.84)	4.21 (.78)	4.07 (.79)	4.06 (.94)	1.68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주류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4.40 (.55)	4.11 (1.04)	3.84 (1.00)	4.03 (1.06)	3.79 (1.10)	3.65 (.92)	4.40 (.55)	3.51**
한민족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도록 민족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4.14 (.90)	4.31 (.92)	3.87 (.98)	4.27 (1.00)	4.06 (1.01)	4.10 (.72)	4.00 (.94)	3.61**

또한 동포사회나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성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과 거주국 동포들과의 정보교류 지원, 그리고 한국청소년과의 교류 지원을 보다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7

동포사회나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성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남성	1.4	1.9	23.7	37.2	35.8	100.0	16.874**
	여성	0.6	3.1	11.7	39.7	45.0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동포청소년들과의 정보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남성	1.9	0.9	24.2	35.8	37.2	100.0	12.183**
	여성	1.9	2.8	13.6	38.6	43.1		
한국의 청소년들과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남성	0.9	1.9	23.7	33.5	40.0	100.0	13.400**
	여성	0.8	3.9	12.5	37.8	45.0		

(7) 한국에서의 교육, 문화, 취업 활동 참여

① 한국에서의 교육, 문화, 취업활동 참여 욕구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서의 교육, 문화, 취업활동과 관련한 참여 욕구는 한국에서의 연수, 유학, 기업 인턴활동, 한국이나 한국 관련 기업 취업, 다양한 한국문화 경험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 한국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높았는데, 특히, 한국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참여(4.15)와 다양한 한국문화 경험(4.06)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참여 욕구를 살펴보면, 한국 연수 프로그램의 경우에 유럽(4.47), 남미(4.39), 러시아 및 CIS(4.27) 등의 청소년들의 참여 욕구가 높았으며, 한국에서의 유학, 한국 기업 인턴활동 및 한국 기업 취업에 대해서는 특히 남미와 러시아 및 CIS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 욕구가 높았고, 북미지역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참여 욕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한국 문화 경험 활동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의 동포청소년들의 참여 욕구가 높았으나, 특히, 유럽(4.34), 남미(4.24), 중국(4.22) 등의 동포청소년들의 참여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8 한국에서 교육, 문화, 취업활동 참여 욕구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전체	중국	북미	남미	유럽	러시아 및 CIS	기타	F값
한국에서 청소년과 교류하고 싶다.	4.26 (.85)	4.23 (.94)	4.23 (.85)	4.58 (.59)	4.42 (1.03)	4.23 (.69)	4.20 (.90)	1.28
한국에서 연수프로그램 참여하고 싶다.	4.15 (.98)	4.04 (1.11)	3.96 (1.02)	4.39 (.89)	4.47 (.76)	4.27 (.77)	4.11 (.99)	2.35*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다.	3.67 (1.25)	3.52 (1.31)	3.22 (1.31)	4.22 (1.17)	3.53 (1.41)	4.05 (.94)	3.60 (1.21)	6.48***
한국이나 한국 관련 기업에서 인턴활동을 하고 싶다.	3.75 (1.15)	3.57 (1.25)	3.39 (1.25)	4.15 (1.11)	3.78 (1.07)	4.07 (.89)	3.79 (1.07)	5.34*
한국이나 한국관련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다.	3.60 (1.24)	3.44 (1.30)	2.91 (1.32)	4.15 (1.13)	3.53 (1.22)	4.03 (.92)	3.79 (1.10)	10.61***
한국의 다양한 문화(역사, K-POP 공연 등)를 경험하고 싶다.	4.06 (1.09)	4.22 (1.10)	3.91 (1.19)	4.24 (1.06)	4.34 (.87)	3.79 (1.02)	4.06 (1.06)	3.27**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문화의 보급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서의 연수, 교육 및 취업 등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동포청소년들 간에 참여 욕구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동포청소년의 개인적 성향과 더불어 거주국에서의 교육 및 취업 기회 등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특히 남미와 러시아 및 CIS지역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에서의 인턴활동이나 취업과 관련해서는 이민세대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세대 이상의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 기업에서의 인턴 및 취업에 대한 욕구가 1.5세대나 2세대 재외동포청소년들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다양한 문화 경험에 대해서는 성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서 그 욕구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9 한국에서 교육, 문화, 취업활동 참여 욕구 (이민세대별, 성별 차이)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한국이나 한국 관련 기업에서 인턴활동을 하고 싶다.	1.5세대	8.1	8.1	33.9	17.7	32.3	100.0	20.967*
	2세대	5.7	13.6	31.8	22.7	26.1	100.0	
	3세대이상	3.2	5.4	23.2	33.0	35.1	100.0	
	모른다	3.8	12.5	23.8	24.6	35.4	100.0	
한국이나 한국관련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다.	1.5세대	9.7	19.4	30.6	12.9	27.4	100.0	24.607**
	2세대	12.5	18.2	29.5	13.6	26.1	100.0	
	3세대이상	4.9	8.6	28.6	23.8	34.1	100.0	
	모른다	4.6	12.5	23.8	25.0	34.2	100.0	
한국의 다양한 문화(역사, K-POP 공연 등)를 경험하고 싶다.	남성	4.2	7.4	28.8	20.5	39.1	100.0	30.327***
	여성	1.4	7.8	12.5	26.7	51.7	100.0	

② 한국에서의 교육이나 취업 방해 요인

한국에서의 교육이나 취업에 방해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것”(29.7%)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한국의 교육 및 취업 정보 부족”(18.8%), “한국에서의 교육 및 취업 기회 부족”(17.0%), “한국 국적이 없는 것”(13.6%),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9.6%)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한국에서의 교육이나 취업에서 한국어 능력과 교육 및 취업 정보 등이 중요함을 보이고 있다.

표 V-30 한국에서의 교육이나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

구분	빈도(N)	비율(%)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것	171	29.7
한국의 교육과 취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108	18.8
한국에서 교육받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	98	17.0
한국 국적이 없는 것	78	13.6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55	9.6
없다	12	2.1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것	11	1.9
사회가 항상 경쟁하는 것	3	.5
기타	19	3.8
모름/무응답	20	3.5
합계	575	100

3) 재외동포 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간의 강한 상관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한 결과 모두 1.26~1.72으로 나타나, 회귀모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 결과는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활동(B=0.24), 한국과 관련한 부모의 기대(B=0.22), 교류경험(B=0.23), 교류욕구(B=0.36), 대학생 더미변수(B=-0.12)가 한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은 33.3%의 설명력을 보였다.

표 V-31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B	SE	B	T	p
(상수)	19.956	.822		24.263	.000
한국어능력	.036	.063	.027	.572	.568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활동	1.188	.234	.244	5.074	.000
한국과 관련한 부모의 기대	1.065	.187	.219	5.680	.000
교류경험	.263	.044	.231	6.041	.000
교류욕구	.335	.036	.357	9.182	.000
더미대학생	-1.183	.519	-.117	-2.278	.023
더미고등학생	-.799	.495	-.082	-1.612	.107
N= 575		F=42.942	p=.000	R ² = .333	

즉, 가정에서 부모와 한국어 사용, 한국음식 만들기, 한국드라마나 뉴스 보기 등을 많이 할수록 한민족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한국 관련 직업과 한국 사람과의 결혼에 대한 희망이 높을수록 한민족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포청소년과의 만남, 동포청소년단체활동, 캠프나 연수참여 경험 등 동포청소년 및 대한민국 청소년과의 교류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한국청소년과의 교류, 연수프로그램 참여, 유학, 인턴, 취업, 문화경험 등 한국 관련 교류 욕구가 높을수록 한민족 정체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더미변수의 경우에는 한민족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생의 민족정체성이 중학생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한국어, 한국 음식, 한국음악 등의 사용, 그리고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인식 등 부모의 한민족과 관련한 생각과 역할이 중요하며, 동포청소년 및 한국청소년과의 교류 및 캠프 활동과 한국에서의 교육·연수·취업인턴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재외동포 청소년의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와 관련된 요인

재외동포청소년의 한국사회 발전의 기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간의 강한 상관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한 결과 모두 1.07~1.40으로 나타나, 회귀모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분석 결과는 교류경험(B=0.09), 교류욕구(B=0.27), 정체성이 한민족 정체성(B=0.41)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은 40.7%의 설명력을 보였다.

표 V-32 재외동포청소년의 한국사회 발전 기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분	B	SE	B	T	p
(상수)	2.976	.814		3.659	.000
한국어능력	.072	.039	.062	1.852	.065
교류경험	.085	.035	.085	2.431	.015
교류욕구	.224	.031	.271	7.261	.000
정체성	.357	.034	.405	10.651	.000
N= 575 F= 97.837 p=.000 R ² = .407					

즉, 동포청소년과의 만남, 동포청소년단체활동, 캠프나 연수참여 경험 등 동포청소년 및 대한민국 청소년과의 교류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한국청소년과의 교류, 연수프로그램 참여, 유학, 인턴, 취업, 문화경험 등 한국 관련 교류 욕구가 높을수록 한국사회 발전의 기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민족 정체성이 높을수록 한국사회 발전의 기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향후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소년 간, 그리고 한국청소년과의 교류활동과 한민족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3. 소결

재외동포재단 주관 프로그램으로 2015년 7월 14일에서 8월 4일 사이에 한국을 방문한 전세계 중·고·대학생 동포청소년 851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한민족정체성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 851명 중 최종 575명의 자료가 조사·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중국 동포청소년이 36.2%, 러시아 및 CIS지역 동포청소년이 26.3%, 북미 동포청소년이 14.8%, 기타지역 동포청소년이 9.2%, 남미지역 동포청소년이 7.1%, 유럽지역 동포청소년이 5.6%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가정생활은 한국음식 만들기(4.12), 뉴스시청 및 노래 청취(3.58), 한국어사용(3.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럽지역과 북미지역 동포청소년들이 가정에서 한국어 사용을 가장 많이 하였고, 한국 드라마, 뉴스 시청 및 노래 청취는 중국지역 동포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관련된 직업과 한국 사람과의 결혼에 대한 희망도는 러시아 및 CIS지역 부모들이 가장 높았으나 북미지역 부모들은 한국 관련된 직업에 대한 희망도가 가장 낮았고, 중국지역 부모들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과의 결혼에 대한 희망도가 가장 낮았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거주국에서의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2점으로 비교적 만족도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북미(4.38), 유럽(4.19), 기타 지역(4.08), 중국(3.88), 남미(3.46), 러시아 및 CIS(3.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민세대별로는 1.5세대, 2세대, 3세대 이상의 순으로 세대가 진행될수록 거주국에서의 생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기, 듣기 및 이해하기, 읽기 및 쓰기 등의 한국어능력은 지역별로는 중국지역의 재외동포청소년들이, 교급별로는 중학생들이, 그리고 이민세대별로는 1.5세대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직업으로는 사업가(9.0%), 의사(8.9%), 디자이너(8.0%), 교사(7.0%), 연구원(5.1%), 법조인(4.9%)과 회사원(4.9%), 엔지니어(4.5%), 외교관(4.2%) 등으로 나타나, 한국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 교사, 연예인 등에 대한 희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30.1%),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21.7%), “건강하게 사는 것”(10.4%),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9.7%), “돈을 많이 버는 것”(8.7%),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6.6%) 등으로, 사회 발전과 이웃에 대한 봉사보다는 개인의 발전과 가정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장래 희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개인의 능력 부족”(39.7%),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25.9%), “교육기회의 부족”(8.5%), “동포사회의 취약성”(5.6%) 등의 순으로, 사회나 국가보다는 개인의 능력이나 가정의 어려움을 어려운 요인으로 보았다.

한민족 정체성과 관련해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은 한민족의 후손임과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동포사회의 배경에 대한 이해와 한민족 사건이나 문제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남미지역 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인식 이외의 모든 정체성 영역에서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중국지역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한민족의 후손임과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에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은 “한류를 통한 드라마나 K-POP”(26.3%),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교육”(18.8%), “개인적인 한국 방문”(15.3%), “주변 친구들의 관심과 대화”(8.7%), “한글학교 등에서의 교육”(8.3%), “한민족 캠프나 축제”(7.8%), “교환학생이나 한국방문 프로그램”(7.1%) 등으로, 한류와 부모의 교육 등이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에 대한 관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교류 경험은 평상시 동포청소년들 간의 만남이나 연락(3.25), 동포청소년 단체 사람들과의 교류(3.06), 한국에서의 동포프로그램 참여 경험(2.87), 거주국에서의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 참여 경험(2.65)의 순으로 나타나, 친구 등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거주국에서의 교류경험은 상대적으로 유럽지역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서 북미지역 청소년들의 교류 경험은 가장 적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은 동포사회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동포사회의 단합에 대한 역할(3.60), 남북통일에의 기여(3.51), 동포사회 발전에의 기여(3.40)의 순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동포사회 발전, 동포사회 단합, 남북통일에의 기여 등에 대한 중국 동포청소년들의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남미지역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남북통일에의 기여에 대한 역할 인식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동포사회나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 지원(4.40)과 한국 방문기회 제공(4.40), 재외동포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4.18)과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4.18), 민족교육 지원(4.14), 거주국 동포청소년들과의 정보 교류(4.13) 등의 순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서의 교육, 문화, 취업활동과 관련한 참여 욕구는 대부분 한국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높았는데, 특히, 한국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참여(4.15)와 다양한 한국문화 경험(4.06)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한국 연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유럽(4.47), 남미(4.39), 러시아 및 CIS(4.27) 등의 청소년들의 참여 욕구가 높았고, 한국에서의 유학, 한국 기업 인턴활동 및 한국 기업 취업에 대해서는 남미와 러시아 및 CIS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 욕구가 높았고, 한국 문화 경험 활동의 경우에는 유럽(4.34), 남미(4.24), 중국(4.22) 등의 동포청소년들의 참여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활동, 한국과 관련한 부모의 기대, 교류경험, 교류욕구, 대학생 더비변수가 한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은 33.3%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가정에서 부모와 한국어 사용, 한국음식 만들기, 한국드라마나 뉴스 보기 등을 많이 할수록, 한국 관련 직업과 한국 사람과의 결혼에 대한 희망 정도가 높을수록 한민족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포청소년과의 교류 경험과 연수프로그램 참여, 유학, 인턴, 취업, 문화경험 등 한국 관련 교류 욕구가 높을수록 한민족 정체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가정에서의 역할과 동포청소년 간, 그리고 한국과의 교류 기회가 확대될 필요성을 보이고 있다.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 공동체 발전의 기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교류경험, 교류욕구, 한민족 정체성이 한국사회발전 기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은 40.7%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동포청소년 및 대한민국 청소년과의 교류 경험이 많을수록, 한국 관련 교류 욕구가 높을수록, 그리고 한민족 정체성이 높을수록 한국사회 발전의 기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소년 간, 그리고 한국청소년과의 교류활동과 한민족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제 VI 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제 VI 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이 연구에서는 글로벌 시대의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인재 개발 전략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재외동포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 청소년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고, 나아가서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영역에서 한민족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미래 인재 및 재외동포 청소년의 개념 파악, 재외동포 청소년 및 관련 기관 현황 파악, 국내·외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분석, 재외동포 청소년 조사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 청소년 조사도구 개발 및 시범조사, 미래 인재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문가 및 워크숍 실시, 외국 사례조사, 델파이조사, 청소년 설문조사 등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1) 외국 사례조사 결과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 등 5개 국가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을 검토하여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미국에서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은 크게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에서 미국부모에게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와 미국에서 태어나서 거주하다 학업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간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해외에 어학연수 등 학업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가는 학생들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매우 중요한 집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들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정부 및 민단단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정부 지원 학교 운영 프로그램 및 사업은 국무부의 해외학교부에서 수행되고 있다. 지역마다 협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있는 미국학교의 행정, 교육, 기술, 재정, 교육, 직원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돕고 있다. 보다 많은 학생, 교사 및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별 지원보다는 지역별로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해외미국시민(ACA), 해외미국여성연맹(FAWCO), 파리장기거주미국여성모임(AAWE), 그리고 해외미국인협회(AARO)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메리카나 프로그램(Americana Program)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중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은 중국 국적인 화교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외국 국적인 화인 및 화예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화교화인 업무의 총괄은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한 국무원 교무관공실이 담당하고 있으며, 교무관공실은 중국내 지방 조직으로 체계화 되어 있으나 해외 화교화인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추진은 정부 기관인 국무원 교무관공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해외의 화교화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추진은 중국해외교류협회(中国海外交流协会), 중국화문교육기금회(中国华文教育基金会) 등의 사회단체 육성과 역할 분담을 통해 집행하고 있다. 중국 내 화문교육기지와 해외 화문교육시범학교는 교육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화교화인사회와의 지역적 매개를 통해 교육·문화 사업들을 추진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화교화인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중화(中华)문화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화인소년작문대회(华人少年作文比赛), 중국뿌리찾기여행(中国寻根之旅), 중화문화대낙원(中华文化大乐园), 해외화예청소년중문노래대회(海外华裔青少年中文歌曲大赛), 해외화예청소년중화문화대회(海外华裔青少年中华文化大赛) 등이 있다. 화교화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중화문화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거주국 지역별 대회와 중국에서 개최되는 대회로 이어지며, 유형별로도 언어, 작문, 춤과 무용, 노래 등 다양하다.

일본의 해외일계인 청소년 정책은 외국국적 일계인보다는 기본적으로 일본국적자인 재외방인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해외거주 외국국적 일계인 청소년 정책에 대하여 민간단체사업은 JICA의 일부사업으로 계승해 오고 있다. 일본정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일본국민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부과학성과 외무성은 일본헌법이 정하는 교육의 기회균등 및 의무교육무상의 정신에 따라 해외자녀교육의 충실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재외교육시설에 교원과견, 교재정비보조 및 귀국학생의 수용과 관련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무성에서는 재외교육시설의 건물임대료 및 현지채용 교원 사례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청소년에 관한 주요 프로그램은 해외유학촉진정책,

재외방인 및 해외 일계인 청소년교류프로그램 등이 있다. 재외방인 및 해외 일계인 청소년 교류프로그램은 내각부 청소년 사회활동 핵심리더 육성 프로그램, 외무성 가케하시 프로젝트 (KAKEHASHI Project), 개발도상국 청소년지원 연수사업, 재미일계인 학생 초청사업 등이 있다.

재외독일동포청소년 정책은 독일국적을 보유한 채 일정 기간 국외에 체류 중인 재외독일국민,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 본인 내지 자녀,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자녀’등 대상에 따라서 정책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방추방자법’상의 ‘(후기)재이주자’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독일동포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초점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통합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사회로의 편입 내지 통합을 적극 지원하는 데에 맞추고 있다. 외무성 지원의 해외학교 정책은 독일 문화적인 정체성 보존을 위해 독일어교육이 핵심이 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재외독일인 문화교류 협회와 재외독일인과 함께하기 재단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독일인과 모국인 독일 사이의 ‘문화적 매개자’로서 외국국적 독일동포 청소년 및 그들 공동체의 언어, 문화, 습속 등의 유지와 장려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재외동포정책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스라엘로의 이주 후 정착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마련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외동포 관련 정부정책은 유대인의 국내이주를 돕기 위한 이민자 수용부와 해외 디아스포라를 관리하기 위한 디아스포라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유대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의 대표적인 이스라엘 체험 프로그램은 타글릿(Taglith, Birthright) 프로그램, 니쉬(niche) 프로그램, 야브네 올라미(Yavneh Olami), 키부츠 프로그램 등이 있다. 공동체와 직업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이스라엘 테크 챌린지 (Israel Tech Challenge), 글로벌 체인지 에이전트(Global Change Agents), 마콘 젊은 지도자 훈련(Machon Youth Leadership Training) 등이 있으며, 히브리어와 대학입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나알레(Na'ale), 마사 이스라엘 프로그램(Masa), 메키나(Mechina)와 타카(Taka), 키부츠 울판, 울판 키네렛(Ulpan Kinneret), 울판 에찌온 네트워크(Ulpan Etzion Network) 등이 있다. 또한 상담 및 군복무 지원 프로그램으로 헤벤 센터(Hechven Center), 커넥트 이스라엘(Connect Israel), 가린 짜바르(Garin Tzabar)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델파이조사 결과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인재상과 주요 정책과제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학계, 현장 및 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차 조사는 4월 13일에서 4월 17일까지, 그리고 2차 조사는 4월 27일에서 5월 1일까지 실시되었다. 1차에서는 30명 중 26명이 응답하였으며, 2차에서는 25명이 응답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재외동포사회와 재외동포청소년과 관련된 지역별 현재 이슈, 지역별 미래 이슈, 재외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상과 미래인재로서 필요한 능력, 정부정책의 문제점 및 정책 방향, 미래인재 개발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과제, 미래인재 개발을 위한 동포사회가 제공해야 할 지원 등에 대해서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의견조사에서 제시된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각 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동의 정도와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을 작성하여 재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동포사회별로 이슈의 차이는 있었지만,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슈는 곧 미래의 이슈가 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동포사회의 경우에는 주류사회 진출이 최대의 이슈였으나, 중국 동포사회는 조선족학교 폐교 등으로 인한 민족교육 지원, 일본 동포사회는 험한 여론으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독립국가연합 동포사회는 거주국의 경제침체로 인한 안정적 정착과 경제적 성공의 어려움이 가장 큰 이슈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슈는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따라서 미국에서는 현지 주류사회 진출이 미래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고, 중국은 연변 자치구 유지 문제가, 일본의 경우에는 험한류 및 재일외국인 배외주의 문제가, 그리고 독립국가연합의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과 동포들의 재정착의 문제 등이 미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았다. 동포사회 공통적으로는 동포사회 권리 신장과 주류사회 진출, 동포사회 통합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문제가 현재의 이슈이고,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 권리 신장 및 정치참여를 통한 주류사회 진출이 동포사회 공통의 미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았다.

재외동포청소년과 관련 이슈도 동포사회 이슈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소년 공통적인 현재 이슈는 차세대 민족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 등이었다. 국가별로는 재미동포청소년의 최대의 현재 이슈는 주류사회 진출이었고, 재중동포청소년은 민족정체성 유지, 재일동포청소년은 험한류 등 재일외국인 배외주의 극복, 그리고 고려인동포청소년은 한국 유학 및 연수 기회로 나타났다. 또한 재외동포청소년

의 미래 이슈는 공통적으로 한민족교육의 확대, 한민족 정체성 강화, 모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주류사회 진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는 재미동포청소년의 경우에 모국과 거주국에서의 조화로운 역할과 가치관 정립이 최대 이슈이고, 재중·재일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한민족 정체성 유지가, 그리고 고려인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과의 교류기회 확대가 가장 큰 미래 이슈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소년의 미래의 인재상은 세계시민의식과 글로벌 경쟁력, 갈등해결과 의사소통능력, 사회적 책임의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인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거주국에서 적응하면서 겪는 문화적 소외감과 정체성 문제, 한민족교육 인프라의 부족,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비전 부재 등이 재외동포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성장하게 하는데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외동포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비전과 장기적인 정책의 부족, 정책 수행의 컨트롤타워의 부족, 국가별 차별적인 정책의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재외동포청소년을 미래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소년 육성에 대한 비전과 중장기 정책의 수립, 동포사회 국가별 특성에 적합한 정책의 수립, 정부정책 시행을 위한 컨트롤타워와 국내·외 지원 조직 및 시설의 구축, 관련 법·제도 개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설문조사 결과

미래 한민족 공동체 발전의 중요한 자원으로 논의되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고·대학생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와 한민족에 대한 의식, 재외동포청소년의 동포사회와 한국 사회에서의 역할 기대 등을 조사하였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주관하여 2015년 7월 14일에서 8월 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실시된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고·대학생 청소년 851여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조사되어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575명에 대한 설문지였다. 조사내용은 재외동포 청소년 관련한 선행 연구와 전문가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와 관련된 재외동포 청소년 생활실태, 한민족 정체성, 한민족 청소년 간 교류 경험, 재외동포 청소년에 기대하는 역할, 동포사회나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한국에서의 교육·문화·취업 활동 참여에 관한 문항 등 총 22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재외동포재단 주관 프로그램으로 2015년 7월 14일에서 8월 4일 사이에 한국을 방문한 전세계 중·고·대학생 동포청소년 851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한민족정체성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 851명 중 최종 575명의 자료가 조사·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 중국 동포청소년이 36.2%, 러시아 및 CIS지역 동포청소년이 26.3%, 북미 동포청소년이 14.8%, 기타지역 동포청소년이 9.2%, 남미지역 동포청소년이 7.1%, 유럽지역 동포청소년이 5.6%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가정생활은 한국음식 만들기(4.12), 뉴스시청 및 노래 청취(3.58), 한국어사용(3.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럽지역과 북미지역 동포청소년들이 가정에서 한국어 사용을 가장 많이 하였고, 한국 드라마, 뉴스 시청 및 노래 청취는 중국지역 동포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관련된 직업과 한국 사람과의 결혼에 대한 희망도는 러시아 및 CIS지역 부모들이 가장 높았으나 북미지역 부모들은 한국 관련된 직업에 대한 희망도가 가장 낮았고, 중국지역 부모들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과의 결혼에 대한 희망도가 가장 낮았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거주국에서의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2점으로 비교적 만족도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북미(4.38), 유럽(4.19), 기타 지역(4.08), 중국(3.88), 남미(3.46), 러시아 및 CIS(3.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민세대별로는 1.5세대, 2세대, 3세대 이상의 순으로 세대가 진행될수록 거주국에서의 생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하기, 듣기 및 이해하기, 읽기 및 쓰기 등의 한국어능력은 지역별로는 중국지역의 재외동포청소년들이, 교급별로는 중학생들이, 그리고 이민세대별로는 1.5세대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장래 희망직업으로는 사업가(9.0%), 의사(8.9%), 디자이너(8.0%), 교사(7.0%), 연구원(5.1%), 법조인(4.9%)과 회사원(4.9%), 엔지니어(4.5%), 외교관(4.2%) 등으로 나타나, 한국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 교사, 연예인 등에 대한 희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30.1%),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21.7%), “건강하게 사는 것”(10.4%),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9.7%), “돈을 많이 버는 것”(8.7%),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6.6%) 등으로, 사회 발전과 이웃에 대한 봉사보다는 개인의 발전과 가정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장래 희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개인의 능력 부족”(39.7%),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25.9%), “교육기회의 부족”(8.5%), “동포사회의 취약성”(5.6%) 등의 순으로, 사회나 국가보다는 개인의 능력이나 가정의 어려움을 어려운 요인으로 보았다.

한민족 정체성과 관련해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은 한민족의 후손임과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동포사회의 배경에 대한 이해와 한민족 사건이나 문제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남미지역 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인식 이외의 모든 정체성 영역에서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중국지역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한민족의 후손임과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에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은 “한류를 통한 드라마나 K-POP”(26.3%),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교육”(18.8%), “개인적인 한국 방문”(15.3%), “주변 친구들의 관심과 대화”(8.7%), “한글학교 등에서의 교육”(8.3%), “한민족 캠프나 축제”(7.8%), “교환학생이나 한국방문 프로그램”(7.1%) 등으로, 한류와 부모의 교육 등이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에 대한 관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교류 경험은 평상시 동포청소년들 간의 만남이나 연락(3.25), 동포청소년 단체 사람들과의 교류(3.06), 한국에서의 동포프로그램 참여 경험(2.87), 거주국에서의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 참여 경험(2.65)의 순으로 나타나, 친구 등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거주국에서의 교류경험은 상대적으로 유럽지역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서 북미지역 청소년들의 교류 경험은 가장 적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은 동포사회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동포사회의 단합에 대한 역할(3.60), 남북통일에의 기여(3.51), 동포사회 발전에의 기여(3.40)의 순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동포사회 발전, 동포사회 단합, 남북통일에의 기여 등에 대한 중국 동포청소년들의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남미지역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남북통일에의 기여에 대한 역할 인식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동포사회나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 지원(4.40)과 한국 방문기회 제공(4.40), 재외동포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4.18)과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4.18), 민족교육 지원(4.14), 거주국 동포청소년들과의 정보 교류(4.13) 등의 순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서의 교육, 문화, 취업활동과 관련한 참여 욕구는 대부분 한국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높았는데, 특히, 한국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참여(4.15)와 다양한 한국문화 경험(4.06)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한국 연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유럽(4.47), 남미(4.39), 러시아 및 CIS(4.27) 등의 청소년들의 참여 욕구가 높았고,

한국에서의 유학, 한국 기업 인턴활동 및 한국 기업 취업에 대해서는 남미와 러시아 및 CIS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 욕구가 높았고, 한국 문화 경험 활동의 경우에는 유럽(4.34), 남미(4.24), 중국(4.22) 등의 동포청소년들의 참여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한국과 관련한 부모와의 활동, 한국과 관련한 부모의 기대, 교류경험, 교류욕구, 대학생 대비변수가 한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은 33.3%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가정에서 부모와 한국어 사용, 한국음식 만들기, 한국드라마나 뉴스 보기 등을 많이 할수록, 한국 관련 직업과 한국 사람과의 결혼에 대한 희망 정도가 높을수록 한민족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포청소년과의 교류 경험과 연수프로그램 참여, 유학, 인턴, 취업, 문화경험 등 한국 관련 교류 욕구가 높을수록 한민족 정체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가정에서의 역할과 동포청소년 간, 그리고 한국과의 교류 기회가 확대될 필요성을 보이고 있다.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 공동체 발전의 기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교류경험, 교류욕구, 한민족 정체성이 한국사회발전 기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들은 40.7%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동포청소년 및 대한민국 청소년과의 교류 경험이 많을수록, 한국 관련 교류 욕구가 높을수록, 그리고 한민족 정체성이 높을수록 한국사회 발전의 기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소년 간, 그리고 한국청소년과의 교류활동과 한민족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2. 정책제언

1) 비전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비전은 향후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토대로 설정할 수 있다. 즉,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기대하는 미래 인재상이 곧 정책 비전이 될 수 있다. 전문가 조사결과를 통하여 파악된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기대하는 미래 인재상은

글로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계시민인 동시에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한민족의 구성원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해 나가는 능력 등을 갖춘 청소년이었다. 즉,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비전은 거주국 사회에의 적응을 넘어서서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공동체에 기여하는 청소년 육성으로 설정할 수 있다.

비전

**거주 국가와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 더 나아가
글로벌공동체에 기여하는 청소년 육성**

2) 정책대상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대상은 연령, 국적, 개인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설정할 수 있다. 연령은 현재 청소년 관련법이나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정책이 초, 중, 고, 대학생 연령대를 포괄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과 같이 재외동포청소년들의 보호보다는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적의 경우에도 현재 법률이나 정부부처의 정책이 재외국민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외국국적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책과제에 따라서 재외국민 혹은 외국국적자를 포함하는 대상으로 달리 설정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이를 포괄하는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 특성의 경우에는 거주 국가와 한민족 공동체 발전 및 글로벌 공동체에 기여하는 미래 인재 개발을 위해서는 한민족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정체성이 높은 집단, 그리고 재능이 있는 집단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정책대상

**한민족에 대한 관심과 정체성이 높고, 재능 있는 9~24세의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청소년**

3) 정책목표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의 목표는 거주국 및 국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차이를 보여왔다. 과거의 재외동포정책의 목표는 거주국 내에서의 안정적 정착, 재외동포의 정체성 확립과 모국과의 유대 강화, 모국과 동포사회 간의 호혜적 발전을 중심으로 설정되었으나, 이민사회의 역사가 깊어짐에 따라 미래에는 거주국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보다 상위의 목표를 설정하여 모국, 재외동포, 거주국 간의 호혜적 발전을 추구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윤인진, 2013: 9~10).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단순히 거주국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한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사회의 여러 영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거주국에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요구를 반영해야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거주국 사회에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목표는 정부의 통합적인 정책 목표 설정을 위해 국간 간 공통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더불어 국가별 특성을 반영해서 차별적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국가별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공통된 현재 이슈는 민족교육과 주류사회 진출, 한민족 정체성 유지, 민족교육지원, 차세대 단체 육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었고, 미래 이슈는 한민족 정체성 이해를 위한 교육, 주류사회 진출, 한국과의 네트워크 형성, 차세대 지역 커뮤니티 조직 등으로 나타난 바 있다.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한민족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류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민족교육에 대한 지원과 모국과의 네트워크 형성, 상급학교 진학 및 글로벌 시민의식 역량 개발 지원, 그리고 차세대단체 육성 등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가별로 재외동포청소년들과 관련한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았다. 미주지역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현재 이슈가 주류사회 진출과 정체성 혼란, 민족교육 인프라의 부족, 부모세대와의 의사소통 문제 등이었고, 미래 이슈는 모국과 거주국에서 조화로운 역할과 가치관 정립, 민족정체성 유지 및 함양, 모국과의 교육 및 유대강화,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 등이었다. 중국지역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현재 이슈가 민족정체성의 유지문제, 부모와 분리된



【그림 VI-1】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목표

청소년지원 문제, 주류사회 적응과 진출 등이었고, 미래 이슈는 한민족정체성 유지, 조선족 교육을 위한 모국과의 협력, 교유의 역사와 문화의 계승, 주류사회의 진출 등이었다. 일본지역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현재 이슈가 재일한국인 배외주의, 민족정체성 함양, 민족교육의 위축,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등이었으며 이슈였으며, 미래 이슈는 한민족 정체성 유지 및 함양, 반한 감정에 대한 대처, 민족학교 차별, 모국 연수, 교육, 유학 등의 기회 확대, 주류사회 진출과 상급학교 진학 등이었다. 독립국가연합(CIS)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현재 이슈가 한국 유학 및 연수 기회, 고려인 정체성 유지, 고등교육 기회와 취업, 부모세대와의 언어·문화 단절 등이었으며, 미래 이슈는 한국과의 교류기회 확대, 한민족 정체성 유지 및 함양,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 등이었다.

국가별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해서 미주지역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주류사회의 진출과 정체성 확립, 모국과의 유대 강화가 강조될 필요가 있고, 중국지역 재외동포청소년 대상의 정책 목표 설정에서는 한민족정체성의 유지와 위기 청소년 지원, 그리고 주류사회 진출 지원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지역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의 정책 목표 설정에서는 민족정체성 함양, 반한 감정 및 민족학교 차별에 대한 대응, 주류사회 진출 지원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독립국가연합(CIS) 재외동포청소년 대상의

정책목표 설정에서는 한국과의 연계 및 교류 기회 확대, 한민족정체성 유지, 주류사회 진출 지원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4) 정책방향

그동안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은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기구가 부재해서 정책이 중복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했으며, 재외동포의 요구에 기초해서 국가별로 처해있는 상황에 적절한 정책 수립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재외동포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한국어나 교육 중심의 지원에 국한하여 재외동포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교류 및 활동 지원을 하는데 소홀하였다. 따라서 향후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은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구축, 거주 국가별 상황과 요구에 기초한 정책의 수립,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한 지속적인 정책의 수행, 정부지원의 다변화 및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활동 지원에 방향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림 VI-2】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방향

5) 주요 정책과제

정책과제는 공통의 정책과제를 법·제도 개선 방안, 정책추진체계 마련,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지원 확대, 프로그램 개발·운영 확대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밖에 재미동포청소년, 재중동포청소년, 재일동포청소년, 고려인 동포청소년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특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지역별 정책과제는 본 연구의 2, 3차년도 연구과제에서 개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될 계획이다.

또한 각 정책과제별로 정책추진기간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서 정책 수행의 기간을 제시하였다. 법·제도의 개선과 추진체계의 설치 등이 주로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었으며,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이 단기과제로 분류되었다. 이밖에 각 정책과제별로 관련 있는 정부부처를 제시하여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추진의 주체를 명시하고자 하였다.

표 VI-1 재외동포청소년 정책과제

구분	정책과제	기간	관련 부처
법·제도 개선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정을 통한 차세대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중장기	외교부
	재외동포교육진흥법 제정 및 관련 정책 수립	중장기	교육부
	재외동포청소년 교류활동 확대를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중장기	여가부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중장기	외교부
	재외동포청소년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및 군복무 제도 개선	중장기	법무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한글(한국)학교 등 재외동포교육기관의 제도적 지원 확대	단기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소년 현황 조사 정례화	단기	외교부 교육부
정책 추진 체계 마련	정부부처 내 재외동포청소년과 신설	중장기	외교부
	국회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중장기	외교부
	재외동포청소년 통합지원센터 및 해외 지역별 거점 지원센터 설치	중장기	외교부 여가부
	재외동포청소년시설 건립	중장기	여가부 외교부

구분	정책과제	기간	관련 부처
	재외동포청소년 연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및 청소년활동시설과의 연계·협력	단기	외교부 지자체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글로벌 시민역량 개발센터 지정·운영	중장기	외교부 여가부
	재외동포청소년 맞춤형 정보 시스템 구축	단기	외교부
재외 동포 청소년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지원 확대	재외동포청소년 교사뱅크 구축	단기	교육부 외교부
	한글학교 교사 자격증 제도 신설	중장기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양성과정 개발 및 전문가 양성	중장기	교육부 여가부
	외국에 교사 및 청소년활동지도자 파견 확대	단기	교육부 여가부
	국내외 현지 전문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단기	외교부 교육부
프로 그램 개발· 운영 지원	재외동포청소년 리더십훈련 프로그램 개발	단기	외교부 여가부
	거주 지역별 한민족 축제 개발 지원	단기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확대	단기	여가부
	다양한 한민족체험 프로그램 개발	단기	외교부 여가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연계 '뿌리찾기 프로그램' 개발	단기	외교부 행정자치부 여가부
	한민족청소년 통일캠프 개최	단기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단기	교육부 외교부
	부모와 함께 하는 국내·외 프로그램 운영	단기	여가부 외교부
재미 동포 청소년 지원	한국어의 제2외국어 학점 인정 제도 지원	중장기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 리더 간 네트워크 구축	단기	외교부
	재외동포청소년센터 건립 지원	중장기	외교부
	한글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보급 지원	단기	교육부
	한글학교 연합캠프 개발 지원	단기	외교부 여가부

구분	정책과제	기간	관련 부처
재중 동포 청소년 지원	조선족동포 교육 실태조사 실시	단기	외교부 교육부
	조선족동포에 한국학교의 적극 활용	단기	교육부
	사립학교 법인 등을 통한 조선족 교육 지원 활성화	단기	교육부 외교부
재일 동포 청소년 지원	한국학교 증설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단기	교육부 외교부
	일본 현지에서의 다양한 캠프 활동 지원	단기	외교부 여가부
국내·외 고려인 청소년 지원	고려인 청소년센터 설치 및 교육 자원 지원	단기	외교부 여가부
	청소년 민족문화 캠프 실시	단기	외교부 여가부
	고려인 청소년의 예술학교 진학 지원	단기	외교부 교육부

(1) 법·제도 개선

①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정을 통한 차세대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현재 재외동포 관련 법령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여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외국민등록법」,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외동포재단법」 등이 있다.

이들 법률들은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교육, 현황 파악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각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미래 재외동포의 주역이 될 차세대 재외동포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동안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이념과 재외동포의 범위 규정, 기본계획의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하는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정을 위한 논의가 1997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재외동포의 규정, 관련 정부부처간의 관계, 법 적용 범위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노영돈, 2003: 24~25).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경우에 대통령훈령(제228호)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을 두어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의 수립, 재외동포 정착 지원, 재외동포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 국내외 경제활동 지원, 정체성 함양, 부처별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규정하고 있지만(재외동포정책위원회 규정, 제2조), 중장기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이나 컨트롤타워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재외동포신문, 2012년 10. 24일자).

차세대 재외동포를 포함한 재외동포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개별적인 재외동포 관련 법률 이외에 재외동포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기본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정기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재외동포정책 추진기구의 설치, 재외동포 연수 및 수련시설의 설치, 한글학교 등 전문가의 양성, 재외동포청소년 등 활동프로그램의 개발, 예산 확보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재외동포교육진흥법 제정 및 관련 정책 수립¹⁶⁵⁾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교육부 허가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재외 한국학교 예산 지원과 한국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초·중학교 한국어 채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재외동포 국내 초청 연수, 재외동포 한국어교재 개발, 재외동포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온라인학습시스템(kosnet.go.kr)을 운영하고 있다.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에서는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자를 위한 온라인연수시스템(efka.co.kr)과 재외동포교육 국제학술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외한국학교 학생 대상의 교과서를 보급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에

165)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재외동포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6. 26)(pp. 55~57)에서 발표한 윤경남 교육연구사(국립국제교육원)의 토론문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서는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과 한글학교 교사 연수 및 교육자료 제공, 중국 및 CIS지역 민족교육사업, 한글학교, 조선족학교 교사 초청연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 경희대학교에서는 남미지역 재외동포청소년 초청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여 교육사업 추진 시에 부처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양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재외동포 국내 초청 연수 교육에 사용되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부재해서 기관별로 상이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소년 교육진흥법(안)을 제정하고, 이에 기초해서 전체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 거주국 관련법과의 상충 여부, 국제법 저촉여부 등 관련 사항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재외동포 정책의 구체적인 집행기관인 재외공관 망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법 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거주국, 대상별로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외동포 국내 초청 연수 교육을 위해서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교육, 모국어해 강좌, 현장학습 등 모국 체험을 통한 한민족정체성 강화 프로그램 등 공통적인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③ 재외동포청소년 교류활동 확대를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 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며,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이 주관하는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확대·발전을 위해 국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8조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이외의 부처나 기관에서 국내에 초청되는 재외동포청소년활동의 경우에 청소년교류센터나 청소년시설과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전문적인 지도자나 활동프로그램의 활용 부족, 활동시설 이용에 따른 예산 지출 부담 등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외교부 등 타 부처나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서 재외동포청소년 교류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④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가 간 외교적 민감성을 감안하여 재외동포 거주 국가를 대상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UN경제사회이사회 등록 단체인 (사)새마을운동중앙회와 (사)한국자유총연맹이 있는데, 두 단체는 1980년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1989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입법을 재정 보조를 받으면서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외동포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육성 법률을 통한 국내·외 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경우에 중국해외교류협회, 중국화문교육기금회 등 사회단체육성법을 통해 화교·화인에 대한 글로벌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교육, 문화, 청소년, 국가별 단체 등 특수목적을 실현할 재외동포 대상 국제 협력 사회단체 육성이 필요하다.¹⁶⁶⁾

⑤ 재외동포청소년의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및 군복무 제도 개선

국적법 제12조에 의하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18세)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2010년 국적법 개정에 의해서 해외입양인, 65세 이상의 영주귀국동포, 우수 인재 등은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병역법 제7조, 제10조). 또한 최근에는 법무부에서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의 특별귀화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외국인 우수인재의 복수국적 허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연합뉴스, 2015년 7월 19일자).

재외동포 후세들의 경우에는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쪽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어 병역이 부과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166) 이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재외동포 전문가 간담회(2015년 7월 23일)에서 김판준교수(길림사범대)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구성하였음.

한인 2세들이 유학이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재외동포신문, 2015년 4월 6일자). 재외동포들이 부당한 병역법으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게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글로벌시대에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복수국적 제도 등 관련법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재외동포 군복무의 경우에 재외동포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에서의 원어민 교사근무, 방위산업체 근무, 정부부처 통역요원 등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¹⁶⁷⁾

⑥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한글(한국)학교 등 재외동포교육기관의 제도적 지원 확대

현재 한글학교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의해서 한국어, 한국사, 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또한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보급)에 의해서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 및 교과용 도서 등을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과 격려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즉, 국내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국어 관련 교육과정에 국한된 지원에서 넘어서서 수련활동, 문화예술활동, 교류활동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기간 한글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한국 교육부 발행의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게 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재외동포청소년 격려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⑦ 재외동포청소년 현황 조사 정례화

정부 정책 수립에 있어서 정책 대상의 파악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자료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재외동포 인구에 대한 조사는 각국에서 재외공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정확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나마 재외동포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전혀 파악할

167) 이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재외동포 전문가 간담회(2015년 7월 23일)에서 강성봉대표(동북아신문)가 제안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구성하였음.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각국의 재외 공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재외동포 조사항목에 연령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재외동포청소년 인구가 파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국가별로 처해 있는 청소년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재외동포청소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2) 정책 추진체계 마련

① 정부부처 내 재외동포청소년과 신설

현재 정부부처 내에 재외동포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부서는 재외동포영사국 내 재외동포과와 재외국민보호과,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체류관리과 등이 있다. 외교부 재외동포과에서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재외동포 관련 법령·제도의 수립 및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재외국민보호과에서는 재외국민보호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재외국민보호 관련 법령·제도의 수립·총괄 및 조정, 재외난민 구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¹⁶⁸⁾ 또한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에서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의 설립 및 지도·감사, 파견공무원 선발 및 관리, 해외 한국어 및 교재 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 체류관리과에서는 외국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 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¹⁶⁹⁾ 외교부 재외동포과나 재외국민보호과에서는 전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나 정책과제가 발굴되고 있지 못하고,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에서는 해외교육기관이나 파견공무원 관리에 초점이 있으며, 법무부 체류관리과에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만 다루고 있어서 재외동포청소년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없다.

국제화 시대 한민족 발전에 차세대 재외동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다양해지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들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정부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재외동포정책에서 차세대 정책의 비중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향후에도 더욱 확대될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외교부에 재외동포청소년과를 설치하여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해외 각국의 재외동포청소년

168) 외교부조직소개 http://www.mda.go.kr/introduce/oranization/chart/index.jsp?mda=001&menu=m_70_20_200에서 2015년 8월 26일 인출

169) 교육부(2015). 교육부 조직 소개. http://www.moe.go.kr/web/100034/site/contents/ko/ko_0371.jsp에서 2015년 2월 10일 인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현안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국회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재외동포의 문제는 미래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며, 재외동포기본법 등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 관련 법안이 사안에 따라서 외교통일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논의되어 재외동포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정책적 관심의 부족으로 법안 처리가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재외동포 문제를 별도로 다룰 수 있는 국회 내 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재외동포위원회를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설치함으로써 재외동포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재외동포청소년 통합지원센터 및 해외 지역별 거점 지원센터 설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와 해외 지역을 연계하는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는 재외동포청소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외에는 모국과의 연계 및 지역 청소년 연수 및 교류, 정보 제공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지역별 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청소년 통합지원센터는 재외동포청소년의 교육과정 및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외에 정보를 제공하며, 재외동포청소년들이 국내에서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서 센터 내에 재외동포청소년 연수시설이나 교류센터 등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기존 청소년시설이나 센터를 지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지역별 지원센터에서는 모국과의 연계 및 다양한 정보 제공, 연수 실시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내 개별 시설과의 연계 지원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대한민국이 각국에 설치한 문화원, 교육원, 해외홍보원 등의 여러 정부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정부의 해외 거점시설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④ 재외동포청소년시설 건립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들을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서는 전국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시·군·구 단위에 청소년수련관, 읍·면·동 단위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그리고 이밖에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재외 국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거주국에서는 청소년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이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시설의 설치에는 국내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거주국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와 거주국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ODA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시설 건립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의 연계를 통해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⑤ 재외동포청소년 연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및 청소년활동시설과의 연계·협력

재외동포청소년들의 민족정체성 함양과 글로벌 차세대지도자 육성을 위해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전 세계 중·고·대학생 청소년이 참가하여 모국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모국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재외동포재단, 2014a: 27). 하지만 세계한인 청소년 모국 연수프로그램은 문화체험 수준에 머물러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연수를 대행하는 국내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단순히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세계 한인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연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수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지정이 필요하며, 세계 한인 청소년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 내 각종 시설과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수 프로그램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⑥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글로벌 시민역량 개발센터 지정·운영

재외동포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민족 정체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이 거주국에서 잘 적응하고 성공적인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민주시민역량의 개발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이나 공공청소년시설 등 기존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및 시설을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글로벌 민주시민역량개발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한민족 정체성 교육과 함께 글로벌 민주시민으로서의 다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균형있고 조화로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수련시설과 각종 단체 및 기관 간에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민주시민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⁷⁰⁾

⑦ 재외동포청소년 맞춤형 정보 시스템 구축

재외동포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활동, 교육, 연수, 취업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이 각 부처나 단체 및 기관별로 제공되고 있어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적절한 시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의 이용이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가 쉽지 않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정보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스템 구축 후 재외동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넷(www.korean.net)과의 연동을 통해서 이용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3)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지원 확대

① 재외동포청소년 교사뱅크 구축

거주국에서 재외동포청소년 교사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소년 교사뱅크제를 운영한다. 한국에서 초·중등학교 교사나 청소년활동 지도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거주국에서 한글학교·한국학교 교사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및 활동 지도를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한다. 교사뱅크제를 통해서 한글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안내와 충원을 실시한다. 교사뱅크제는 먼저 지역별 구축을 기본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지역 간 교사뱅크제 연계를 모색한다.

170) 이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재외동포 전문가 간담회(2015년 7월 23일)에서 박옥식대표(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가 제안된 아이디어를 재구성하였음.

② 한글학교 교사 자격증 제도 신설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한글학교 교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한글학교 교사 자격은 1, 2, 3급 등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일정한 기간 이상의 한글학교 교사의 경력과 대한민국 교육부가 인정한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실시하는 문화프로그램 및 연수 기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격려할 필요가 있다.

③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양성과정 개발 및 전문가 양성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주국에서의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및 국내·외 연수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재외동포청소년 전문가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재외동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이나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등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교육과정 중에 재외동포청소년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지도사들에게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활동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국내에 초청되는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체험활동 지도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서는 해외에 파견되어 거주국에서의 활동기회를 갖게 할 수 있다.

④ 외국에 교사 및 청소년활동지도자 파견 확대

교육부에서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의 재외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교원 및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다. 2014년도 재외동포교육기관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지역에 있는 한국학교에 28명, 한국교육원에 40명, 그리고 주재관(교육관)에는 15명을 파견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주·대양주지역에는 23개 한국학교에 20명,

19개 한국교육원에 19명, 그리고 3개 주재관에 4명을 파견하고 있다. 북미지역에는 7개 한국교육원에 8명, 그리고 2개 주재관에 3명을 파견하고 있고, 중남미지역에는 3개 한국학교에 3명, 그리고 3개 한국교육원에 3명을 파견하고 있다. 구주와 러·CIS지역에는 1개 한국학교에 1명, 10개 한국교육원에 10명, 그리고 7개 주재관에 8명을 파견하고, 아·중동지역에는 4개 한국학교에 4명의 교원을 파견하고 있다(재외동포재단, 2014. 10: 3). 전체적으로 볼 때, 한글학교에 대한 교원 파견은 없고, 한국학교에는 학교별로 1명씩을 파견하고 있으나 구주·대양주지역의 경우에는 조금 적게 파견하고 있고, 한국교육원의 경우에도 북미지역을 제외하고 1명씩을 파견하고 있다. 주재관(교육관)의 경우에는 1명이상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교육기관에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1인 또는 그 이하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 파견은 부족하며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외동포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지도자의 파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외동포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교육 지원 이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활동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한국 내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균형적인 성장 기회가 부족하다. 특히, 방학 중에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여가 시간에 비해서 다양한 활동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등에게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사 파견과 같이 현재 청소년시설 등에서 재직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중에서 선발할 수도 있고, 신규 모집하여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단기적인 파견에서부터 1년, 2년, 3년 등으로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다. 거주국 재외동포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요구를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⑤ 국내와 현지 전문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국내 전문가와 해외 현지 전문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가령 국내에서 만들어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교재의 경우에 거주국 상황에 적합하지 않아서 현지에서 교재를 새롭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지만 현지에서 사용하지 않게 되면 예산이 낭비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재개발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활동 등을 위한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정책 자문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해외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과제의 경우에 오히려 현지 전문가들이 주도하고 국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지 전문가에게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4)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① 재외동포청소년 리더십훈련 프로그램 개발

차세대 지도자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미주, 유럽 등의 지역 재외동포청소년 혹은 전 세계 재외동포청소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외동포청소년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한다. 문화예술분야, IT분야, 경제분야 등의 주제별로 리더십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안된 우수한 아이디어의 경우에 멘토와의 연계를 통해서 프로젝트화 해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멘토는 국내 및 거주국을 포함하여 관련 산업 및 학문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청소년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로 하여금 관련 기업에의 취업이나 학문기회 등에 대한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현재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재외동포 및 차세대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하여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② 거주 지역별 한민족 축제 개발 지원

한민족축제는 한민족 관련 문화공연, 전시회, 강연, 놀이, 음식 등을 통해서 한민족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장으로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한민족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각 지역축제를 개발하여 그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 경제 발전과도 연계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의 경우에도 거주 지역별로 이주의 역사가 다르고 문화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역별 특색에 맞는 한민족축제를 개발하고 지역 동포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주배경과 한민족문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체험기회를 갖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지역축제에 관한 전문가로 하여금 적절한 자문 기회를 제공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지에의 축제전문가 파견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③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확대

현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은 국가 간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청소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국가 간 청소년 교류프로그램은 각국 청소년 담당 부처와의 약정 등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청소년 관련 정보와 경험 등을 교환하고 각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2014년도에 22개국에 파견 302명, 초청 316명 등 총 618명의 교류를 시행하였고(여성가족부, 2014: 118),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은 청소년들의 자아실현과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방학을 이용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2014년에는 아시아 8개국에 16개팀 311명의 봉사단을 파견하였다(여성가족부, 2014: 123). 또한 청소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아시아 청소년들에게 한국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국제청소년축제, 국제잼버리, 아시아 청소년초청연수, 국제청소년포럼 등의 행사에 8,60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4: 124). 외국 청소년들과의 다양한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들 프로그램에는 재외동포청소년을 포함하는 경우는 드물다. 재외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외교부에서만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성가족부 프로그램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이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본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재외동포청소년들을 미래 한민족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의 협력을 통하여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④ 다양한 한민족 체험 프로그램 개발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유대민족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매년 1억 달러를 투자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가 대상에 있어서 일반청소년뿐만 아니라 의대생, 음악가, 금융전문가 등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적지 탐방, 하이킹, 생태탐방, 역사탐방, 자원봉사 등의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간별로는 10일 이내의 단기간 프로그램에서부터 몇 달 간에 걸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연령별, 대상별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외동포청소년들로 하여금 한민족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연계 ‘뿌리찾기 프로그램’ 개발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에서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와의 결연 등을 통한 교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한글학교 등에서 한국 내 지역 학교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가 실시되고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들과 국내 지역 청소년들 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다양한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에 1999년부터 지역별, 주제별로 특성화된 다양한 캠프를 운영하는 ‘뿌리찾기여행’을 통하여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지역 문화체험과 재외동포와 지역청소년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단체, 그리고 기업의 참여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 부담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항공료 등 교류 비용의 일부를 기업이 후원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⑥ 한민족청소년 통일캠프 개최

한민족공동체 발전에서 재외동포들에게 기대하는 역할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반도 통일에의 기여라 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거주국 및 국제사회에서의 유리한 여론의 형성과 통일을 위한 비용 지원 등이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특히, 미래 통일사회 주역으로서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교류는 향후 한반도 통일사회 형성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들과 탈북청소년 등이 함께 참여하는 캠프를 운영함으로써 한국어교육 이외에 민주시민교육 등 청소년들 간에 통일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사전에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캠프를 실시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청소년 및 국민들의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단순히 상호 방문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에 그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통일캠프 등과 같이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뿐만 아니라 한반도 미래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⑦ 재외동포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본 연구 조사 결과를 통해서 가정에서의 부모의 한국에 대한 생각이나 한국어 사용, 한국 뉴스 시청 등 부모의 역할은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가정에서의 생활 등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들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정에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해서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⑧ 부모와 함께 하는 국내·외 프로그램 운영

현재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재외동포청소년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 특히, 재외동포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자신의 정체성이나 한민족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 초청되는 청소년프로그램이나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수나 캠프 등에 재외동포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에 가족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 대상이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를 보다 확대하여 재외동포청소년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국가별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① 재미동포 청소년 지원

㉠ 한국어의 제2외국어 학점 인정 제도 지원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어 교육 참여 확대를 통해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의 중·고등학교, 한국학교 등에서 한국어 수업을 수료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통과할 경우

에 미국학교의 제2외국어 학점(credit)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 내 일부 주 및 교육청 차원에서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내 주 교육부 및 교육청과의 MOU 체결을 확대하고, 한국어교재 개발, 한국어 교사 양성 등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12년 시작된 정부 지원의 글로벌교원양성사업(Global Teacher's University, GTU)¹⁷¹⁾과의 연계를 통해서 미국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우수한 교원을 한국어 교육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㉔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외동포 리더 간 네트워크 구축

미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재외동포 리더들이 재외동포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리더 간 네트워크의 구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각종 재외동포 및 차세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재외동포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외동포청소년들의 모국 방문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자신들의 이민사회의 성공 경험을 재외동포청소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멘토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㉕ 재외동포청소년센터 건립 지원

재외동포청소년들 간의 상시적인 교류와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단체별로 모여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센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인회관, 문화원 등 기존 시설의 일부를 청소년센터로 활용하거나 별도로 청소년센터를 설립하는 방안 등이 있다. 청소년센터의 건립비용은 재외동포의 자체적인 후원과 더불어 한국 정부의 지원 등 매칭펀드를 통해서 조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공공청소년시설의 경우에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를 통해서 설치한 사례를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171) 경인교대에서 세인트클라우드주립대와의 교환학생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정식교사자격증 취득을 실시하고 있다(동아일보, 2015.7.6일자)(<http://news.donga.com/3/all/20150706/72306897/1>)(2015. 10.26 인출)

㉔ 한글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보급 지원

한국에서 제작한 교재와 커리큘럼이 현지 실정에 맞지 않아서 사용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재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예산과 노력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향후 거주국 현지에서 필요한 교재와 커리큘럼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주국에서 개발한 일부 교재의 경우에 거주국 및 타 국가의 재외동포 간에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보급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거주국에서 개발된 교재라 할지라도 우수 교재로 인정된 경우에 이를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㉕ 한글학교 연합캠프 개발 지원

재외동포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정이나 주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한글학교 이외에 동포청소년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 이들 청소년들에게 한민족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는 동포청소년들 간에 다양한 체험기회를 갖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한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한글학교 학생들과의 만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합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학기간 등을 이용해서 평소 체험할 수 없었던 한민족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교육 지원 이외에 활동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되고 있는 내용에 활동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는 방안과 추가로 사업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청소년활동 지원을 업무로 하고 있는 부처에서 캠프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② 재중동포 청소년 지원

재중동포청소년의 민족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재중동포청소년 및 교육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기존 한국학교 및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한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¹⁷²⁾

172)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재외동포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6. 26)(pp.39~43)에서 강성봉(동북아신문 편집인)이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㉑ 조선족동포 교육 실태조사 실시

중국에서의 개혁개방 이후에 많은 조선족 동포의 한국 및 중국 연해지역으로의 진출로 조선족 인구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그 결과 개혁개방 이전에 약 1,200개의 조선족 학교 중 많은 학교가 문을 닫아 현재는 300개도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조선족동포가 이주한 연해지역에서는 조선족학교가 전무하여 조선족 청소년에 대한 민족교육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연해지역 조선족 집거지에 조선족학교를 설립한다 해도 중국의 호구제도¹⁷³⁾로 인해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족을 위한 한글학교가 설립되기도 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고 실효성도 크지 않다.

먼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에 위기에 처해 있는 조선족동포에 대한 교육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동북 3성 및 연해주지역 조선족 청소년 학교의 실태와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조선족 정규학교와 한글학교, 그리고 교사, 기자재 및 시설, 소요예산 등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조선족동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㉒ 조선족동포에 한국학교의 적극 활용

조선족동포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기보다는 한국정부가 중국에 설립한 12개의 한국학교를 조선족동포들에게 개방하여 한국학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학교의 운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38조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어서 외국이 허용하는 경우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대상 범위에 한민족으로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하여 외국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도 한국학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방과후 시간 등을 통해서 한국학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㉓ 사립학교 법인 등을 통한 조선족 교육 지원 활성화

조선족 교육 지원을 위해서 국내 사립학교 법인과 협력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조선족 사립학교인 청도정양학교와 대원학원이 함께 설립한 청도대원국제학교와 같이 정부가 사립학교 법인 등을 협력자로 삼아 한중 청소년간 교류의 확대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활성화 할 필요가

173) 중국의 호구는 일반적으로 호구라고 불린다. 이 호구에는 도시호구와 농촌호구가 있으며, 도시호구와 농촌호구의 차이 점은 국가가 도시호구를 가진 사람에게는 주택과 직장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농촌호구를 가진 사람은 도시에 가서 임의로 살 수는 있어도 취업이나 아이들의 입학, 의료보험, 교육비 등의 혜택에서 제외된다.

있다. 정부에서는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재일동포 청소년 지원¹⁷⁴⁾

㉠ 한국학교 증설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올드커머와 뉴커머의 재일동포 중에 2015년 6월 현재 약 50만명(497,707명)이 여전히 한국적 및 조선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총련이 운영하는 조선학교는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민단계 한국학교는 도쿄와 교토에 각 1개교, 오사카에 2개교로 모두 4개교에 불과하다.¹⁷⁵⁾ 총련계에서 많은 동포들이 민단계로 전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학교의 숫자는 변하지 않고 있다. 현지의 일본국적도 아니고, 한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일한인청소년에 대한 교육 환경 개선은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한국학교는 단순히 교육적 기능 외에도 현지 한인청소년 및 학부모의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한 구심점적인 역할을 한다. 미래 인재 개발은 물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동포 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학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여 한국학교 설립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 일본 현지에서의 다양한 캠프 활동 지원

민단계 및 총련계 일부 청소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재일 한인 청소년들은 일본인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이들은 방과 후 수업이나 토요 한글학교를 통해 한글이나 한민족의 문화를 접하고 있기는 하나 참가율이나 교육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민족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그나마 재일 한인 청소년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느끼고 동포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재일 한인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획'을 제공해야 한다.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다양한 여름 캠프를 저렴한 참가비로 운영하고 있듯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캠프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74) 이 부분은 김태기교수(호남대학교)가 집필하였음.

175) 日本法務省(2015.6). 在留外国人統計.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139146>)

④ 국내·외 고려인 청소년 지원

국내·외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 청소년들의 교육과 취업 지원을 위해 법·제도의 개선과 시설 확보와 교육자원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¹⁷⁶⁾

㉠ 고려인 청소년센터 설치 및 교육 자원 지원

국내 체류 고려인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으나 안산시, 광주광역시, 수원시, 부산광역시 등에 밀집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 체류 고려인사회도 가족 이주가 늘어나고 있다. 고려인 청소년들의 경우에 보육이나 교육, 기타 복지가 체류권 제한으로 각종 혜택에서 벗어나 생활하고 있으며, 언어와 문화 차이로 사회적응이 어렵고, 정부와 사회의 관심 부족으로 역사문화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 있다. 고려인 동포 자녀의 체류형태는 중앙아시아 방문동거비자(F1)와 F4비자 또는 미등록 상태가 많다. 부모의 체류 제한으로 고려인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학습권 보장이 어렵고, 이로 인해서 국내 및 본국 양쪽 어디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고려인 자녀들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의 분류에 들지 않아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또한 국내 고려인 집중 거주지역인 광주광역시, 안산시 등에서는 아동센터, 고려인 어린이집, 새날학교, 야학 등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지만 여전히 프로그램과 인적, 물적 인프라 부족으로 언어와 문화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고려인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한민족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민족문화교육이 시급히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동포들이 집거하고 있는 근처에 재외동포청소년센터를 설치하고 한국어와 역사·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 자원을 개발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 민족문화 캠프 실시

최근 한류의 확산 등으로 고려인 청소년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국청소년과의 교류에 대한 욕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그 기회가 거의 없다. 방학기간 등을 통하여 중국 조선족, 재일코리안,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 청소년과 함께 할 수 있는 민족문화캠프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 상호 간에 민족문화를 이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176)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재외동포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2015. 6. 26)에서 임영상교수(한국외대)(pp.58~60)와 김승력대표(고려인지원센터)(pp.44~48)가 제안한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이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㉔ 고려인 청소년의 예술학교 진학 지원

러시아, 우즈벡, 카작 등 CIS 국가에 살고 있는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류 확산 등의 이유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현지의 한국교육원과 한국문화원 시스템으로는 체계화된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다. 고려인 청소년들 중에는 민족문화예술에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들이 상당수가 있다. 가령 러시아 연해주 아르쎌프의 칠성가무단은 한국전통 무용과 춤에 매료된 고려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공연단이지만 우수리스크의 아리랑가무단 못지 않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종결된다.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 유학, 특히 민족문화예술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학생을 전주 한국전통문화예술고등학교나 국내 예술대학 등 한국의 고등학교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6) 정책 추진절차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기본적인 추진 절차는 관련 정부부처에서의 정책에 대한 검토, TF 구성 등을 통한 세부적인 계획의 수립, 정부부처 기본계획에의 반영, 예산 및 인력 확보, 정책 집행, 정책 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 및 재외동포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서 관련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하게 제시된 정책과제에 대한 부처별 검토와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림 VI-3】 재외동포청소년 추진 절차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한국자료>

- 공익재단법인 해외자녀교육진흥재단. '귀국학생 수용학교' 웹 페이지
<http://www.joes.or.jp/g-kokunai/indes.html>에서 2015년 8월 9일 인출.
- 곽재석, 예동근, 장현일, 소은선, 문정매 (2011). **재외동포의 이주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서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관보(1962. 3.9). 제 3091호. '해외이주법 (법률 제 1030호)' 웹 페이지 <http://theme.archives.go.kr/next/gazette/viewGazetteDetail.do?gazetteEventId=0027992238&actionType=> 에서 10월 10일 인출.
- 관보(1966. 8.22). 제 4430호. '재일교포학생 하계 단기교육규정(대통령령 제2705호)' 웹 페이지 <http://theme.archives.go.kr/next/gazette/viewGazetteDetail.do?gazetteEventId=0028013904&actionType=keyword>에서 2015년 10월 10일 인출.
- 관보(1969. 2.13). 제5172호. '재외국민지도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 3765호) 웹 페이지 <http://theme.archives.go.kr/next/pages/viewer/archiveViewer.jsp?archiveId=0001650240&archiveEventId=0028028271&isEbook=Y>에서 2015년 10월 8일 인출.
- 관보(1976. 12.31). 제7538호. '교육법 중 개정 법률.'<http://theme.archives.go.kr/next/gazette/listKeywordSearch.do>에서 10월 7일 인출.
- 관보(1977. 2.28.). 제7586호.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http://theme.archives.go.kr/next/pages/viewer/archiveViewer.jsp?archiveId=0001652610&archiveEventId=0028088123&isEbook=Y>에서 2015년 10월 9일 인출.
- 관보(1977. 3.18.). 제7601호 <http://theme.archives.go.kr>에서 2015년 10월 10일 인출.
- 관보(1978. 6.21.). 제7980호. '대통령령 제 9045호' <http://heme.archives.go.kr>에서 2015년

- 10월 10일 인출.
- 관보(1981.12.31.). 제9028호.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 <http://theme.archives.go.kr>.에서 2015년 10월 9일, 10일 인출.
- 관보(1985. 6.3.). 제11702호.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규정.'<http://theme.archives.go.kr>.에서 2015년 10월 10일 인출.
- 관보(1987. 7.23). 제10694호. <http://theme.archives.go.kr/next/pages/viewer/archiveViewer.jsp?archiveId=0001655687&archiveEventId=0028198958&isEbook=Y>에서 2015년 10월 10일 인출.
- 관보(1991. 9.26). '재외국민교육원설치령시행규칙중 개정령, 교육부령 제 599호.' 웹 페이지 <http://theme.archives.go.kr/next/pages/viewer/archiveViewer.jsp?archiveId=0001653777&archiveEventId=0028121371&isEbook=Y>에서 2015년 10월 10일 인출.
- 관보(1992.3.28.). 12078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623호)' 웹 페이지 <http://theme.archives.go.kr/next/pages/viewer/archiveViewer.jsp?archiveId=0001657>에서 2015년 10월 11일 인출.
- 관보(1992.7.3.). 제12158호.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 운영규칙' 웹페이지<http://theme.archives.go.kr/next/pages/viewer/archiveViewer.jsp?archiveId=0001657175&archiveEventId=0028274663&isEbook=Y>에서 2015년 10월 10일 인출.
- 관보(1996.2.29.).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규정' 대통령 훈령 제 63호 .<http://theme.archives.go.kr/next/pages/viewer/archiveViewer.jsp?archiveId=0001658507&archiveEventId=002835175&isEbook=Y>에서 2015년 10월 12일 인출.
- 교육개혁심의회(1987). **해외교포교육 발전방안(정책연구 II-7)**. 서울: 문교부.
- 교육과학기술부(08. 5.21). **중국 칭다오청운한국학교 중국정부인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해설자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2010). **글로벌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방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2.11.14). 보도자료 '교과부, 30개 해외 한국학교 1천2백여 교원에게 교육자료 개발·보급 지원 및 온라인 연수 실시 - 정부 최초로 한국학교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대폭 지원.' 웹 페이지 <http://www.moe.go.kr/web/45859/ko/board/view.do?bbsId=294&boardSeq=38792>에서 2015년 10월 15일 인출.

- 교육부(1998). **교육 50년사**. 서울: 교육부.
- 교육부(2014). <http://www.moe.go.kr/web/100034/silkuk/detail.do?silkukSeq=10&deptCode=1342021>에서 2015년 2월 10일 인출.
- 교육부(2011. 10. 4). 보도자료. '재외 한국교육원장, 개방형공모제 최초 도입' 웹 페이지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tPage=1&encodeYn=Y&boardSeq=34925&mode=view>에서 2015년 10월 14일 인출.
- 교육부(2015a). 보도자료 '교육개혁 추진계획 및 일정' 웹 페이지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tPage=14&encodeYn=Y&boardSeq=60283&mode=view>에서 2015년 10월 16일 인출.
- 교육부(2015b) 보도자료.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발표'. 웹 페이지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tPage=7&encodeYn=Y&boardSeq=60753&mode=view>에서 2015년 10월 14일 인출.
- 교육부(2015c). 정책자료.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재외한국학교 교원 역량 강화'. <http://www.moe.go.kr/web/128166/ko/board/view.do?bbsId=426&boardSeq=54655>에서 2015년 10월 12일 인출
- 교육부(2014. 7.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http://www.moe.go.kr/web/128166/ko/board/view.do?bbsId=426&pageSize=10¤tPage=0&encodeYn=Y&boardSeq=54655&mode=view>. 2015년 10월 5일 인출.
- 교육부(2015). 교육부 조직 소개. http://www.moe.go.kr/web/100034/site/contents/ko/ko_0371.jsp에서 2015년 2월 10일 인출.
- 국가기록원(1957.11.05). **제107회 국무회의 회의록**. 서울: 국가기록원.
- 국립국제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기본 운영규정 제7조' 웹 페이지 <http://www.niied.go.kr/contents.do?contentsNo=49&menuNo=297>에서 2015년 10월 15일 인출.
- 국적법(2014.3.18.) 법률 제12421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국적법&BEF_SUB_NM=국적법&LAW_CHECK=true&ORD_CHECK=true®L_CHECK=true&srchinresult=false&lawsrctype=LAW_NM&subnm=국적법&befsubnm=국적법&lawchk=true&ordchk=true®lchk=true&LAW_ID=A1295&PROM_NO=12421&PROM_DT=20140318에서 2015년 10월 10일 인출.

- 근로기준법(2014. 3. 24). 법률 제12527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근로기준법&BEF_SUB_NM=근로기준법&LAW_CHECK=true&ORD_CHECK=true®L_CHECK=true&srchinresult=false&lawsrctype=LAW_NM&subnm=근로기준법&befsubnm=근로기준법&lawchk=true&ordchk=true®lchk=true&LAW_ID=A1531&PROM_NO=12527&PROM_DT=20140324&에서 2015년 3월 10일 인출.
- 김경근, 임채완, 고희일, 양성관, 이경자(2006). **재외한인의 민족교육관**. 서울: 북코리아.
- 김경준(2015.11.30). 재외동포청소년의 주요 이슈와 지원방안, **이슈브리프 제18호**.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金徳龍(2004). **朝鮮學校の戦後史—1945-1972**. 東京: 社會評論社.
- 김명희(2003). 1990년대 이후 국민국가 독일의 재러 독일계 동포이주자에 대한 정책 고찰. **재외한인연구, 13(1)**, 111-132.
- 김봉섭(2009). **이승만 정부 시기의 재외동포정책**.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김상현(1969). **재일한국인**. 서울: 어문각.
- 김익기, 이동훈(2007).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연구보고 07-R13-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이경, 한유경, 강경석, 한석훈 (2000). 2000 국제교육백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인영(1999). 해외동포와 한민족네트워크공동체 형성: 현황과 과제, **한민족통합연구소 기념세미나 1999권 1호**, 1-22.
- 김정숙, 임채완, 김경근, 서범중 (2008). **재외한인 민족교육 모형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서울: 북코리아.
- 김종철 외(1981). 在外國民教育發展 基本計劃에 관한 研究. 서울: 문교부.
- 김태기(2000). 한국정부와 민단의 협력과 갈등관계,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3(1)**, 60-97.
- 김태기, 임영언, 박일, 배광웅(2007).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연구보고 07-R13-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태준, 홍영란, 차성현, 허준(2012).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우수인재 양성 및 유인방안, **Position Paper, 제4권 제12호**.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네이버 두산백과. '세계한민족축전' 웹 페이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4571&cid=40942&categoryId=31956>에서

- 2015년 10월 20일 인출.
네이버 지식백과. '재외한국교육. 한국학중앙연구원' 웹 페이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56615&cid=46615&categoryId=46615>.에서
2015년 10월 9일 인출.
- 노영돈(2003). **재외동포법개정,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서울: 다해.
- 다니엘 핑크, 김명철 옮김(2006). **새로운 미래가 온다**. 서울: 한국경제신문.
- 동아일보(2015.7.6.일자). 경인교대 교육부, 美 교사 첫 배출... '글로벌 교육자 키우는 대학 어디?'
웹 페이지 <http://news.donga.com/3/all/20150706/72306897/1>에서 2015년 10월 26일 인출.
- 동포뉴스(2006.6.29.). '재외한국학교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웹 페이지
<http://www.dongponews.net/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8371><http://>에서
2015년 10월 12일 인출.
- 롤프 예센, 서정환 옮김(2005). **드림 소사이어티**. 서울: 리드리드.
- 민법(2015.2.3.). 법률 제13125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민법&BEF_SUB_NM=민법&LAW_CHECK=true&ORD_CHECK=true®L_CHECK=true&srchinresult=false&lawsrchtype=LAW_NM&subnm=민법&befsubnm=민법&lawchk=true&ordchk=true®lchk=true&LAW_ID=A1474&PROM_NO=13125&PROM_DT=20150203에서 2015년 3월 10일 인출.
- 박동, 강일규, 이영대, 정지선, 황규희 (2009). **글로벌 코리안 인재의 개발 활용을 위한 네트워킹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백영옥(2014). 통일한국의 미래와 재외동포의 역할, **재외동포는 국력의 외연: 모국과 거주국을 잇는 가교**(서울: 재외동포재단), 11~43.
- 변광화(1988). **외국민교육의 발전방안모색에 관한 연구-정책적 측면에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병역법(2015.7.24.). 법률 제13425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28&PROM_DT=20150724&PROM_NO=13425에서
2015년 10월 26일 인출.
- 석윤균(1996). **재외동포교육정책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성경룡, 김인영, 박준식, 손기섭, 이재혁, 전상인, 최태강, 한준(1999). **한민족 네트워크공동체**

- 의식조사. 서울: 한국방송공사, 한림대학교민족통합연구소.
- 세계화추진위원회(1998). **재외동포사회 활성화 과제**. 서울: 세계화추진위원회.
- 송석원, 이규영, 김용찬, 김경미, 정지호, 정준영(2012). 재외동포사회 이해를 위한 교재개발연구, **2012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용역 결과보고서**(서울: 재외동포재단), 9~80.
- 송창용, 장현진, 김나라, 김민경, 윤수린, 박봉남(2014). **2014년도 학교진로교육실태조사**.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시기자, 성태제, 이근호, 박태준, 노원경, 박찬호, 박도영, 정은주(2013).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패러다임 전환**(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13-01-22).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신중식(1990). **21세기를 대비한 재외한국인 교육의 정책방향 및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 연구결과보고서. 발행처불명.
- 안병만(2010). 글로벌 인재 확보 경제 시대에 대응한 재외동포교육 선진화 방안. **통상법률 통권 제93호**, 3-9.
- 여성가족부(2014). **2014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인곤, 박영호, 허문영, 남궁영, 전재성, 이수훈, 장의관, 강동완(2010).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 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서울: 통일연구원.
- 연합뉴스(2012. 8. 14일자). '재외동포 통계 부실. 정책효율성 저하 우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8/10/0200000000AKR20120810170400371.HTML?did=1179m>에서 2015년 2월 9일 인출.
- 연합뉴스(2015. 7. 19일자). '외국인 이공계 인재 한국국적 따기 쉬워진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9/0200000000AKR20150719000800004.HTML?input=1179m>에서 2015년 8월 26일 인출.
- 외교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추진과제5, 재외국민의 안전·권익보호와 공공외교, 일자리 외교 확대'
http://www.mofa.go.kr/information/government/government5/index.jsp?menu=m_60_60_10&tabmenu=t_5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 외교부조직소개 http://www.mofa.go.kr/introduce/oranization/chart/index.jsp?mofat=001&menu=m_70_20_20에서 2015년 8월 26일 인출.
- 외교통상부(1998). **외교백서 1998**. 서울: 외교부.
- 외교통상부(2001). **외교백서 2000**. 서울: 외교부.

- 외교통상부(2003). **외교백서 2003**. 서울: 외교부.
- 외교통상부(2005). **외교백서 2005**. 서울: 외교부.
- 외교통상부(2006). **참여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서울: 외교부.
- 외무부(1990). **외교백서 1990**. 서울: 외교부.
- 외무부(1991). **외교백서 1990**. 서울: 외교부.
- 외무부(1992). **외교백서 1992**. 서울: 외교부.
- 외무부(1994). **외교백서 1994**. 서울: 외교부.
- 외무부(1970). **재외국민현황**. 서울: 외무부.
- 외무부(1986). **재외국민현황**. 서울: 외교부.
- 외무부교민1과(1977.12.20.). **교민업무편람**. 서울: 외무부.
- 위키피디아(2015.9.8). 학습지도요령 웹 페이지에서 <http://sja.wikipedia.org/wiki/>에서 2015년 9월 8일 인출.
- 월드코리아뉴스(2012. 9. 3일자). 2012 세계한민족축전 서울, 인천, 전북에서 7일간 열려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8071> 에서 2015년 2월 10일 인출.
- 윤인진(2005). 재외동포 차세대 현황과 한민족공동체로의 포용방안-재미동포를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제13호**, 191~243.
- 윤인진(2007). 재미동포사회의 현안과 정책적 과제 - 북미 한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제 18호**, 31-63.
- 윤인진(2013). 미래지향적 재외동포정책의 방향: 재외동포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의 재정립, **민족연구 54권 0호**, 4~22.
- 윤인진(2015). 재미동포 차세대 정체성 형성의 나비효과, **2015년 재외한인학회·한민족공동체연구센터 공동학술대회 : 재외동포 차세대와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서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1-23.
- 윤인진, 채정민(2007).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연구보고 07-R13-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석인, 임영언(2011). 재일코리안 청소년의 민족정체성 형성요인과 효과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5권 제1호**, 525~547.
- 이스라엘 이민부 웹 페이지 <http://www.moia.gov.il/English/Pages/AllNews.aspx> 에서 2015년 9월 25일, 10월 20일, 10월 22일 인출.

- 이재정(2003). 남북한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탈냉전기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재정(2004). 탈냉전과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변화. *동아시아연구* 제8호, 225-250.
- 이진영(2010).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IOM 이민정책연구원 Working Paper, No. 2010-11.
- 이진영, 박우(2013). 미래지향적 재외동포정책의 방향: 한국의 차세대 재외동포 정책, *민족연구* 54권 0호, 22~24.
- 이진영, 장안리, 김판준, 임영언, 정호원, 성광일(2015).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정책 비교 연구 (15-R15-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형규(2000). **정책의제 형성과 전이에 관한 연구: 재일동포사회 활성화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희승 편저(1994). **국어 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 인하대학교 산학 협력단(2013). **재외동포 우수인재 모국귀환정책 비교연구** (12월). 인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 임영상, 윤인진, 이진영, 박우, 한준태, 예동근, 이병조(2012). **미래지향적 재외동포정책 방향-초국가적 환경에서의 재외동포정책과 민족공동체**. 서울: 외교통상부.
- 임영상, 황영삼, 고가영, 박지배, 이병조, 권주영, 김석원, 임현숙, 최소영, 최안나(2007).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연구보고 07-R13-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영언(2009).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 유형에 관한 사례연구. *일본문화학보* 40권 0호, 427~444.
- 임영언(2015). 일계인의 민족차별 경험과 민족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민족연구* 61권 0호, 100~123.
- 임영언, 김태영(2008). 재일코리안 청소년의 민족 정체성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학보* 36권 0호, 393~415.
- 임재선(1990). **해외동포 자녀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일연구**.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채완(2002).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조사연구. *정책과학연구* 12권 0호, 37~74.
- 임채완, 임영언, 박구용(2013). **일계인 디아스포라, 초국적 이주루트와 글로벌 네트워크**. 서울: 북코리아.
- 장석영(2014).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현황 및 향후 방향**. *The HRD Review* 72호(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4~127.
- 장인성(2003). 총련계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 *국제지역연구* 제 12권 4호, 27-49.
- 재외국민교육원설치령시행규칙 개정령 (1991. 9. 26.) 교육부령 제599호 <http://theme.archives.g>

- o.kr/next/pages/viewer/archiveViewer.jsp?archiveId=0001656935&archiveEventId=0028260935&isEbook=Y에서 2015년 7월 8일 인출, 10월 10일 인출.
- 재외국민교육원설치령시행규칙(1977. 7. 5). 문교부령 제409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46094#0000>에서 2015년 7월 8일 인출.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24호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재외국민의 교육지원&BEF_SUB_NM=재외국민의 교육지원&LAW_CHECK=true&ORD_CHECK=true®L_CHECK=true&srchinresult=false&lawsrcdtype=LAW_NM&subnm=재외국민의 교육지원&befsubnm=재외국민의 교육지원&lawchk=true&ordchk=true®lchk=true&LAW_ID=A2030&PROM_NO=13224&PROM_DT=20150327에서 2015년 7월 8일 인출.
- 재외국민등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재외국민등록법&BEF_SUB_NM=재외국민등록법&LAW_CHECK=true&ORD_CHECK=true®L_CHECK=true&srchinresult=false&lawsrcdtype=LAW_NM&subnm=재외국민등록법&befsubnm=재외국민등록법&lawchk=true&ordchk=true®lchk=true&LAW_ID=A0002&PROM_NO=11690&PROM_DT=20130323에서 2015년 3월 10일 인출.
- 재외동포신문(2015. 4. 6일자). ‘선천적 복수국적 예외규정 설정해야’. 웹 페이지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8526>에서 2015년 7월 8일 인출.
- 재외동포신문(2012. 10. 24일자).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 재외동포정책은?’. 웹 페이지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Print.html?idxno=22479>에서 2015년 7월 8일 인출.
- 재외동포신문(2005. 4. 29일자). ‘재외동포교육 강화방안 주요내용’. 웹 페이지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273>에서 10월 12일 인출.
- 재외동포재단(2005). **2005년 재외동포 교육기관현황**. 서울: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재단(2013a). **2013 재외동포 현황**. 서울: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재단(2013b). **2013 재외동포재단 연차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재단(2013c).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재단(2014a). **2014 재외동포재단 연차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재단(2014b). **재외동포 우수인재 모국귀환정책 비교연구**. 서울: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재단(2014. 10). **2014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서울: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재단(2015). **2014 재외동포재단 연차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재단법(1997.3.27). 법률 제 5313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010&PROM_DT=19970327&PROM_NO=05313에서 2015년 7월 8일 인출.
- 재외동포재단법(2015. 6. 22). 법률 제13348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재외동포재단법&BEF_SUB_NM=재외동포재단법&LAW_CHECK=true&ORD_CHECK=true®L_CHECK=true&srchinresult=false&lawsrchtype=LAW_NM&subnm=재외동포재단법&befsubnm=재외동포재단법&lawchk=true&ordchk=true®lchk=true&LAW_ID=A0010&PROM_NO=13348&PROM_DT=20150622에서 2015년 7월 8일 인출.
-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2008.10.9.) 대통령훈령 제228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BEF_SUB_NM=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LAW_CHECK=true&ORD_CHECK=true®L_CHECK=true&srchinresult=false&lawsrchtype=LAW_NM&subnm=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befsubnm=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lawchk=true&ordchk=true®lchk=true&LAW_ID=E0053&PROM_NO=00228&PROM_DT=20081009에서 2015년 8월 28일 인출.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3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재외동포의출입국&BEF_SUB_NM=재외동포의출입국&LAW_CHECK=true&ORD_CHECK=true®L_CHECK=true&srchinresult=false&lawsrchtype=LAW_NM&subnm=재외동포의출입국&befsubnm=재외동포의출입국&lawchk=true&ordchk=true®lchk=true&LAW_ID=A1661&PROM_NO=12593&PROM_DT=20140520에서 2015년 3월 10일 인출.
- 재외동포현황보고규정(2014. 12. 29). 외교부훈령 제39호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yurii&target=admrul&ID=2100000013237&type=HTML&mobileYn>에서 201

- 5년 7월 8일 인출.
- 전형권(2004a). 세계의 인교 네트워크 발전과 인도의 재외동포정책: 한국에 주는 함의. **대한정치학 회보 12권 2호**, 201~228.
- 전형권(2004b). 글로벌 민족네트워크와 각국의 동포정책-인도와 이스라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33권 0호**, 191~218.
- 정영훈(2010). 민족정체성, 그리고 한민족의 민족정체성. **민족학연구 9권 0호**, 1~30.
- 정준현(1994). **독일 통일 과정상의 난민 등 처리 관계법**(입법자료 1994-07). 서울: 법제처.
- 정지영(2000). 이스라엘의 재외동포정책 본국 귀환 및 정착 정책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제5권**, 77-84.
- 조혜영, 문경숙, 박동성, 양한순, 최진숙(2007).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 (연구보고 07-R13-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화성(2000). 독일의 재외동포 정책. **민족연구 제 5권**, 85-95.
- 중앙대학교부설 한국교육문제연구소(1974). **문교사**. 서울: 중앙대학교출판국.
- 차두원, 유지연(2013).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분석, ISSUE PAPER 2013-01**. 서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청소년기본법(2015. 6. 22). 법률 제13370호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청소년기본법&BEF_SUB_NM=청소년기본법&LAW_CHECK=true&ORD_CHECK=true®L_CHECK=true&srchinresult=false&lawsrchtype=LAW_NM&subnm=청소년기본법&befsubnm=청소년기본법&lawchk=true&ordchk=true®lchk=true&LAW_ID=A0728&PROM_NO=13370&PROM_DT=20150622에서 2015년 3월 10일 인출.
- 청소년보호법(2015. 6. 22). 법률 제13371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청소년보호법&BEF_SUB_NM=청소년보호법&LAW_CHECK=true&ORD_CHECK=true®L_CHECK=true&srchinresult=false&lawsrchtype=LAW_NM&subnm=청소년보호법&befsubnm=청소년보호법&lawchk=true&ordchk=true®lchk=true&LAW_ID=A0727&PROM_NO=13371&PROM_DT=20150622에서 2015년 3월 10일 인출.
- 청소년복지지원법(2015. 2. 3). 법률 제13181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

- 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청소년복지지원법&BEF_SUB_NM=청소년복지지원법&LAW_CHECK=true&ORD_CHECK=true®L_CHECK=true&srchinresult=false&lawsrchtype=LAW_NM&subnm=청소년복지지원법&befsubnm=청소년복지지원법&lawchk=true&ordchk=true®lchk=true&LAW_ID=A1842&PROM_NO=13181&PROM_DT=20150203&에서 2015년 3월 10일 인출.
- 청소년활동진흥법(2015.2.3.) 법률 제13182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청소년활동진흥법&BEF_SUB_NM=청소년활동진흥법&LAW_CHECK=true&ORD_CHECK=true®L_CHECK=true&srchinresult=false&lawsrchtype=LAW_NM&subnm=청소년활동진흥법&befsubnm=청소년활동진흥법&lawchk=true&ordchk=true®lchk=true&LAW_ID=A1840&PROM_NO=13182&PROM_DT=20150203에서 2015년 8월 28일 인출.
- 총무처(1957.11.05.) “재일교포 교육비 보조와 교육관 파견의 건”, 『제107회 국무회의 회의록』, <http://theme.archives.go.kr/next/cabinet/keywordSearchResultDescription.do>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 총무처(1958.08.29.) “재일교포민족교육대책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국무회의 회의록』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searchTotalUp.do>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 최길시(1991). 재외국민교육용 교재 개발 및 편찬. **재외국민교육 제6호**.
- 최상덕, 김진영, 반상진, 이강주, 이수정, 최현영(2011). **21세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미래전략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서영인, 황은희, 최영섭, 장상현, 김영철(2013).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우길(2008). 이명박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과제: 재외동포사회의 문제와 재외동포정책에 비추어,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건국 69주년 기념하계학술회의)**. 959-981.
- 카인즈(kinds)(1993.2.16). 한겨레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 전문 웹 사이트 <http://www.kinds.or.kr/>에서 2015년 10월 10일 인출.
- 카인즈(kinds)(1994.2.7). ‘동아일보 교포 현지적응 지원 강화/외무부/이민시 재산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웹 사이트 <http://www.kinds.or.kr/>에서 2015년 10월 10일 인출.

- 카인즈(kinds). 웹 페이지 http://gonews.kinds.or.kr/BEFORE_90_IMG/1970/06/13/19700613DAM01.pdf에서 2015년 10월 11일 인출.
- 한경구(1996). **세계의 한민족: 아시아·태평양**. 서울: 통일원.
-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통계연보 2008**.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재단(2013). 2013년도 수지결산서 <http://www.kref.or.jp/wordpress/wp-content/themes/website/pdf/20119>에서 2015년 10월 7일 인출
- 한국정경연구소(1974). **조총련**. 서울: 한국정경연구소.
- 한국정보화진흥원(2010). **한국사회의 15대 메가트렌드**.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2010. 10. 15). 변화하는 미래, 새로운 인재, **IT & Future Strategy, 제8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6.26.). **재외동포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15-S2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민족교육문화원 웹페이지 <http://hansaram.kr>에서 2015년 10월 15일 인출.
- 허동원, 장영배, 김기덕, 박석철, 최인원, 강지형, 최윤영(2012). 재외동포 차세대 의식조사, **2012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용역 결과보고서**(서울 : 재외동포재단), 177~264.
- 황혜경(2015). 민족정체성에 따른 재일동포인식에 관한 비교 연구. **일본문화학보 제65집**. 293-311.

<미국자료>

- American Citizens Abroad(ACA)(2011). <https://americansabroad.org/>에서 2015년 6월 13일 인출.
- American women living long-term In France (AAWE). (n.d.) <http://aaweparis.org/pages/index.html>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 Association of Americans Resident Overseas(AARO). (n.d.). <https://aaro.org/>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 D'Andrea, A.(2007). *Global Nomads: Techno and new age as transnational countercultures in Ibiza and Goa*. Abingdon, New York: Routledge.
- Department of Defence Education Activity. (DoDEA).(n.d.) <http://www.dodea.edu/>에서 2015년 9월 28일 인출.
- FAWCO. (n.d.). <http://www.fawco.org/>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 Federal Voting Assistance Program. (n.d.). <http://www.fvap.gov/vao/vag>에서 2015년 6월

- 10일 인출.
- Fulbright.(n.d.). <http://eca.state.gov/fulbright>에서 2015년 5월 7일 인출.
-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IIE)(2013). <http://www.iese.org/>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 Juvenile Law Center. <http://www.jlc.org/news-room/media-resources/youth-justice-system-overview>에서 2015년 5월 7일 인출.
- Smith, C. M.(2014). Bridging the gap: Practicing politics vs. studying politics. Overseas Vote Foundation Research Newsletter, 4(3), 3-5.
- Simpson, R. J., & Duke, C. R. (2000). American overseas schools. Bloomington, IN: Phi Delta Kappa Foundation.
- Klekowski von Koppenfels, A. (2014). Migrants or expatriates? Americans in Europ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Klekowski von Koppenfels, A.(2015). Americans abroad: A disillusioned diaspora? Migration Information Source.
<http://www.migrationpolicy.org/article/americans-abroad-disillusioned-diaspora> 2015년 10월 30일 인출.
- Office of Overseas Schools(OOS)(n.d.). <http://www.state.gov/m/a/os/index.htm>에서 2015년 5월 8일 인출.
- Office of Overseas Schools(2015). Family resources:DoD education activity schools. Military.com: Benefits & Resources. http://www.military.com/Resources/ResourcesContent/0,13964,31992-mil_status_active-1,00.html에서 2015년 10월 1일 인출.
- Overseas School Advisory Council(n.d.) <http://www.state.gov/m/a/os/c6971.htm>에서 2015년 7월 20일 인출.
- OVF Research Newsletter(2009). Office of Overseas Schools. Family resources:DoD education activity schools. Military.com: Benefits & Resources. http://www.military.com/Resources/ResourcesContent/0,13964,31992-mil_status_active-1,00.html에서 2015년 10월 1일 인출.
-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01). <https://www.census.gov/population/www/socdemo/overseas/overseas-congress-report.html>에서 2015년 6월 12일 인출.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2013.4.10). Executive budget summary-function 150 and other international programs. Fiscal Year 2014. <http://www.state.gov>

/s/d/rm/rls/ebs/2014/pdf/index.htm에서 2015년 7월 15일 인출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2013.4.10). Highlights of the Department of State an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budget. Fact Sheet. <http://www.state.gov/r/pa/prs/ps/2013/04/207281.htm>에서 2015년 7월 15일 인출.

<일본자료>

KAKEHASHI 프로젝트. ‘가케하시 프로젝트(架け橋プロジェクト)’ 웹 페이지에서 <https://www.jpff.go.jp/j/project/intel/youth/kakehashi/>에서 2015년 6월 17일 인출.

공익재단법인 해외자녀교육진흥재단. 귀국학생 수용학교 웹 페이지 <http://www.joes.or.jp/g-kokunai/indes.html>에서 2015년 8월 9일 인출.

教育基本法(2015.9.8). ‘교육기본법’ 웹 페이지 <http://law.e-gov.go.jp/htmldata/H18/H18HO120.html>에서 2015년 9월 8일 인출.

國際交流基金日米センター. 日系アメリカ人との交流事業 <http://www.jpff.go.jp/cgp/exchange/jald/>에서 2015년 11월 7일 인출.

内閣部 ‘청소년 해외유학 촉진 실행에 관한 관계 부성청의 시도’ 웹 페이지 http://www.cas.go.jp/jp/seisaku/ryuugaku/dai2/siryou2_3.pdf#search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内閣部. ‘청소년연령구분’ 웹 페이지 http://www8.cao.go.jp/youth/whitepaper/h20honpenhtml/html/sanko_02.html에서 2015년 7월 2일 인출.

内閣部. ‘청년국제교류사업’ 웹 페이지 <http://www8.cao.go.jp/youth/kouryu/data/core.html>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内閣部. ‘青少年政策’ 웹 페이지 http://www.cas.go.jp/jp/seisaku/ryuugaku/dai2/siryou2_3.pdf#search에서 2015년 11월 7일 인출.

東京學芸大學. 國際教育センター <http://crie.u-gakugei.ac.jp/>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文部科學省. ‘일본인학교’ 웹 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2/001.htm에서 2015년 9월 2일 인출.

文部科學省. ‘재외교육시설 시책’ 웹 페이지 http://www.mext.go.jp/a_menu/shotou/clarinet/002/003.html#a08에서 2015년 9월 6일 인출.

文部科學省. ‘슈퍼글로벌 대학사업’ 웹 페이지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

- o/chukyo4/012/siryo/_icsFiles /afieldfile/2014/05/15/1347725_23.pdf#search에서 2015년 11월 6일 인출.
- 文部省. '청소년해외유학촉진실행계획' http://www.cas.go.jp/jp/seisaku/ryuugaku/dai2/siryou2_3.pdf#search에서 2015년 9월 2일 인출.
- 石田智恵(2009). 1990年入管法改正を経た<日系人>カテゴリーの動態 -名づけと名乗りの交錯を通して. コア・エシックス, 5, 1-10.
-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청년연수프로그램 일정' 웹 페이지 <http://www.jica.go.jp/chotatsu/domestic/komagane/ku57>에서 2015년 11월 2일 인출.
- 日本法務省(2015.6). 在留外國人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139146>에서 2015년 11월 8일 인출.
- 일본학교교육기본법. <http://law.e-gov.go.jp/htmldata/S22/S22HO026.html>에서 2015년 9월 8일 인출.
- 임채완, 임영언, 박구용 (2013). 일제인 디아스포라, 초국적 이주루트와 글로벌 네트워크. 29-30. 서울: 북코리아.
- 자이카(JICA). <http://www.jica.go.jp>에서 2015년 11월 7일 인출.
- 자이카(JICA) '일본국제협력기구' 웹 페이지 http://www.jica.go.jp/activities/schemes/tr_youngleader/summary.html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 자이카(JICA). '청년연수프로그램 일정' 웹 페이지 <http://www.jica.go.jp/chotatsu/domestic/komagane/ku57>에서 2015년 11월 2일 인출.
- 청소년 연령 구분. http://www8.cao.go.jp/youth/whitepaper/h20honpenhtml/html/sanko_02.html에서 2015년 7월 2일 인출.
- 青少年國際交流(2015.6.17). '일본 내각부 청소년의 국제교류' 웹 페이지 <http://www8.cao.go.jp/youth/kouryu/data/core.html>에서 2015년 6월 17일 인출.
- 청소년행정의 종합적 추진. http://www8.cao.go.jp/youth/suisin/houkoku/c_1.htm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 학습지도요령. <http://sja.wikipedia.org/wiki/>에서 2015년 9월 8일 인출.
- 海外子女教育振興財団. 在外教育施設支援 <http://www.joes.or.jp/sub3.html>에서 2015년 8월 9일 인출.
- 和喜多裕一(2011). 青年海外協力隊事業の再構築に向けて—開発支援と人材養成との

兩立を目指して.立法と調査, 318, 86-97.

渡辺雅子編(1995). 共同研究 出稼ぎ日系ブラジル人 (上)論文篇 就労と生活、(下)資料篇 体験と意識. 東京: 明石書.

<중국자료>

국무원 교무관공실(僑務辦公室). '2014년도 보고 p. 4', '교무관공실의 기능과 역할' 웹 페이지 <http://www.gqb.gov.cn/zwgk/>에서 2015년 6월 10일 인출.

劉華, 程浩兵(2014). 近年來海外華文教育發展的現狀、問題及趨勢. 東南亞研究, 84.

리지아위(李嘉郁)(2009). "近年來華裔青少年中國根之旅夏令營活動的特点和發展趨勢,"『八桂僑刊』, 28-31.

바이두 백과. '신화교' 웹 페이지 <http://money.163.com/06/0904/08/2Q5OJA7T00251OBC.html>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바이두 백과. '청소년' 웹 페이지 http://baike.baidu.com/link?url=IypstpdEoywOIKhWg1zqqL3t7Dg-TmM3T-DduprIuVTg_5KnCre8A0qt4zbe6Ucq6oq3yk0VLNaXChirzSWqO9mk9gRi0XJhOciylfP1suC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바이두 백과. '화교화인' 웹 페이지 <http://baike.baidu.com/view/1066153.htm>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바이두 백과. '화예' 웹 페이지 <http://baike.baidu.com/view/71292.htm>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李嘉郁(2009). "近年來華裔青少年中根之旅夏令營活動的特点和發展趨勢," 八桂僑刊, 28-31.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웹 페이지 <http://baike.baidu.com/view/20997.htm?fromtitle=%E5%85%B1%E9%9D%92%E5%9B%A2&fromid=215034&type=syn.1>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중국소년선봉대' 웹 페이지 <http://baike.baidu.com/view/62980.htm>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청년' 웹 페이지 <http://baike.baidu.com/view/20565.htm>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중국해외교류협회. '조직구조와 네트워크' 웹 페이지 <http://www.coea.org.cn/>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중국해외교류협회. '협회 소개의 협회 영도' 웹 페이지 <http://www.coea.org.cn/xhjs/index.sht>

- ml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 중국어화문교육기금회. 웹 페이지 http://www.clef.org.cn/data.foundationcenter.org.cn/content_141.html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 중국어화문교육망. 웹 페이지 <http://www.hwjyw.com/info/content/2015/02/16/31444.shtml>에서 2015년 9월 3일 인출.
- 중국어화문교육망. 세계화문교육대회 1회 대회. 웹 페이지 http://www.hwjyw.com/info/news/200908/t20090804_30651.shtml에서 2015년 9월 1일 인출
- 陳眞(2007). “國際化背景下華文教育發展趨勢及影響研究,” 云南師範大學學報, 39.

<이스라엘 자료>

- 김수진(2000).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의 국가홍보 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네페쉬 베네페쉬. 홈 페이지 <http://www.nbn.org.il/>에서 2015년 8월 19일 인출.
- 유대기구. 웹 페이지 <http://www.jewishagency.org/sites/default/files/Customised%20Connections%202014.pdf>에서 2015년 10월 5일 인출.
- 이스라엘 이민부 홈페이지 <http://www.moia.gov.il/English/Pages/AllNews.aspx>에서 2015년 8월 19일 인출.
- 이진영·강성봉·김관준·임영언·정호원(2013). 재외동포 우수인재 모국귀환정책 비교연구. 인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 Haaretz(2013, 5.23). “Why is no Israeli minister in charge of relations with Diaspora Jews? <http://www.haaretz.com/blogs/jerusalem-babylon/why-is-no-israeli-minister-in-charge-of-relations-with-diaspora-jews.premium-1.525431>.”에서 2015년 10월 23일 인출.
- Haaretz. 웹 페이지 <http://www.haaretz.com/israel-news/israel-s-absorption-of-ethiopian-immigrants-rife-with-failures-comptroller-report-shows.premium-1.51979>에서 2015년 10월 1일 인출.
- Haaretz. 웹페이지 <http://www.haaretz.com/blogs/jerusalem-babylon/why-is-no-israeli-minister-in-charge-of-relations-with-diaspora-jews.premium-1.525431>에서 2015년 10

월 15일 인출.

정지영(2000). 이스라엘의 재외동포정책: 본국 귀환 및 정착 정책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제5권. 77~84.

<독일 자료>

BAMF(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2013). Migrationsbericht 2011 Nürnberg: Druck-Buch-Verlag.

BAMF(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2015b). Konzept für einen bundesweiten Integrationskurs (Überarbeitete Neuauflage). Paderborn: Druck-Buch-Verlag.

Bleek, W.(2003). Auslandsdeutsche. In A. Uwe, W. Woyke (Hrsg.), Handwörterbuch des politischen System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5. Aufl.) (pp. 19-22). Opladen: Leske + Budrich.

Deutsche Auslandsschulen. 'Orte der Begegnung und des interkulturellen Dialogs'. http://www.auswaertiges-amt.de/sid_CFF3409170C69FA15ACA7515C3ACAC8E/DE/Aussenpolitik/KulturDialog/SchulenJugend/Uebersicht_node.html에서 2015년 5월 25일 인출.

Die Zentralstelle für das Auslandsschulwesen(ZfA). http://www.auswaertiges-amt.de/DE/Aussenpolitik/KulturDialog/SchulenJugend/Auslandsschulwesen-ZfA_node.html에서 2015년 6월 7일 인출.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en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 (Bundesvertriebenengesetz - BVFG)(2013).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bvfg/gesamt.pdf>에서 2015년 5월 11일 인출.

Nieberg, Th.(2013). Auslandsdeutsche. Veröffentlichung unter Lizenz der Creative Commons.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ttp://www.bpb.de/gesellschaft/migration/dossier-migration/160471/auslandsdeutsche>에서 2015년 5월 15일 인출.

Nieberg, Th. (2013). Auslandsdeutsche. Veröffentlichung unter Lizenz der Creative Commons.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Schneider, J. (2005). Integration. <http://www.bpb.de/gesellschaft/migration/dossier-migration/56404/integration?p=all>에서 2015년 5월 17일 인출.

Stiftung Verbundenheit(2015). Stiftungszweck.http://stiftung-verbundenheit.de/?page_id=22에서 2015년 6월 27일 인출.

VDA(1989). Stiftung Verbundenheit. http://www.vda-kultur.de/de/ueber_uns/stiftung.php에서 2015년 6월 26일 인출.

Witte, B. C. (1990). Auswärtige Kulturpolitik und die Deutschen im Ausland. Außenpolitik, 2, 33-47.



부 록

부 록

1.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지(1차)
2.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지(2차)
3. 미래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 개발을 위한 설문지(한국어)
4. 미래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 개발을 위한 설문지(영어)
5. 미래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 개발을 위한 설문지(중국어)
6. 미래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 개발을 위한 설문지(일본어)
7. 미래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 개발을 위한 설문지(러시아어)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1차)**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전문가 의견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은 2015년도 고유사업의 하나로 「미래 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무한 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재외동포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 및 동포사회에서 앞으로 중요한 자원이 될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고 나아가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영역에서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역할과 과제 등에 대해 학계, 정책 담당자 등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귀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의견을 조사(1차 조사: 4월 13일~4월 17일, 2차 조사: 4월 27일~5월 1일)할 예정입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답변은 4월 17일까지 이메일(jyeveat@nypi.re.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전적으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 : 이 조사에서 '재외동포청소년'의 범위는 일정기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준

위촉연구위원: 이지연

응답자 성명		소속 기관	부서 (학과)명	
		주소		
조사응답 수당 관련	주민번호: 은행명·계좌번호: (은행)			

※ 최근 재외동포사회의 이슈로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재외동포 역량강화, 글로벌 한인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 우수 인재의 국내 진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질문1】 현재 재외동포사회 및 재외동포청소년과 관련된 주요 이슈는 무엇이고 향후 주요 이슈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국가의 이슈에 대해서 응답하실 필요는 없고, 관심 또는 전문 분야의 지역과 공통 이슈에 대해서 응답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u>현재</u> 이슈		주요 내용
미주	동포사회	
	동포청소년	
중국	동포사회	
	동포청소년	
일본	동포사회	
	동포청소년	
CIS	동포사회	
	동포청소년	
유럽	동포사회	
	동포청소년	
기타	동포사회	
	동포청소년	
<u>공통</u>	동포사회	
	동포청소년	

지역별 <u>미래</u> 이슈		주요 내용
미주	동포사회	
	동포청소년	
중국	동포사회	
	동포청소년	
일본	동포사회	
	동포청소년	
CIS	동포사회	
	동포청소년	
유럽	동포사회	
	동포청소년	
기타	동포사회	
	동포청소년	
<u>공통</u>	동포사회	
	동포청소년	

※ 다음의 미래 한국사회 인재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0)에서 제시한 한국사회의 15대 메가트렌드에 근거하여 미래 한국사회의 인재상을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미래 한국 사회 인재상
사회(S)	미래지향적, 사회 통합적, 글로벌 경쟁력 있는 인재
기술(T)	정보통신기술의 개발을 선도하고 활용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융합적 인재, 인간소외문제, 기술패권주의, 감시와 통제 사회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
경제(E)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의성 있는 글로벌 인재, 경제공동체 형성 유지 능력이 있는 인재, 자기 주도형 학습능력을 지닌 인재
환경(E)	친환경적 이해가 깊은 인재, 갈등해결능력이 있는 인재,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사회적 책임감이 강한 인재
정치(P)	세계시민 의식을 가진 인재, 네트워크 구축 능력이 있는 인재, 국제 간 및 남북 간 통합 능력을 갖춘 인재, 정치참여수용성이 높은 인재

또한 미국, 호주, 핀란드, 싱가포르 등 6개국이 참여하여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21세기 핵심역량의 평가와 교육(Assessment and Teaching for 21st Skills, ATC21ST) 프로젝트에서는 21세기에 시민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사고방식, 직무방식, 직무수단, 생활 방식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범주	미래인재로서 필요한 역량
사고방식	창의적, 혁신능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 자기주도학습
직무방식	의사소통력, 협동능력
직무수단	정보활용능력,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활용 능력
사회생활방식	지역·글로벌 시민의식, 인생 및 진로 개척능력,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 출처: 최상덕 외(2013).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구축(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원자료 : Adamson, F. & Darling-Hammond, L.(2013). Policy Pathways for 21st Century Skills. SCOPE Policy Analysis.

http://atc21s.org/wp-content/uploads/2013/02/ATC21S_Policy_Paper-20120730.pdf

※ 위의 표에서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재외동포청소년의 미래 인재상과 미래인재로서 필요한 능력(역량), 그리고 그 이유를 제시하여 주십시오(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재상이나 역량 중에서 혹은 그 밖에 재외동포 청소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영역	주요 내용
미래 인재상	
미래인재로서의 필요한 능력(역량)	
선정 이유	

【질문3】 재외동포청소년이 미래인재로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외동포 청소년이 미래인재로서 성장하는 어려움

【질문4】 재외동포 국가 중에서 인재개발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는 어디이고, 그 국가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심 국가	선정 이유

【질문4-1】 위에서 선정한 관심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심국의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역할	관심국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

【질문5】 재외동포청소년을 미래인재로 개발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문제점이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주요내용
정부정책의 문제점	
향후 정책방향	

【질문6】 향후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설정해야 할 재외동포청소년 정책과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역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법·제도적 측면		
시설적인 측면		
인력적인 측면		
프로그램 개발 측면		
기타 ()		

【질문7】 향후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동포사회가 재외동포청소년에게 제공해야할 지원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역	지원내용
법·제도적 측면	
시설적인 측면	
인력적인 측면	
프로그램 개발 측면	
기타 ()	

♣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2차)**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전문가 의견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은 2015년도 고유사업의 하나로 「미래 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무한 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재외동포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 및 동포사회에서 앞으로 중요한 자원이 될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고 나아가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영역에서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역할과 과제 등에 대해 학계, 정책 담당자 등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귀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의견을 조사(1차 조사: 4월 13일~4월 17일, 2차 조사: 4월 27일~5월 1일)할 예정입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답변은 4월 17일까지 이메일(jyeveat@nypi.re.kr)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전적으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 : 이 조사에서 '재외동포청소년'의 범위는 일정기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준

위촉연구원: 이지연

【질문1】 현재 재외동포사회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미주 동포사회의 현재 이슈에 대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매우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 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정치적·사회적 역량강화: 주류사회 진출					
2) 동포사회 결속 및 네트워크 구축					
3) 동포 경제 개선 문제					
4)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부정적 인식					
5) 이중 국적 취득 문제					
6) 남북 통일 문제					
7) 재외 국민 선거권					
8) 자녀 교육 및 결혼					
9) 노후 준비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1-2】 중국 동포사회의 현재 이슈에 대한 다음 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 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조선족 자치주 해체에 따른 네트워크 구축					
2) 조선족 학교 폐교 등으로 인한 민족교육 지원					
3) 조선족 동포사회와 뉴커머와의 조화					
4) 한국 내 취업·직업 교육 및 비자발급 조건 완화					
5) 도시 및 국제 이주로 인한 가족 해체					
6) 경제적 생활 안정					
7) 현지 상류사회 진출					
8) 재중 동포들의 권익 보호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1-3】 <u>일본 동포사회의 현재 이슈에</u> 대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동포사회 계층 간 이해 차이					
2) 뉴커머와 기존 정주자의 통합					
3) 한일관계 및 북일관계의 정치 이슈화					
4) 체류에 관한 안정적 법적 지위 확보					
5) 민족교육 문제					
6) 상급학교 및 주류사회 진출					
7) 험한 여론 형성으로 인한 불안감					
8) 모국 자유 왕래 기반 마련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1-4】 <u>CIS 지역의 현재 이슈에</u> 대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거주국의 경제침체로 안정적 정착, 경제적 성공의 어려움					
2) 러시아 이주자들의 러시아 국적 취득					
3) 한민족 정체성 및 한국어 능력 상실					
4) 한국 내 자유로운 거주와 노동권 등 법률의 제도화 문제					
5) 역사, 문화, 예술 활동 지원					
6) 중앙아시아 국가 언어 사용 문제					
7)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					
8) 자녀교육문제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1-5】 지역 공통의 현재 이슈에 대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동포사회 통합 및 네트워크 구축					
2) 동포사회 권리 신장 및 주류사회 진출					
3) 경제적 생활 안정					
4) 한민족 정체성 강화					
5)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와 거주국 사회의 가교역할					
6) 모국과의 네트워크 구축(한국 유학 및 취업, 연수 등의 기회)					
7) 모국에서의 권리 확대 문제(재외국민선거권, 병역, 이중국적 허용, 거주 및 노동 비자 등)					
8) 민족 교육 지원					
9) 부모와 자녀세대와의 소통 확대					
10) 국제 이해 교육 및 외국어 교육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질문2】 미래 재외동포사회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미주 지역의 미래 이슈에 대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현지 주류사회 진출					
2) 동포사회 통합 및 네트워크 구축					
3) 한인 사회의 외연 확대(다인종 한국인을 커뮤니티에 포함)					
4) 한류 등 한국사회와 미국사회의 가교 역할					
5)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 증대					
6) 남북 통일					
6) 재외국민선거권을 통해 한국 내 정치 참여 확대					
7) 모국과의 네트워크 확대(문화, 경제, 학술 교류 등)					
8) 교육을 통한 차세대 인재 양성					
9) 경제적 안정 및 노후 준비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2-2】 중국 지역의 미래 이슈에 대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연변 자치구 유지 문제					
2) 통일된 한국에 기여하는 동포 사회 역량 발전					
3) 국내 권익신장					
4) 한국 취업 및 비자 발급					
5) 민족 문화 및 언어 교육					
6) 경제적 생활 안정					
7) 국내의 반사회적 문제에 따른 대응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2-3】 일본 지역의 미래 이슈에 대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동포사회 계층 간 이해 차이 극복 문제					
2) 뉴커머와 기존 정주자의 통합					
3) 한일 및 북일 관계의 정치적 이슈화					
4) 민족교육 및 정체성					
5) 상급학교 및 주류사회 진출					
6) 혐한류 및 재일외국인 배외주의					
7) 모국 자유 왕래 기반(법적체류문제)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2-4】 CIS 지역의 미래 이슈에 대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지역 내 종교적 갈등 문제(한국 선교단체와 아랍권 국가, 러시아 정교 등)					
2) 동포들의 재정착 문제(구소련 붕괴 후 러시아 권을 떠도는 동포들의 정착 문제)					
3) 한민족 정체성 유지					
4)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영주권 취득 조건 완화					
5) 동포사회 지역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6) 현지 정치참여 및 주류사회 진출					
7) 경제적 안정					
8) 한국사회와의 네트워킹					
9) 사할린 강제 동원 피해 구제 문제					
10) 한인 이중 국적 문제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2-5】 지역 공통의 미래 이슈에 대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동포사회 통합 및 네트워크 구축					
2) 권리 신장과 정치 참여를 통한 주류사회 진출					
3) 경제적 생활 안정					
4)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					
5) 한민족 정체성 강화					
6) 모국과의 네트워크 유지 및 모국에의 기여					
7) 모국에서의 동포 권리 문제(재외국민선거권, 병역, 이중국적 허용, 거주, 노동 비자 등)					
8) 한국 유학 및 취업, 연수 등의 기회 제공					
9) 세대 간 의사소통 및 단절 문제					
10) 해외대학 등에 한국학 또는 교양과목에 대한 지원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질문3】 현재 재외동포 청소년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미주 지역의 청소년의 현재 이슈에 대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정체성 혼란					
2) 민족교육 인프라의 부족					
3) 부모세대와의 의사소통 문제					
4) 고등교육기관 입학 문제					
5) 소수민족이 받는 차별 대우					
6) 미 주류 사회에의 진출					
7) 사각 지대의 청소년 지원 문제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3-2】 중국 지역의 청소년의 현재 이슈에 대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민족정체성 유지 문제					
2) 한중 FTA에 대비한 인적자원 육성					
3) 현지 한국학교의 지원					
4) 한국에서의 교육 및 취업기회 확대					
5) 부모와의 분리된 청소년 지원 문제(부모의 도시 혹은 한국의 취업으로 가족분리 혹은 해체)					
6) 주류사회 적응 및 진출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3-3】 일본 지역의 청소년의 현재 이슈에 대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민족정체성 함양					
2)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					
3) 부모세대와의 소통					
4)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5) 민족교육의 위축					
6) 한국과의 교류					
7) 혐한류 등 재일 외국인 배외주의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3-4】 CIS 지역의 청소년의 현재 이슈에 대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고려인 정체성 유지					
2) 부모세대와의 언어·문화 단절					
3) 고등교육 기회와 취업					
4) 한국 유학 및 연수 기회					
5) 국내 체류 청소년 교육 문제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3-5】 지역 공통의 청소년의 현재 이슈에 대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차세대 민족 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					
2)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					
3) 민족교육 지원					
4) 부모세대와의 소통 기반 구축					
5) 재외동포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6) 한민족 정체성 유지					
7) 한국 청소년과의 네트워킹					
8) 차세대 단체의 육성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질문4】 재외동포 청소년과 관련된 미래 주요 이슈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미국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이슈에 대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					
2) 민족정체성 유지 및 함양					
3) 모국과 거주국에서 조화로운 역할과 가치관 정립					
4) 모국과의 교류 및 유대 강화					
5) 한국 학생들과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6) 거주국 지역의 청소년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4-2】 중국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이슈에 대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연변자치구 유지 문제					
2) 고유의 역사와 문화의 계승					
3) 한민족정체성 유지 문제					
4) 주류사회의 진출					
5) 조선족 교육을 위한 모국과의 협력					
6) 가족 해체로 인한 문제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4-3】 일본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이슈에 대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한민족 정체성 유지 및 함양					
2) 일본 내 청소년 조직기반 구축					
3) 모국 연수, 교육, 유학 등의 기회 확대					
4) 주류사회의 진출 및 상급학교 진학					
5) 반한감정에 대한 대처					
6) 남북한 통일 문제					
7) 민족학교 차별 문제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4-4】 <u>CIS지역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 이슈에</u> 대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한민족 정체성 유지 및 함양					
2) 한국과의 교류 기회 확대					
3)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					
4) 부모세대와의 의사소통 및 세대 갈등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4-5】 <u>재외동포 공통의 청소년의 미래 이슈에</u> 대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상급학교 진학 및 주류사회 진출					
2) 차세대 지역 커뮤니티 조직 및 지원					
3) 민족교육기관 지원					
4) 한민족 정체성 강화					
5) 모국과의 네트워크 유지					
6) 부모 세대와의 의사소통 증진					
7) 한국어, 문화, 역사 교육 확대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질문5】 재외동포 청소년의 미래인재상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1】 재외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상 에 대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세계시민의식을 가진 인재					
2) 네트워크 구축 능력이 있는 인재					
3) 국제 간 및 남북 간 통합능력이 있는 인재					
4) 한민족 정체성을 가진 인재					
5) 글로벌 경쟁력 있는 인재					
6) 정치 참여 수용성이 높은 인재					
7) 갈등해결 및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인재					
8) 융합적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인재					
9) 창의성을 갖춘 인재					
10) 사회적 책임 의식이 강한 인재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5-2】 재외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로서 필요한 능력 에 대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세계시민의식					
2) 창의적인 능력					
3) 의사소통능력					
4) 개인 및 사회적 책임 의식					
5) 인생·진로 개척 능력					
6) 협동 능력					
7) 비판적 사고력					
8) 문제해결능력					
9) 정보/ICT 활용 능력					
10) 타인에 대한 존중 및 배려					
11) 정보와 지식을 통합하는 능력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6-2】 관심국가의 선정이유에 대한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관심국의 정치·경제적 비중과 중요성 때문에					
2) 관심국이 다양한 인종 및 민족이 살고 있어 전세계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3) 관심국의 인재개발 효과가 크고,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4) 관심국의 경제적 환경이 어려워, 한국 기업과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					
5) 관심국과 정치, 경제, 문화, 교육면에서 교류가 빈번하기 때문에					
6) 관심국의 민족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해서					
7) 관심국의 재외동포 및 한국 유학생의 수가 많기 때문에					

【질문7】 재외동포를 미래인재로 개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 방안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1】 재외동포를 미래인재로 개발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비전 및 장기적 정책 부족					
2) 컨트롤타워 부재					
3) 국가 간 차별적 정책 부재					
4) 예산 및 인력 부족					
5) 외국적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부재					
6) 병역, 이중 국적, 노동과 거주비 문제 등 법적 문제 해결					
7) 재외동포 청소년을 격려하는 정책 부재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7-2】 재외동포청소년을 미래인재로 개발하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다음의 항목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재외동포 관련 법 제정					
2) 재외동포 관련 통일적인 정부조직 정비					
3) 거주국의 민족교육 지원 확대					
4) 모국연수, 교환학생, 유학, 취직 등의 지원 확대					
5) 지역별 맞춤형 지원 방향 설정					
6) 거주국 단체 및 한국 청소년들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7) 재외동포 청소년 기초 통계 수집 및 분석(체계적인 조사 연구)					
8) 체계적인 정책 방향 및 지원 목표 설정					
9) 현지 NGO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 방향 수립					
10) 통일시대 국제적 감각 함양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수립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8-1】 미래인재개발 전략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설정해야 할 법·제도적 측면의 정책과제로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2) 외교부에서 분리하여 재외동포처 신설					
3) 국회상임위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4) 재외동포청소년 미래 인재 육성 기본 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5) 재외동포 인구 비례로 예산 지원 규모 현실화					
6)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의료보험제도 개선					
7) 국내 기술 교육 및 취업 제도 확대					
8) 거주국 교육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9) 단기 대체 복무 등 병역문제 개선					
10) 이중국적 허용					
11) 거주 및 노동비자 확대					
12) 재외한국학교 외국인 입학 허용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8-2】 미래인재개발 전략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설정해야할 시설적인 측면의 정책과제 로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재외동포 민족학교(유치원, 초·중·고) 지원					
2) 거주국에서의 청소년교육을 위한 박물관·도서관 건립					
3) 동포청소년들이 한국 방문 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숙박 시설 확충 및 개선					
4) 국내·외 재외동포 통합지원센터 설치					
5) 지역별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센터 설치					
6) 재외동포 청소년 관련 국제회의, 포럼, 강연, 세미나 개최 혹은 개최를 위한 지원					
7) 거주국 연수센터 설치					
8) 한국교육원과 한국문화원 통합 운영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8-3】 미래인재개발 전략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설정해야할 인력적인 측면의 정책과제 로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교육부 산하 재외동포 청소년국 설치 및 담당관 배치					
2) 동포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청소년 전문 인력 양성					
3) 재외동포교육에 특화된 전문가 양성과정 개발					
4) 재외동포 청소년 교사뱅크 구축					
5) 국내 전문가와 현지 전문가의 협력 체계 구축					
6) 재외동포 전문가 자격증 신설					
7) 한국에서 교사 파견 확대					
8) 현지에서 교사 확보 및 지원 확대					
9) 미래 인재로서 한인 유학생 관리					
10) 현지 대학의 한국(어) 관련학과 학생 지원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8-4】 미래인재개발 전략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설정해야할 프로그램 개발 측면의 정책과제 로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재외동포용 한국어교재 등 콘텐츠 개발					
2) 모국 청소년과의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3) 재외동포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차세대 리더들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					
5) 거주국 청소년 활동지원과 활동대회 개최					
6) 모국 연수·교육·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7) 지자체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8) 거주국 내 지역별, 연령별 프로그램 개발 (초·중학생: 한국 알기 프로그램, 고등학생 및 대학생: 단기 교환학생 프로그램)					
9) 재외동포청소년 정체성 함양 교육 확대					
10) 군대 체험·국토대장정·문화답사 프로그램 등					
11) 거주 국가별 주요 청소년 프로그램 비교 연구					
12) 모국 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13) 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한국계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인턴십 개발)					
14) 인터넷 원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질문9】 미래인재개발 전략으로 동포사회가 지원해야 할 영역별 사항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1】 미래인재개발 전략으로 동포사회가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법·제도적 면에서 지원해야 할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법 및 제도 개선위원회 설치					
2) 민간 교육 기금 설립					
3) 현지정착(교육, 지원 등)과 국적취득에 필요한 정보 제공					
4) 한국학교 졸업생들에게 거주국 학교의 제 2외국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 요구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9-2】 미래인재개발 전략으로 동포사회가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시설적인 면에서 지원해야 할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재외동포청소년센터 확충					
2) 미래인재 개발 차원의 기숙시설 운영(타국 간 유학동포청소년 활용시설)					
3) 민족 교육시설 확충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9-3】 미래인재개발 전략으로 동포사회가 재외동포청소년 들에게 인력적 측면에서 지원해야 할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교육 담당 전문가 양성					
2) 거주국과 한국을 연계하는 정보담당 전문가 양성					
3) 거주국 교사뱅크 구축 및 운영					
4) 청소년문화대학 설립					
5) 현지인 시니어 및 실버 세대를 중심으로 인력풀 확보					
6) 선진 지역 동포사회 전문가 후진지역 동포사회 파견					
* 가장 중요한 항목 3가지 번호: ___ / ___ / ___					

미래인재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 개발을 위한 설문지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국리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각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한민족 공동체의 미래 인재로 논의되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와 요구 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다른 분들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8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수행기관			

11. 학생의 장래 희망(또는 희망하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희망하는 직업의 번호를 하나만 보기에서 골라 주세요. ()

- | | | | |
|-----------------------------|----------|-----------------|-------------|
| ① 의사 | ② 법조인 | ③ 사업가 | ④ 교사 |
| ⑤ 회사원 | ⑥ 공무원 | ⑦ 정치인 | ⑧ 간호사 |
| ⑨ 경찰 | ⑩ 요리사 | ⑪ 연예인 | ⑫ 운동선수 |
| ⑬ 과학자 | ⑭ 사회복지사 | ⑮ 외교관 | ⑯ 엔지니어 |
| ⑰ 회계사 | ⑱ 비행기승무원 | ⑲ 약사 | ⑳ 컴퓨터 프로그래머 |
| ㉑ 디자이너 | ㉒ 음악가 | ㉓ 박사, 과학자 등 연구원 | |
| ㉔ 기타 () | ㉕ 특별히없음 | | |

12. 학생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 | |
|----------------------------|----------------|
| ① 돈을 많이 버는 것 | ② 명예를 얻는 것 |
| ③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 | ④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
| 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 ⑥ 건강하게 사는 것 |
| ⑦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 ⑧ 종교생활을 잘 하는 것 |
| ⑨ 기타() | |

13. 학생이 장래 희망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두가지만 고르세요.) (,)

- | | |
|----------------------------|-------------------|
| ①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 ② 개인 능력 부족 |
| ③ 교육기회의 부족 | ④ 부모님의 관심 부족 |
| ⑤ 동포사회의 취약성 | ⑥ 현재 살고 있는 사회의 차별 |
| ⑦ 기타() | |

17. 학생은 동포청소년 및 대한민국 청소년들과 함께 한 경험이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상시 동포 청소년들과 자주 만나거나 연락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동포 청소년단체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현재 살고 있는 나라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한국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동포사회와 대한민국 사회가 재외동포 청소년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다음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살고 있는 나라에서 성공해서 동포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살고 있는 나라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동포사회와 교류하여 동포사회를 단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 경제나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국제사회에서 가교역할을 통해서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향후 학생이 동포사회나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동포청소년들과 정보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한국의 청소년과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거주하는 국가의 주류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한민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민족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학생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에서 청소년과 교류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에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한국이나 한국 관련 기업에서 인턴활동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한국이나 한국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한국의 다양한 문화(역사 유적지, K-POP 공연 등)를 경험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ID

--	--	--	--

Survey for Overseas Korean Youth

All information obtained from this survey shall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statistics, and its confidentiality is regulated by the Statistics Act (Article 33).

Hello.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s a national research center founded in 1989 and affiliated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We have performed a variety of tasks such as developing government policies and programs to support the youth in many ways.

This year, we aim to investigate the living status and demands of overseas Korean youth in order for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 policy measures, in order to support overseas Korean youth that are discussed as the future talent of the Korean community.

Your responses will be anonymous and used only as research data for policy establishment, and thus confidentiality will be ensured. Moreover, your responses will not be disclosed to others, and there is no right or wrong answer for all the questions.

We request you to provide honest and sincere answers for the questionnaire so that your views can be precisely reflected on the policies. Thank you for participating in this survey.

July 2015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http://www.nypi.re.kr>

Supervised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Relevant staff	Kyeong-jun Kim, Ji-yeon Lee
Conducted by	Ipsos Korea		

※ Please put a check mark (✓) on the number that fits your answer, or write your answer in the brackets ().

1. Which country and region are you currently living in? Country () Region () <e.g. (U.S.), (New York)>

2. Which year were you born in? Year ()

3. What is your gender? ① Male ② Female

4. What is your current status as a student?

① Middle school student ② High school student

③ Soon-to-be college student ④ College student

⑤ Other (specifically)

5. Which school are you currently attending?

① A school run by the country where you currently live ② Korean school

③ International school ④ Other ()



6. Which immigrant generation do you belong to?

- ① 1st generation ② 1.5th generation ③ 2nd generation
④ 3rd generation ⑤ 4th generation ⑥ 5th generation
⑦ Unknown

※ 1st generation immigrants: Generation of parents who first came overseas (with family)

※ 1.5th generation immigrants: Generation that had lived in Korea and later immigrated with parents

※ 2nd generation immigrants: Children born overseas by 1st generation immigrants (parents)

※ 3rd generation immigrants: Children born overseas by 2nd generation immigrants (parents)

※ 4th generation immigrants: Children born overseas by 3rd generation immigrants (parents)

※ 5th generation immigrants: Children born overseas by 4th generation immigrants (parents)

7. Are your father and mother Koreans?

- ① Only father ② Only mother
③ Both ④ Neither

8.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current family income for a living?

- ① Very insufficient ② Slightly insufficient
③ Neither insufficient nor sufficient ④ Slightly sufficient
⑤ Very sufficient

9. How is your home life with your parents?

	Never	Little	Some what	Much	A great deal
1) I use Korean when speaking with my parents.	①	②	③	④	⑤
2) My parents and I enjoy cooking and eating Korean food.	①	②	③	④	⑤
3) My parents and I often watch Korean dramas or news, or listen to Korean music.	①	②	③	④	⑤
4) My parents want me to get a job related to Korea.	①	②	③	④	⑤
5) My parents want me to marry a Korean.	①	②	③	④	⑤

10. How satisfied are you with life in the country where you currently live?

- ① Not satisfied at all ② Generally not satisfied
 ③ Somewhat satisfied ④ Generally satisfied
 ⑤ Highly satisfied

11. What is your dream job (or desired job) for the future? Choose one desired job from the following list and write down the number.()

<Examples>			
① Medical doctor	② Legal profession	③ Entrepreneur	④ Teacher
⑤ Office worker	⑥ Public official	⑦ Politician	⑧ Nurse
⑨ Police officer	⑩ Chef	⑪ Entertainer	⑫ Athlete
⑬ Scientist	⑭ Social worker	⑮ Diplomat	⑯ Engineer
⑰ Accountant	⑱ Flight attendant	⑲ Pharmacist	
⑳ Computer programmer		㉑ Designer	㉒ Musician
㉓ Researcher such as doctor or scientist		㉔ Other ()	
㉕ Nothing in particular			

12.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 ① Earning a lot of money
- ② Gaining honor
- ③ Contributing to social development
- ④ Serving others
- ⑤ Doing the things I like and am good at
- ⑥ Living a healthy life
- ⑦ Making a happy family
- ⑧ Living a good religious life
- ⑨ Other ()

13. If you have any difficulty in making your dream come true, what is it? (Choose two.) (,)

- ① Financial difficulty at home
- ② Lack of individual ability
- ③ Lack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 ④ Lack of parents' interest
- ⑤ Vulnerability of the overseas Korean community
- ⑥ Discrimination by the society in which I live
- ⑦ Other ()

14. What kind of support do you need from the overseas Korean community and the Korean government in order to achieve your dream?

- ① Financial support
- ② Support for ability development
- ③ Providing opportunities for education on ethnicity
- ④ Support for cultural exchange
- ⑤ Providing help to succeed in the country where I live
- ⑥ Other ()

15. What is your current level of Korean language skills?

	Never	Little	Some what	Much	A great deal
1) I can speak Korean.	①	②	③	④	⑤
2) I can listen to and understand Korean.	①	②	③	④	⑤
3) I can read and write Korean.	①	②	③	④	⑤

16. What do you think about the Korean race?

	Never	Little	Some what	Much	A great deal
1) I am proud to be a descendant of the Korean race.	①	②	③	④	⑤
2) I feel a sense of belonging as the Korean race.	①	②	③	④	⑤
3) I am proud of Korean history and traditions.	①	②	③	④	⑤
4) I often talk about the Korean race to others.	①	②	③	④	⑤
5) I am well aware of the background for my overseas Korean community.	①	②	③	④	⑤
6) I identify with the events or issues of the Korean race as if they are my own problems.	①	②	③	④	⑤

17. Have you ever interacted with overseas Korean youth or youth in Korea?

	Never	Little	Some what	Much	A great deal
1) I usually meet or contact overseas Korean youth often.	①	②	③	④	⑤
2) I have the experience of contacting or interacting with people from an overseas Korean youth organization.	①	②	③	④	⑤
3) I have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an overseas Korean youth camp or training held in the country where I live.	①	②	③	④	⑤
4) I have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an overseas Korean youth program held in Korea.	①	②	③	④	⑤

18. What do you think of the following roles expected from you by the overseas Korean community and the Korean society?

	Never	Little	Some what	Much	A great deal
1) I can succeed in the country where I live and develop the overseas Korean community.	①	②	③	④	⑤
2) I can publicize Korean culture in the country where I live.	①	②	③	④	⑤
3) I can interact with other overseas Korean communities to form unity of our communities.	①	②	③	④	⑤
4) I can use my ideas and abilitie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economy or society.	①	②	③	④	⑤
5) I can contribute to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by acting as a bridg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①	②	③	④	⑤

19. What kind of support do you think is needed in order for you to grow into someone who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overseas Korean community or Korean society?

	Never	Little	Some what	Much	A great deal
1) There must be more opportunities for us to visit Korea.	①	②	③	④	⑤
2) Programs that will attract overseas Korean youth must be developed.	①	②	③	④	⑤
3) It is necessary to help us actively exchange information with other Korean youth in the country where we live.	①	②	③	④	⑤
4) It is necessary to help us interact actively with youth in Korea.	①	②	③	④	⑤
5) It is necessary to help us enter the mainstream society of the country where we live.	①	②	③	④	⑤
6) Education on our ethnicity must be provided so that we can better understand the Korean race.	①	②	③	④	⑤

ID

--	--	--	--

在外同胞青少年调查问卷

本问卷调查所获得的所有内容决不用作统计目的以外，
保护秘密在统计法（第33条）当中有规定。

大家好？

韩国青少年政策研究院是1989年成立的国家利益总理室下属的国策研究机构。一直以来，韩国青少年政策研究院为了青少年的各种支援，执行政府的政策和项目开发等业务。

今年，为支援正在讨论韩民族共同体未来人才的在外同胞青少年，准备政府的政策方案，我们决定对在在外同胞青少年的实际生活情况和需求进行调查。

大家作答的内容全部采用无记名方式，仅用作制定政策的研究资料，彻底保护个人隐私和秘密。另外，大家的作答内容决不向第三人公开，所有问题的答案没有正确与错误之分。

为了大家的意见能够准确的反映给政策，希望大家能够诚实的回答问卷问题。最后，向配合调查的各位表示真诚的感谢。

2015年 7月

韩国青少年政策研究院

世宗特别自治市 市厅大路370 世宗政策研究园区 社会政策

主管机关	韩国青少年政策研究院	负责人	金英俊、李智妍
执行机关	Ipsos Korea		

7. 爸爸和妈妈是韩国人吗?

- ① 只有爸爸是韩国人 ② 只有妈妈是韩国人
③ 两位都是韩国人 ④ 两位都不是韩国人

8. 目前的家庭收入即家庭生活水平是怎样的?

- ① 非常不足 ② 略微不足
③ 既没有不足, 也不富裕 ④ 稍微宽裕
⑤ 非常宽裕

9. 和学生的父母相关的家庭生活是怎样的?

	完全不是	基本不是	一般	大体上是	完全是
1) 我和父母对话时使用韩语。	①	②	③	④	⑤
2) 我和父母喜欢做韩国料理吃。	①	②	③	④	⑤
3) 我和父母经常看韩国电视剧或者是新闻或者是经常听韩国歌曲。	①	②	③	④	⑤
4) 父母希望我能从事与韩国相关的职业。	①	②	③	④	⑤
5) 父母希望我和韩国人结婚。	①	②	③	④	⑤

10. 学生对现在所生活国家的生活满意程度是怎样的?

- ① 完全不满意 ② 不满意
③ 一般 ④ 满意
⑤ 非常满意

15. 学生的韩语能力?

	完全不是	基本不是	一般是	大体上是	完全是
1) 会说韩语。	①	②	③	④	⑤
2) 能听懂并理解韩语。	①	②	③	④	⑤
3) 会读并会写韩语。	①	②	③	④	⑤

16. 学生对大韩民族怎么看?

	完全不是	基本不是	一般是	大体上是	完全是
1) 作为韩民族的子孙后代很骄傲。	①	②	③	④	⑤
2) 对于韩民族有归属感。	①	②	③	④	⑤
3) 为韩民族的历史和传统感到骄傲。	①	②	③	④	⑤
4) 经常向别人说起韩民族。	①	②	③	④	⑤
5) 我对于我的同胞社会的背景大体了解。	①	②	③	④	⑤
6) 我认为韩民族的事情或者问题就是我的事情。	①	②	③	④	⑤

17. 学生们有过与同胞青少年及大韩民国青少年一起的经历吗?

	完全不是	基本不是	一般是	大体上是	完全是
1) 我平時經常和同胞青少年見面或者是聯系。	①	②	③	④	⑤
2) 我有過与同胞青少年團體聯系或者是一起活動的經歷。	①	②	③	④	⑤
3) 我曾參加過目前所生活的國家舉辦的同胞青少年野營或者是研修。	①	②	③	④	⑤
4) 我曾參加過在韓國舉辦的同胞青少年活動。	①	②	③	④	⑤

18. 同胞社会和韩国社会对在外同胞青少年们所期待的如下作用怎么看?

	完全不是	基本不是	一般是	大体上是	完全是
1) 在现在所生活的国家取得成功, 促进同胞社会发展。	①	②	③	④	⑤
2) 向现在所生活的国家传播韩国文化。	①	②	③	④	⑤
3) 帮助和其他同胞社会交流, 团结同胞社会。	①	②	③	④	⑤
4) 灵活利用我的观点和能力, 帮助韩国经济或社会发展。	①	②	③	④	⑤
5) 在国际社会通过桥梁作用, 为南北统一做贡献。	①	②	③	④	⑤

19. 今后, 为了学生成长为可为同胞社会或是韩国社会的发展做贡献, 你认为需要什么样的支援?

	完全不是	基本不是	一般是	大体上是	完全是
1) 提供更多可以访问韩国的机会。	①	②	③	④	⑤
2) 开发在外同胞青少年感兴趣的项目。	①	②	③	④	⑤
3) 帮助与现在所生活国家的同胞青少年进行积极的信息交流。	①	②	③	④	⑤
4) 帮助与韩国的青少年进行活跃的交流。	①	②	③	④	⑤
5) 帮助进驻现在居住国家的主流社会。	①	②	③	④	⑤
6) 为更加了解韩民族, 应该支援民族教育。	①	②	③	④	⑤

20. 学生对如下活动怎么看?

	完全不是	基本不是	一般是	大体上是	完全是
1) 想在韓國和青少年交流。	①	②	③	④	⑤
2) 想在韓國參加研修項目。	①	②	③	④	⑤
3) 想去韓國留學。	①	②	③	④	⑤
4) 想在韓國或者是韓國相關企業實習。	①	②	③	④	⑤
5) 想在韓國或者是韓國相關企業就業。	①	②	③	④	⑤
6) 想體驗韓國各種各樣的文化(歷史古蹟、K-POP 公演等)。	①	②	③	④	⑤

21. 学生想在韩国接受教育或者是就业，但是如果有妨碍因素的话，是下列中的哪一个？

- ① 没有韩国国籍 ② 韩语不流利
- ③ 没服兵役 ④ 韩国的教育和就业信息不足
- ⑤ 在韩国接受教育并可就业的机会不足
- ⑥ 经济上的困难 ⑦ 其他 ()

22. 学生对韩国感兴趣，对其产生主要影响的是什么？

- ① 父母或者是周边长辈们的关心和教育 ② 周边朋友的关心和对话
- ③ 通过韩流电视剧或者是 K-POP等 ④ 浏览网页或者是 SNS活动
- ⑤ 韩语学校等的韩语教育 ⑥ 个人性的访问韩国
- ⑦ 交换学生或者是访问韩国活动 ⑧ 韩民族野营或者是庆典
- ⑨ 其他()

♡ 感谢您的作答。请再次检查确保没有遗漏问题 ♡

ID

--	--	--	--

在外同胞青少年に関するアンケート

皆様に御回答いただいたアンケートの内容は、統計作成の目的以外に使用することは絶対にできず、その秘密が保護されるよう統計法(第33條)に定められています。

韓国青少年政策研究院は1989年に設立された國務總理室傘下の國策研究機關であり、その間、青少年に對する各種支援に向けた政府政策及びプログラムの開發などの業務を遂行して參りました。

今般、韓国青少年政策研究院では、韓民族共同体の未來人才として議論されている在外同胞青少年への支援に向けた政府政策を設けるべく、在外同胞青少年の生活實態と要求などについて調査を行うことになりました。

皆様にお答えいただいた内容は、無記名に處理され、政策樹立のための研究資料の目的のみに使用されますので、個人秘密が徹底して保護されます。また、ご回答の内容が他の者に見られることは一切ございません。そして、すべての質問には正解も誤答もありません。

皆様のご意見が政策に正確に反映されるよう、率直にご回答いただきな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貴重なお時間をご割愛いただきましたこと、改めて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

2015年7月

韓國青少年政策研究院

世宗特別自治市市廳大路370世宗國策研究団地社會政策棟

<http://www.nypi.re.kr>

主管機關	韓國青少年政策研究院	担当者	金ギョンジュン、李ジョン
遂行機關	Ipsos Korea		

※以下の質問について あてはまるものを選んでください。または)欄直接書きください。

1. あなたが住んでいる国と地域はどこですか 国家() 地域()
<例、 (アメリカ)、 (ニューヨーク市)>
2. あなたの生年はいつですか ()年
3. あなたの性別はどちらですか
① 男性 ② 女性
4. あなたの身分は
① 中學生 ② 高校生 ③ 予備大學 ④ 大學生 ⑤ その他(具体的に)
5. あなたが現在通っている学校は何ですか
① 現在住んでいる国家で運営している学校 ② 韓國學校
③ 國際學校 ④ その他()
6. あなたは移民何世代です
① 1世代 ② 1.5世代 ③ 2世代 ④ 3世代 ⑤ 4世代 ⑥ 5世代 ⑦ 分からない

- ※ 移民世代: (家族を連れて) 初め外國で両親世代
- ※ 移民1.5世代: 韓國で住んでいて、ご両親と一緒に移民した世代
- ※ 移民2世代: 移民世代のご両親外國で生んだ子女
- ※ 移民3世代: 移民2世代のご両親外國で生んだ子女
- ※ 移民4世代: 移民3世代のご両親外國で生んだ子女
- ※ 移民5世代: 移民4世代のご両親外國で生んだ子女

7. ご両親は韓國の方ですか
① お父さんだけ韓人 ② お母さんだけ韓人
③ お二人とも韓人 ④ お二人とも韓人ではない

16. あなたは韓民族についてどう思いますか

	全く そう では ない	やや そう では ない	普通	やや そう だ	非常 に そう だ
1) 韓民族の子孫であることを誇らしく思う	①	②	③	④	⑤
2) 韓民族に対する所属感を感じる	①	②	③	④	⑤
3) 韓民族の歴史と伝統を誇らしく思う	①	②	③	④	⑤
4) 他人に韓民族についてよく話す	①	②	③	④	⑤
5) 自分は自分が所属する同胞社会の背景についてよく知っている	①	②	③	④	⑤
6) 自分は韓民族の事件や問題が自分の事のように感じられる	①	②	③	④	⑤

17. あなたは同胞青少年や韓国青少年と一緒に何かをした経験がありますか

	全く そう では ない	やや そう では ない	普通	やや そう だ	非常 に そう だ
1) 私は普段同胞青少年とよく會ったり連絡をする	①	②	③	④	⑤
2) 私は同胞青少年団体の人々と連絡したり、一緒に活動したことがある	①	②	③	④	⑤
3) 私は現在住んでいる國で開かれる同胞青少年キャンプや研修に参加したことがある	①	②	③	④	⑤
4) 私は韓国で開かれる同胞青少年プログラムに参加したことがある	①	②	③	④	⑤

18. 同胞社會と韓國社會が在外同胞青少年の皆様にご期待する次の役割について、どう 思 いますか。

	全くそ うでは ない	ややそ うでは ない	普通	やや そうだ	非常に そうだ
1) 現在住んでいる國で成功し、同胞社會の發 展に貢獻したい	①	②	③	④	⑤
2) 現在住んでいる國において、韓國文化を發 信したい	①	②	③	④	⑤
3) 他の同胞社會と交流し、同胞社會の團結に 貢獻したい	①	②	③	④	⑤
4) 私のアイディアと能力を活かし、韓國經濟 や社會の發展に貢獻したい	①	②	③	④	⑤
5) 國際社會において掛け橋の役割をし、南北 統一に貢獻したい	①	②	③	④	⑤

19. 今後、あなたが同胞社會や韓國社會の發展に貢獻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成長するた
めには、どのような支援が必要だと思いますか

	全くそ うでは ない	やや そ う では ない	普通	やや そ う だ	非常 に そ う だ
1) 韓國に訪問できる機會をより多く提供す べきである	①	②	③	④	⑤
2) 在外同胞青少年が關心を持つことのでき るプログラムを開發すべきである	①	②	③	④	⑤
3) 現在住んでいる國の同胞青少年と活發に 情報交流ができるよう支援すべきである	①	②	③	④	⑤
4) 韓國の青少年と活發に交流できるよう支 援すべきである	①	②	③	④	⑤
5) 現在居住する國の主流社會に進出できる よう支援すべきである	①	②	③	④	⑤
6) 韓民族に對してよく分かるように民族教 育を支援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①	②	③	④	⑤

20. あなたは次のような活動についてどう思いますか

	全くそ うでは ない	ややそ うでは ない	普通	やや そうだ	非常に そうだ
1) 韓国で青少年と交流したい	①	②	③	④	⑤
2) 韓国で研修プログラムに参加したい	①	②	③	④	⑤
3) 韓国で留學したい	①	②	③	④	⑤
4) 韓国や韓国関連企業でインターンシ ップ活動をしたい	①	②	③	④	⑤
5) 韓国や韓国関連企業に就職したい	①	②	③	④	⑤
6) 韓国の多様な文化(歴史遺跡、K-POP 公演など)を経験したい	①	②	③	④	⑤

21. あなたが韓国で教育を受けたり就職したりしたいのに、それを妨害する要因がある
とすれば、何ですか

- ① 韓国国籍がないこと
- ② 韓国語が上手ではないこと
- ③ 軍服務をしていないこと
- ④ 韓国の教育と就職に対する情報が足りないこと
- ⑤ 韓国で教育を受けて就職することができる機会が足りないこと
- ⑥ 経済的に厳しいこと
- ⑦ その他()

22. あなたが韓国に対する関心を持つ上で、主に影響するものは何ですか

- ① 両親や周りの大人たちの関心と教育
- ② 回りの友達の関心と會話
- ③ 韓流を通じたドラマやK-POPなど
- ④ インターネットサイトの訪問やSNS活動
- ⑤ 韓国語學校などの韓国語教育
- ⑥ 個別の韓国訪問
- ⑦ 交換學生や韓国訪問プログラム
- ⑧ 韓民族キャンプやお祭り
- ⑨ その他()

♡ 記入漏れや記入ミスがないかご確認をお願いいたします。

アンケート調査へのご回答にご協力頂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Идентификатор

--	--	--	--

Опрос для молодых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Информация, полученная при проведении опроса, будет держаться в строгой тайне, и не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на для целей, иных, нежели статистическая обработк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статистик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т.33).

Здравствуй те!

Национ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Кореи является национальным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м учреждением пр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е. Институт был создан в 1989 году. Со времени своего основания, Институт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Кореи разрабатыва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олитику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молодежи, а также различные программы поддержки.

В этом году мы проводим опрос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молодых корейцев, чтобы определить их реальное состояние и требования. Опрос проводится для выработ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и оказания поддержки молодым корейцам, поскольку они являются будущим и ценным человеческим ресурсом всемирной общины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Вся информация, полученная из ваших ответов, будет обработана анонимно, и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только как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материал для разработки политики. Ваша персона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будет содержаться в строгой тайне. Кроме того, работники не увидят полное содержание ваших ответов, а у вопросов нет правильного или неправильного ответа.

Просим честно и внимательно ответить на вопросы, чтобы ваше мнение оказало влияние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олитику. Искренне благодарим вас за участие в данном опросе.

Июль 2015 г. Национ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Кореи

г. Седжонг, Сичонг-дэро 370, комплекс исследований в обла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Седжонг», павильон обще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http://www.nypi.re.kr>

Организатор	Национ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Кореи	Отвечающие	Ким Кёнг Джун, Ли Джи Ён
Исполнитель	Компания «Ипсос Корея»		

※ Для всех вопросов отметьте №. ответа галочкой (✓), либо напишите ответ в скобках.



부
록

7. Являются ли корейцами ваш отец и мать?

- ① только отец; ② Только мать;
- ③ оба родителя корейцы; ④ оба родителя не корейцы

8. Как вы оцениваете текущий уровень семейного дохода, насколько достаточно денег для проживания семьи?

- ① совсем не хватает; ② немного не хватает;
- ③ более или менее хватает; ④ вполне хватает;
- ⑤ более чем хватает

9. Как вы общаетесь с родителями в семье?

	Категорически нет	Нет	Средне	Да	Категорически да
1) Мы разговариваем с родителям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①	②	③	④	⑤
2) Мы с родителями любим готовить и кушать корейские блюда	①	②	③	④	⑤
3) Мы с родителями часто смотрим корейские телесериалы, слушаем корейские песни	①	②	③	④	⑤
4) Родители хотят, чтобы я имел(а) профессию, связанную с Кореей	①	②	③	④	⑤
5) Родители хотят, чтобы я создал(а) семью с корейкой (корейцем)	①	②	③	④	⑤

10. Насколько вам нравится жизнь в стране, в которой вы сейчас проживаете?

- ① совершенно не нравится; ② не нравится; ③ средне; ④ нравится;
- ⑤ очень нравится

11. Каковы ваши планы на будущее/желаемая профессия? Из нижеприведенных вариантов выберите одну желаемую профессию().

<Варианты>

- ① врач; ② юрист; ③ бизнесмен; ④ учитель;
 ⑤ сотрудник компании; ⑥ госслужащий; ⑦ политик; ⑧ медсестра;
 ⑨ полицейский; ⑩ повар; ⑪ артист или актер; ⑫ спортсмен;
 ⑬ ученый; ⑭ социальный работник; ⑮ дипломат; ⑯ инженер;
 ⑰ бухгалтер; ⑱ бортпроводник; ⑲ фармацевт; ⑳ программист;
 ㉑ дизайнер; ㉒ музыкант;
 ㉓ исследователь/ведущий сотрудник института/доктор наук; ㉔ прочее ();
 ㉕ нет особых желаний

12. Что для вас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важным в жизни?

- ① заработать много денег; ② заработать репутацию;
 ③ внести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общества; ④ помочь другим людям;
 ⑤ работать в любимой области, там, где у меня имеются способности;
 ⑥ жить здорово, не страдая от болезни; ⑦ создать счастливую семью;
 ⑧ жить праведной религиозной жизнью; ⑨ прочее ()

13. Какие сложности мешают вам осуществить вашу мечту? Из нижеприведенных примеров выберите только два пункта: (,)

- ①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ложности в семье;
 ② не хватает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способностей ;
 ③ отсутствие возможности получить образование;
 ④ недостаток родительской заботы;
 ⑤ уязвимость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⑥ дискриминация в обществе, где я живу;
 ⑦ прочее ()

14. Какая поддержка необходима от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реи, чтобы вы смогли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и планы на будущее?

- ① экономическая поддержка;
- ② поддержка для развития способностей ;
- ③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возможности получить народ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 ④ поддержка межкультурных связей ;
- ⑤ помощь, чтобы добиться успеха в стране, где я живу;
- ⑥ прочее ()

15. Ваш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Категорически нет	Нет	Средне	Да	Категорически да
1) Могу говорить на корейском	①	②	③	④	⑤
2) Могу понимать корейский	①	②	③	④	⑤
3) Могу писать и читать на корейском	①	②	③	④	⑤

16. Как вы относитесь к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Категорически нет	Нет	Средне	Да	Категорически да
1) Горжусь тем, что я являюсь выходцем из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①	②	③	④	⑤
2) Чувствую, что я принадлежу к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①	②	③	④	⑤
3) Горжусь историей и традициям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①	②	③	④	⑤
4) Часто говорю другим людям о корейском народе	①	②	③	④	⑤
5) Хорошо знаю исторический фон общины мо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①	②	③	④	⑤
6) Принимаю события и проблемы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как свои	①	②	③	④	⑤

17. Когда-нибудь вы общались с молоды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атегорически нет	Нет	Средне	Да	Категорически да
1) В обычное время я часто встречаю молод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мею с ними связь	①	②	③	④	⑤
2) У меня есть связи с членами молодеж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пыт совмес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①	②	③	④	⑤
3) Я участвовал(а) в молодежном лагере или в обучающей программ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ая проводилась в стране, где я живу	①	②	③	④	⑤
4) Я участвовал(а) в молодежной программ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ая проводилась в Корее	①	②	③	④	⑤

18. Какое мнение у вас о том, что обществ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ожидают от вас?

	Категорически нет	Нет	Среднее	Да	Категорически да
1) Смогу добиться успеха в стране, где живу, а также содей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общины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①	②	③	④	⑤
2) Смогу информировать о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в стране, где я сейчас живу	①	②	③	④	⑤
3) Смогу помочь объединить общину коре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через обмен с корейскими общинами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①	②	③	④	⑤
4) Смогу содействовать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или общественному развитию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спользуя свои творческие идеи и способности	①	②	③	④	⑤
5) Смогу внести вклад в объединение двух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выполняя функции моста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обществе	①	②	③	④	⑤



19. По вашему мнению, какая поддержка нужна вам, чтобы вы стали человеком, который может внести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общества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л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атегорически нет	Нет	Среднее	Да	Категорически да
1) Больше возможностей посетить Корею	①	②	③	④	⑤
2) Программа, которой могут интересоваться молод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①	②	③	④	⑤
3) Активный обмен информацией с молоды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живущими в стране, где живу сей час я	①	②	③	④	⑤
4) Активный обмен с молодежью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①	②	③	④	⑤
5) Помощь во вхождении в общество страны, где я сей час живу	①	②	③	④	⑤
6) Поддержка для получения народ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чтобы я мог(могла) получить хорошие знания о корейском народе	①	②	③	④	⑤

20. Что вы думаете о следующих вид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Категорически нет	Нет	Средне	Да	Категорически да
1) Хочу общаться с молодежью Кореи	①	②	③	④	⑤
2) Хочу участвовать в программе стажировки в Корее	①	②	③	④	⑤
3) Хочу получить образование в Корее	①	②	③	④	⑤
4) Хочу стажироваться в Корее, либо в компании, которая связана с Кореей	①	②	③	④	⑤
5) Хочу найти работу в Корее, либо в компании, которая связана с Кореей	①	②	③	④	⑤
6) Хочу приобщиться 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историческое наследие, K-POP концерты и т. д.)	①	②	③	④	⑤

21. Что мешает вам получить образование или найти работу в Корее,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желание?

- ① нет гражданства Кореи;
- ② нет хорошего зн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③ не служил в армии;
- ④ не хватает информации об образовании и работе в Корее;
- ⑤ мало возможностей получить образование или найти работу в Корее;
- ⑥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ложности;
- ⑦ прочее ()

22. Что больше всего влияет на ваш интерес к Корее?

- ① забота и воспитание родителей 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 ② интересы и разговоры друзей ;
- ③ корейские телесериалы, K-POP - корейская волна;
- ④ посещение сайтов и активность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 ⑤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 школ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⑥ лич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в Корею;
- ⑦ программа обмена студентами и посещение К
- ⑧ лагерь или фестивалей со всего мира; ⑨ прочее ()

♡ Спасибо за ваши ответы. Пожалуйста, еще раз проверьте, что нет пропущенных вопросов♡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5-R01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이경상·조용하
- 15-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II / 최창욱·문호영·김진호
- 15-R02-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II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문호영
- 15-R03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연구 / 배상률
- 15-R04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김영석·김혁진
- 15-R0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김인규
- 15-R06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 김기현·황세영·이경자·강영배
- 15-R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I / 황여정·김정숙·이수정·변정현
- 15-R08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김지경·정연순
- 15-R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백해정·송미경
- 15-R10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좌동훈·박세경·한미경
- 15-R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 : 총괄보고서 / 김영지·김희진·이민희·박선영
- 15-R1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 : 청소년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의 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 김진석
- 15-R1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 : 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김희진
- 15-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I : 총괄보고서 / 김영한·오해섭·성윤숙·정윤미
- 15-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I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 과 추진전략 개발 / 오해섭·김세광
- 15-R12-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I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성윤숙·홍성호
- 15-R12-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III :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연구 / 김영한·정윤미
- 15-R1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II : 총괄보고서 / 김현철·모상현·오성배
- 15-R13-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III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현철·모상현
- 15-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II : 위기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이유진·박선영
- 15-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II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모형 개발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강경균·이춘우
- 15-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I / 김경준·김태기
- 15-R15-1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 이진영·장안리·김판준·임영언·정호원·성일광
- 15-R16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VI : 사업보고서 / 이종원·서정아·정은주·강현철·한영근
- 15-R16-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VI : 데이터분석보고서1 -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서정아

15-R16-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2 -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 정은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윤철경·최인재·유성렬·김강호 (자체번호 15-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5-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조사결과자료집 / 윤철경·최인재 (자체번호 15-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 김태준·오민아·이영훈 (자체번호 15-R18-3)

연구개발적립금

- 15-R19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 김정숙·김기현·황세영
- 15-R20 대학비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윤민중·김기현·한도희

수 시 과 제

- 15-R2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 김영지·김희진
- 15-R22 '사회적 통증' 개념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이해 : 중독과 자살생각 / 장근영·전우영
- 15-R2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황세영·조성화
- 15-R23-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워크북 / 황세영·조성화·곽정난·김경전·현명주
- 15-R24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 김현철
- 15-R25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 김정숙·김기현
- 15-R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 김지연

- 15-R2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 좌동훈
- 15-R2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 · 좌동훈 · 강경균 · 김정숙 · 황세영 · 문호영 · 윤민중
- 15-R29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김지연
- 15-R30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 김기현 · 김형주
- 15-R31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김지경 · 윤민중
- 15-R32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좌동훈
- 15-R3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 이경상 · 장원경
- 15-R34 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 기본방향 마련 / 최창욱 · 한도희
- 15-R35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 · 청소년 · 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 문호영 · 최창욱

수 탁 과 제

- 15-R36 청소년활동 증장기 수요 및 공급기반 조성 연구 / 김영한 · 유성렬 · 임성택 · 주동범
- 15-R37 2014년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 · 유홍식 · 김동일
- 15-R38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이유진 · 김영한
- 15-R39 2015년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 · 최홍일
- 15-R40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증장기 발전방안 / 백혜정 · 좌동훈
- 15-R41 청소년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 · 전명기
- 15-R42 청소년 디지털 매체 및 서비스 이용실태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김희진
- 15-R42-1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사례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김희진
- 15-R43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최인재 · 이경상 · 김정숙 · 장근영
- 15-R44 청소년 · 가족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 · 조성은
- 15-R45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 · 최인재
- 15-R46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위상 정립방안 모색 연구 / 김현철 · 최창욱
- 15-R47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 김지경 · 이상준
- 15-R48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효과 분석 / 최창욱 · 성은모 · 정윤미
- 15-R49 201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김기현
- 15-R50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 김기현 · 김형주 · 박성재 · 민주홍 · 김종성
- 15-R51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이용교
- 15-R52 성남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15-R5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5 / 김희진 · 이종원 · 유성렬 · 김진석
- 15-R5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15-R55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 15-R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2015년 사업 효과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영지 · 정은주 · 김정주
- 15-R56-1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연구 / 정은주

- 15-R57 과학적 실행 중심 모형기반 생명과학 교수학습 디자인 실험연구 / 황세영
- 15-R58 2015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 / 황세영 · 윤민중
- 15-R59 휴먼네트워크 협력기관 실태조사 / 성은모 · 강경균
- 15-R60 청소년의 'X-질문'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강경균
- 15-R61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중장기 계획 연구 / 김영한 · 임지연
- 15-R62 휴먼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 연구 / 성은모 · 서동인
- 15-R63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연구 / 김영한 · 오해섭 · 정윤미
- 15-R64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모상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5-S0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결과 공개 보고회 (1/19)
- 15-S02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 (2/9)
- 15-S03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23~27)
- 15-S04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23~27)
- 15-S05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3~27)
- 15-S06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3~27)
- 15-S07 2014년도 제1차 연구성과발표회 (3/12)
- 15-S08 2014년도 제2차 연구성과발표회 (3/13)
- 15-S09 일본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3/31)
- 15-S10 2015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4/16)
- 15-S11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위원 워크숍 (4/28)
- 15-S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4/29)
- 15-S13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12~13)
- 15-S14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8~19)
- 15-S15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26~27)
- 15-S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28~29)
- 15-S17 교육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청소년 정책 : 지역 방과 후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18~19)
- 15-S18 2015년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1)
- 15-S19 2015 청소년 문화와 안전 국제포럼 (6/4)
- 15-S20 2015년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 컨설팅위원 워크숍 (6/4)
- 15-S21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6/26)
- 15-S22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I 데이터 분석 세미나 (7/2)
- 15-S23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7/8~10)
- 15-S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관계자 워크숍 (7/9~10)
- 15-S25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1권역 (7/27~28)
- 15-S26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2권역 (7/28~29)
- 15-S27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권역 (8/3~4)

- 15-S28 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7/30~31)
- 15-S29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7/22)
- 15-S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사례 (8/11)
- 15-S31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담당자 교육 워크숍 (8/21)
- 15-S32 제2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 (9/17)
- 15-S33 민족정체성 확립의 역량을 미치는 4가지 주요요소 : 1960년대 및 70년대 초와 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자라난 젊은세대의 비교 (9/14)
- 15-S34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5 (9/16)
- 15-S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9/18)
- 15-S36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0/19)
- 15-S37 제5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23)
- 15-S38 한·중 국제세미나 (10/27)
- 15-S39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워크숍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10/21~22)
- 15-S40 제4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한·러 차세대 전무가 대화 : 동북아미래를 위한 한·러 청소년(차세대) 정책 협력 (11/17)
- 15-S41 국회다정다감포럼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 (11/5)
- 15-S42 2015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담당자 워크숍 (11/26~27)
- 15-S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심화워크숍 (12/17~18)
- 15-S4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12/10)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7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7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7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4호(통권 제79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9호 :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0호 :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1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2호 :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3호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4호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9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0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1호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Ⅳ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2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3호 :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 현황과 이용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 KCYPS 초1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4호 : 청소년 체험·여행·문화활동과 삶의 만족도
 - KCYPS 초4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5호 : 초등학교 학생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분석 - KCYPS 초4 패널 -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호 : 지금, 이 시대 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주목해야하는가?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호 :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쟁점 사례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한가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4호 :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6호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7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8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9호 : 그 나라는 어때? 세계의 청소년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0호 :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1호 :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2호 : 청소년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해외사례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3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인성교육 실태와 과제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4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5호 : 청소년 나눔활동 연구의 필요성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6호 :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현황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7호 : 국가 근로 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8호 : 재외동포청소년의 주요 이슈와 지원 방안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9호 :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0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개발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1호 :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2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추진 기본방향 마련 연구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3호 : 학령기에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4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 청소년현안 Blue Note 봄호
- 청소년현안 Blue Note 여름호
- 청소년현안 Blue Note 가을호
- 청소년현안 Blue Note 겨울호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how to foster young overseas Koreans as next-generation talent in the global era, and introduce policy considerations so as to support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alented young overseas Koreans and further enable them to contribute to Korean national community development.

The studies herein — based on the review of foreign cases, the Delphi survey, youth surveys, etc. — mainly focus on the analysis of policies of Korea and that of other countries related to young overseas nationals, expert opinions, and demands of young overseas nationals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policy support measures and so forth. The Association for the Studies of Koreans Abroad (ASKA) was asked to study and analyze policies on young overseas nationals of five countries, i.e., the U.S., Japan, China, Germany, and Israel. Two rounds of the Delphi survey were conducted among 30 relevant experts to gather feedback on the significance of young overseas nationals as next-generation talent, setting policy direction, major policy considerations, etc. The youth surveys pertaining to living status, Korean national identity, etc., were carried out among roughly 700 young overseas Koreans who entered Korea via the application process of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OKF).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is paper sets out the policy vision for fostering young overseas Koreans — the objective goes above and beyond helping young overseas Koreans adjust in his/her residing country, to be aimed at contributing to Korean national community development, and further, enabling them to become a part of the global community. A total of 41 policy considerations were derived from the study results and then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i) improvement of legal system; (ii) establishment of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iii) fostering and support

of experts on young overseas nationals; and (iv)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programs. This paper also presents special policy measures for consideration depending on regional characteristics, i.e., young Korean-Americans, young Korean-Chinese, young Korean-Japanese, and young ethnic Koreans.

***Key words:** overseas nationals, young overseas nationals, global, next-generation talent, Korean nationals, Korean national community, Korean-Americans, Korean-Chinese, Korean-Japanese, ethnic Koreans*

연구보고 15-R15

**미래 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I**

인 쇄 2015년 12월 24일

발 행 2015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범신사 전화 042) 254-873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979-11-5654-080-9 94330

979-11-5654-063-2 (세트)